

경기도  
전통종가  
여성생활사



경기도

경기도  
전통종가  
여성생활사



경기도

## 경기도 전통종가 종부들의 삶의 이야기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경기여성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빛낸 역사적인 여성인물들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비롯하여 경기도를 빛낸 여성인물들을 재조명하는 학술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존하는 여성인물들에 대한 구술사업으로 경기도에 소재하는 전통종가 종부 일곱 분의 삶에 대한 생생한 구술 내용을 이 책에 수록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근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전쟁이라는 급격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가치 규범을 면면히 이어온 전통종가의 종부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살아온 구체적인 삶을 심층 면담을 통해 구성·복원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가치체계가 현대적인 가치체계로 변화되어 가는 시대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였으며 여성들의 자의식이 개인

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형성·변화·발전되어 왔는지를 되돌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의 행적에 대한 확인을 통해 여성들의 존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선언적이고 당위적인 방식이 아니라 '종갓집'이라는 전통시대의 구체적인 핵심매개를 통해 역사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구술사업이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의식을 조망할 수 있고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의 삶을 이해하는 데 좋은 길라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 사업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번 사업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일곱 분의 종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 3월  
경기도지사 손학규

## 일러두기

1. 이 책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경기도 내 전통종가 종부 7명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심층 면담과 구술작업을 통해 녹취된 내용을 정리하여 발간한 것으로 대부분의 작업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2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안산시 진주 유씨 권보남 차종부의 경우는 2003년 6월부터의 작업내용을 반영하였다.
2. 본 작업은 전통종가의 삶과 의례를 복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종가의 규범 테두리 속에서 일생을 살아온 여성들의 삶의 궤적을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구술을 통해 생생하게 복원·재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이 책에 수록된 인물은 1999년 경기도가 추진한 「전통종가 발굴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종가를 기초자료로 하여 선정하였으며, 해당 종가의 외양적 크기 규모나 사회적 영향력과는 무관하게 철저히 인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4. 이 책에 수록된 인물의 선정은 조사자 개인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여 이루어졌으며, 조사자 전체의 준비모임을 통해 필요한 사전 검토와 조정작업을 진행하였다.
5.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대상 인물의 주관적인 생각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기록하여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조사자의 견해는 해당 글의 앞부분에 별도로 밝혀두었다. 또한 필요할 경우 본문에 일부 주를 달아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다만, 안산·평택시 두 지역의 경우, 본 작업 진행 전에 이미 선행조사작업이 상당수 이루어졌던 사정을 감안하여 조사자의 직접적인 견해를 구술내용과 함께 병행하여 서술하였다.
6.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구술대상자 본인의 최종적인 확인과 검토과정을 거쳐 발간하였다.

# 차 례

발간사 · 2

일러두기 · 4

## 종갓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집을 온 거예요

- 의왕시 평산 신씨 이영희 종부의 구술생애사

### I. 개 관 · 17

1. 조사대상의 선정 · 17

2. 의왕시의 평산 신씨에 대하여 · 19

3. 이영희 종부의 생애사 요약과 의의 · 20

### II. 이영희 종부의 생애사 연표 · 23

### III. 이영희 종부의 구술생애사 · 24

1. 어린 시절 · 24

부모님과 형제들 · 24

배우고 싶어 찾아간 국민학교 · 24

정신대에 대한 짝막한 기억 · 26

2. 혼인과 시가생활 · 26

19세에 혼인하다 · 26

초창기 시집살이 · 28

친정나들이 · 30

4년간의 결혼생활 · 31

출산과 몸조리 · 32

3. 할머니의 육이오 · 35

남편의 실종 · 35

- 의왕에서 버틴 6·25 피난생활 · 36
4. 고단한 생계유지 · 39  
 가사 노동 · 39  
 땀별 아래 보리 털기 · 42  
 소질없는 장사 · 44  
 남편없이 산다는 것 · 45
5. 종부로서의 삶 · 47  
 제사와 명절 · 47  
 실에서 보름 명절까지의 짧은 휴가 · 50  
 효부상 · 51  
 부곡으로 이사 나오다 · 52
6. 새마을운동과 부녀회장 · 54  
 연탄 아궁이의 감동 · 54  
 부녀회장, 아! 세상 냄새 · 55
7. 가족 이야기 · 56  
 친정 부모님 · 56  
 시할아버지와 시할머니 그리고 시부모님 · 57  
 아들, 며느리, 손녀딸들 · 60
8. 최근의 일상생활 · 63  
 불교 신자로 사는 인생 · 63  
 좋은 친구들 · 63
- 에필로그 · 65

## 남의 집 종부는 손가락만 빨아도 좋다고들 해

- 화성시 해풍 김씨 이신열 종부의 구술생애사

### I. 내가 만난 이신열 종부 · 69

1. 구술 기록 과정 · 69
2. 해풍 김씨 · 71
3. 이신열 종부 · 72

II. 이신열 종부의 생애사 연표 · 75

III. 이신열 종부의 구술생애사 · 76

1. 어린 시절 · 76

호랭이 아버지, 남편 시집살이 당한 어머니 · 76

형제들 · 77

일제말기의 기억 · 78

음악학교에 가고 싶어서 · 79

2. 결혼과 한국전쟁 · 81

맞선도 못 보고 한 결혼 · 81

남편은 군대 나가고 · 82

피난 내려온 친척들 · 82

좌익활동으로 몰살당한 친정 · 83

3. 출산 · 85

산할머니 불러서 산후조리 · 85

선녀들이 지나가는 태몽을 꾸고 · 86

조상님이 도와서 낳은 아들 · 88

그래도 아들이 좋아 · 89

4. 집안 살림살이 · 90

시댁살이, 시댁식구들 · 90

행랑사람, 일하는 사람 · 93

부엌 · 94

빨래 · 94

바느질 · 95

연탄불 꺼져 고생하고 · 96

김장김치 · 96

5. 봉제사 · 97

제사, 시제 모시기 · 97

제사음식 · 100

제기 · 102

새로 지은 사당과 납골당 · 103

6. 남의 집 종부노릇 · 105

시아머니께 배우고 며느리에게 가르치며 · 105

마실 갈 시간도 없어 · 106

딱 한번 참석한 친정부모님 제사 · 107

속상해도 참지 · 108

7. 요즘 생활 · 108

농사지어 다 대주고 · 108

등가려운 중 · 109

자식들, 남편한테 고맙지 · 110

다시 태어나면 · 112

## 제사 안 지내면 성당 못 나옵니다

- 시흥시 청주 한씨 안윤자 종부의 구술생애사

I. 개 관 · 115

1. 조사대상 선정과 조사과정 · 115

2. 청주 한씨와 한준검 · 119

3. 안윤자 종부의 생애사 요약 · 120

II. 안윤자 종부의 생애사 연표 · 123

III. 안윤자 종부의 구술생애사 · 125

1. 어린 시절 · 125

세 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 125

아버지의 재혼 · 126

외로웠던 성장기 · 127

수원 외갓집 · 127

2. 혼인생활 · 128

중매쟁이는 식모 · 128

탤런트같은 남자와 이지적인 여자 · 128

불편했던 한옥생활 · 130

- 주말부부 · 130
- 서울로의 분가 · 130
-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다 · 131
- 3. 남편 그리고 74년 3월 24일! · 131
  - 학생편에 썼던 수학교사 · 131
  - 야당 총재 비서관 시절 · 132
  - 남편의 꿈을 접게 하다 · 133
  - 과부상이 없으니 걱정말라 · 133
  - 처음 가진 우리집을 병원비로 날리고 · 134
  - 아들 얻은 기쁨도 모른 채 · 135
- 4. 생업전선에 나서다 · 136
  - 순진한 구멍가게 사장님 · 136
  - 밑천없이 할 수 있는 일 · 136
  - 미안해하는 가족들 · 137
  - 야쿠르트 할 분이 아닌데 · 137
  - 힘들었던 판매활동 · 138
  - 친구들도 모르는 비밀 · 138
  - 8년만에 그만두다 · 139
- 5. 한국전쟁 · 139
  - 기억에 없는 한국전쟁 · 139
  - 풍비박산된 시대의 당시 상황 · 140
  - 복에 살아계신다는 둘째 시숙 · 141
  - 올케를 챙기는 시누이 · 142
- 6. 제례의 변화 · 142
  - 큰제사 때만 늦그릇으로 · 142
  - 종갓집이라 해도 푸짐하진 못해 · 143
  - 한여름 큰제삿날 · 143
  - 한나절이 걸렸던 열네 반상 · 144
  - 맹헌 잡수셔서 열네 반상이 네 반상으로 · 145
  - 낮시간대로 옮긴 큰제사 · 145
  - 달라진 제사 풍경 · 147
- 7. 종택과 선산 · 147



- 티가 썼다는 헌집 · 147
- 아까운 용무늬 약장 · 148
- 통째 없어진 반닫이그릇장 · 148
- 살림집과 사당을 성주하다 · 150
- 350여 년 전의 조상님 · 150
- 선산의 석물을 도굴당하다 · 151
- 선영관리 · 151
- 8. 생각만 해도 눈물나는 시어머니 · 152
  - 피주기 좋아하시는 어머니 · 152
  - 호미질 허구 받을 땀망정 · 152
  - 하루 일곱 번 투가리 미역국 · 153
  - 어떡허냐 나땀에 수고를 해서 · 153
  - 육식을 즐겨하신 어머니 · 154
- 9. 계모가 있는 친정 · 154
  - 딸네집에도 못 와봤던 친정아버지 · 154
  - 사위에게까지 박정했던 계모 · 155
  - 계모의 타박과 이복동생들 · 155
- 10. 요즘의 생활 · 156
  - 남편의 근황 · 156
  - 1남 3녀 자녀들 · 157
  - 천주교 입교 - 제사 안 지내면 못 나옵니다 · 159
  - 친구들과 다니는 여행 · 159
  - 대대로 내려온 거니까 물려야죠 · 160

## 이제 시대에 따라가는 거지

- 안산시 진주 유씨 권보남 차종부의 구술생애사

### I. 개 관 · 163

1. 대상자 선정과 조사과정 · 163
2. 안산 진주 유씨 내력 · 165

3. 권보남 증부의 생애사 요약과 의의 · 167

## II. 권보남 증부의 생애사 연표 · 170

## III. 권보남 증부의 일생사 · 171

1. 출 생 · 171
2. 부모 형제들 · 172
3. 어린 시절 · 173
4. 학교시절 · 174
5. 결혼과 결혼생활 · 178
6. 출산과 자녀교육 · 184
7. 자녀들의 결혼과 가족들 · 186
8. 시대 식구들 · 189
9. 노후생활 : 요즈음 증부의 일상과 취미생활 · 191

## IV. 종가생활 · 196

1. 기제사 · 198
2. 명절차례 · 200
3. 집고사 · 201
4. 음식과 세시풍속 · 202
5. 종택 - 경성당 · 204
6. 가전 유물(家傳遺物) · 206
7. 경제적인 환경 · 207

## V.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기억과 관심 · 209

1. 태평양전쟁과 일제시기 · 209
2. 한국전쟁 · 210
3. 사회 · 정치적 관심 · 211

## VI. 가치규범 · 213

1. 신앙생활 · 213



2. 요즘 주부들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 214
3. 관습 규범의 내면화와 저항 · 217

## 알고 보니 ‘일부잣집’ 만며느리더라구

- 과천시 전주 최씨 조용기 종부의 구술생애사

### I. 개 관 · 223

1. 조사대상과 구술과정 · 223
2. 막계리 응달말의 전주 최씨 이야기 · 225
3. 조용기 종부의 생애사 요약 · 229

### II. 조용기 종부의 생애사 연표 · 231

### III. 조용기 종부의 구술생애사 · 232

1. 어린 시절 · 232
  - 아들 없어 시집살이하던 어머니 · 232
  - 이름이라도 쓰려고 몰래 다닌 학교 · 234
  - 부모 귀여움 받는 친구들이 부럽더라구 · 235
  -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 · 237
2. 결혼과 출산 · 240
  - 맞선 보던 날이 약혼날 · 240
  - 트럭 타고 온 신행 · 243
  - 손님같은 남편 · 244
  - ‘일부잣집’ 만며느리 · 245
  - 출산 · 246
  - 부녀회 활동 · 247
3. 시부모 봉양 · 248
  - 시아버지의 병수발 · 248
  - 시아머니 환갑잔치 · 251

- 시아버지 사망과 상 치르기 · 253
- 4. 증부로서의 삶 · 258
  - 손님 대접 · 258
  - 시제사 치르기 · 259
  - 조상 묘역 이전 · 262
  - 부모님 잘 모시고 살라는 효부상 · 265
- 5. 문원동 생활 · 265
  - 문원동의 새집 마련 · 265
  - 연탄가스 사고 · 267
  - 가산 일구기 · 268
  - 의류점 운영 · 269
- 6. 근 황 · 271
  - 자녀들의 출가 · 271
  - 시어머니 병환과 간호 · 272
  - 열다섯 식구가 함께 한 동갑내기 부부의 회갑여행 · 273

## 여주의 마지막 마님

- 여주군 황주 변씨 이무숙 증부의 구술생애사

### I. 개 관 · 277

### II. 이무숙 증부의 생애사 연표 · 278

### III. 이무숙 증부의 구술생애사 · 279

- 나는 정말 양반집에서 자랐어 · 279
- 황주 변씨 집안에 시집와서 · 281
- 종가의 제사 · 287
- 나는 옛날식이 좋아 · 292



## 남은 시간은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 평택시 봉화 정씨 차정숙 종부의 구술생애사

### I. 차정숙 종부의 생애 · 295

- 평범한 집안에서 소종가의 종부로 · 296
- 삶 전체를 평가받는 자녀교육 · 297
- 딸만큼은 제사없는 집안으로 보내고 싶어 · 298
- 며느리는 '보고 배운 바' 있는 사람으로 · 298
- 전통의례의 간소화에 대한 생각 · 299
- 종택 보존을 위한 준비와 계획 · 300
- 종부로서의 위상 정립에 노력하는 종부 · 301

### II. 차정숙 종부의 생애사 연표 · 303

### III. 차정숙 종부의 구술생애사 · 304

- 군산에서의 유년시절(1941~1953년) · 304
- 꿈 많던 중 · 고등학교 시절(1954~1960년) · 305
- 왕십리에 정착하여 연애와 결혼까지(1962~1968년) · 306
- 행당동에서 시작해 미아리로 이주하기까지(1968~1971년) · 310
- 미아리에서 수유4동으로 이주하기까지(1971~1986년) · 314
- 수유4동에서 오늘날까지(1986~현재) · 316

편찬후기 · 319



종갓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집을 온 거예요

- 의왕시 평산 신씨 이영희 종부의 구술생애사

여 백

# 종갓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집을 온 거예요

- 의왕시 평산 신씨 이영희 종부의 구술생애사

## I. 개 관

### 1. 조사 대상의 선정

본 조사자가 경기도 종부의 생애사를 의뢰 받으면서 가장 많이 고민한 문제는 지역과 화자의 선정이었다. 특히 자신의 생애나 종가 이야기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닌 이야기꾼(화자)을 만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지역 선정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졌다. 지역은 본 조사자가 대학원을 졸업하기까지 10여 년간 지나쳐 다닌 의왕시로 선정하였다. 그곳에 직접 살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보아 온 지역이어서 본인에게 익숙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또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화가 빠르지 않고 옛 농촌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으나 전통문화가 크게 발달하지 않은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사람들이 흔히 '종부'라고 하면 떠올리는 영남 반가(班家)의 위엄 있고 빼대있는 종부가 아닌, 평범하지만 오히려 더 대다수였을 한국 종부의 삶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했다.

화자 선정은 의왕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박철하 선생을 통해 세 명의 종부를 소개받았다. 세 명의 종부를 방문해 본 조사의 취지와 의의를 자세히 알리고 예비인터뷰를 한 결

---

\* 조사자: 정혜은(한국방송통신대 강사)

과 ○○○ 종부를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팔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기억력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거침없이 쏟아냈고 구술 내용도 풍부하였다. 하지만 ○○○ 종부와는 인연은 두번째 인터뷰를 한 이후에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몇 번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야기가 책으로 공간(公刊)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거절하였다.

본 조사자는 박철하 선생에게 다시 화자를 소개받았다. 그분이 바로 여기 소개될 이영희(李榮喜) 종부다. 이영희 종부와 예비인터뷰를 위해 집을 방문했을 때 처음 받은 인상은 무척 단아하였다. 77세의 나이답지 않게 고우셨고 작고 조그마한 체구에 몸은 마른 편이었다. 하지만 말수가 적고 당신의 이야기를 선뜻 내비치지 않았다. 인터뷰 내내 이야기가 많이 끊기고 본 조사자의 질문을 단답형으로 풀어나갔다. 그래서 질문자가 더 많은 말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본 조사자는 이영희 할머니의 따뜻한 품성에 이끌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할머니는 말솜씨가 유창한 편은 아니나 아주 적극적인 태도로 이 일에 동참할 의사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할머니의 동참 의사 표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침묵되어진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겠다는 의지로 비춰져 본 조사자에게 매우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또 이영희 할머니는 6·25 때 남편의 실종으로 24세부터 종손(남편)없이 종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이영희 할머니의 생애시는 우리 사회가 정형화해 온 종부의 '틀'과는 다른 층위에 시선을 돌리게 함으로써 '다양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이는 획일적인 사회적 잣대 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주변인의 목소리를 공적 공간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제시대를 거쳐 6·25전쟁을 겪은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는 남편의 부재 속에서 가정을 지탱하고 자식을 키워낸 어머니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영희 할머니의 삶은 종부로서 뿐만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 격동의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헤쳐 나왔는지 생생하게 전해줄 수 있다고 여겼다.

이제 이영희 종부를 화자로 선정하기로 한 본 조사자의 과제는 어떻게 할머니의 말문을 트게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본인은 이영희 할머니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었고 이 바람을 그대로 전하였다. 이영희 할머니는 인터뷰 내내 성실한 태도로 구술했으며 유창하게 말을 잊지 못하는 부분을 내내 미안해 하였다. 이영희 할머니가 오랫동안 닫힌 채로 놓아둔 회로의 빗장을 열고 당신의 기억과 감정을 부단히 끄집어내는 모습은 본 조사자에게 여러 차례 감동을 주었고 서로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여기 담긴 구술 생애사는 평산 신씨의 종부 이영희 할머니가 구술한 내용을 전혀 가필하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이다. 구술 장소는 이영희 할머니가 거주하는 경기도 의왕시 부곡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총 5회였으며 전부 녹음되어 풀어졌다. 풀어진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조사자가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사건이나 주제에 따라 재배치해 편집하였다. 녹음된 내용 가운데 일부는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함께 상의해 숨여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마무리된 원고는 본 조사자와 이영희 할머니가 다시 한번 함께 읽고 검토하여 최종 탈고하였다.

## 2. 의왕시의 평산 신씨에 대하여

이영희 종부는 평산 신씨 감찰공파의 33대 종부(종손 申鉉贊)다. 평산 신씨의 시조는 왕건을 도와 고려를 창건한 개국원훈대장군(開國元勳大將軍) 장절공(壯節公) 신숭겸(申崇謙, ?-927)이다. 평산 신씨는 이후 20여 개 이상의 여러 파로 나뉘었는데 감찰공파는 고려말 때 사헌부감찰을 지낸 15대 신강(申綱)을 중시조로 하여 분파하였다.

평산 신씨 감찰공파의 종가는 현재 경기도 의왕시 삼동 윗장안말(上莊義)에 있다. 이곳 삼동은 서쪽으로 군포시, 동쪽으로는 수원시와 맞닿아 있는 곳으로 윗장안말은 부곡 전철역 동쪽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현재 평산 신씨가 언제부터 이곳에 들어왔는지 자세하지 않다. 『평산신씨감찰공파세보』(2003년)에 따르면 18대 신세양(申世讓, ?-1498)의 묘 위치가 화성시 일왕면 삼리 상장의동이며 이로부터 후손들이 이 지역에 묘를 조성한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상장의동'은 현재의 윗장안말을 가리키며 1949년 당시 행정구역이 '화성군 일왕면'에 속해 있었다. 한편, 마을의 지명유래에 따르면 이 마을은 조선 중엽 평산 신씨 후손 중에 의리가 강한 분이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부터 이곳을 장안말(莊義)이라 했고 높은 지대에 자리잡은 마을이므로 윗장안말이라 불렀다고 한다. 따라서 평산 신씨가 의왕에 들어온 시기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로 추정된다.

장안말에 자리를 잡은 평산 신씨는 이후 자손들이 번창하면서 주변으로 세력을 넓혀 나가게 된다. 현재 삼동에는 평산 신씨 후손들이 분가해 이룬 마을이 있다. 윗장안말 아래에 있는 곳을 아랫장안말(下莊義)이라 하며, 윗장안말과 아랫장안말 사이에 있는 마을을 중간말이라 부르는 데 모두 평산 신씨의 집성촌이다.

### 3. 이영희 종부의 생애사 요약과 의의

이영희 종부는 1927년 5월 11일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용인으로 아버지 이계상 씨와 어머니 장순일 씨 사이에서 3남 3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근면하신 부모님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으로 항상 일에 쫓겼고 첫째인 이영희 할머니가 동생들을 돌보았다. 한동안 학교에 가지 못한 채 동생들 공부하는 어깨 너머로 국문을 깨치다가 15세에 동네 친구 한 명과 함께 사립학교인 삼미의숙에 직접 찾아갔다. 공부에 대한 열의가 많던 이 할머니는 초등학교 5학년 때에는 최우등상을 받았고 중학교에 진학할 꿈도 가꾸었다.

5학년 과정을 마치던 해에 정신대 공출 소식이 마을에 파다하자 부모님은 이 할머니를 1945년 음력 12월에 중매로 혼인시켰다. 당시 공부를 더하고 싶어 서울 친척집으로 도망가려고 마음먹었으나 두렵고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였다. 남편은 의왕시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평산 신씨 감찰공파의 33대 종손 신현찬(申鉉贊) 씨다. 이 할머니는 혼인 당시 남편이 종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남편은 할머니보다 한 살 위로 영등포역에 근무했으며 시가는 전형적인 농가로서 이 할머니 친정보다 형편이 더 어려웠다. 당시 시가에는 시할아버지(57세), 시할머니(57세), 시아버지(36세), 시어머니(38세), 시동생 2명, 시누이 1명이 있었다. 시아버지는 해방되자 만주에서 돌아왔으며 이후 따로 '작은 살림'을 내어 제천에 살았다. 이 때문에 시할머니와 시어머니 사이에 마찰이 종종 있었다.

1948년에 첫째 아이를 낳았으나 이틀만에 죽고 그 이듬해에 둘째(현재 아들)를 출산하였다. 출산 장소는 모두 시가였다. 남편은 성격이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생활은 고되지만 정겨운 신혼을 함께 하였다. 혼인한 지 4년 정도 지나서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남편은 그 다음날 새벽에 '방위대'로 뽑혀 삼 일 안에 돌아오겠다고 나서는데 현재까지 소식이 없다. 아이가 채 돌도 되기 전으로 이때부터 이 할머니는 시조부모와 시부모를 모시면서 생활하였다. 6·25전쟁은 이 할머니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남편의 부재가 무엇보다도 큰 변화였다. 당시 남편 없는 여자는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는 인식 탓에 남에게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늘 품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했다. 평생 서너 번 크게 울어봤다고 회고할 만큼 희노애락의 감정 표현은 자제하였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부재로 집안에 일할 남자가 부족한 탓에 농사일은 일꾼을 두고 지었다. 한 해 농사를 지어 품삯을 떼고 나면 식량은 얼마 남지 않았다. 밖에서 지낸 시아버지에게 돈을 받은 기억은 두세 번뿐이었다. 이 할머니는 시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가사 일을 전담하시피 했다. 더구나 종가이기 때문에 일년에 10번의 제사와 한 번의 시제를

모셔야 했고 평상시에도 여러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편이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30대 초반부터는 농사일에도 손을 댔고 수원이나 영등포역 등으로 나가 직접 가꾼 채소나 과일을 내다 팔기도 하였다. 이 할머니는 결혼 초부터 어지럼증에 시달렸고 체력이 매우 약해 집안일이 늘 힘에 부쳤다. 이런 속에서 병행된 농사일은 할머니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1992년에 시할머니가 104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어른들을 모신 이 할머니는 시할아버지와 함께 가족의 중심에 있었다. 시어머니가 1967년에, 시아버지가 1973년에, 시할아버지가 1981년에 돌아가셨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픈 몸으로 종가에 돌아와 3년 정도 병석에 있었고 이 할머니가 1년 반 동안 환축을 쭉어 드렸다. 당시 함께 들어온 '작은'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시할머니를 모신 일로 이 할머니는 1988년 삼성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효부상을 받았다.

할머니 삶에 다른 큰 변화는 새마을운동과 부녀회장이었다. 새마을운동은 이 할머니의 표현에 따르면 농촌생활을 편리한 쪽으로 변화시켰다. 이 할머니는 연탄 아궁이를 통해 땀나뭇 채취의 노동에서 벗어났고 마을 산 위에 간이 상수도 시설을 만들면서 물기는 일을 덜었다. 도로도 넓어지고 지붕도 개량되었다. 집안 노동의 많은 부분이 유신시대의 새마을운동으로 감소된 것이다. 예전보다 시간이 나면서 이 할머니는 동네 이장의 권유로 부녀회장직을 10년 동안 맡았다. 마을금고를 만들고 구판장도 열고 연수도 다니면서 세상과 교통하기 시작했다. 살면서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던 이 할머니가 부녀회장 일은 "재미있었어요."라고 표현한다.

1988년에 이 할머니는 40여 년간 회노에락을 함께 하던 종가를 떠난다. 의왕-안산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종산(宗山)이 수용되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었다. 시골집에서 고령이신 시할머니의 거동이 크게 불편하던 차에 보상받은 돈으로 이사를 나온다. 종가는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았다. 또 이 할머니는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절에도 나갔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아들은 서울대 의대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1983년에 코넬대학교 유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머니 일생 가운데 유일하게 기뻐한 일은 오직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할머니에게 아들의 존재는 각별하고 자랑스럽다. 손녀딸이 두 명 있다.

현재 이 할머니는 두번째 이사한 지금의 부곡 집에서 혼자 사신다.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집에 있어도 봤지만 답답해서 다시 돌아왔다. 이 할머니는 그 동안 못다한 향학열을 채우기 위해 서예·컴퓨터·노래교실·수지침·각종 주부대학 등 배우는 곳이라면 어디든

지 쫓아가 배웠고 지금도 다니고 있다.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서 좋고 늦게 들어와도 눈치 주는 사람이 없어서 좋다는 할머니는 부곡에 종가 일도 많고 친구와 지인들이 있어 이곳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시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살이 오른다는 소리를 듣는다며 민망한 웃음을 보였다.

이상으로 이영희 종부의 구술 생애사를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느낀 이영희 종부는 '과부'라는 점 때문에 한평생 화를 내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고 남에게 말을 듣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온 듯하였다. 그래서 이영희 종부에게 지나온 삶은 아직까지 남에게 펼쳐 보이기 싫은 부분이며 이 때문에 "힘들었어요..." "얘기하기가 너무 안 좋아. 모두가 다. 현실은 재미있는 것이 없잖아."라는 함축적인 말 이외에 더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듯이 보였다. 아마도 이 때문에 이야기가 유창하게 전개되지 못했으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이영희 종부가 오랜 기간 감정을 다스리며 살아온 그 경험 때문에 생애사 구술은 신세 한탄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표현되는 의외의 성과를 얻게 되었다. 또 인터뷰 주제가 개인사를 벗어나 시대 상황이나 마을·종가 등에 이르면 또렷한 기억력을 바탕으로 조리 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래서 이영희 종부의 생애사는 평면적인 '기억 더듬기'를 넘어 여성으로서 종부로서 당대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했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성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끝으로, 인터뷰를 다 마칠 무렵 본인은 이영희 종부가 처음 본인을 대면했을 때 이 일에 동참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저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이 할머니가 지나온 삶을 발판으로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당신이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는 세상을 향한 끈끈한 선언이었다. 이영희 종부는 남편이 6·25전쟁 때 군인으로 나가 행방불명되면서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환경 속에서 소리죽여 살아왔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강인한 정신력과 고운 품성을 바탕으로 자아(自我)를 잃지 않은 채 일견 바보스럽지만 최선을 다하는 생을 꾸려왔다. 그 안에는 여성으로서, 며느리로서, 남편 없는 종부로서,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당당히 세월을 헤쳐나온 한 인간이 우뚝 서있다. 이영희 할머니의 건승을 빈다.

## II. 이영희 종부의 생애사 연표

- 1927년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에서 출생
- 1941년 국민학교 입학
- 1945년 평산 신씨 감찰공파 33대 종손 신현찬씨와 혼인
- 1948년 첫째째 출산. 아이가 이틀만에 사망
- 1949년 두번째 아들(신희철) 출산
- 1950년 6·25전쟁 발발 다음날 새벽에 남편 '방위대' 로 나감. 그 이후로 행방불명
- 1959년 이 무렵부터 농사일 시작
- 1967년 시어머니 돌아가심
- 1970년 친정아버지 돌아가심
- 1971년 친정어머니 돌아가심
- 1973년 시아버지 돌아가심
- 1978년 아들 결혼. 결혼 직후 미국 유학
- 1979년 부녀회장직 맡음(1988년 8월까지 약 10여 년간 수행)  
제6회 군민의 날 시흥군수 표창
- 1981년 시할아버지 돌아가심  
의왕 - 안산고속도로 공사로 종산이 수용되어 보상받음
- 1988년 삼성문화재단 효부상 수상  
종가에서 나와 부곡으로 이사
- 1989년 의왕 농협 주부대학 졸업  
절에 나가기 시작
- 1990년 종가에 재실 지어서 이곳에서 제사 올림
- 1991년 아들 미국에서 귀국
- 1992년 시할머니 104세의 나이로 돌아가심
- 1993년 이 무렵부터 농사일은 손을 놓고 밭일만 조금씩 함
- 1997년 수원 중앙 주부대학 13회 졸업
- 2000년 수원시 서예가협회 입선
- 2003년 의왕시 여성 기·예 경진대회 서예 입선  
현재 부곡의 집으로 이사

### Ⅲ. 이영희 종부의 구술생애사

#### 1. 어린 시절

##### 부모님과 형제들

친정부모님은 그냥 둘째 아드님으로 좀 큰집이 좀 넉넉치 않더라구요. 지금 생각에 그 기억이 나요. 큰집이 넉넉지 않은 거가 생각이 나요. 옛날에 얘기하시던 말씀들 들은 기억 하나까 그 뭐 좁쌀이라나 옛날에 좁쌀이 있죠, 고것을 한동이 주시면서 신혼을 냈대요. 그런데 아주 방 하나 부엌 하나 공당 하나 초가 삼간이예요. 진짜, 나 어려서 난 집이 초가 삼칸이예요. 거기서 이렇게 시는데 아주 어렸을 때에는 몰랐는데 좀 크면서 보니까 그런게 한 일곱 살 먹을 때까지 그냥 잠만 거기서 주무시고 큰집 가서 일은 계속하고 계셨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구요. 어렸을 때 내가 기억을 잘 못하지,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까지 일어나서서 큰집 가서서 아침 해서 같이 잡수시고 거기서 일하시고 저녁 잡수시고 이젠 나를 업고 집에 오시는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르셨다고 그러신 말씀하신 걸 듣고 알지요. 그런데 이젠 그냥 두 분이 열심히 일만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로 알았어요. 그냥 일만 하시더라고요 계속 일만 하시고 그래 가지구 돈 벌 일이 일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의 일 하시고 집엔 일도 하시고 이젠 큰집이 넉넉치 않으니까 토지도 하나도 받지 못하신 것 같아요. 생각에 짐작에 이젠, 남의 일 하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구 논밭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시더라구요. 그래가지구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러니까 남동생이 둘이 있고 여동생이 셋이 있고 그리고 막내 남동생 하나 나셨어요.

##### 배우고 싶어 찾아간 국민학교

그런데 그 아이들 건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젠 두 분이 항상 일을 나가시니까 날더러 집을 보고 아이들 건사하라고 학교를 안 보내 주신 거예요. 학교를 안 보내 주셔서 아주 너무 속상하고 그냥 동생들 공부하는 데서 어깨너머로 보고서 국문같은 것 이게 더러 그냥 보고서 알고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구 나이가 점점 먹으니까 점점 더 학교가 가고싶고 배우고 싶고 그래서 그같은 또래 아이들 하나를 설득시켜 가지고 같이 그 사립학교를 갔어요. 사, 사립, 동생들 다니는 데는 공립이고 사립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나이 제한이 없더라고요. 거기를 가서 우리 공부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책을 놓고 읽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고 했더니 그냥 그때부터 이학년으로 반으로 들어

보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다가 이학기 때에는 또 그때는 삼학기까지 있었어요. 이학기 때에는 또 삼학년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학년으로 가가지구 거기서 삼학년 배우고 사학년 올라가고 그러니까 동생들에게 어깨 너머로 배운 것 때문에 그렇게 그게 쉽더라고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다 이는 문제고 다 그냥 쉬어요.

그때 사립학교가 있었어요. 국립이 아니고 사립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동탄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산시에 딸린 사립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산너머 가면은, 삼미국민학교라고 삼미국민, 삼미의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저기 저기도 안난 학교예요, 인가도 안 난 학교예요.

그러니까 15살에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국민학교를. 그러니까 전부 동생같은 아이들과 배우는 거지요. 그래서 인제 봄에 이른 봄에 중매, 저 중매가 저기를 데리고 온대요. 중매 하는 그쪽 중매를 데리고 온다구요. 그래 가지구 그때부터 학교를 못 가겠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선을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간 아이도 있고 안 간 아이도 있구 그래요. 나처럼 못 간 아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안 간 아이 하나를 데리고서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 내가 가고 나서 한 이삼 년 후에는 아주 이제는 의무적으로 다들 가더라고요. 학교를, 이삼 년 후가 되니까 그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가지구 공부를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구 본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공부, 그래서 가서 몇 년 배우지도 못 하고 그렇게, 학교 선생님이 저기 세상없어도 중학교를 가게 해준대요. 중학교 가라고 그랬어요. 아주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결혼하는 바람에 정신대 바람에 그냥 아주 그냥 아주 버렸지 머예요. 그래서 시집을 와 가지고도 그 학생들 여학생들 가방 메고 다니는 것만 보이지 다른 것은 안 보예요.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한 삼십 님도록 부럽더라고요. 그게 꿈쩍 못하고 그냥 책하나 들여다 볼 시간도 없고 그냥 그땐 학교에서 나와서 그냥 덮어논 거예요. 책을.

그게 월사금이라고 한 얼마 정도 냈어요. 한 60원인가. 그렇게 정도 냈을 거예요. 60원 정도. (부모님들께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내주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내주시고, 운동회를 하는데 한 번도 오시는 것을 못 봤어 내가. 워낙 바쁘시니까.

학생들은 한 반에 한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두 한 반밖에 없어요. 한 학년에 한 반

밖에 없어요. 일본 과목밖에 안 배웠어요. 지리하고 산수하고 국어하고 그러구 미술같은 것도 좀 하고. (수업할 때는)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점점 한국말을 못하게 하더라구요. 한국말 하면 화장실 청소하래요. 걸리면 반장에게 걸리면 화장실 청소하라고 그러구 한국말도 못하고 그냥, 한 3학년부터 그랬나. 순 일본말만 배우고 일본 저기만 배운 거요. 지리구 역사구 모두 일본 것만 했어요.

### 정신대에 대한 짝막한 기억

그러니까 5학년 때부터 나온 거지요. 그전에는 있었는데 더 심해진 게 5학년 때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들은 전부 데려간대요. 전부 데려다가 군인들 심부름시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구요. 처녀는 다 데려간대요. 결혼을 해놓고 약혼이라도 해놓으면 안 데려가구 안 해놓으면 다 데려간대구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집을 보낼라구 그렇게 서두시더라구.

(실제로 간 사람은) 그 동네에서는 없었어요. 그 동네에서는 없었어요.

## 2. 혼인과 시가생활

### 19세에 혼인하다

그냥 그래서 사학년 다니고 오학년 다니고 그러니까 오학년 때에는 뭐 최우등 최우등 우수 우등이라나 최우등이라고 그러시더라구. 그래가지구 육학년 올라갈라고 하는데 봄에 우리 그때가 한 2월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정신대를 뽑아간다고 처녀들은 죄 뽑아간다고 이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시집을 가야댄대요. 그래서 난 시집은 죽어도 안 간다도 정신대가 뭔지도 모르고 시집은 죽어도 안 간다도 그냥 몸부림쳐도 못 당하겠더구요. 중매를 데리고 오셨어요. 와 가지구는 이젠 선보러 오니까 치마저고리를 해주시면서 입고 머리도 좀 곱게 빗고 그러라구 그러세요. 그런데 그걸 일부러 안 했어요. 그냥, 안 하고 그냥 머리 그냥 풀어 놓고 옷은 그냥 몸빼 입은 채로 잠깐 앉았다가 나왔는데 이젠 틀리면 안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더니 그냥 가시더라구요. 그랬더니 사주를 아예 갖다놓고 가셨다고 하세요.



경기도 의왕시 삼동에 있는 평산 신씨 감찰공파 종가(1970년대)

끔짝 못하지요. 시주를 갖다 놓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구요. 학교도 못 가고 그때부터는 부끄러워서 학교를 못하겠어요. 그리구 있었는데 칠월 음력 7월달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얼마나 분한지 그냥, 해방이 되니까 더 분하더라구요. 그냥 그래서 서울로 도망을 가려고 이젠 칠월달에 그때도 그냥 서울로 도망을 가려고 서울 친척 아줌마되는 사람이 서울 가서 가족이 다 가서 살았는데 거기에 오면은 낮에는 돈벌고 저녁에는 야학공부를 실컷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꼭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렇게 엄두가 안 나고 내가 결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못 갔어요. 거기를, 서울을 갔으면은 낮에는 돈벌고 저녁에는 돈번다고 하더라구요 아줌마되는 처녀 아가씨가. 거기를 못가고 그럭저럭 있다가 십이월 달에 결혼식을 해서 시집을 온 거예요. 시집을 와도 계속 아무 그냥 재미도 모르고 그냥 시집오니까 일만 많고 식구만 많고 힘만 드는 거지요. 그냥 집에서는 그래두 어머니 아버지하고 아이들 이니까 허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시집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시어머니 시아버님 계시고 시동생 둘 시누 이렇게 아홉 식구에다 또 일하는 사람 하나 있더라구요. 농사는 있으니까 일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상을 세 개 네 개 봐도 그냥 바닥에다 밥을 놓고 먹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한에 막혔던지 눈물이 나는지 처음에는 밥을 먹을 수가 없더라구요. 다 상에서 잡숯셨는데 나만 땅에다 놓고 밥을 먹으니까 대개 눈물이 나와요.

어른들은 아셨지요. 그런데 난 몰랐어요. 종갓집이 뭔지도 모르고 만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무조건 온 거예요.

결혼식은 구식이지요. 구식으로 집에서 치루고 집에서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인력거라는 것을 타고 오산역에 나가서 기차를 타고 부곡역에 내려서 또 가마를 타고 집에 들어간 거지요. 부곡역에 내려서.

그러니까 기차를 거짐 한 번도 못 타보고 결혼을 한 거지요. 기차를 한 번도 못 타보고 서울 가족 친척들이 계셔도 갈 생각도 못 하고 못 타보고 인력거도 그때 처음 탄 거지요. 시집 갈 때나 한번 타는 건 줄 알고 그것 타고, 기차도 그게 처음 탄 거예요 그게. 그리고 가마 타고 그냥 여기 그냥 부곡에서 여기 집에 들어간 거예요.

시간은 아침 컴컴해서 떠났어요 집에서. 인력거, 밝기 전에 떠났는데 집에 오니까 거 짐 두서너 시 되었던거구요. 기차 시간이 그때는 얼마 몇 번 안 다니잖아요. 기차가, 그래서 시간 맞추어서 왔는데 집에 오니까 거짐 두 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신혼 첫날) 교육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아무 것도 교육도 안 시키고 그냥, 우리 부모님도 참, 얼떨결에 보내신 것 같아요. 아무 교육도 받지도 못하고 그냥 하룻밤을 집에서 첫날밤이라고 치루는데 밤새도록 잠 한숨 못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나는, 한숨도 못 잤어요. 그냥 와서 여기 와서 그냥 뭐 그럭저럭 그냥 한 사 년 하루 걸러 교통부에 나갔다 오고 살다가 얼떨결에 꿈꾼 것 같이 그렇게 헤어져서 기억이 별로 없어요.

### 초창기 시집살이

시집와서 뭐, 그냥, 아, 그거 말할 수 없지요. 그때는 시부모님은 어렵기만 하더라고요. 전부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할머니 할아버지 시어머니 아버지 시동생 둘 시누이 하나 그런 데로 시집을 왔어요. 어렵기만 하지요. 시아버님도 한 사십 조금 넘으셨나 안 넘으셨나 그 정도 되셨고, 그러니까 시할머니께서 오십 여섯인가 일곱 되셨어요. 오십 여섯인가 일곱 되셨어요. 예전에 뭐 저기 아버님을 열세 살에 결혼을 시키셨대요. 그러니까 젊으시지 뭐요. 시아버님도 아주 젊으시고 시어머니도 좀 심장이 안 좋으셔서 좀 건강이 안 좋으신데 젊으시죠. 그러니까 어렵기만 하더라고요 그냥. 뭐 하는 거 혈 줄도 모르고 학교 다닌다고 왔다갔다 하다 시집왔는데 너무 어렵기만 하고 그렇더라고요.

(시가에 처음 들어갔을 때) 기분이 그냥 떨리기만 하지요. 뭐 어떻게 살면 잘 살지 그게 걱정이고 아무 것도 할 줄 모르잖아요. 해본 것이라곤 그냥 집에서 이렇게 겨우 내 저고리 하나 꿰매 본 적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시어머니 아버지 하얀 바지저고리 치마저고리를 입으시더라고요. 면으로 된 것. 그것도 그냥 열흘도 안 되면 새까맣고 그것 빨아서 삶아서 하애지라고 동산에 갖다 널어서 풀 먹여가지고 다듬어서 반질 반질 그냥 아주 다린 것 저 이상가게 방망이로 다듬어서 그걸 죄 꿰매야 해요, 다 떼어서 했으니까, 해보지도 않았는데 아주 대개 힘들었어요. 그냥 또 어린 마음에도 누구에게 여쭙보는 것은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고 옷을 꺼내놓고 보고하고 이렇게 했어요.

(폐백은) 바로 하지는 않고 고 다음날 폐백이라고 폐백이라구 드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절을 했는지 그 이튿날 여기가 아파서, 마루가 이만큼 높아요. 안에 들어가려면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을 올리면 악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종가니까 집안내 작은 증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가 두 분이 계시죠, 그러구 집안 내 다 모셔다놓고 폐백을 드리더라고요. 마루를 못 올라갔어요. 며칠을 가더라고요. 명절 때면은 그분들 다 오셔요. 오시면 술상 차려다 드리고 또 세배 드려야해요 다 거기는. 한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한 십여 년을 세배를, 지금은 다 없어졌지요, 그때는 명절 때면.

가정 형편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지요. 왔는데 와서 식생활 하는 걸 보니까 봄이 되니까 그냥 양식이 좀 부족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려서는 그런 것을 몰르고 자랐거든요. 그냥 공부는 못 했어도 생활수준은 훨씬 좀 그냥 모자라더라고요 부족하더라고요. 우리집보다 친정보다 부족해요. 우리 친정에는 광에 들어가면 그냥 항아리에 쌀이 가득가득하고 보리쌀도 가득가득한 걸 보고 자랐는데 여기 오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종가인데도) 예, 종간데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좀 사는데 힘이 들었어요.

처음에야 와서 그냥 뭐 집안에서 뭐 부엌에서 밥하고 집안 치우고 빨래해서 그거 꼬매서 드리는 것 이거죠 뭐. 처음 시집와서 바로 그런 일 했어요. 한 삼사 년 되니까 그냥 뭐 무조건 들일이고 뭐고 다 해야 되더라고요. 밭일이고 들일이고 다 해야 되더라고요 집안일도 하면서, 한 삼사 년 되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힘이 들었죠. 밭일도 나가고.

시간이 전혀 없어요. 아주, 그냥 시집오니까 아침 새벽 네 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을 해야

통근차를 타더라구요. 통근차를, 교통부에 다니고 시동생들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네 시 반에 일어나서 아주 새벽에 밥을 해주고 밥을 해주고 한숨 자고 나와야 아침 식사 차려서 드리게 되더라구요. 계속 그렇하구, 좀 있으니까 발일 논일 뭐 이런 것 다 따라다니면서 눈에도 피도 뺨고 발에 보리 비고 뭐 그러는 것 다, 힘이 없으니까 별로 일도 하지 못하면서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젠 그냥 한 사년 사니까 육이오가 났지요. 육이오가 나서 이렇게 그냥 뭐야 방위대라고 그러구 데려가더라구요. 새벽같이 와서. 그래가지구는 그냥 그때부터 그 길로 고만이예요. 소식도 없고 그냥 아무 통지도 없고 그냥 고만이예요.

### 친정나들이

친정나들이는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갔어요. 육이오 나기 전에 한 번밖에. 결혼하고 나서 한 삼 년만에 한 번 간 것 같아요. 그 결혼하고 나서 고 다음 해에 동생들, 남동생 둘을 어머니가 모시치마를 해서 쥐서 보내셨더라구요. 이것 입고 오라구 데리구 오라구. 그랬는데 안 보내줘요. 여기서.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심장이 안 좋으시더라구요. 심장이 안 좋으셔서 숨이 차다고 그러시구 일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부엌에 들어가시는 것이 그렇게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친정에 그냥 도대체 못 가게 하세요. 친정을 가면은 하룻밤 이틀 밤 자면 와야 되구, 하룻밤 이틀 밤 되면 무조건 와야 해요. 그때는 그 날 꼭 와야 하는 건 줄 알고, 그냥, 친정에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못 하구 그냥 오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온다고 그러면 오는 거예요. 그러구 나서는 육이오 나니까 일해느냐고 못 하고 바빠서 못 가구 그냥.

(결혼 후 친정나들이는) 그러니까 두 번 정도밖에 안 다녀온 것 같아요. 두 번 정도. 그리고 육이오 나서 더 못 갔지요. 같이 한 번 가구 한 번은 그냥 할아버지가, 친정할아버지가 데리러 오셨더라구요. 그렇게 갔어요. 한 번은 같이 가구 한 번은 친정할아버지가 데리러 오셔서 같이 가구, 육이오 전에는.

친정 가니까요 너무 좋죠. 편하고, 그랬는데도 밥맛이 없고 그렇더라구요. 그냥 친정에 가니까 괜히 그러더니. 여기 이젠 오면은 저쪽 산으로 해서 넘어오거든요. 버스 탔는지 어떻게 했는지 저쪽 산으로 해서 넘어와요. 산 고개만 넘어오면 배가 고파요. 밥이 먹고싶은 거예요. 친정에 가면 그렇게 밥맛도 없고 그렇더라구요 이상하게.

#### 4년간의 결혼생활

(신랑이) 그렇게 마음에 미웁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처음 보았는데도 미웁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괜찮은 남자다 그렇게 봤어요. 마음쓰는 것도 그렇고 그냥, 자상하고 마음이 참 아주 부드러워요. 자상하고.

한 사년 정도 했나 기억이 나요. 한 사년 정도.

기억나는 일은 뭐 그냥 아침 그냥 일찍 통근차 타고 직장갔다가 하룻밤 자고 오는 직장 이더라고요. 자고 그 이튿날 오면 그냥 아침에 와서 식사하고 자는 거예요. 한나절을 자고, 낮에 조금 뭐 하다가 또 그다음날 가고, 그렇게 사년 동안 살은 거지요. 그렇게.

(부부애를 느낄)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꿈 같으시. 하룻밤, 하룻밤 자고 오면 아침 식사 하고 오후에나 일어나서 또 일해야지요. 같이 뭐 있을 시간도 없어요. 하루 걸러서 출근을 했어요.

호칭도 못 했어요 그때는. 부를 때도 별로 없었지만 하루 거기서 있다와서 하루 한나절 썩 자고 아침 나와서 뭐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서 밥 점심 갖다 놔다구 그냥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쫓아오면서 점심 갖다 놔으니 어떡하라는 거냐고 쫓아와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호칭을 못 하고 그냥 점심차려 놔다고 그러면은 쫓아오면서 갖다 놔으니 어떡하라는 거냐고 쫓아오더라고요 호칭을 못 하니까. 여보 소리도 못 해봤어요. 여보 소리도 못 해보구 부를 일도 별로 없지만 부르지도 못 했고 부르게 되도 뭐라고 부르지도도 모르고 하여튼...

(남편이) 뭐라고 한 것도 생각도 안 나. 여보라고 그러기는 했는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있어보질 못해 가지구. 사년 동안이라두 또 뭐 나가서 또 많이 있었구, 군인 가기 전에 그러니까 한 일년 전에 그러니까 한 일년 전에 그렇게 그 퇴직을 한 거라구요 직장을. 일년 전에 퇴직을 당해가지구 직장 구한다고 나가서 또 몇 달씩 있다오구 그냥 그러저럭 그렇게 세월 보낸 거예요. 직장이 없기 때문에 군인을 더 빨리 데려간 거라구, 직장있는 사람은 다 직장 따라서 피난갔잖아 부산으로. 그래서 군인을 가게 된 거예요. 직장이 없어서.

뭐 무슨 일이 있었나봐요. 확실한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서 퇴직을 당했대요. 그래 가지구 직장간다구 여기저기 돌아다니구 뭐 나와서 몇 달씩도 있다오고 그냥 그래가지구 집에서 같이 있는 시간은 별로 그냥 기억이 안 나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잠깐 이렇게 연애하다 지금 사람들 뭐 연애하다 헤어진 것밖에 안될 것 같아요. 연애해도 지금은 여보 당신하고 뭐 얼마나 친절하게 잘하고 그러니까 저기가 있는데 난 그렇지를 못했어요. 어른들 계

시죠 시간 없지 만날 기회도 적지 그러니까 그냥 서로 호칭도 마음대로 불러보지도 못하고 꿈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꿈같이 그냥, 꿈꾸다 깬 것 같애.

(내가 임신한 것을) 좋아했는지 어졌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같이 안 있으니까. 항상 나가있는 사람이라구, 그냥 밤에나 그냥 밤 열두 시 열한 시 넘으면 그때나 같이 지는 거지. 같이 앉아서 얘기도 못 해보구. 그냥 좋아한지 나쁜지 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같이 있을 새가 없잖아요. 서로 일하느냐고. 밤에 양발 꼬매야 내일 또 가고 새벽 또 네 시 반에 일어 날려면 자야 되구. 그래서 아유 일요일날이면 그냥 무슨 그렇게 잠이 그땐 많았는지. 일요일날이면 무슨 내 생일날 돌아온 것처럼 기뻐요. 아침 일찍 안 하니까. 그렇게 새벽밥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막내 시동생 대학까지 하구. 그렇허구 육이오가 났지요.

외출은 한 번 저 시집 와가지구 고 이년 만인가 서울 시외가가 있어요. 서울에. 그래서 서울에 시외가에 가서 고모님들도 사시구, 그래서 서울 거기 가서 구경시켜준다고 한 번 가긴 갔어요. 갔는데 그냥 뭐 구경도 별로 그냥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것도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하루 비원인가 어디 좀 돌아다니고 그냥 들어와서 또 외가택에서 자고 그런 생각밖에 안나요. 돌이만 갔지. (교통 수단은) 기차. 기차 타고 그냥 걷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걸으면은 그냥 여기서 아마 거짐 한 정말 몇 킬로 아니 이 삼킬로 정도는 그냥 내가 걸음을 못 걸으니까 못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길 갈리는데 가서 서있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아휴 같이 안 다닌다구 속으로 혼자 맹세를 했어요.

## 출산과 몸조리

임신도 그냥 하는 줄도 모르게 임신이 됐더라구요. 입덧도 안 해요. 삼 년만에 임신했어요 삼 년만에. 했는데 입덧을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 생리가 없어진 것도 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살고 그러다보니까 배가 부르니까 아셨죠. 입덧을 안 하니까 더 모르신 거예요. 그래서 낳는데, 처음에 낳는데 그냥 나가지구 바로 계속 울기만 하더라구요 애가. 그냥 울기만 하더니 그냥 죽더라구요. 이 일도 못 살았지요. 그러니까 만 이 일도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저녁에 났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죽은 것 같아요. 저녁에 낳는데, 그때 새벽녘에 났어요, 고 다음날 아침나절에 죽은 것 같아요. 그게 뭐 아이들 무슨 지금은 그걸 가지구 파상풍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우는 감기라나 뭐라나 그렇대요.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나

는 어른들이 뭐 병원에 데려가셨으면 했는데 안 데려 가시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병을 잘 몰랐어요. 병원에 가면 지금은 그건 것 다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난 것 바로 데리고 가도 지금은 바로 산대요. 그때는 병원도 갈 줄도 모르고 그냥 올라가 그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죽었지 뭐예요.

(해산은) 그 집에서 낳지요. 그 산쪽 저쪽 동네. 안 갔어요. 그때는 (친정에) 갈 줄도 모르고 보내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낳는데. 그냥 계속 울어요 그냥. 계속 울더니 한 하루 울고 하루 고 다음날 그냥 만 이틀만에 죽더라고요. 그것이 놀래서 그랬대나봐요. 뱃속에 있을 때 애가 놀래면 그렇대요. 그래가지구 죽었어요. 죽고 나서 한 일년 다 안 가서 또 우리 아들 난 거예요. 임신할 때 입덧을 안 하니까 있는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구 낳고 나서 입덧을 하더라고요. 밥을 못 먹었어요 낳고 나서. 기운이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운이 모자라서.

(첫째 아이 잃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주 너무 분하고 부끄럽고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 그 힘들어서 난 게 죽으니까 너무 분하더라고요. 힘들어서 난 게 너무 분하고 바깥에 나가니까 부끄럽고. 힘은 다 들었는데 뭐 아무 저기도 없잖아요. 대우도 못 받잖아요. 뭐 밥을 해다 제대로 쥐요 뭐 그렇잖아요. 안 난 것 같이 살았죠.

(둘째 아이는) 그때는 알았어요. 이젠. 그때 임신한 것 알게 되겠더라고요. 조심은 무슨 조심을 해요. 다 했어요 그냥. 다 했는데 뭐 임신했다고 뭐 하나 안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칠월에 낳 달인데 칠월이 칠월 이십칠일 날 음력으로 할머니 여기 시할머니 환갑이셔요. 환갑이시라구 이젠 큰 고모님께서 오셔서 거들어 주시는 거죠. 요 뒤란에 뜰이 넓으니까 거기 풀 뽑고 그러는 걸 다 뽑고. 그때는 떡도 하고 뭐 집에서 다 하잖아요. 하나도 다른 데서 해오는 것 없고 떡하고 뭐 음식 다 장만하고 나서 환갑해 드리고. 그러니까 이십팔일 날 그 뒷청소 뒷설것이까지 다 해놓고 29일날 낳거든요. 내일 모레 날 건데 환갑잔치 한 거예요. 이 쪼그만 데에다 글썽 그걸 했으니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가만히 드러 누어서 생각해 보면 기가 찰 때가 있어요. 키도 크지도 않고 쪼그만 몸매이에다 애를 여기다 놓고서 환갑잔치를 했으니. 그래도 힘드는 걸 몰랐어요. 그렇게 힘드는 것 모르고 그냥 했어요. 지금은 임신하면은 뭐 가만히 모셔놓고들 그러는 걸 보면서 아주 그때하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달랐죠. 예. 일생 동안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예. 일생 동안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임신하면 부끄럽기만 하고 누가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랬어요.

흔히들 얘기만 들었죠 주변하는 건 못보고, 한 삼칠일은 다 들어앉아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삼칠일은, 삼 주. 삼칠일 못 하고서 그냥 이주되니까 뭐 몸도 가볍고 첫애니까 그냥. 그런데 밥맛이 없어 가지구 밥을 못 먹어서 기운이 없더라구요. 이렇게 일어날려면 현기증이 나고 좀 어지럽고, 그런데 고기가 그렇게 먹고싶을 수가 없더라구요. 애기 낳고서. 낳기 전에는 입덧을 하나도 안 해서 뭐 먹고싶은 것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낳고 나서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먹고싶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젠 밥이 맛이 없어요. 산모가 밥을 잘 먹으면은 금방 얼굴이 흰 얼굴이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밥을 못 먹으니까 삼칠일이 지났는데 발에 나가서 고추같은 것 따고 이러니까 동네사람들이 저기 뭐야 병 앓고 나온 사람같다고 그러더라구요. 난 모르죠. 내 얼굴이 어떻게 됐는지도 그냥 누가 뭐 그냥 자세히 보지도 앓고 그냥 있는데 병 앓고 나온 사람 같으니까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그러시더라구요. 동네아줌마들이. 밥을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조리를 못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밥을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어요.

두 주일 되니까 그냥 일하라고 그러시더라구요. 할머니도 그러시구 시어머님도 그러시구. 두 주일 되니까 일하래요. 그냥 집에, 집안일이죠. 청소하고 부엌에 가서 밥하고 그런 것 하는 거죠. 예전같이 똑같이 일하는 거죠. 날씨가 더우니까 그때는, 추우면 바람쐬지 말라고들 그러는데 그때는 칠월이니까 날씨가 더웁잖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 안 난 사람같이 그냥 똑같이 했죠. 뭐. 워낙 일이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앉아 있기가 그러더라구요. 일이 많죠 아주. 시골이고 식구가 많고 어른들 계시고 지금 같으면 빨래같은 것 뭐 세탁기에 하는데 그때는 다 손으로 해야되고, 한 두 주일 정도는 산후조리라고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아요. 두 주일 사이에 이젠 시어머님이 하셨죠. 간신히. 숨이 차시다고 그러시면서 간신히 하셨죠. 마루도 넓고 아주 힘들어요. 집안 치는 것도 그렇고.

(첫째 아이) 그 때는 이 주도 아니지요. 처음에 그거 죽었을 때에는 이 주도 안 있었어요. 한 일주일 겨우 있었어요. 그런데도 애들이라 그런지 안 좋은 것도 모르고 그러저럭 살았어요. 미역국도 안 끓여다 주더라구요 그때는. 죽으면 미역국도 안 끓여준대요. 그냥 이런, 식구들하고 같이 해서 먹고 그랬어요.

### 3. 할머니의 육이오

#### 남편의 실종

육이오 나고 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갔어요. 밝지도 않아서 와서 데려갔어요 청년회장이 라나 누구래더라. 누가 누구진 모르는데 와서 새벽에 불러서 밝기도 전에 갔어요, 동네 사람 두 사람을 데리구. 글썽 한 삼일만 지키면 온대요. 한 삼일만 지키고 이젠 그 삼 일만 되면 후퇴하고 다 넘어갈지 알은 거지요. 밀려 내려갔잖아요 그냥 다 휩쓸려 내려갔지. 그때 낙동강까지 밀려내려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구는 고만이지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정말 신기하기두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왜 아버지가 없느냐고 그때 들도 안 되었으니까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칠월 달이 들인데 오월 달에 돌아가시니까 두 달만 있으면 들이잖아요 그때 아무 것도 몰라요. 자라면서도 아빠가 왜 없느냐고 물어도 안 보고 어디 갔느냐고 물어도 안 보고 전혀 안 물어봐요, 그래서 난 그게 신기하고도 이상해요. 물어보면 더 가슴 아플텐데 안 물어봐요. 왜 아버지가 없느냐고 물어도 안 보고 어딜 갔느냐고 물어도 안 보고 그냥 다 아는 것처럼 살아왔어요. 그게 좀 이상하다구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 소리 한 번도 못 해보고 살았는데 그걸, 지 마음도 좀 안 좋았을텐데 그걸 안 물어보고 이상해요. 속상할까봐 안 물어봤는지 철모를 때 땃살 되었을 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왜 아빠가 없느냐고 이 소릴 안 해요. 그게 신기하고도 이상해요.

그게 날짜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죠. 올 때만 바라고 살아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뭐 그 일에 아는 분인가 봐요, 그분이 이젠 어떻게 해서 그걸 확인을 했죠 이젠. 실종된 것도 일단은 전사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가지구 이렇게 유기족으로다 해는 거예요 그 아는 분이. 그래도 그냥 아무 때라도 환갑 안에는 오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구 계속 살은 거예요. 밤에도 개만 짖으면 오는 것 같고 그랬다구 밤에도. 아직까지도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어요. 죽은 걸 보지 못했으니까 소식도 안 오고. 그래서 국군포로로 있는 사람도 저렇게 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 올까 그 생각도 들어가고 세상에 없으니까 안 오겠지 이렇게도 들어가고 그래요. 환갑 안에만 와서 며칠이라도 살다가 죽으면 과부소리라도 안 들으면 그것만 생각했는데 환갑은커녕 이젠 칠십이 넘어도 안 오니 뭐. 국군포로에 대해선 전혀 얘기도 없잖아요. 그 얘기만 나오면 정신이 번쩍 났다구 그냥. 그 이산가족만 하고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왜 얘기가 없는지 몰라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산가족은 자기네들이 서로 좋아서 헤어진 것 아니에요. 국군포로는 억지로 잡아갔는데 왜 그걸 교환을 안 하고

왜 상담을 안 하는지 몰라. 확실히 알고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라도 과부소리나 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 과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죽으면. 그냥 날마다 기다린 거죠 뭐 날마다 그냥. 한 삼 일만 뭐 어디 시(市) 그전에 읍사무실인가 봐 거기 지키고 온다는 사람이 안 오는거죠, 한 삼일. 누구 같이 간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편입했다는거야 군인으로. 그 사람은 뭐 심장이 안 좋아서 왔다고 그러더라구요. 편입했다는 소리만 들었지 전혀 소식이 없는거야.

뭐 시부모님들도 뭐 내가 복이 없어서 안 온다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대놓고 안 하셔도 하시더라구요. 나에게 대놓고 안 그러셔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구요. 주위에 얘기하시는 것 보면은 이제 복이 없어서 안 돌아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구요. 다 그러죠. 뭐, 어른들. 당연한 거잖아요. 남은 오는데 안 오니까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들 하시더라구요.

### 의왕에서 버틴 6·25 피난생활

피난도 안 갔어요. 피난을 왜 안 갔는가하면 어른들께서 시동생은 학도병 가고 막내는 피난 간다고 아버님하고 내려가시고 부곡 아래로.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시어머니 나 네 식구, 어린애하고 다섯 식구 남았는데 남자들은 다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피난을 가느냐고 안 가시더라구, 난 가고 싶더라구 피난을.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때 선전하는 소리가. 여자들은 뭐 그냥 다 잡아가고 뭐 남자들은 어린애들은 죄 죽인대 그냥. 그런 소리 듣는데도 안 기는데 어떻게 혼자 가는 재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난을 안 갔어요. 피난 안가고 있었는데. 중공군이 그냥 아침에 이제, 그러니까 저쪽 저 장안말 구석에 사는 데 여기, 여기에 관사라고 몇 집이 살았는데 여기있는 사람들이 피난을 왔어요. 그 구석으로 피난을 와 가지고 거기서 서너 집 식구가 같이 사는데 서울에서 고모님들이 두 분이 내려오시고.

(시아버지는) 그러니까 저 제천인가 어딘가 계셨어요. 제천.

마을 상황은 다 피난가고 사람 별로 없었어요. 남자들은 다 가고 여자도 거짐 다 가고 남은 집이 몇 집 안 됐어요. 우리 작은집하고 몇 집만 여자들이 남아 가지구 있었다구. 다 남자들은 다 피난 가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세 많은 할아버지들 할머니 이렇게 몇 분만 남고 거짐 다 간 거예요. 얼마나 무섭다구, 그 사람들이 오면 다 죽인대 사람을. 그런데도 우

리는 군인을 시동생은 그러니까 학도병으로 나가고 막내만 학교 다니다가 있었구 그래서 군인가족이라 더 심하게 할 거래요 우리는. 그래가지구 그냥 나간단니까 못 나가게 하시더라구, 어린애나 데리고 친정 쪽으로 갈라구 그랬는데 못 가게 하세요. 남자들은 다 나갔는데 여자들 가서 살아서 뭐 하느네. 그래서 못 가고 그냥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사고는 없었어요. 그 동네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사고는 없었는데 그 저기 뭐야 그러니까 미군이 그런 거잖아요. 기관총 쏘고 그런 것은. 중공군 지나가면 기관총 쏘고 그러는 거.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바깥에 나왔다 그거 그 비행기만 오면 기절해서 집으로 뛰어들어갔지요 그냥. 하여간 동네 산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산 넘어서 갑자기 오더라구요. 그 비행기가 와 가지구, 떨어지는 자리는 없는데 그렇게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거예요. 아주 귀가 뚫릴 정도로 소리가 나요. 그러면 집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걸 다 보고 여기서 겪었죠. 중공군들이 눈이 하얗게 됐는데 와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자요. 그냥 무조건 말도 안 하고 못 하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와 가지군요 방에 들어가서도 이불 요를 다 꺼내서 덮고 깔고 신도 안 벗고 자더라구요. 그리고 저녁때면 밥을 해달라고 해서 밥 먹고, 이렇게 보면은 저녁 때 그냥 쪽 줄을 서서 내려가요. 눈길로는 위로 길도 아니고 논바닥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주 육이오 때.

그 중공군들이요? 그러니까 한 서너 번 들어왔어요. 한번은, 처음 온 거예요. 한번은 처음에 이젠 아침에 이렇게 자고 나서 내가 먼저 밥을 하려고 부곡서 온 사람들도 있고 고모님들도 있고 안방에 전부 몰려서 자는 거지요, 자는데 그냥 갑자기 대문을 열고 시꺼먼 사람들이 돌이 셋이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무서워서 부엌 뒷문으로 해서 안방 뒷문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냥 다락에 가서 숨어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두 잡아간다 해가지고 무서워서 숨어있고, 그런데 할머니가 나오셔서 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구요, 돌아다니면서 밤을 묶어놨는데 밤구덩이를 파요, 저희가. 파가지고 그것을 통째로 솥에다 놓고 볶더라구요. 그래서 할머니가 해준대도 못하게 하고는 저희가 볶아 가지고 먹고는 방에 들어가서 자고 밤에 저녁해 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리고 나더니 한번은 또 그냥... 갑자기 대문에서 그냥 총을 대고, 할아버지가 나가니까 총을 대고 그냥 그러니까 누가 안에 있느냐고 일러달라는 건데 말을 못하잖아요, 총을 대고 들어오더라요. 들어와서 또 하룻밤 자고 가고, 그리고는 또 한 번은 그 동네 와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집에 숨었는데 그걸 잡아갔대요. 국군이. 그걸 잡아갔고 그렇게 했어요. 육이오 때 너무 무서웠지요. 그거

잡느냐고 그렇게 총을 기관총을 쏜 거 봐요 미군이 미국이. 너무 소리가 되게 나고 귀가 아주 뚫어질 정도로 소리가 나서 기절해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그 소리만 나면. 그리고 여기 부곡, 여기 여기는 폭격도 했지요. 몇 집, 요 아래는 몇 집을 폭격도 했어요. 여기 관서집이 있었거든요 철도 관서가, 백 호가 있었는데, 그 집을 그러니까 폭격을 한 거예요. 아주 없애버렸죠. 거기서 중공군이 들락달락하는 것을 본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런 산 구석에는 아직 폭격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런데 그러구나서 한번 또 왔었어요. 중공군이. 이렇게 이젠 내려가다가 밤에, 밤에 내려갈라고 집에 와서 자는 거예요. 우리집에 와서. 방에 들어가서 그냥 그 이불을 피난갈려고 뜯어서 숨은 버리고 거죽만 가지간다고 싸놓고 숨만 있는데 그 숨을 깔고 드러누워 신을 신은 채 자더라구요. 그러더니 저녁해달라고 해서 먹고 밤에 가는거야. 밤이면은 가더라구요. 그러구나서 미군은 안 들어오고 그 국군이라고 한번 들어왔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와서 스쳐 지나가기만 하고 뭐 무슨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동네 순정이라는 사람이 와 가지구 그렇게 저기 뭐야 오빠 어디 갔냐고 그러면서 방에 들어와서 막 이런 텔 만지고 그래요. 처년줄 알았나봐 오빠 어디 갔느네. 쪼그맣고 뭐 처년줄 알았나봐. 고모님들과 허구 넷이 앉았는데 그러더라구 나만 가지구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그러구 군인은 별로 안 들어왔는데 그냥 총 쏘는 소리 기관총 쏘는 소리에 너무 많이 놀랐죠. 기관총, 비행기만 지나가면 그냥 얼마나 세계 기관총을 쏘는지 어따 쏘는 건지 모르는데 그렇게 그냥 귀가 그냥 이플 정도로 막 쏘더라구요. 그것만 오면 방에만 꼭 들어앉아 있고 나가지도 못하고 발에 파같은 것 뜯으려 나갔다가도 그냥 곤두박질을 해서 뛰어들어와야 되요 집으로.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전쟁 끝나고 죄 돌아왔지요. 제집 찾아서 다 돌아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식구가 그냥 고모님들 세 분이 다 피난오고 그래서 항상 식구가 많았어요. 일사후퇴라나 그 겨울에 후퇴해 갈 적에는 그냥 우리 집안에 그냥 꼭 잤어요 피난민이. 어디구 그냥 마당이구 부엌이구 뭐 소자는 외양간이구 나뭇간이구 사람이 가득 차 가지구 그냥 가지구 와서 보따리들 퍼가지구 죄 깔고 자더라구. 하룻밤 자구 장작을 해서 저기 뒤에서 잔뜩 싸놓았는데 그 걸 다 갖다 불놓고 그냥. 그래서 할머니가 그것 다 갖다 불놓지 말라고 그랬더니 당신들도 내일 모레 다 쫓겨나갈거라구 그러면서 불놓더라구. 그때는 아주 니것 내것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무섭더라구요 아주. 그 사람들 몰려들어오는데. 잘 자리 없다고 해도 다 들어와

요. 대문 열고 다 들어와요 피난민들이. 가다가 하룻밤 자고 갈려고. 그래서 그냥 부엌에도 들어 갈래도 발이 걸려서 못 들어가구 방이구 부엌이고 뭐 외양간이구 뭐 사람이 그냥 꼭 차고 가지구 자고 나간 거예요.

(6·25전쟁 동안 생활은) 그러니까 일꾼 두고서 그래두 했어요. 농사를, 일꾼 두구서 농사지어서 일꾼 주고 조금 남고 그랬어요. 뭐 그때는 나가보지도 못하고 이웃 저기도 잘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도 확실히 몰라요, 집안에서 들락달락 밥이나 먹고 살았으니까. 육이오 때 한참 저기할 때 간 사람도 있고 안간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친정은) 피난 가셨대요. 육이오 때. 나중에서 들었지요. 우리는 나중에서 오서가지고 피난갔다 오서가지구 오서서 들었죠. 그러니까 일사후퇴 때 들어오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때 피난 바로 소에다 양식을 싣고 다 가져가셨다가 소까지 다 팔고 그러구 오셨대요.

#### 4. 고단한 생계유지

##### 가사 노동

즐거웠던 기억은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즐거웠던 기억이. 그래서 저 집에서 그렇게 많이 살다 나왔는데 나온 지가 한 십, 팔팔년에 나왔으니까. 그 집으로 가고싶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집도 가고싶고 그렇다는데 집도 가고싶지 않아요. 하나도 재미있었던 게 하나도 없어요. 재미가. 거기서는 일만 하고 그냥 새벽밥하고 일하고 그냥 물길어오고 들에 나가서 일하고 이 생각밖에 안나요. 그 들에 가서 일하던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살림살이요. 살림살이야 어른들 계시니까 나는 그냥 조석하는 거고, 그때는 시장 보는 것은 전혀 없이 살았으니까요. 시장 보는 게 그게 소원이었어요. 진짜, 몇 년 살면서 시장에 가서 반찬 좀 시봤으면 그런 생각이 났었어요. 그냥 다 집에 있는 걸로 해결하고 제사 때나 이렇게 고기 좀 사고 명절 때나 좀 사고. 그렇게 살았어요. 살림살이가 그냥 조석해서 이렇게 있는 것 가지고 채소 이런 거 가지고. 반찬은 그냥 채소예요 다. 그러니까 어른



종갓집 뒤뜰 꽃밭에서(1950년대 초반 봄)

들 상에만 반찬 좀 사다가, 장에 가시면 사오시더라구요. 사오시면 어른들 상에나 해놓고 그렇게 했죠. 야채요 순 야채, 그냥 김치,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질 수 없어요. 생활 저기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 거의 다 보리밥이지요. 그냥 쌀 조금 씻어서 어른들 진지만 푸면 나머지는 다 보리에요. 그렇게 보리 때는 보리만 하구 그저 쌀 나오면 쌀 많이 하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친정에서 보면 항상 쌀에다가 잡곡을 저금씩 넣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오니까 하얀 쌀만 해요. 선달에 시집왔는데, 그래서 여기는 쌀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봄이 되니까 보리 거진 나오기 전이 되니까 쌀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보리 나오면 그냥 보리로만 살고 밀 심어서 밀가루하구, 쌀 조금씩 해서 어른들만 드리는 걸루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간장은 메주를 한 열 말씩 썬다고 해요 처음에는, 열 말 정도, 열 말 정도 썬서 그것을 간장 담그고 고추장 담그고 그래서 그게 일년이면 얼마 안 남아요. 이젠 사람 얻어서 일하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먹으니까 얼마 안 남더라구요. 해마다 담아야 되지요. 메주 썬고 해마다, 가을이면 메주 썬고, 집도 초가집이었잖아요 옛날에, 이영 뛰어서 지붕해야 되고 그래

서 농사지어 놓고도 그것 해야 밭일 다했다고 들어앉아 있는 거죠. 봄이면 또 울타리 수수 짱 위에서 울타리 해야 또 봄에 농사짓는 준비하는 거고, 일이 너무 많았지요. 그때는. 지금은 지붕도 안 하고 울타리도 안 하고 너무 편하죠. 그걸 해야 가을이면 지붕을 해이어야 마음을 놓고 이젠 가을떡도 하고 가을떡을 해서 먹는 거예요. 지붕을 해이어야. 갈떡이라고 큰 시루에다 이렇게 떡 썬 가지고 이젠 고가까운 동네 다 노나 먹는 거예요. 가을만 되면 그것 해야되요. 다해놓고 나서는.

얼마나 아주 고통을 느꼈는데요. 빨 적엔 그냥 빨아요. 솜만 빼내고 그냥 빨아가지구 풀 먹어서 고거 다 뜯는 거예요. 조각조각 바지 붙인 것 있잖아요 그거 다 뜯어요. 그것도 겁이 나더라고요. 뜯는데 난. 우리 어머님 아버지는 그냥 농사만 짓고 그러시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한 쪽만 뜯을 수도 있고 반만 뜯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홀랑 다 뜯어요. 쪼가리 쪼가리 그냥.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그냥 손질해서 하루 종일 다듬질해 가지고 또 홍두깨가 있어요. 이만한 나무통, 거기다 감아 가지고 또 뚜들겨야 뻥뻥해 해지지 안 그러면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구 그걸 그래서 그냥 꿰매 놓으면 다리미질 해는 것 같아요. 그래두 이젠 뒤집고 하다가 꾸긴 자국이 있으니까 다 꿰매서 아침에 내다 널어요. 식전에. 이슬맞은 것을 죄 다리는 거예요. 바지 만드는 것은 이슬 맞은 것을 걷어다가 다리미로 이렇게 다리는 거예요. 다리미로. 이만한 데에다 자루가 달린 게 있어요. 아궁이에다 장작불 때 가지고 거기다 담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어서 가지고 잘 안 내려지고 그러지요. 그렇게 다듬이질 했어요.

그렇지요. 다 했죠. 그런데 그런데 시아버님은 집에 많이 안 계셨기 때문에 많이 안 했어요. 집에 별로 안 계셨어요. 그리고 저녁이면은 그냥 식구 양말이 다 면이니까 한 번만 신으면 뻥뻥 뚫려요. 그것을 밤 등장 불을 켜놓고 한, 시간 열 한시가 넘도록 꼬매야 해요. 그걸 그래야 그 이튿날 신고 가잖아요. 하루만 한 번만 빨면 뚫어지고 한 번만 빨면 뚫어지고 지금은 양말도 안 떨어지잖아요. 날마다 그걸 꿰매야 해요.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뭐 그냥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책을 안 들여다 봐서 왜정 때 배운 거나마 한문을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국어책의 거진 삼분의 이는 한문이었어요. 육학년 오학년 때는 그런데 그것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내버려둬서 그때 일본말을 배웠어도 표놓고 가끔 들여다보고 그랬으면 좀 아는 게 있을 건데, 그래서 한문을 몰라 가지고 지금 답답해요.

뭐 제대로 잘 약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시아머니가) 기대도 못하셨죠. 뭐. 작고 힘이 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별로 기대를 못 하셨지요. 그래도 내 책임은 다 했어요. 나한테 닦치는 건 안 한 것은 없어요.

(시아머니는) 안 하셨죠. 일을 잘 못하셨어요. 심장이 안 좋으셔서 가지구 숨이 차서. 일을 잘 못하셨어요. 바느질같은 건 같이 하셨죠. 바느질은. 바느질을 같이 하시고 다듬이 두드리는 건 같이 하시긴 하는데 힘이 많이 드셨어요.

구박은 안 하셨어요. 구박은. 그러니까 당신 일 못하시니까 일을 많이 시키시는 것밖에 다른 것은 없었어요.

부업은 없어요. 할 것도 없고 할 새도 없고 그때만 해도 부업할 게 없어요. 할 것도 없고 할 새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도 없어요. 농사 지을려면 그냥 눈만 뜨면 일해야 하니까 할 시간이 없어요. 밭에도 가고 산에도 가고 안 간데 없이 다갔죠. (산에 가서) 나무 끊어서 여가지고 와야죠. 여다 땀쫓고 고 집 근처 꼭대기 산에. 하루 날을 잡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젠 집엿일 하고서 시간 남는 것 가는 거예요. 집에 일 다하고 시간 남으면 가서 끊어 가지고 오죠. 이고 오는 거예요. (주로 연료를) 그걸로도 하고 그러니까 일꾼을 일꾼이 해 다 놓긴 놓는데 그게 부족하지요. 그래서 더 땀라구 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보자기로 싸가지고 이고 오고.

중부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한 것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게 생겨서 많이 한 거죠. 시아버님이 같이 집에서만 살으셨어도 들 고생했죠. 시아버님이 그렇게 항상 나가서 계시고 남편 없고 할아버님은 또 연세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생겼잖아요. 환경이. 시어머님은 또 숨이 차서 일 잘 못하시고. 그래서 그런 거지요.

### 맹벌 아래 보리 털기

시아버님은 그러니까 시집오니까 만주에 계시다가 7년만에 오셨다고 그래요. 해방되던 해에 시집을 왔거든요. 해방되고서 해방되고서 바로 나오셨더라구요. 7년 만주 가셨다가 7년만에 오셨대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허구 그리고 시동생만 계시더라구요. 시어머니도 계시고. 할아버님이 많이 하셨죠. 할아버님이 제사 계속 많이 지내시고 그러니까 동산이 이렇게 많았어요. 산이. 종가집 재산. 종가집 산이 많아 가지고 전부 산소가 계시죠. 산에. 밤나무를 많이 심어놓으시고 그걸을 따서 그걸로 조금 용돈을 쓰시더라구요. 밤을

가을이면 밤을 따서 그거 다 돌아다니면 줍어야 되요. 밤탕이를 줍어다가 그러다가 쌓아 놓고 김장해놓고 그걸 까요. 그걸, 김장해놓고 추운데 가 앉아서 까면 궁뎅이가 얼어빠지는 것 같고 그렇게 까서 그걸 팔아 가지고 용돈 쓰고 그러셨어요. 쌀은 식량은 좀 모자라니까 돈이 안 되더라구요. 그러고서 할아버님이 구십세 살까지 제사모시고 계셨죠. 시아버님은 그 만주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 얼마 안 계시다가 또 나가시더라구요. 측량기술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측량기술. 그래서 이젠 그것 하신다고 지방으로 나가시고 계속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을 안 하신거죠. 시아버님은.

농토도 작지요 우리집보다 작고, 일꾼을 두고 하니까 모자랄 수밖에 없더라구요. 일을 집에서 하는 사람이 집에서 없어요. 하나두. 시아버님은 그렇게 나가시고 또 남편은 군인 가고 할아버님은 또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일을 못하시니까 일꾼을 두고 하는데 일꾼 주고 나면은 식량이 부족해요. 항상.

소출은 뭐 한 마지막에 그저 쌀 한 가마 조금 더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논 한 열여덟 마지 정도 되는지 그 정도도 될 것 같아요.

일꾼은 한 일곱 여덟 가마도 주고 어떤 때는 더 줄 때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더 잘하는 사람은 더 주구요, 좀 애들은 좀 덜 주고 그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식량이 항상 모자라더라구요.

(겨울에는) 시간의 여유는 있는데 바느질하고 그 빨래하고 그러니까 쉬어볼 새가 없었어요 겨울에도. 편안하게 그냥 쉬어본 적이 없어요. 겨울에도. 그런데 이젠 시집와서 몇 년은 그것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젠 시동생들도 양복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빨래가 쫓아 들고 그런 대신에 밭일을 나가서 해야되요. 밭에 나가 일해야 되고 여름내 밭에 가서 일해야 되요. 보리, 쟈 고통스러웠던 게 그 보리 벨 때가 제일 안 잊어버려져요. 보리, 얼마나 보리 벨 때 벨이 뜨거운지 말할 수 없이 뜨거워요. 그때 모자도 없고 그냥 수건때기를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보리 베는 거예요. 띄약벌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아주. 보리벨 때가.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벼야 되지요 여럿이 나가서 해도 이틀 정도 벼야되고, 터는 것은 남자들이 대강 절구에다 이렇게 퇴질을 해가지구 대강 털어서 그 짚이 많이 달려있어요 보리가. 그걸 쭈북하게 쌓아 놓더라구 마당에다. 쌓아놓고는 들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일꾼들은 남자들은 이젠. 여자들이 그걸 마당에다 짝 퍼놓고 도리개로 터는 거예요. 그걸 털 때도 말할 수 없어요 아주. 벨이 딱딱딱하게 나는 날이나 그게 떨어지지 또 빛이 흐린 날은

안 떨어져요. 눅눅해서. 그래서 남자들허구 같이 하는 사람은 좀 덜 힘드는데 여자들끼리 그걸 할러니까 그것 너무 안 떨리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걸 떨을 때마다 그냥 속으로다가 아유, 육이오 나고 한참 있다가 그랬지 그전에는 그럴 생각도 못하고 그전에는 그런 것 안 했거든요 안에서 일단 하고. 육이오 나니까 전부 해야되고 그러니까. 그걸 할 때마다 아유 내년에는 거지를 밥을 얻어먹으러 댕겨도 못 할거라구 맹세를 하고 그냥 겨울나고 봄 되면 또 하고 그렇허구 시간이 세월이 다 간 거예요. 내년에는 밥을 얻어먹어도 이걸 못 하겠다구 속으로 혼자 결심을 하는 거지요. 그래도 엄두를 못 내고 못하고 그냥 그것 하다 늙었어요.

평생 안 좋았어요. 일에 몰리고 지금말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나. 항상 매여있고 피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 하기 싫어도 해야되고 그래서 항상 머리가 아팠어요. 머리가 그렇게 아퍼가지구 머리 맑을 날이 별로 없었어요.

### 소질없는 장사

(아들) 학교 다닐 때에 영등포에다 팔았어요 영등포에다. 남들 기는데 따라가고. 학교 가기 전에도 여기 근동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구요. 역이 가까워서 그런가봐. 부곡역이 가까워서. 채소를 해서 이고 영등포로 제 가요. 거기 따라가서 팔고 그래서 남들 가니까 갖고 돈 쓸러니까 가고 그래서 계속 했어요. 계속 하다가 부곡에서도 뭐 팔 수 있으니까 좀 안 갔죠.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요. 너무 힘들고 가는 게. 그러구 장사엔 소질이 없어요 말을 못 하니까 장사가 잘 안 되더라구요. 다른 사람들 것은 먼저 다사가도 내 건 안 사가요. 말도 못 하고 앉아서 누가 가져갈 때만 바라고 있으니까 그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도 그냥 가긴 가도 남들처럼 돈도 많이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재미가 없죠 힘만 들고. 얼른얼른 팔아서 돈을 해야 그게 재미가 나는데 그렇게 했어요 장사를. 그러구 부곡에서 좀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고 하니까 채소같은 건 팔리고 그러더라구요. 처음에는 수원으로도 그냥 감자도 이고 가고 밤도 이고 가고 쌀도 이고 가고 뭐 사올래면 그렇게 이고 갔었어요. 버스도 없더라구요 그때는 어떡해서 수원을 걸어 갔어요. 이렇게 술같은 것 깨진 것 국술이 깨지면 그걸 사올래면은 그런데 그때는 차가 있어도 그때는 탈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유목리 그걸 타도 뭐 반밖에 안 오는거지 그러니까. 저 아래 국도 큰 국도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국도. 거기까지 와서 버스는 저리 올라가니까 산 고개를 넘어와야 돼요. 그나마도 돈을 아끼려고 그랬는지 잘 타

지도 않고 남들도 그러구. 그랬는데 술 사가지고 올 때는 버스를 타고 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멀어 가지구 여기 부곡에는 그뎨 아무 것도 없었구. 너무 사는 게 그렇게 비참했다고 할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것. 살은 게 너무 '이것이 인생이다' 나오면은 나보다 더한 사람은 있긴 있더라구요. 더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채소와, 먹을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심어놓고 되면 파는 게 위주였다고. 먹는 것은 나중이고 갖다 팔아서 돈 만드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어디다 팔던지 그렇게 팔아온 거예요. 쌀같은 것 팔아도 이렇게 앉아서 파는 것보다 이고 나가서 팔면 좀 돈을 더 받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수원으로두 가지고 가기두 하고, 우리 집에 또 감나무가 많아요. 감나무가 많이 있는데 고 감을 따서 저기 팔월만 되면은 하나하나 먼저 몰르는 게 있어요. 그것을 장때기로 따가지구 광주리에 와서 부곡에서 여다 팔고 다 추울 때가 되면 전체를 다 따서 또 여다 팔고. 그런 것 해가지구 어떻게 그래두 좀 용돈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살림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살림하기 전에도 그런 걸 해긴 했지요 할아버지 갖다 드리구. 할아버지 돌아가시구 나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살림을 한거지.

### 남편없이 산다는 것

설움도 많죠. 아무래도 남자있는 사람보다는 가치가 없잖아요 보기에다 벌써. 그러니까 막말로 해서 뭐 병신이지 그게 뭐 온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온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옛날말로 혼자 사는 것은 그 병신이지. 그 한쪽이 없는 사람이니 뭐, 그렇게 살은 거예요. (내) 닷은 아닌데 뭐 팔자라고. 이렇게 저기 뭐야 속상해서 그러면은 속상해본 적도 없고 그냥 그럴 여가도 없고 한번도 이렇다 저렇다 뭐 성질 내본 적도 없고 그런데 한번은 아들 아주 어려서 한 뎨살이나 되었나 그랬는데, 뎨살도 안 됐어요 내가 들에 나가기 전이니까 한 서너 살 때, 어른들은 나가서 일하시구 늦게 들어 오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먼저 저녁을 먹었죠. 아이들이라야 아들은 하난데두 아이들이 항상 둘씩 셋씩 이렇게 있었어요. 삼촌 네 아이들 서울 살 때 데려다놓고 고모네 아이들 데려다놓고 항상 아이들은 둘 셋 이렇게 있었어요. 먼저 먹이고서 어른들 들어오시면 저녁을 차려다 났는데. 그 어려서 그렇게 입이 짧아요 우리 애가. 음식을 잘 안 먹어요. 삼촌댁이 난 딸아이가 우리 아들하고 동갑인데 개는 그냥 안 줘서 못 먹고 더 안 줘서 못 먹어요. 이긴 재뽏도 안 먹고 괜히 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놓고 할머니가 식사하시니까 거기 반찬이라도 더 있잖아요 아무래도, 저희들 준 것보다. 그 옆에서 칭얼칭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애를 데리구

나갈 것 아니에요. 데리구 나가서 이젠 야단을 쳤지요 바깥에 나가서. 왜 먹으랴 때 안 먹고 그렇게 할머니 잡수는데 속썩이냐고 그러니까 아이 우는 소리가 났지. 그랬더니 괜히 나보고 성질 부린다고. 할머니가 할머니가 그랬어요. 누가 뭐 저기 사내를 뭐 뺏어다가, 그때 그러니까 육이오 나고 조금 있다니까 서너 살 먹었지. 사내를 뺏어다 감쌌나 뭐했나 그러구 하셨대, 내 귀에는 안 들렸는데 그랬다구 들은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리 속이 상해도 성질도 안내보고 그런 소리 들을까봐서 나는 그런 뜻에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소리 들을까봐 아무리 속상해도 성질도 안 내고 그러구 살았어요.

뺏어다가 어디에다가 감쌌느냐. 사내 없어서 성질 부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거죠. 사내가 없어서 성질 부린다 이거죠. 뺏어다 감쌌냐 그 소리예요.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애가지구 그랬는데 그렇게 화났다고. 원래 그렇게 화내고 누구 탓도 아니니까 뭐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억지로 참고 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구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성질도 못 내고 참고 살았어요. 다른 것 때문에 속상해도 성질도 못 내고 그냥 살았어요.

둘째 시동생은 대학 졸업하고 군인을 가는데 대학 졸업하고 군인 가는 걸 기다리고 몇 달 동안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그냥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잘라다 싸놓고 불도 잘 때고 겨울에. 그러니 일도 남자니까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까 힘이 안 들고 좋더라구요. 너무 좋았는데 그냥 군인가는데 우리 남편 군인가 때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식전에 그냥 자는 걸 데리고 갔으니까 방위군이라구. 그때는 아무 저기도 몰랐는데 시동생 군인 가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저기 우리 동네 산고개를 넘어가야 수원을 가는거야. 그리 넘어가는걸 보고서 고개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 한번 실컷 울었어요. 여간해서 안 울었거든요. 우는 것은 재수 없다고 그냥. 그렇잖아도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울면 더 재수가 없다고 남들이 그래 가지구 억지로 참고 안 울었는데 그때는 목을 놓고 그냥 실컷 울었어요 아주. 시동생 군대 가는데 못 살겠더라구요. 좀 도와주다가 가니까 더 죽겠는 거예요. 그때가 한 사십 안 되었을 거예요. 사십, 사십 안 되었을 거예요 삼십 한 오륙세 되었나.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재혼을 해요 아들을 주진 않을 거고 여기서. 재혼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고 그냥 이 일을 안 하고 나가서 다른 일을 해가지구 먹고살고 싶은 생각은 뭐 항상 가지구 있었지요. 그런데 그걸 결단을 못 내린 거죠. 농사일 안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농사일이. 나가서 빌어먹어도 얻어먹어도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를 두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다른 일을) 여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여기 집에서는. 농사일을 해야 될테니까 여기 있으면 그걸 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대로 그냥 배반을 하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바느질하는 게 재미있었거든요 젊어서는 바느질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나가서 배우면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나가서 그런 걸 했어도 그렇게 힘은 안 들고 살았지. 그것도 못한 거예요 결단성이 없어요 내가. 아니 그냥 못 본 척 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걸 한 번 나가면 다시는 못 들오는걸 생각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한 번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오지 어떻게 들어와요 재혼을 했건 뭐를 했건. 재혼을 할 생각은 못 해봤어요 아이 땀에. 그런데 다른 직업을 좀 갖고싶은 생각은 많이 했죠. 그런데 그걸 못했죠.

## 5. 종부로서의 삶

### 제사와 명절

제사가, 제사가 그러니까 선달에 두 번 동짓달에 두 번, 하여간 여덟 번이죠. 여덟 번. 제사 여덟 번이고 명절 제사까지 열 번이지. 일년에. 제사 때면 지금은 제사지내는 것 너무 편하고 그냥, 아유 그때 생각하면 너무 편해. 제사 때면 콩나물 길러야 되고 두부 만들어야 되고 술 담가야 되고. 참 힘들었어요. 누름적도 이렇게 지금은 편하게 부치는데 그때는 바깥에서 불을 때면서 부쳐야 되고. 바람이나 불면 그냥 연기가 앞으로 와서 마냥 울고 앉아서 부치는 거죠. 양도 많이 하고. 그때는. 지금은 안 덜 먹어서 쪼끔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씩도 있고 추울 때만 그렇게 제사가 더 어렵더라고요. 더울 때보다 추울 때. 우물도 시집오니까 바깥에가 있어요. 친정에서는 뒤란에서 우물물을 퍼먹었는데 바깥에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 가지구 언덕으로 내려가야 되고. 평지도 아니고. 거기서 물을 바깥으로 들을 들고 올래면은 치마가 다 젖잖아요. 여기. 인조 옷을 그때는 인조밖에 없었어요. 인조 치마저고리 그 시집을 때 해가지구 온 게 물 한 번만 들고 오면 여기가 쪽 찢어져요. 새건데도. 그러면 그것을 또 꿰매서 입으면 또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그렇게 아침 먹고는 물들어다 이런 큰 독을 물어놨는데 거기다 하나 붓고서 집안 청소하고 나면은 점심 때 되요. 점심 차려 드리고 나면 또 그냥 금방 그냥 저녁 때 되고. 그렇게 세월 보냈지요.

(제수 준비) 옛날에는 쌀 한 말만 갖고 나가면 그래도 고기 사고 과일 사고 그럴 수가 있더라구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쌀 한 말 갖고 나가서 고기 사고 과일 사고.

시장은 그러니까 옛날에 수원이에요. 수원 아니면 안양. 부곡에는 아무 것도 없었어요. 수도도 걸어서 가시더라구요 할아버님이, 쌀 한 말 지고 걸어가셔서 흥정 해갖고 오세요. 그리고 이젠 한참 살다가는 이젠 나도 야채같은 것 이고 팔아서 뭐 사고 그랬죠.

잔치 때 명절 때 같은 때 제사 때도 그렇고 일년에 여덟 번이잖아요 제사가. 명절까지 열 번. 명절 때 되면은 추석에는 송편 만들어야 되고 두부 만들어야 되고 또 술 만들고, 술도 지금까지는 만들어 쓰고 있거든요 제사에, 사다 쓰지 않았어요 한번도 아직은. 이젠 힘이 없으면 사다가 써야지. 한 번 만들어서 그냥 일년 내 써요. 냉장고가 있어서 거기다 내놓고서 일년내 옛날에는 그때그때 만들었는데 냉장고에 넣어놓고 일년 내 써요 그냥. 명절 때면 밥도 지어 송편. 그것도 기계에다 빵아다한 지가 얼마 안 되지요. 뭐, 집에서 빵아 가지고 집에서 만들어서 찌서 만들고 송편도, 명절은 저기에는 설 명절에는 또 흰떡 만들고 두부하고 뭐 부끼미 만들고 명절 때면 평상시에는 뭐 보리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명절 때면 그냥 하예요. 정월 명절 때는 다식도 만들고 약과도 만들고 다 만들었죠 집에서. 다식 만들고 약과 만들고, 사오는 건 사다 쓰고 그렇게.

한 서너 너덧 분 모이시죠. 그런데 삼촌댁은 오히려 나보다 한 살 덜 잡수셔서 별로 같이 못 하고 별로. 그리구 결혼하구 바로 서울 가서 살고 결혼은 나보다 먼저 했었는데 연세는 나보다 작아요. 서울 가서 살다 명절 때면 오는 거지. 떡 쌀을 담가서 집에서 빨 적에는 참 말로 힘들었어요. 그때는 남자들이 좀 거들어주고 그러더라구요 빵는데. 빵기가 얼마나 힘들어서 빠서 채로 쳐가지구 하루 종일 빵아가지구 또 그 이튿날 만들고, 절구공이로 빵는 거죠. 빵아서 고운 채로 치니까 찌금지가 자꾸 나오죠. 자꾸 빠서 자꾸 치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반죽을 해서 그게 말랑말랑 하도록 치대가지구 송편을 만들어야 송편이 반드르 하고 맛이 있지 잘못하면 맛이 없고 뒤석한 게 이상하더라구요.

쌀을 담갔다 불려서 빵는 거예요. 건저가지구. 물 싹 빼가지구 빵는 거예요. 밀가루같이 쳐야돼요. 고운 채로 쳐서 밀가루 같아 가지구 그걸로 반죽을 해서 그렇게 치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한참 이렇게 주물러야 그게 떡이 반들반들하고 맛있게 된대요. 그전에 순 그냥 이렇게 뺏골을 빼서 돼먹고 살고 그런거야. 뺏골을 빼서, 보리 쌀도 이렇게 오지라배기 바닥이 좀 꺼졌꺼졌한 게 있어요 반들반들하면 안 되요. 그게. 그

걸로 얼마나 그냥 얼마나 문지렀는지 손톱이 깎을 게 없고 뼈투로 닳아요. 반쪽이 이렇게 뼈투로 닳아가지구 손톱 깎아볼 일이 없어요 젊었을 때에는, 그렇게 닦아야 그 밥이 보릿내가 안 난대요 또, 시원찮게 닦으면 보릿내가 난대요 밥에서, 지금은 보리를 곱게 찌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보리도 거칠게 찼고 절구애다 찌니까 거칠잖아요, 그래서 그게 열심히 문질러서 닦아야 밥도 맛있고 냄새도 안 나고 차지고 그렇대요, 그렇게해서 순 그냥 골을 싹 빼서 그냥 또 먹고 또 그걸로다 보충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지내러요? 제사지내러 그러니까 당숙어른들 재종증조부 뭐 증조부 뭐 한 열이문명 넘어요. 그렇게 오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제사지내고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탕국하고 이젠 밥을 가져다가 여다가 드려야해요. 겨울에 다니면 손이 얼어빠져서 나중에 뭐 만져 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한두 집 정도 어떤 때는 세 집 그렇게 갖다 드리고서, 그러니까 집 안 어른들이시죠. 어른 계신 댁에 그렇게 갖다드렸어요. 음식이라야 뭐 떡하고 그저 과일 조금하고, 국하고 밥이 그땐 중요하더라구요. 국하고 밥이 중요하니까 그걸 갖다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드리는 거예요.

에 많이 사셨지요. 거기가 신씨 아주 집성촌이에요. 장안말이. 제사 끝나면 친척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집에 국하고 밥하고 밤에 여다 드려야 해요. 제사가 그냥 겨울이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때 동지선달에 많이 계세요. 지금 제사지내는 것은 너무 편해요. 옛날 제사지내는 것을 얘기하면 아우, 콩나물 먼저 담가야 하고, 우선은 며칠 자라니까, 술 해야되고 술 담궈야 하고 또 두부해야 하고 또 떡도 집에서 해야되고, 방아로 찼죠. 그리고 낫그릇, 그때는 낫그릇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이런 다라이로 하나예요. 낫그릇이 씻어서 옆으면요, 그것을 제사 때면 다, 그 그릇 깨진 것. 까만 그릇 깨진 것 있죠. 이름도 모를 거예요. 까만 그릇 그거 빵으면 잘 빠져요. 절구로 돌절구로 빵으면은요. 그걸 빼서 쳐가지고 그걸로 그릇을 다 닦았어요. 뽀얗게 되도록 닦았어요. 그릇은 뽀안데 손은 씨꺼멩고 말도 할 수 없죠, 뭐 손은, 그래가지고 닦아서, 제사한번 지내고 나면 사흘도 안 가서 노랗게 되요, 또 그릇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사지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고 그냥.

멀지 않았어요. 서로 왔다갔다하고. 명절 때면 그 신씨들이 전부다 우리 종갓집이니가 거기 사당이 있었어요 마당 이렇게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마당이면 요기 산 위애다 사당

을 이렇게 지어놓셨더라구. 그 사당에서 거기 명절 때면 세배를 오셔요 사당으로. 일단 사당에 들어서 세배하시구 안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니까 안에 다 들러가시는 거죠. 그래서 명절 때면 한 십오일까지 꼼짝 못하고 앉아서 술상 차리구 그래야되요. 종갓집이라 손님이 더 많은 거예요. 사당이 계시니까 다 오시는 거예요. 오셨다 안에 들렀다 가시는 거예요. 종갓집이 뭔지도 모르고 종갓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때는 그냥 시집을 온 거예요. 보내니까. 그렇더라구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휴.

(명절에 친정에) 못 갔어요. 손님 때문에 못 갔지요. 손님 그 드나드시니까. 정초에는 더구나 꼼짝 못하지요. 그런데 그 후에 얼마 되니까, 몇, 십 년 정도 지나니까 명절 때면 지들 가고 결혼하고도 바로 삼일날 가고 또 그러더라구요. 난 삼일날시집은 지 삼일째 되는 날도 못가게 해서 못 갔어요.

아직은 아들이 미국에서 살다가 온지가 얼마 안 되요. 미국에서 십 삼년 살다가, 포항에 와 가지고 또 십 년 넘어 살고 서울로 온 지가 몇 년 안 되요. 그러니까 아들네로 보내긴 보내야 할건데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요샌 아들 며느리가 다 해가지고 와요. 제수를 다 해가지고 오고 여기서 식혜나 만들고 그리고 지내지요.

(종부의 위치가 며느리에게) 아직 안 넘어 갔어요. 제사 음식은 그냥 식혜하고 전 부치고 누름적 부치고 적 만들고 포하고 그냥 과일하고 그렇게 지내지요. 겨울에 제사가 많으니까 가을에 다 만들어뒀다가 일년 내 술을 써요. 제주를 써요. 약주 술을 쓰지요. 아직은 술을 사다가 써보지는 않았어요.

### 설에서 보름 명절까지의 짧은 휴가

십오일 동안 일을 안 한다고 그러대요. 일을 안 시킨대요. 시키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논대요. 그땐 풍습이 그런 게 있었어요.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네 같으면 설이 별로였어요.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설이면은 세배해야 되고 술상 차려 드려야 하고. 그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명절 때면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며 놀아요. 설 명절 때. 그런데 거기도 한 두어 번 서너 번만 가면 못 가요. 그런 델 가는 걸 안 좋아하신다구요. 그러니까 두 번 서너 번 명절이면 나가서 놀았어요. 뭐 그냥 앉아서 얘기하구 수건 돌리고 그땐 뭐 화투갈

은 것도 없고 옷 놓고 그린 것하고 놀았죠. 저녁에, 한 두서너 번 따라다니면 그 다음에는 못 갔죠. 그렇게 다니며 놀지요. 자유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놀지요.

초하루부터 십오일 그게 보름이에요. 대보름날도 열 나흘날 오곡밥해서 같이 노나먹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보름날은 그냥 다른 때는 잠곡밥 먹다가 고런 날은 찹쌀로 하얗게 밥을 해서 미역국 끓이구 먹고, 그날 하루종일 노는 거예요. 육일날까지 놀아요 육일날 무슨 날이라나. 뭐, 쌍 귀신날이라나. 무조건 달력도 보지 않고 귀신날이라구 정해놓고서 육일날까지 놀아요. 그래서 명절 때면 노는 것 많이들, 그러니까 쉬는 거지요.

(오산) 거기도 그랬어요. 어려서는 많이 놀았죠. 아줌마들 노는데 따라다니면서 많이 구경하며 놀고 그랬어요. 어려서는 그냥 명절 때면 십오일 동안 계속 나가지요. 저녁 먹고 나가서 그렇게 애들인데도 아줌마들이 그렇게 끼어 주더라구요. 아줌마 노는데서 구경하고, 그 뒤 쪽 둘러앉으면 방안으로 하나 가뜩 차잡아요. 여자들이 다 모이면, 요 속으로도 수건이라나 종지라나 이걸 돌린다구. 그것 돌리고 그냥 붙들리면은 그때는 별로 노래부르는 것도 모르고 그냥 절을 하라나. 뗏을 하고, 그걸 걸리면 절을 하라구 그러더라구요. 절 하라구 그러구 나가서 옷통 벗고 나가서 물 떠오라고 그런 것 시키더라구요. 그게 벌이죠. 그런 델 끼어서 노는 게 너무 재미있었는데 시집오니까 그런 것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명절 때는 그냥 뭐 전 부쳐놓은 것하고 떡국하고 그것밖에는 별로 없어요. 웬만한 집은 뭐 부끼미라는 것 만들어놓고 그것하고, 뭐 납작하게 쌀을 찹쌀을 부쳐서 요렇게 팔을 넣고 이렇게 만드는 것 있잖아요. 부끼미 만들어서 그것, 쌀로 해도 되고 수수로 해도 되고 두 가지 해 가지구 그게 간식이었어요. 그리고 옛 고아놓고 이젠, 콩 엿같은 것. 콩 엿에다 부쳐놓은 것. 그거 간식이구 그땐 그게 간식이었어요. 하여간 나가서 돈주고 시는 것 별로 못했 것 같애. 그땐 집에서 다 만들고 집에서 농사짓고 그런 걸 갖고 했지요.

## 효부상

그게 팔팔년인가 올림픽 끝나고 바로.

그냥 군청 그전에 화성군청에 있었지 안양에. 지금은 의왕시로 갈라졌는데 그때는 화성군청이라구 아니 시흥군청인가 참, 시흥군청이지. 그런데 군청 직원이 왔더라구요 군청 여직원이 와 가지구. 아니 그것보다 저기 뭐야 육촌 시동생이 저짜골 갈월면에 살았는데

그 분이 읍사무소에 직원이었어요 육촌 시동생이, 그분이 그랬대요 그 아가씨보고 군청 아가씨보고, 저 효부를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먼데서 찾지 말고 저기 우리 육촌 형수가 저기 있다구 가보라구 그랬대요.

왔어요. 와서 몇 가지 물어보더니 나중에 이제 그래가지구 이젠 그걸 삼성문화재단에다 올렸나 봐요 군청에서. 삼성문화재단에서 받은 거예요. 그게.

(상을 수상한 분이) 글썄 뭐 그냥 별로 뭐 받을 일은 한 것 없는데 이런 것 받으니까 받아도 괜찮은지 의심스럽고 그랬어요. 뭐 남히는 거 다 한 거잖아요. 내가 다 나한테 당한 일 한 거고.

그때 (할머니 연세가) 구십 여덟 아홉인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구십 여덟 아홉 그 정도 되셨을 거예요.

시상하는 날 온 동네 사람이 다 같죠. 거기들. (시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못 가셨어요. 귀도 어두우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냥 상 타나보다 그러셨겠지요. 집에까지 와서 또 다 방송국 직원이 다 와서 또 저거 촬영하고 그랬거든요. 집에 와서. 귀가 어두우시고 잘 듣지도 못하시고 그땐 그러셨어요.

저기 뭔가 김동건이가 하는 것 있잖아요. 열한 시에 만납시다. 텔레비전 프로 거기 나갔어요. 그러니까 삼성문화재단에서 그 그거하는 담당하는 직원이 있더라구요. 그 분이 나오라고 그래가지구 갔지요 그 분이.

## 부곡으로 이사 나오다

엄두도 못냈는데 할머니 때문에 온 거예요.

새마을운동이 길 넓히고 지붕개량도 하고 상수도 만들고, 그땐 아주 산골 그냥 사람 겨우 다니는 길에서 한참 들어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너무 저기였지요. 피난곳이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뒤로 고속도로가 났어요. '신갈-안산고속도로' 가 나고 그래서 산소를 다 옮기고 그랬죠. 돈을 받았으니까 여기 그나마 여기를 내려왔죠 그렇지 않으면 못 내려 오죠 그 돈을 받았으니까.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화장실가는 게 제일 문제였었어요. 화장실 가려면 할머니가 몸이 비대하셔요. 팔을 들고 가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이잖아요. 시동생이 거기다가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앉아서 보시는 거를. 그런데 거기에 앉으시면 그냥 워낙 무게가 나가시니까 막 으지직 으지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무가. 겁나고 힘들고 그래서 아들이 미국에서 다닐러 왔



삼성문화재단 효부상 수상식 때(1988년)

어요. 그래서 여기선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부곡으로 나와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냥 바로 나와서 그 방 처음에는 전세 얻어 가지구 나왔어요. 전세 얻어 가지구 나왔는데 될 수 있으면 일 층을 얻으려고 할머니 다니시게 하려고 일 층을 얻은 거예요. 그랬는데 일 년인가 있다가 또 판대요 주인이. 그래서 큰일났더라구요. 또 미국에다 전화를 했어요. 집을 판대니 어떡하나구 그랬더니 그 처형네서 돈을 서울에 살아요 처갓집이. 처형네서 돈을 뺏서 가지구 와서 샀어요 (그) 아파트를. 나중에 값쌌겠쥬. 그러다가 이리 온 거예요.

(중갓집) 그 집은 그냥 세주었어요. 시제는 그고 옆에 산에다 재실을 지어가지구 시제를 모시고, 해마다 모시지요 시제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차렸어요. 그러니까 이젠 중, 종중의 돈을 갖다가 다 해와요. 공정을 해오는데 우리 집에서 차렸는데, 처음에는 다같이 모여서 차리자고 했는데 다 안 와요. 한 몇 사람, 회장 마누라하고 총무 마누라하고 동네 일없는 할머니들 몇 분하고 오세요. 그래가지구 거진 한 십년 차렸어요. 그렇게요. 여기와서도. 거기서도 차렸지만 여기 와서도 그렇게 차렸어요. 그 집에서, 그러다가 종중에 좀 재산이 생기구 그러니까 이젠는 작년부터 이년 쯤 그러니까 이년을 저기를 거기서 제사를 재실에서 지내게 했어요. 같이들 해가지구.

(재실은) 그러니까 종종돈으로, 지은 지는 그거 지은 지는 얼마 안되요. 한 십 년 안 되었을거예요. 재실을 지은 거예요. 그게 재실을 달리 지은 거 아니라 길 거기 고속도로가 나는 바람에 산소를 다 옮겨야 되었던거구요. 산소를 다 옮기게 되어가지구 옮기구서 산소를 다 옮겨놓고 재실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모시는 거예요. 종종에서 지었지요. 그러니까.

## 6. 새마을운동과 부녀회장

### 연탄 아궁이의 감동

삼십대 중반밖에 안되었지요. 새마을운동 하러 나오라고 하면 저기 요만한 다라에 쪼그만 것 들고 나가서 돌 줍어 나르고 많이 했어요. 그 동네는 물 때문에 우물이 몇 개 안 되었어요. 바깥에 우물이. 우물이 몇 개 안 되가지구 우물을 파면 잘 안 나오는지 왜 안 파고 우물이 몇 집 없었다구요. 그래서 그 위에 산이 이렇게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위에 물이 잘 나오는 데가 있대요 산에. 거기서 물을 그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다 담아놓고 상수도를 해서 동네 준다고. 그걸 그 탱크 만드는데 돌을 공구리하는데 다 줍어다가 날라다가 했다고요. 해놓고 상수도물도 한참 먹었었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물파고 그렇게 됐어요. 새마을운동하면 그렇게 나가서 여자들이 다 돌 줍어 나르고 그런 걸 해야되요. 새마을운동할 때 남자들이도 같이 하지요. 그런데 직장에 가고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네 직장 안기는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그렇게 돌 줍어 나르고 그랬어요.

우물도 상수도 한 것은 새마을 덕 본거죠. 새마을사업을 거기서 어느 정도 돈을 주었으니까 그걸 한 거예요. 많이 덕을 봤죠. 상수도 해놓고 물 안 길러 다니니까 얼마나 좋은 줄 모르겠더라구. 그렇죠 연탄 아궁이하고 나무 안하니까 일이 없어진 거고. 연탄아궁이 해놓으니까 그렇게 좋아요 처음에는 아주. 새마을 사업해서 많이 좋아졌죠. 살기가 좋아졌죠 농촌에도. 지붕개량하고 뭐 부엌개량도 해 준 집도 있고 다는 못 했어도 부엌개량도 해주고. (전기는) 연도는 잘 몰르겠어요. 새마을운동 하고 나서 들어왔죠 전기는. 그것하고 나서 들어왔어요.

지붕개량하고요. 새마을에서 해준 것 아닌데 지붕개량하게 되고 저기 뭐야 연탄 때게 하고. 나무 안 때고 연탄 때게 하고. 연탄 때는 아궁이 만들고 나무 해 댈 때는 산에 가서 나

무도 해와야 하구요, 연탄 때게 되고 나서는 나무는 안 했지요. 그리고 한 팔십 연댄가 한번 누구 동네 이장님이 부녀회장을 보라고 그래 가지구 또, 그때는 좀 일이 덜 할 때야 일이 좀 다 시간나고 시동생들도 다 시간나고 일이 별로 없을 때예요 식구도 별로 없고. 그걸 하라고 가서 한 한 십년 정도 했어요.

마을 변화는 처음에는 그냥 초가집이고 길도 좁아요 아주. 그리구 사람만 겨우 다니는 길이었어요. 여기서 들어가는 길이. 새마을사업으로다 길도 넓히고 또 지붕 짚으로 만들던 것 그것 개량하고, 그리고 상수도 해서 또 물도 거기서 갖다 이렇게 틀기만 하면 나오게 해서 먹고 마을변화가 많았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길까지 저기 세면으로다 다 만들고 좋게 되었어요 지금은 거기가. 확 변하지는 않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하더라구요. 한 가지씩 한가지씩.

### **부녀회장, 아! 세상 냄새**

그때 이장님이 어떻게 봤는지 그렇게 하라구 할 사람이 없대요. 그렇다구 시켜가지구 한 십년 넘게 했어요. 그런데 뭐 별로 활동력은 없었지요. 그냥 심부름 한 거지 뭐. 시에서 저기서 오래면 가고 오래면 가고 그냥 동네에서 그때 마을금고라는 걸 모아 가지고 회원들을 한 집에 한 명씩 파가지구 한 달에 한번씩 또 월례회를 하고 또 돈을 얼마씩 걷었는지 모아서 저기 뭐야 구관장도 해보고 그랬어요. 동네에다 물건 사다 놓고 생활필수품 사다 놓고 그걸 회원들이 갖다 쓰고 그런 것도 해보고 그랬어요.

심부름하는 거죠 뭐. 심부름. 저 그때는 읍이었었지. 시도 아니고 면이었을 적에 했나봐, 아마 의왕면일 적에. 그리고 시로 승격해서는 그만두었지. 여기 이사오는 바람에 그만두었지. 그냥 새마을사업한다고 거기 가서도 길에 가서 풀도 뽑고 거기도 무슨 다리같은 것 고치면 그런데 가서 돌도 나르고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리구 이웃돕기 한다고 또 바자회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것도 했어요.

(월급)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서 고만들 무렵에 이젠 한 일 년인가 이 년인가 농협에서, 농협에서 회장들한테 한, 한 달에 오천원씩 주었나 얼마씩 주었나 교통비라고 주더라구 농협에서. 그것 몇 년도인지 기억도 못 하네 그런 것. 기억을 못 하겠어요. 지금은 좀 더 줄 거야. 많이 줄 거야.



부녀회장을 맡을 당시 바자회에서(1980년대 중반)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여러 사람 만나보고 그러니까 재미있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따라다니면서 해보니까 재밌구 그랬어요. 새마을사업 무슨 저런데 길같은 것 크게 고치고 그럴 때 거기 가서 일도 하고 그랬어요. 그땐 일도 좀 없어지고 그럴 때예요. 그럴 때 한 거예요. 이장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간 거지요. 어른들도 데려가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고, 시어머님 돌아간 뒤예요. 할머니만 모시고 있을 적에, 할머니께서 나가는 것을 싫어하시지요. 식사 같은 것 다 준비해서 방에서 해놓고 그리구 올 땐 빨리 와야 하고 그렇게 했지요.

## 7. 가족 이야기

### 친정 부모님

동생이 그렇게 그냥 학도병으로 나가서 전사당하고 하나는 그냥 또 대학까지 가르쳐서 농촌진흥청장을 했었거든요 여주에서. 그랬는데 그 농촌에 다니면 그냥 술을 하루도 안 먹는 날이 없이 술만 먹었대잖아요 거기 나가서 살면서. 그래서 간경화가 걸려서 그냥 사남매만 나뉘고 간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다 앞에. 그래서 아버님은 갑자기 그냥 원래 위가

안 좋으셔서가지구 간신히 사시는데 그냥 도져 가지구 돌아가시구, 어머니도 한 삼 년 계시다가 돌아 가지구 두 분이 다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속상한 얘기를 어따 한번도 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속상한데 내가 헐 말이 뭐가 있어요. 이 다음에 늙으면 다 할려구 했더니 일찍 돌아가셔서 한마디도 못해본 거예요. 뭐 이렇게 사내 없이 사니까 뻘하죠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래도 자주 개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친절에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일 때문에 못 가게하고 그냥 무슨 생신 때면 이렇게 갈래도 그냥 뭐 맞는 게 없고 돈도 없고 옷도 없고 아무렇게나 하고 친절에 가길 싫더라고요 부끄러운 게. 그래서 못 가고 이래저래 못 가고 돌아가신 다음에 다 갔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못 가고. 일 때문에 친절에를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아프니까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뿌리치고 가봐야 되는데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옷도 맞지 않고 돈도 없고 그래서 못 가고 이래서 못 가고 친절에를 마음놓고 제대로 한번 가보질 못했어요. 그래도 난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 시할아버지와 시할머니 그리고 시부모님

성격이 할머니는 아주 그냥 상냥하시고 정확하시고 아주 한...저기가 없었어요 실수라는 게 없어요. 얼마나 정확하시고 그냥 알뜰하시고 대단하신 양반이예요 시할머니가. 그런데 시어머님은 좀 그러시더라고요, 표현도 잘 못하시고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소심하고 찬찬하기도 그러시는데 표현도 잘 못하시고 그렇게 남한테 듣기 좋은 얘기도 못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난 그냥 시집살이하는 저기니까 이리시거나 저리시거나 관계없는데 할머니하고 그렇게 안 맞으시더라고요. 성격이 안 맞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뭐 누가 맞는다는 것보다는 그냥 두 분 다 그냥 맞출려고만 하는 거죠. 그런데 두 분이 안 맞으셔서가지구 가끔 그렇게 의견충돌이 나고 그러면 내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쪽 편도 들을 수 없고 저쪽 편도 들을 수가 없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좀 성격상 많이 안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님은 누구 성격을 맞출려고 들지도 않으시고 당신, 악의는 없는데 당신 마음 잡수시는 데 그냥 말씀하시고 그러시니까 정확하고 그냥 아주 저기한 양반이 그게 마땅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안 맞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면 너무 불편했어요 밑에서. 양편에서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고 감히 편도 들 수도 없지만 불편했어요. 시어머님하곤 뭐 같등이나마나 얼마도 많이도 안 사시고 그렇게 아프고 그러고 계시니까 그냥 무조건 난 자유가 없으니까 그냥 그 밑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그렇게 살은 거예요. 내 의견이고 내 뜻이는 감히 어떤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살은 거죠.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시집오니까 한테 계시긴 며칠 몇 달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재미없이 그냥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재미없이 살고 계시는 것 같으더니 직업이 기술이 있으셨어요 저 측량하는 기술. 그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하러 지방으로 나가신 거예요. 지방으로 나가셔가지구는 어느 땐가 몇 달간 이렇게 소식이 없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열차 타고 계시는 그 당숙이 한 분 계셨는데 만나셨다는 거야 열차에서. 그런데 어디 뭐 저쪽 제천이라 나 어디래나 거기서 살림하신대요. 그렇다고 얘기를 허더라구요. 그래서 알았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돈을 벌러 나가셔서 돈은 안 가져 오시는 거예요. 돈은 가지고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돈벌어 오시는 걸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도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돈벌어오는 사람이 집안에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님은) 그 그때 바로 아셨죠. 뭐 그전부터 그러셨으니까 시어머님은 그냥 무감각하시더라구. 그 전부터 한두 번이 아니니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불만만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며느리한테 대하는 것도 편치 않죠 보기가 벌써 편치를 않아요. 마음이 불편한데 편하게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살았죠. 당신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며느리한테도 편안하게 해주시지 않으시죠. 할머니께서는 그걸 우리네 맘 같으면 그 아드님이 오시면 막 그냥 혼을 내고 그래야 될텐데 그러는 걸 못 봤어요 한 번도. 아주 얼마나 그냥 경우도 밝으시고 아주 보통 양반이 아니셨어요. 일미리도 틀리면 안되요 모든 것이. (아들에게는) 관대하셨죠, 관대하셨죠. 그러니까 시어머님하고 불평은 거기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시어머님도 뭐 이렇게 활발하게 뭐 할 말도 못하시고 그냥 가끔가다 듣기 싫은 소리만 하셔가지구 그렇게 서로 맞지 않으시더라구요. 좀 제대로 좀 이렇게 따지지도 못하시고 혼자만 그렇게 불평하다가 그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 불평할래면. 그러니까 안 맞으시는 거예요. 그 래가지구 어른들이 안 맞으시니까 너무 불편한거야 밑에서. 이편도 못 들고 저편도 못 들고 너무 불편했죠. 원래 이들의 씨앗을 꽃방석에 앉힌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딸의 씨앗은 가시방석에 앉히고 아들의 씨앗은 꽃방석에 앉힌대. 그 식이 고대로 나타나더라구요 우리 할머니께서.

(순종) 안 허면은 그게 더 불편하더라구요 나중에. 말씀은 안 하고 그냥 화가 나시면 더 불편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성격을 알고 나니까 거슬리기가 싫더라구요. 속은 상해

도 그냥 거슬리질 못하고 한번 좀 당신 의사대로 뭐 의견대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며칠씩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뭐 이러구저러구 해서 뭐 어쨌다 나쁘다 이러지도 않으시구 그냥 차라리 야단을 한번 치고 마는 게 낫지 오래도록 말씀 안 하시니까 그게 더 무서워요. 불편하고 무섭고 불편하고 무섭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거슬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대단하신 양반이예요 우리 할머니가. 대단하신 양반이예요.

할아버지가 제일 자상하시구 우리 식구 중에서 제일 인정도 많으시고 그러셨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아니 그게 그 시할아버지가. 자상하시고 인정도 많으시구 경우도 밝으시고 그 래요. 마음이 그냥 이렇게 독하지 못하시더라구요. 제일 인정많으세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생각은 가끔 나요. 일을 해도 같이 들에서 하다가도 “아휴, 니가 시국을 못 만나서 고생한다” 이런 말씀이라도 한 마디 들으면 힘이 되는지 몰라요 위로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일을 하던 말던 하다가 죽던 말던 그냥 신경 쓰는 사람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가끔 그러시더라구요, “니가 시국을 못 만나서 고생한다”고, 그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얼마나 위로가 되더라구요 정이 많으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시아버님 돌아가실 때에는 그냥 나가 계시다가 제천에 계시다가 병환이 나서 서 오셨어요. 병환이 나서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거침 다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그 병원차를 가지고 갔는지, 아예 병원차를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엠블란스라나 뭐라나 가지고 아드님들하고 동네 어른들하고 갔어요. 집에서 장례 준비를 하고 있고. 두부하고 그런 것 다 하고 있고. 그러다가 오시다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눈도 그냥 잘 뜨지도 못하고 그러구 계셨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이나 없이 해본다고 수원에 그 노내과라고 있었어요. 그전에 유명했어요. 거기다 입원시키셨대요. 입원시켜 가지구 한두 달 계시다가 나오셨어요, 좀 좋아지셨다고. 그래가지구 오셔서 좀 술만 또 잡수시면 금방 돌아간다고 의사가 그랬는데두 한 삼 년을, 한 일년 반을 흰죽을 쑤어 드린 거예요. 진지를 못 잡수고, 일년 반을 그 요렇게 뒤, 부엌 뒤에다가 흙으로 요렇게 만들어 놓고 풍로라고 옛날에 있잖아요, 그 풍로도 안 사고 흙으로 만든 거예요 요렇게. 그래가지구 고기다가 장작을 자디잔 걸 거기다 밑에서 불을 때면 고게 타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 흰죽을 썬서 거침 한 일년은 흰죽을 썬드렸을 거예요. 식사를 못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잡수시고 차차 차차 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주 좀 나셨는데 한 몇 년 있다가 도로

술을 잡수신 거예요. 술만 잡수면 하혈을 하시더라구요. 간이 나쁘셔서 그렇대요. 하혈을 하시면 또 지혈제를 병원에 가서 사다 드리면 잡숫고 좀 나시더라구요. 낫다가 몇 달 있으면 또 잡숫고 결국은 술로 돌아가신 거예요. 한 삼 년 정도 집에서 그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간이 나쁘니까 정신도 그냥 말짱하시고 그렇게 얘기도 다 하고 그러는데 금방 돌아가시더라구요. 시아버님은 그냥 나가 계셨기 때문에 정도 별로 안 들고 그냥 아프시니까 돌아가셨구나 하고 그랬는데, 시어머님 돌아갈 적에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덜 걱정되더라구요. 그런데 나중에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허전하고 안 좋아요 못 살겠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아무 것도 하지 않으셨어도 그냥 계시니까 좋은 데 그냥 돌아가시니까 그냥 뭐 이제 여자만 남은 거죠. 아들 며느리는 미국에 가 있고 그때.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할머니 돌아가시면 못 살 것 같더라구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큰일날 것 같아 못 살 것 같애. 그런데 그냥 연세가 많으셔도 돌아가시지 말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돌아가시더라구요. 돌아가시니까 그냥 뭐 아주 말할 수 없죠. 허전하고 그냥 혼자 그냥, 혼자 남았으니까. 그런데 따님이나 삼촌들은 그때 캐나다에서 오셨는데, 삼촌이 캐나다에 계세요. 그러니까 시아버님 형제분이지. 예. 고모님이 세분이고 작은아버님 있고 시아버님 있고 그래요. 그 육이오 때 이젠 그 뭔가 원양어선인가 뭐야 그것 온양어선인가 그것 타서가지구 돈을 굉장히 잘 벌으셨어요. 부산에서 살다가 배에서 내리시니까 이젠 캐나다로 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식구는 항상 많았죠. 고모님들 계시고 삼촌덕도 같이 많이 살았죠 부산으로 가시기 전에. 함께 살다가 헤어질 때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삼촌덕 부산으로 가시는데도 그냥 못 살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물어보고 삼촌덕 나가실 때 한 번 물어보고 평생에 몇 번 물어본 것 같아요.

### 아들, 며느리, 손녀말들

(아들) 교육은 그러니까 저저 저 저 유자녀니까, 저 군인가족이잖아요 유자녀니까 면제가 되었어요. 고등학교까지 면제가 되고 장학금도 타고 고등학교에서도. 대학도 장학금 타고, 그냥 등록금 삼만 원씩 해주는 건데 그것도 찢찢 땀지요 때가 되면은. 송아지 나온 것도 팔아서 하고 또 꿩다 하고 또 가을에 주기도 하고 그냥 또 어떤 때는 시아버님한테 가서 또 달래다가도, 있을 때 주시고 없을 땐 안 주시고 그랬죠. 조그만 땅도 팔아서 등록금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같으면 못 가르치지요. 지금같이 몇 백 들어가면 못 가르쳐요. 사립은 그때 한 배는 된 것 같아요 등록금이. 그런데 거기는 서울대학교니까 삼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이리저리 꾸러 다니고 빚 얻어다가 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들 결혼) 그때도 그냥 난 돈도 하나도 만지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렇게 또 그냥 빌려 가지구 하고선 또 잔치하고 나서 잤고 그랬어요. 열아홉, 스물 살에 했으니까, 스물 살에 했으니까 이십사 년 되었나. 아니 스물, 스물아홉. 맞아. 서른이고 며느리가 스물아홉에 했어요. 정신없네. 대학 졸업 맞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여기서. 외국 나갈려고 결혼을 갑자기 한 거예요. 연애도 하나도 안 해보고 그냥 공부만 하다가 갑자기 외국 나가면 결혼하고 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날짜가 얼마 안 됐지요. 저기 했대요. 중매했대요 친구가. 친구가 중매했대요.



수원에 있는 사진관에서 아들과 함께(1959년 또는 1960년)

결혼식 올리고 아마 한 이십 일도 안 걸리고 갔어요. 며느리는 불란서로 유학을 가기로 한 거래요 원래. 그러니까 그것도 시집 안 가고 유학 갈려고 한 거고 그랬는데 결혼을 해가지구, 결혼이나 하고서 유학을 불란서로 보내고 저는 미국으로 갔죠. 그래서 가서 살다가 혼자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젠 여자는 포기하고 그냥 따라 온 거예요 신랑을. 불란서 포기하고서, 그렇게 같이 살다가 십삼 년이나 살다가 완 거예요.

딸 두 명. 하나 낳는데 그냥 여기서 돈을 하나도 안 보내주니까 저도 달라지도 않고 보내 줄 것도 없지만 달라지도 않더라구요 돈을. 그래서 지가 벌어서 지가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젠 며느리가 여기 유학생을 하숙을 쳤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냥 집엘 들어오면 인상을 안 피고 그냥 골을 내고 괜히 그러더라요. 왜 그러냐구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그렇게 하는 것 싫다고 그런대요, 남자들과 얘기하는 것. 하숙치려면 얘기도 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러는 것 싫다고. 그러면 뭘 하라는 거냐구 그러니까 애를 한국에다 두고서 직장을 다니라구 그러더라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둘이 두 달 남았나 그런데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고선 데려가서 그냥 애를 네 살 먹어서 데려갔어요. 그냥 우유만 먹이고 아무 것도 먹일 줄도 모르고 먹일 저기도 없고 그냥 우유만 먹이고 키웠는데, 병원은 서울대학병원에다가 소아과 의사 하나를 알, 저기 저거 해주고 갔어요. 동창

인지 후배인지 모르겠어요 의사를 해주고 가서, 아프대면 무조건 그냥 업고 그 방으로 들어갔으니까 의사 방으로, 그래서 쉽게 길렀어요. 아프기만 하면 그리 갔어요. 진찰 접수할 필요도 없고 그냥 들어가서, 한 번만 갖다오면 또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키웠어요.

(아들 결혼) 그때도 돈 하나 없이 결혼식을 하니까 재미는 둘째고 걱정만 되더라구요 어떻게 큰일을 할건지 걱정만 되고, 돈이 하나도 없이 내가 그러니까, 그러구 그냥 미국 가가지구 몇 년 있다가 요 저기 텔레비에 나온다고 보라 그러더라구. 노벨상에 도전한다구 거기에 나온다고 보라그래요 한국에서 와서 저기해 갔대 취재 해갔대. 그걸 볼 때는 참 좋더라구요. 그러구 뭐 우리 아들 똑같이 나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박사학위 받는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언젠가 보면 받았나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졸업식에도 가도 그냥 남들은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는데 사진도 딱 한번 찍고 고만이고 그냥 그래요. 박사학위 받아도 나 박사학위 받는다고 얘기도 안 해줘요. 며느리가 얘기해줘서 알고 나중에, 한국에 나온단니까 그렇게 좋더라구요 몇 년만에 나온단니까, 나와도 포항으로 왔어요 집으로 오지도 않고 이쪽으로 오지도 않고, 그래도 포항에 오니까 미국에 있을 때에는 보고 싶어도 무슨 뭐 만약 내가 아파도 볼 수도 없고 그냥 아주 속이 답답하지요 그냥 막연하고 그냥, 포항에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루만 하면 가고 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서울로 온다고 그러니까 더 좋더라구요. 그런 거예요 좋은 게. 그런데 항상 그냥 남편 없어서 속이 항상 한 쪽이 비워서 살았는데 지금은 손주가 없어서 항상 그 생각이 안 떠나는 거예요 손주가 없어가지구. 든든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아휴 그냥 세상도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또 그것도 잠시이고 또 아쉬움이 항상 속에 가지고 있어요.

(중손이 끊기는 게) 그래서 더하지요. 그게 항상 아쉬어요. 평생 아쉬움을 안고 살다 가는구나. (아들이) 알죠. 마음대로 못하니까 어떡해요. 알아도 할 수 없고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잘못된 것은 돈을 보내줬으면 미국에서라도 더 낳아줬으면 또 어쩔런지 모르죠. 못나게 하다가 나와서 낳으려고 하니까 생기지 않아 못난 거지.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아쉽기만 해요. 다같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땅이라도 팔아서 줬으면은 그래도 더 낳고도 살 수가 있었지. 그러니까 벌어서 공부하려고 안 낳고 한국에 나와서 낳으려고 마음 먹은 거지. 그게 마음대로 되요 안되지.

## 8. 최근의 일상생활

### 불교 신자로 사는 인생

절에는 여기 내려와 가지구 또 이는 분이 여기 사는 분이 약수터를 같이 다니는데 그렇게 그전부터 알고 있었대요 나를. 잘 알고 있었는데 만나니까 좋다고 그러면서 약수터를 같이 다녔거든요. 다니는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며느리가 서울에 사는데 여기 관악에 ○○○선원에 다닌다구 그리고 주지스님이 여자스님이구 참 좋다고 그래요 가보자고, 그래서 따라갔지요. 따라갔더니 처음에 그 큰스님을 뵈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나하고 동갑이래요 그 스님이. 그래서 너무 좋더라구 그냥. 그런데 그 스님을 보니까 그냥 얼마나 후회가 나고 내가 사는 게 헛살은 생각이 나고 후회가 나더라구. 나도 진작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지금 좋을건데 많이 좀 깨우쳤을건데 그렇게 사느냐고 고생을 하고 그렇게 왜 살았을까 몰라서 그런 거지. 후회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 스님을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같은 나이인데 그냥 주름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편안하신 거야 항상. 그렇게 편안하신거야 그냥. 그래가지구 거길 다니게 되었어요. 가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하루 갔다오면 그래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계속 거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와 가지구 한 일년 있다가 갔으니까 그래도 한 칠 팔 년 거짐 다닌 것 같아요. (시할머니) 돌아가시기 전부터 다녔어요. 돌아가시기 전부터 다녀서, 절에 가는 것은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구요. 돌아가실 때에 와서 그 스님들이 와서 염불도 해주고 그랬어요.

(절에 가니까) 편하더라구요. 큰 스님만 보면 벌써 마음이 편안해요. 아무 생각도 안 나구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거기는 '○○○선원' 이라구 기도라는 게 없더라구요. 그냥 법회 마치고 스님 법문 듣고 그거예요. 기도 뭐 며칠 기도 며칠 기도 이런게 뭐 별로, 그런 텔 강조하지 않아요. 그 스님은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저거 뭐야, 또 방생이라나 그것도 안 하고 그런 것 잘 안 하는 조계종인데 부처님 딱 한 분 모셔놓고, 참 마음 참 편안해요. 거기 가서 스님만 뵈면 편안해지지.

### 좋은 친구들

시집와서요? 친구관계가 없죠. 전혀. 어려서 같이 놀던 친구들 어디서 볼 수도 없고 만날



서예 작품 앞에서(2000년 9월)

수도 없고 그냥 그것은 끝난 거고. 여기 와서는 친구라기보다는 전부 친척이에요. 이렇게 신씨만 사시는 동네이니까. 전부 할머니 아주머니 전부 그렇죠. 향렬이 알아가지구 전부 할머니 아주머니 아저씨 할아버지 이래요. 친구랄 것도 없고 전부 집안끼리 살은 거죠. 그 안에서는 뭐 친구가 없죠, 집성촌이니까.

(마음 터놓고 지낸) 그분들은 돌아가셨어요. 당숙모가 한 분 계셨는데 그렇게 그냥 항상 육이오 나고 혼자 있으니까 항상 그냥 말씀은 안하셔도 그냥 불쌍하다고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날이 추우면은 꼭 그 이틀날 만나면 얼마나 추웠느냐고. 그래서 다 같으

죠 날 추우면 다 춥잖아요. 아유 혼자 자니 얼마나 추우냐고. 당숙모가 당숙모가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같이, 나보고 한 칠팔 년 더 먼저 오셨는지. 그런데 그냥 아주 애처로워서 애쓰셨어요. 당숙모 한 분이. 연세는 한 칠팔 년 차이, 그 정도 났어요. 그리고 종조할머니께서 재종조할머니께서 지금 살아계신데 그분도 연세가 비슷하지요 거짐. 한 칠팔 년 차이 되는데. 그분도 잘 아시지요. 뭐 그냥. 올 때부터 계속 같이 보고 살으시다가 지금은 신림동으로 이사가셨어요.

친구...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도 없고 그렇게 맨날 간혀 있었으니까 친구도 별로 없죠. 여기 나와서 만난 친구들이 한 열 명 안 되요. 저쪽에서 이사오기 전에 좀 여섯 일곱 명 되고 이쪽에 와서도 한 두 명 되고. 그러니까 한 열 명 안 되요. 보면 좋대요 누구든지, 저기 철길 넘어 사는 여자도 좋다고 나를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사람을 다방면으로 사귀지는 못해도 한 사람 사귀면 꾸준히 그 사람 놓치기가 싫어요. 사람을 잘 새귀지는 못해요. 좀 활발하지는 못허잖아요 내가. 그래도 다들 좋다고들 한 열 명 따라 다니니까 그것만도 뿌듯해요.

## 에필로그

지금은 그러니까 마음대로 배운다는 데는 다 따라 다니고 가고싶은 데 다 가고 뭐 경조사에 따라 다니고 뭐 친구들 아픈데 이런데 다니니까 하여간 자유활동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냥 잡혀 있다가 자유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뭐 뭐든지 배운다는 데는 다 따라 다니며 배우고 싶고요. 아직은 오지 말라는 소리 안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주부 대학동창도 그래요 제일 많은 거예요 나이가, 늦게 나갔기 때문에. 서예교실에도 나이가 제일 많고, 그런 게 좋죠 지금은. 나가도 뭐래는 사람 없고 늦게 와도 뭐래는 사람 없고 너무 좋죠.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젠 뭐 팔십이면은 사람같지 않아요 사람같지 않아요 살아있어도 팔십 넘으면. 남들 보니까 남들 보니까 나이는 못 속인다고 다들 그러길래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팔십이 넘으니까 다 뭐 이 증상 저 증상 다 나와서 겹치고. 젊은 사람들한테 가도 뭐 별로 그냥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나한테 다가오는 게 뻥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죠 진작 그렇게 못 해봐서. 살아오면서 뭐 즐거웠던 것은 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들 공부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도 즐거웠던 게 없고 그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전혀 하나도 없었어요. 돈이 있나 뭐 자유가 있나, 그냥 웃을 일도 하나 없었지 정말.

어떤 때 가만히 드러누워서 요새 잠 안오고 그럴 때 생각해보면 아휴 이 저기를, 그러니까 무슨 가시밭길을 헤매다가 나온 기분이에요. 마음에. 너무 내 기에 맞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내가 공부를 했으면 이걸 책을 썼으면 책이 이 만큼은 될텐데 그걸 못하고 그냥 가네 생각하고 살고 있었죠.

아직은 외로움을 못 느껴봤어요 아직은. 여기저기 갈 데 있구 경조사 따라 다니구. 불일도 많고. 집안일 다 보니까. 종손 일은 별로 없지만 종손 일은 종친 회장이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뭐 아들이 할 일을 내가 다하고 있는거죠. 농사 있고 하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벼농사 교육. 거기도 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농사도) 짓는 셈이죠. 남 시켜서 하는 거니까. 지금은 논도 조금 남았어요.

여 백



남의 집 종부는 손가락만 빨아도  
좋다고들 해

- 화성시 해풍 김씨 이신열 종부의 구술생애사

여 백

# 남의 집 종부는 손가락만 빨아도 좋다고들 해

- 화성시 해풍 김씨 이신열 종부의 구술생애사

## I. 내가 만난 이신열 종부

### 1. 구술 기록 과정

경기도의 종부에 관한 구술사 작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인터뷰할 만한 마땅한 종부가 있을까 알아보던 차에 우연한 소개로 해풍 김씨 종가의 종부 이신열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마침 아드님이 나와 같은 역사 연구자여서 입소문을 통해 그분 어머님께서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종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연락을 취했다.

해풍 김씨 가문은 널리 이름난 가문은 아니지만, 조선시대에 여러 명의 걸출한 무관을 배출한 무관집안이고, 삼일운동 때 일제의 만행에 의해 종택이 불타버리고 종손이 희생당하는 고난을 겪기도 했으며, 더욱이 종부의 친정이 한국전쟁 때 좌우익의 갈등 속에서 몰살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는 등 근현대사의 굵직굵직한 굴곡마다 연동되어 우여곡절을 겪은 사연 많은 집안이라고 해서 일단 인터뷰를 하는데 적당하겠다는 판단을 했다.

먼저 아드님께 전화를 드려 이번 구술사 작업의 의의를 말씀드리니 흔쾌히 어머님의 연락처를 알려 주셨다. 경기도 화성시에 자리잡은 해풍 김씨 종가에 전화를 거니 꽤 목소리

---

\* 조사자 : 소현숙(한양대 강사)

가 젊고 낭랑한 여자분이 전화를 받으셨다. 며느리가 했는데, 그 분이 바로 종부 이신열 할머니였다. 연세가 70이 넘으셨다는 데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고우실까 감탄하며, 곧 바로 해풍 김씨 종택을 향하였다.

집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발안에서 국도 타고 가다가 조암을 조금 지나면 화산리로 접어드는 작은 골목길이 나온다. 그 길로 들어서서 나지막한 고개를 넘으면 햇볕 잘 드는 아늑한 마을이 하나 나오는데, 그곳이 종택이 있는 곳이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유난히 큰 느티나무가 눈에 띄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아흔 아홉칸이었다는 옛 종택의 앞 마당이었다.

종택에 들어서니 종부 이신열 할머니와 남편 되시는 분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들이 역사 연구자인터라 역사적 기록물을 남기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으셨고 인터뷰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다. 인터뷰는 2003년 12월에서 2004년 1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대개 오후에 3시간 정도씩 3회에 걸쳐 총 9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그중 녹취록으로 남겨진 부분은 4시간 30분 정도의 분량이다.

처음 인터뷰를 하던 날은 종부와 종손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고, 나 역시 운전 문제로 해서 동료와 함께 갔었다. 그래서 네 명이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어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두 번째 만남부터는 원활하게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남편 되시는 분께 양해를 구했고, 덕분에 이신열 할머니와 나 둘이서 조용히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할머니는 허리 통증과 등이 가려운 증세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다. 걸어다니기 불편하실 뿐 아니라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하셨다. 따라서 인터뷰 도중에 자주 자리에 누워서 말씀을 하셨고, 중간 중간에 남편을 불러서 등에 파스를 붙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셨다. 이 때문에 인터뷰가 잠깐씩 중단되기는 했지만 곧 다시 집중하셨기 때문에, 인터뷰에 크게 지장이 되지는 않았다.

딸 넷에 아들 하나를 둔 할머니는 나를 딸처럼 대해 주셨고, 역시 딸 넷에 막내로 아들을 둔 딸부잣집 셋째 딸인 나는 어머니를 대하는 듯한 느낌으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편안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신열 할머니는 아들의 출산과 같이 생애 중 자신에게 인상 깊었던 몇몇 장면들은 매우 자세히 기억하셔서 마치 영화의 장면을 보듯이 당시의 상황과 심정을 자세히 말씀하셨다. 그러나 연도나 시간적 변화, 그리고 종가 의례의 여러 가지 변화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기억해 내지 못하셨고, 인터뷰 도중에 남편을 불러서 다시 물어보고 확인하시곤 하셨다. 또

한 친정가족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처럼 가슴에 한으로 맺혀 있는 사건은 자세히 말씀하시기를 꺼려하셨다. 이는 레드컴플렉스 때문에 한평생 그 사건을 가슴속에만 숨기고 누구에게 이야기 한마디 못하며 살아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현재까지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괴로우시기 때문인 것 같았다. 친정식구들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금새 눈시울을 글썽이시며,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라는 말만 반복하셨다.

녹취문과 원고 작성 과정에서는 되도록 편집을 줄이고 구술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했지만, 불가피하게 편집을 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할머니의 구술방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배치하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기보다는, 어떤 주제가 튀어나오면 그 말씀을 하시다 거기서 나온 또 새로운 주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가는 형태이고, 간혹 전혀 새로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도 하였다. 따라서 큰 틀에서는 시간 순서대로 목차를 구성했지만, 소 목차 안으로 들어가면 시간을 넘나들면서 작은 주제들로 나누어 구성하였고, 불가피하게 시간순서나 논리순서대로 이야기를 구성해야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부분적으로 편집을 가하였다.

할머니는 옛 앨범을 찾아 보여주셨고, 옛 모습을 보여주는 몇몇 사진을 이용하도록 허락해주셨다. 다행스럽게도 시향을 준비하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남아 있어서 예전의 모습을 상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 외에 인터뷰 진행하면서도 몇 장의 사진을 새로 찍었다.

## 2. 해풍 김씨

해풍 김씨는 시조 김숭선(金崇善)이 고려조에서 예부 상서와 병부전서를 지내고 해풍부 원군에 봉해졌으므로 관향을 해풍으로 하게 되었다. 해풍은 지금의 개성이다. 일찍이 고려의 도성인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지방에서 무반의 지위를 굳혀 온 해풍 김씨는 시조의 아들 천일(天一)과 손자 대(岱), 증손 재인(在人)이 고려조에서 명성을 떨쳤고, 대사헌 장(樟)의 맏아들 수종(壽宗)은 무과에 급제하고 길주목사 겸 길주진관병마첨절제사를 역임하여 가통을 이었다. 조선 초에 고려충신들에 대한 이성계의 탄압을 피해서 경기도 화성으로 이주했다. 그후 관직에 다시 진출하여 삼도통제사, 판서, 포도대장 등 무관들이 다수 배출되어 무관집안으로 이름을 날렸다. 효행이 뛰어나 절효처사(節孝處士)로 이름났던 시창(始昌)은 『삼강록(三綱錄)』에 올랐고 황간(黃澗)의 모현서원(慕賢書院)과 금산(金山)의 경림서원(景濂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영(楳)은 무과에 급제하고 형조판서를 거

쳐 금위대장에 올랐다. 숙종과 영조 때의 문신인 김원행(金元行)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했던 상진(相進)은 학행(學行)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건(鍵)은 철종때 무과에 급제하고 1868년 정헌대부로 형조판서에 올라 어영대장을 겸임하였다. 후손들은 주로 개성, 안변, 철원 등 북한에 많이 거주하며, 남한에는 약 만여 호 정도가 살고 있다. 남한에서는 대체로 화성 지역에 많이 거주했으나 1960~1970년대를 거치면서 각지로 흩어졌다.

해풍 김씨 종택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에 자리잡고 있다. 원래의 종택은 아흔 아홉칸의 저택이었는데, 1919년 3.1운동 당시 시위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가 마을의 유력자인 종손의 조부 연방(然昉)을 총살하고 종택에 불을 질러 지금은 집터만 남아 있다. 그때 갖가지 유물들과 옛 문서들이 모두 불타버렸다고 한다. 그나마 남아 있는 것은 당시 사당에 보존되어 겨우 피해를 면할 수 있었던 교지 몇 장과 18세기 초에 그려진 17대조 수(洙)의 영정인데, 이 영정은 국사편찬위원회에 기증하여 보존 중이다. 조선시대 무관의 영정으로서 현재까지 전해오는 것이 드물어 역사적 자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한다. 현재의 종택은 1919년 이후부터 거주하기 시작한 곳으로 종손은 이곳에서 태어났고, 종부 역시 이곳으로 시집와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 3. 이신열 종부

종부 이신열 할머니는 1928년 충청남도 온양에서 2남 4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로, 아버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사셨던 선비였고, 어머니는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남편 시집살이를 더 고되게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 아버지가 특별히 돈을 벌지 않았던 관계로 집안 형편은 매우 어려웠는데, 그나마 수리조합세 명목으로 1년에 쌀 7~8가마 받는 것으로 생활을 꾸려 나갔다.

생활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딸자식도 보통학교는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들 딸 구별 없이 모두 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할머니는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인 10세에 온양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6세에 졸업하였다. 학교 졸업 후에 음악학교에 진학하여 가수가 되고 싶었으나, 가정형편과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고 만다. 이후 1950년 결혼하기까지 7년 정도를 집안 일을 도우며 평범한 생활을 하였다.

23살이 되던 해에 해풍 김씨 종가의 종손인 김진세 씨와 결혼하고 경기도 화성으로 옮겨 오게 되었다. 한국전쟁은 여러모로 할머니의 삶에 커다란 시련을 안겨 주었다. 결혼하자

마자 얼마 안 있어 남편은 군대에 징집되어 전쟁터로 끌려나가게 되었고, 큰집이 있는 개성에서는 일가가 무리 지어 피난 내려와서 종가에 1년 동안 얹혀 살게 됨으로써 생활이 매우 궁핍하고 곤란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다. 더욱이 고향에 계시던 친정부모님과 형제들이, 오빠의 좌익활동으로 말미암아 피신해 있던 여동생과 큰조카만 남고 모두 몰살당하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된다. 친정 소식에 비탄에 빠진 할머니는 위로해 줄 남편도 없이 매일 밤 악몽을 꾸며 누구에게 하소연 한번 못해 보고 힘든 시절을 그저 견뎌낼 수밖에 없었다.



이신열 종부

충청시하에 시할머니까지 계시는 집에 시집 왔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시부모님 모두 매우 인자하신 분들이어서 시댁식구라는 어려운 느낌 없이 친정식구들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따뜻한 가족이 되었고, 할머니는 슬픈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 종가의 종부로서 더욱더 자신의 역할에 몰두하며 살아갈 힘을 찾아 나갔다.

남편이 군대에 간 직후인 25살에 첫 딸을 얻은 뒤로 39살 때까지 딸 셋과 아들 하나를 더 낳았다. 막내로 아들을 낳기 전까지 내리 딸을 넷이나 낳음으로써 아들 못 낳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딸만 낳았다고 크게 탓하지는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종가의 대를 이어야 할 의무를 지닌 종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 고생이 심했던 것이다. 넷째 딸을 낳고 바로 임신했다가 유산한 뒤, 한동안 애가 들어서지 않다가 6년만에 아들을 얻음으로써 모든 근심이 일거에 사라지게 된다. 이신열 씨는 이 모든 것이 조상님들이 도와서 그리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에서 제대 한 후 한동안 면서기로 근무하던 남편은 보다 본격적으로 종손으로서 집안 일을 보살피기 위해 면서기 일을 그만두었고, 이신열 씨도 종부로서 봉제사 접빈객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결혼할 당시에는 행랑이 두 채 있어서 농사일이나 집안일이나 모두 행랑에 사는 사람들이 거들었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는 않았지만, 점차 세상이 바뀌면서 “남의 집 살이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하게 되자” 행랑사람들이 점점 떠나갔다. 그래도 다행으로 부엌일도 외출 사람은 늘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일에 “찌들어” 살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말로는

힘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하루에 한 시간만 집을 비워도 빈자리 티가 나는 집안” 이기에 바빠서 마실 다닐 여유도, 새마을운동 때 부녀회 활동에 참가할 여유도 없었다. 할머니의 굽어진 허리는 종부라는 자리가 결코 그리 녹녹한 자리가 아니었음을 알려준다.

제사는 기제사와 시제를 지내는데, 기제사는 종가에서 준비하고 시제는 종답하는 사람들이 도맡아서 준비하였다. 예전에는 기제사도 5대까지 봉사를 했지만, 허리가 굽어 걷기 힘들게 되자, 윗대 조상 제사는 모두 시제로 넘기고 지금은 시부모님 기제사만 드린다.

시제는 예전에는 산으로 다니면서 열흘씩 지냈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결혼할 무렵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당에서 지냈다. 그러나 점차 종답하는 이들 사이에서 시제 준비가 어렵다는 불만이 생겨나게 되면서, 제사는 점차 간소해졌는데, 반상 수도 줄어들고, 음식을 고이는 높이도 낮아지게 되었다. 제기 역시 닦기 힘든 놋그릇 대신 스테인레스 그릇으로 바뀌었다.

별초 또한 일손이 모자라게 되면서 곤란을 겪다가 결국 대종회에서 납골당을 짓기로 결정하고 2002년에 종산을 관 돈으로 비용을 마련하여 종가 뒤편에 납골당을 지었다. 이때 옛 사당도 허물고 납골당 아래에 새로 지었다.

현재는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남편과 함께 남은 종택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신 할머니는 곁에서 몸 불편한 아내를 위해 온갖 귀찮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인자한 남편과 객지에 나가 다들 “뼈뚜루 안나가고” 끈게 열심히 살고 있는 자식들에게 고마울 따름이다.

이신열 할머니의 생애사를 들으면서, 근현대의 격변 속에서 시대의 변화와 함께 달라져 온 종가의 모습을 살필 수 있었다. 제사나 의례에 다소 소홀해진 오늘날, 종가는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형식은 바꾸되, 조상을 섬기는 마음만은 고이 간직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종가집 사람들은 여전히 남은 전통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구심점이 되고자 애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할머니의 생애사를 통해서, 한 평범한 여성이 결혼을 통해 한 가문의 종부가 되어 갔던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남의 집 종부는 손가락만 빨아도 좋다며”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는 할머니는, 가난한 집에서 부유한 종가로 시집와서 “밥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된 어떤 면에서는 종부가 됨으로써 계층적 상승을 경험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종부라는 자리는 할머니의 구부러진 허리와 아물 틈이 없는 손의 상처에서 보듯이 끊임없는 노동과 불평불만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인내의 자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특유의 명랑하고 밝은 성격 덕분에 고생을 고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종부로

서의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고, 그런 자신의 생을 긍정적으로 회고하신다. 물론 이러한 할머니의 긍정적인 태도는 결혼하자마자 친정식구를 모두 잃어 기댈 곳이 없는 신세가 되었던 외로운 할머니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절실한 삶을 위한 선택이었던 듯싶다. 할머니는 친정식구를 잃은 가족 없는 외로움을 시댁식구와의 관계 속에서 해소해 나갈 수 있었고, 동서처럼 “행세 있는 친정”을 두지 못한 미안함을 종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냄으로써 상쇄하려고 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크게 구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던 것에서 종부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 내고자 했던 할머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평생을 조상님 모시는 데 애쓰고, 내리 딸 넷을 낳은 후 천신만고 끝에 아들을 낳아 종부로서의 역할을 완전하게 해내신 할머니, 이로써 종가 내에서 몇몇한 종부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며 당당한 종가의 안주인으로 살아오신 할머니는 그러나 젊을 때는 시댁 제사 준비에 바빠서, 늙어서는 몸이 아파 정작 친정 부모님 제사에는 딱 한번밖에 참석할 수 없었던 “소용없는 딸자식”이었음을 안타까워하신다.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자기 집 종부 노릇’ 이 아닌, “남의 집 종부 노릇”이란 말에서 여성에게 “종부”라는 정체성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 II. 이신열 종부의 생애사 연표

1928년(1세)	충청남도 아산군 염치면 백암리에서 2남 4녀 중 맏딸로 출생
1937년(10세)	온양보통학교 입학
1942년(16세)	온양국민학교 졸업
1950년(23세)	결혼(해풍 김씨 종손 김진세 씨와 혼인,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로 감)
1951년(24세)	오빠의 좌익활동으로 친정가족이 몰살당하고, 여동생 하나와 큰조카만 살아남음
1952년(25세)	남편 군에 징집 첫째딸 출산 개성서 큰집 일가가 피난 옴

1956년(28세)	둘째딸 출산
1957년(30세)	남편 제대 셋째딸 출산
1960년(33세)	넷째딸 출산
1966년(39세)	아들 출산
1968년(41세)	시할머니 돌아가심
1976년(49세)	시어머니 돌아가심
1994년(67세)	시아버지 돌아가심
2002년(75세)	사당과 납골당을 새로 건립
2004년(77세)	현재 종택에서 남편과 거주

### Ⅲ. 이신열 종부의 구술생애사

#### 1. 어린 시절

##### 호랭이 아버지, 남편 시집살이 당한 어머니

저는 덕수 이가. 우리 친정은 온양이고, 현충사 있는데…. (우리는) 충무공 집안. 이순신 장군이 우리, 저한테 14대조예요. 옛날 양반은 다 빈곤하지 가난하지.<sup>1)</sup> 그래 어려서도 참 가난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선비시니까 맑지. 뭐. 그런데 내가 자라서 (생각해보니)…, 어려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거기 무슨 저 온양에 뭐, 지금 수리조합세 받아먹듯이, 그러는 게 있었대요. 그래 일년에 한 쌀 일고여덟 가마 받으면 그 걸로 식량하시고 사셨다니까. 그러니까 생활이 맑지. 아버지는 선비생활이고 손 하나 까딱 안하고 사셨으니까.

어휴…, 우리는…, 지금들은 아버지가 안 무섭게 살잖아요들? 나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 상에서 밥도 못 먹고 살다가 시집 온 사람이예요. (웃음) 아버지가 워낙 무서워서. 어휴…, 그러다 시댁 오니까 시아버님이 그렇게 착하셔서 당신 따님하고도 그냥 허허실실

1) 덕수 이씨가는 종손도 빈곤했다고 한다.

웃으시라며 얘기하는 걸 보면 나는 친정아버님보다 시아버님이 더 정이 가요. 우리 아버지는 별명이 호랭이 양반이여 우리 아버지께서. 그래 우리 어머니께서도 시어머님, 우리 할머니도 계셨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님 시집살이보다 당신 영감님 시집살이가 더 무서우셨지. 암만 내외간이라도. 지금 세상 같으면 그게 변 일거여. 세상에 내외간에 그렇게 무섭게 하고 어떻게 산대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 사는 동안 아버지 무섭게 살다가 시집왔지, 한번 아버지 이렇고 저렇고 다정하게 얘기 한번 못해봤어요. 그렇게 살다 왔지. 지금 애들 그냥 우리 애들 지 애비라면 끔찍하고 손자 손녀도 애비라면 야단인 거 보면 저런 세상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휴 (아버지께 대든다든가) 그렇게 못해보지. 아버지께서, 잘못 안 했어도, 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못 했잖나 하면 그러면 그러니 듣고 있어야지, “아뇨” 그렇게 못해봤으니까. 더군다나 변명같은 거 했다가는 더 어렵지.

우리 아버님께서 그렇게 성품이 까다로우셔요. 우리도 남 보기에는 무뚝하니 그래도 속은 좀 다르지. 겉하고 속하고는 좀 달리.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워낙 그 양반 생각만 하시고. 얘기 들으셨겠지만 현충사 그 안에서 얼마 사셨고 하니까,<sup>2)</sup> 당신이 제일이여 밤낮. 다른 사람들은 다 거저고. 아버지는 아무 것도 안 하신 양반이야. 손에 흙 하나 안 묻이고, 그렇게 그냥 선비생활로. 그래 선비의 아내는 악담에 들었다잖아. 그래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셨지.

우리 어머니는 옛날 외동 따님으로, 우리 외숙이 세 분이셨다나 봐요. 외동 따님으로 자라다 시집 오셨다는 그 소리만 들었지. 아버지가 더 무서우시지 어머니야. 어디든지 안부 모는 그래도 그제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자식과 남편 사이에서) 중간역할 못하세요. 워낙 아버지가 무서우셔셔요. 어휴 바가지를 어디가 끊어?

## 형제들

우리 어머니가 딸을 일곱을 낳으셨어요. 아들 하나 위로 낳으시고, 딸을 일곱 낳으시고, 끄트머리로 아들 하나 낳으셨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마 그렇게 실수<sup>3)</sup>를 하니까 자주 자주 아기를 낳은 것 같아. 한 서너 살만 먹으면 죽고 서너 살만 먹으면 죽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나 세 번째 낳으셨다고 하더라고.

오빠 한 분 있었지. (오빠) 다음에 나지. (언니는) 어려서 죽었으니까 모르지. 그리고 (여

2) 현충사에서 집사 일을 보신 것을 말한다.

3) 어려서 아이가 죽는 것을 말한다.

동생들과) 막내로다 남동생 하나 낳았는데...<sup>4)</sup>

오빠는 온양보통학교 (나왔)지. (중학교는) 못 가고. 글방에 다니고 한문을 배웠으니까 실력은 있었지만, 그 학교증은 없었잖아. 졸업장이라는 건. 보통학교 졸업장만 있지, 그 외에 졸업장은 없어요. 일제 때 징병 나가서 천행으로 전사 안하고 살아남아 오셨는데, 사변통에 못된 바람 불어서 그것도 그렇게 되셨어요. 아래로 동생들도 국민학교는 다 나왔지 뭐. 나오면 뭐해요. 세상이 그래서 뭐. 저기 하다가 난리통에 그렇게 된 거고. 초등학교 나와 가지고 집에 있다가 그 지경이 된 거야.<sup>5)</sup>

### 일제말기의 기억

그래도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은 딸자식도 그때는 보통학교라 그러지. 보통학교를 가르켜야만 시집보낸다고 그러시면서 옛날양반인데도 (학교에 보내주셨지). 그래서 온양심상소학교였다가, 아니, 보통학교였다가 심상소학교였다가, 인제 국민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sup>6)</sup>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일본말 배우고 했어도 하나 몰라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봐. 그 당시는 그것(일본어)만 해서 그걸로만 (이야기)했는데, 그나마나 하고나서 (집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일본사람이 담임했었어요. 나까무라라는 사람이 담임을 했는데, 남자.

창씨해서 무슨상, 무슨상 했지. 창씨 안한 걸로 부르지 못했지. 창씨 안 했다기는 혼나지. 강제로 창씨 시키는 거지. 그런데 다 강제로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별나셔서 우리 하고, 충무공 종손이 창씨를 안 했어요. 그때 관국에 다 창씨하지, 창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워낙 참 성품이 저기하셔서 창씨를 못하고 살았는데, 우리 육촌 오라버니가 이장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인제 이장을 보니까 안 할 도리가 없잖아. (그래서) 스무하라(李原)라고 창씨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멋도 모르고, 학교에서 창씨 안 한 아이들이 어디있어? 다 했지. 그래서 그걸로 스무하라라고 했다가 아버지한테 진짜 매는 안 맞았어도 그 정도로 진짜 걱정 들었어요.

4) 형제가 모두 2남 4녀로, 여동생이 셋이었다.

5) 한국전쟁때 오빠의 좌익활동으로 친정가족들이 여동생 하나와 조카만 빼고 모두 몰살당한 일을 말한다.

6) 일제 말기에 학제개편으로 학교 명칭이 계속 바뀐 것을 말한다. 온양보통학교에서 온양심상소학교로 다시 온양국민학교로 개명되었다.

그런 건 안 받으셨어요.<sup>7)</sup> 충무공 종손이 창씨를 안 하셨기 때문에 설마 나까지 뭐 하라 싶은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게 몹시 창씨에 대해서 고통은 안 받으신 거 같아요.

우리 어려서 보면... 왜정 때 늦그릇 다 공출했었지. 유기그릇. 그럴 때 우리는 온양에, 지금은 현충사가 많이 변했지. 그전에는 현충사가 그보다 조금 적게, 옛날 현충사 저기도 다 거기 다 나왔을 거예요. 마루밑창에다가들 우리 몇 집안은 거기다 넣기 때문에, 안 내고는 못 사는 형편이었어, 유기그릇. 그런데 우리 대소가 몇 집은 현충사에 갖다가 제기를 모셨기 때문에, 유기 그릇이 오늘날까지도 유기그릇이 있었지.

해방되기 전에 그 일본사람한테 압제받던 생각하면 한국사람들은 압제받아도 짜. 워낙 사람들이 추해서, 온양온천 있잖아요. 온양온천들을 가면 다 바깥에서 씻고 들어가야 하는데, 촌사람들은 벗으면서 바로 들어가니까 일본사람들이 그렇게 토심(비난)을 하더라고. 아주 난 그게 안 잊혀져. 우리는 그나마 학교라도 다니니까 그걸 생각하는데, 그때는 국민학교 다니기도 어려웠어요. 한 달에 월사금이 40전. 우리 육학년 졸업할 때 40전이었어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스물셋에 시집오는데 그냥 부업에서 어머니 돕다가 왔지. 뭐해요. 그때는 딸자식 내보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안 내보내셨어요. 열살에 (학교) 들어가고 열여섯에 졸업했지. 남들 중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 졸업한 거지. 워낙 가난하니까. 뭐 건너다 보니 절터라고, (공부 더하고 싶다고 생각)해야 소용없는 일이고 그냥 어른들 하시는 대로 있다가 가사 배우고 시집 온 거예요. 그냥 어른들 심부름하고 가사일 돕고 그렇게 하다 오는 거지 뭐 별거 없어요. 지금들은 학교 졸업만 시키면 내보내잖아. 그때는 내보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 거<sup>8)</sup> 조금 하다 말았죠. 뭐 (웃음) 여자 하는 일 조금 하다가 말은 거야.

### 음악학교에 가고 싶어서

어휴 어째 그런(공부 더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남 중학교 교복 입고 가는 걸 보면 그것처럼 부러운 게 없었어요. 그 마음이 오늘날까지도 있는 거야. 그 마음은 오늘날까지 있는데, 마음은 변치 않더라고. 그 마음은 지금까지도 있어. 우리 당질녀 하나가 온양 여중학교 땡기는데 그전에는 교복이 다 있잖아요. 그 교복 입고 가는 거 보면 세상에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없는 부모님 청일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다, 우리처럼 사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이들은 얼마나 약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어른이

7) 창씨개명 안해서 핍박받은 일은 없었다는 말.

8) 수놓기.

정훈해주면 그 집에 가야하고 그랬어요.

잘 사는 집 아이는 다 참 여학교 들어가고 그러잖아. 그런데 나는 못 살고 하니까 여학교 꿈도 못 꾸고… 나는 그때 하고 싶은 게, 우리가 노래를 좋아해요. 노래를 좋아해서 아무 것도 말고 음악학교만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더군다나 그런 소리하면 뭐 그야말로 다리가 부러질 지경이니 말도 못하고….

그래 (한번은) 그냥 그 잘난 음악학교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뭐라더라 화랭이(화냥년) 새끼나 뭐냐 해서 꿈도 못 꾸고, 이 태에 와서 이렇게 늙은 거야. (음악학교 보내달라고 말) 했다가 매맞아 죽을 뻔했지. 그래 맞을 뻔했는데, 맞으라고 맞나? 도망가지. 그때 열여섯인데. 그랬다가 그냥 이렇게 뺨은 거야. 우리 어머니도 옛날 양반이라 그런 걸 뭐. 괜히 인저 그렇게 하면 아버지께 걱정 듣는다 그런 소리나 하지. 지금 같으면 아이들 저기 하면 어떻게 하든지 영감님한테 이러저러하니까 보냈으면 좋겠다고 할텐데… 형편이 닿지도 또 않지만, 워낙 영감님도 무섭지, 사는 생활도 그렇지, 그러니까 어머니도 입 다무시고, 나는 더군다나 그런 소리 자주 했다가는 매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랬었어요.

그래 지금도 저렇게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하면 아무도 없을 때는 좀 따라서 해요. 그래도 이렇게 나이 먹고 그랬어도. 그렇게 참 소용없는 줄 알면서도. 아휴, 시댁 와서도 마찬가지지 뭐. 그래 우리는 아무도 안 계시고 하면 부엌에서 일하다가도 부뚜막장단도 맞추고 그랬어요. (웃음) 부지깥이 있잖아, 불 때는 부지깥이. 그걸로다 부뚜막 두드리고 하면서… 음악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그때는 일본노래지. 뭐. 학교에서 배운 거. 그냥 그거지. 뭐. 일정 때 배운 노래 하다가, 그것도 다 잊어버렸지 뭐.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기억나는 게 어땠어요. (노래를) 잘 하지는 않아도, 아휴, 잘해서 그렇겠어요? 취미가 그렇다는 이야기지. 그래 저런데 (노래가) 나오면 그저 저기(노래)하고 싶은데, 시댁에 와서는 그것마저 입다물어 지더라고. 그렇잖아요. 시집온 놈이 뭘 어떻게 해.

아휴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sup>9)</sup>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거야 집에서 허락이 없는걸 어떻게 해. (음악)선생님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그저 음악학교나 보내서, 옛날에 축음기 있잖아. 유성기, 그 판에 실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할 수가 있어야지. 꿈이 그랬는데… 일본 노래 주로 부르다가 집에 들어앉으면서부터는 그것도 딱 닫아버리고 그랬지. 시댁 와서는 더군다나 더하고.

9)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는 말.

## 2. 결혼과 한국전쟁

### 맞선도 못 보고 한 결혼

시집은 스물셋에, 1950년 사변나던 해에 했으니까. 연출로 혼인했어요.<sup>10)</sup> 혼인이라는 게 그때는 연출연줄이지. 나는 육촌 오라버니덕, 저 충무공 종손 종부가 우리 육촌 오라버니 덕이거든, 그 양반 친정 아버지가 당신 따님의 육촌 시누를 중매 하신거야. 그래서 중매로 온 거지. 그때는 연출연줄로 중매지 뭐. 그런데 그때 판국에도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도 서로 맞선보고 그랬어요.

아니, 맞선도 못 보고 한 혼인은 우리밖에 없을꺼야. 그때 시절에도 맞선 보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워낙 우리는 아버지가 엄하시니까. 옛날에는 다 연출연줄이잖아. 혼인이. 이제 아버지께서 당신 딸 보고 아무리 나쁜 집으로 보내도 칭얼을 안한다고<sup>11)</sup> 그게 될 말이야? 그래 맞선 필요없다고. 가서 이제 신랑 선은 보고 오셨지, 아버지께서. 신랑 선도 보고 색시 선도 이제 시부모님이 보시고 했는데, 근데 그것도 좀 나쁘더라구요. (웃음) 그렇게 살았어요.

(중가집으로 시집간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는 어안이 병병하지. 그런데 하도 가난에 질려서, 그래도 이 덕에는 그래도 그야말로 김대장택<sup>12)</sup>이고 부유하잖아. 그런데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이 그런 부유한 집에 가서 견뎌나겠냐고 친정아버지께서... 그런데도 이 덕에서 자꾸 혼인하자고 하니깐 하기는 했죠. 해서 별 불만 없이 살기는 했어요.

혼수는 해가지고 가야지. 장롱 해야 하고, 이부자리 해야 하고, 저 입을 옷은 해가야 하

10) 시대 해풍 김씨와 친정 덕수 이씨는 같은 무관집안이라서 그전부터도 혼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 가까운 예로는 해풍 김씨네 고조할아버지 따님들이 덕수 이씨네로 시집을 갔었다고 한다.

11) 원망을 하면 안된다고.

12) 해풍 김씨 중가를 말한다. 무관집안이어서 택호가 김대장택, 혹은 김대감택이라고 한다. 아직도 동네에서는 김대장택으로 통하고 있다. 해풍 김씨택의 내력에 대해서는 남편인 김진세 씨가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본관이) 개성. 지금 개성이 예전에 해풍현이었지. 우리 할아버지가 사사 받았었대요. 고려 임금한테. 거기서(개성에서) 고려 말 이조초에 이리로(화성으로) 오셨지. 벼슬했었으니까 내 19대 할아버지가 사헌부 대사헌이거든, 고려 때 벼슬한 사람을 이성계가 죄 잡아죽이니까 (피해서 화성으로 온 거지). (해풍 김씨는) 많지는 않지. 개성, 안변, 철원 그쪽에 많아. 남한은 한 만여 호 사나. 주로 여기(화성)가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죄 떠났어요. 시조할아버지한테 내가 25대손, 중시조할아버지한테는 내가 19대손. 할아버지가 형제분인데, 우리가 작은집이야. 큰집은 개성(에 있고). (시조할아버지 성함은) 송자 선자. 고려때 분. (조상 중에는) 3대가 포도대장을 지내고, 관서 지내신 분도 있고. 무관집안(이야). 그래서 병사가 많아요. 저기 평안도 함경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렇게 해안가로 (벼슬살이를) 들고, 3도통제사도 두 분이나 지내시고 저한테 6대조가 삼도통제사(지냈지)..."

잖아. 지금처럼 그렇게 예단가지고 범석 안하고. 더군다나 우리 친정같은 경우는 가난하니까. 그저 막 벗고 빨 옷만 입고 의장만 해가지고 가도 그게 잘 해가는 거야. 우리 아버지께서 워낙 성품이 별나셔서, 암만 딸자식이지만 남의 집 가서 의장이라도 해가지고 가고 입고 벗고 할 거는 해가지고 가야 토심 안 받는다고. 그때야 토심받지 뭐. 못 해가지고 가면.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께서 워낙 이해성이 있으셔서가지고 그런 거 다 알고 하셨으니까, 시집 오니까 참 때에 맞춰서 옷같은 거 남한테 업심 안받게 하실려고 해주시고 하는데 참고맬더라고요. 사철의복만 해서 보내면 고만인데, 암만 입고 벗고 해도 출입복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께서 어디 데려가야 할텐데 출입복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걸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지만... (남들) 시집가서 시집살이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 우리는 무지막지하게 시집살이 시키고 그런 게 없어요.

### 남편은 군대 나가고

주용이 아버지<sup>13)</sup>께서 군대생활을 5년 했어요.<sup>14)</sup> 하필이면 해병대. (남편이 군대에) 안나가려니 했거든요. 신체검사에 울종이야. 아 그런데 먼저 걸리더라고. 그래서 나가는 사람도 당황하고. 우리가 안에서는 별 수 없이 저기지만, 부모님이 제일 애통하셨지. 안 내보내려다가 나가니까. 집안 살림을 암만 아버지 계셔도 당신이 다 휘잡아 하셨으니까.

우리 큰애 낳고서 아버지(남편)가 군인 나가셨지. 아니, 낳기 전에. 낳을 달에. 큰애 낳았을 때 아버지도(남편도) 군인 나가고 했으니. 그래도 내외간에 집에 있어야 오고가는 말이 있지. 어른 시하에서...

우리 큰 딸아기가 그래 엄마 신랑 없이 어떻게 살았냐고. (웃음) 어려서 땃살 때 그거(큰 딸이) 말할 때 그러더라고. 우리 큰딸 아이가 워낙 애가 총명해요. (남편이 휴가받아 집에 돌아왔을 때) 낮에 오는 것도 아니고 밤에 왔으니까 오는 것도 못 보고 가는 것도 못 보고 했는데 웬 남자가 (엄마) 뒤에 있으니까 욕을 하더라고. (남편은) 딸한테 욕먹은 건 나밖에 없을 거라고(말하곤 해요)... (웃음)

### 피난 내려온 친척들

어휴, (전쟁 때) 피난 못 간 저기는 우리밖에 없을꺼야.<sup>15)</sup> 고생한 생각하면 참 끔찍한데

13) 남편. 주용이는 아들 이름.

14) 결혼한 지 2년만이고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남편이 군대에 징집되었다.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5년 후인 1957년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도, 지나간 고생을 잊어요. 말이 아니지 뭐. 하필이면 6·25가 보리밥 먹을 때 아녀? 몇 십 명씩 그 보리방아가 쪼어다가 닦아서 하려면 또 쌀도 귀지러워요(귀해요). 이렇게 살면서 쌀 귀지럽다고 그러면 참 말이 아닌데도, 쌀이 귀지러워가지고는 그냥 깡보리밥 하다시피 하는데, 그 깡보리밥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뜰들이기도 어렵고 처음에 씻는 것도 잘 씻어야지. 잘 못 씻으면 보릿내가 나서 망하지. 지금이야 쌀밥도 제 내버리고 살잖아요. 어휴. 그래도 워낙 사시던 집이라 사람은 두어 주시더라구요. 그래도 어렵죠.

### 좌익활동으로 몰살당한 친정

우리 친정 오라버니하고, 충무공 종손이 그러셨거든(좌익활동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거기 다 물이 들은 거지 뭐. 우리 오라버니도 물이 들은 거야. 들어서 활동하다<sup>16)</sup> 참 세상 뜨셨지. 6·25때. 그때는 남로당이라고 그러잖아, 남로당에 가입 안하면 또, 일단은 거기에 발을 조금 드는 시늉을 했으면 끝까지 들어야지 중간에 나올 수도 없는 형편이었어. 그냥 죽이는 거지 뭐. 온양에서. 아산군 염치면이거든. 그 염치면이라는 데가 제일 고작스러웠대요.

충무공 종손 되시는 분이 우리 육촌 오라버니인데. 그 분이 지하공작을 하신 분이야. 그러니 우리 대소가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물이 들어 버린 거야. 그 물이. 집안에 아주 없어요. (충무공 종손은) 옛날에 보성전문, 보성전문 나왔어요. 보성전문도 그때 판국에도, 참 우리 덕수이가들이 가난해요. 장가 들어가지고 처가집에서 가르친거야. 충무공 후손을. 배운 게 후한이라는 등 갖은 소리 다 잡셨지. 사변통에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하고 아주 무식한 사람하고 그렇다며.<sup>17)</sup> 오라버니는 초등학교 나와서 자기 스스로 인저 직장생활을 했어요. 목공제작소라는 영등포에 취직해서 (일)하다가 그렇게 난리를 만난거지. 그 양반(충무공 종손)은 살으셨지. 피신해서 살았다가 연세가 많으니까 노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난리가 어디 있었겠어. 그런데 난 그렇게 살 팔자라 그런지, 사변나던 해 바로 왔으니까 그걸 몰랐지. 그렇지 않았으면 시택 안 왔으면 나도 갔지(죽었지) 뭐. 어디 뭐 뽕죽한 수가 있었겠어. 오라버니 그때 바로 돌아갔어요. 사변때. 그때 오라버니가 아들 형제 낳는데, 식구가 다 그렇게 되고 큰아들만 하나만 저의 외가택에 가 있다가 어떻게 피신해서 살

15) 한국전쟁이 터지고 나서 얼마 후 개성의 큰집에서 일가 친척 몇 십명이 피난 내려와 이신열씨 택에 얹혀 살게 되었다고 한다. 약 1년 동안 함께 살다가 그후 뿔뿔이 흩어졌다고 한다.

16) 오빠가 아산군 염치면 인민위원회 면위원장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17) 좌익에 몰든다며.

아서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부모님도) 그때 다 한꺼번에 난리때 육이오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당숙되는 분의 처가댁이 여기 해풍 김씨여. 당신 사촌이 그렇게 되고 모두 집안이 그꼴이 되니까 한번 오셨더라구. 그 난리가 나니까 예감이 벌써 다 틀리죠 뭐. 인저 꺼꾸로 되서 그때는 여기(시댁)가 부유하니까 여기가 다칠까봐 우리 아버지는 밤에 오시고 비행기 폭격 속에 옷을 남루하게 입고 오셨다가 가셨어요. 당신 돌아가실 줄은 모르고. 그랬다가 나중에 결국 돌아가셨지만... 그 당숙분이 오시더니, 이제 시집 온 새색시니까 회복을 할꺼 아니야. 회복한 게 보기 싫으셨던지. 우리 시아버님 뵈고 암만 보기 싫어도 소복을 해서 입히라고. 그래 소복을 해서 입히는데...(눈물) 시댁이라고 와가지고 참 그런데 어휴, 하도 친정 저기에...(눈물) 참 육체 고통받고 시집살이하는 것은 아무 짓도 아니더라구요.

우째 참 낯설은 곳에 와서 그 경우를 당하는데 어째 고생스럽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때 꼭 참고 이겨내서 그때 고생한 것은 뭐 아무 짓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거죠... 남동생 여동생 할꺼 없이 다 그때 (죽었어요). 그리고 여동생 하나는 저 우리 작은 고모님이 핏택에 사셨는데, 우리 작은 고모님댁도 그때 그래도 부자로 잘 살으실 때야. 그래 아버지께서 거기 좀 가봐라 당신 돌아가실 줄은 모르고, 그렇게 거기 피신해서 있다가 살았지. 집에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휴 여동생만 지금 보은에서 살고 있어요. 노래 말 때마다 우리는 외로운 형제야. 그집이도 우리 동생도 남의 종갓집으로 시집가가지고는 덩치라도 커야지? 우리 동생은 덩치도 조그맣요. 남의 종부 노릇하느라 애쓰지 그 사람도....

오죽하면 우리 큰딸아이가 자다가 놀라가지고는... 이제 (남편은 군인가고) 혼자 애 하나 데리고 지는데, 밤낮 자나깨나 말은 안 해도 그 꿈<sup>18)</sup>이지 뭐. 그 꿈을 꾸면 밤낮 그 형상으로 꿈을 꾸니까 놀라서 잠결에 소리지르고 하니까 그전에는 우리는 건너방 쓰고 시아버님 내외분은 저 아랫방 쓰셨는데, 시아버지가 올라오셔서 손을 꼭 붙드시고 “너 왜이러니, 왜이러니...” 그러시던 게 어끄저께 같은데...(눈물) 지금은 잊고 사는거죠... 그때 말도 못하죠. 지나온 거 생각하면... 자다 꿈꾸다 그러면 애 놀라서 울지 아랫방에서 시아버님 시어머님 놀라서 올라오시지. 하여튼 사변나서는 나뿐 아니라 시부모님도 고생하셨어요. 그거 참 며느리라고 언었는데 그 지경이니 얼마나 속이 아프셨었어. 이날 이때까지 내 가슴에 있는 말을 못 해보고 사는 거야. 하면 뭐 해요? 사는 게 뭔지 그저 그냥 시댁살이하고 아이들 기르고 봉제사 받드는 거 그걸로 재미 붙이고 사는 거지. 이 암만 일이 많아도 그거 귀찮은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주인(남편)이라고 집에 있어서 서로가 오고가

18) 친정 가족들이 학살당하는 꿈.

는 이야기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그저 그냥 큰딸 하나 데리고 건너방에서 자고 하면, 그저 그냥... 그 형상을 보면 다 놀래죠. 뭐,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 몰라... 시아버지는 무던하시고, 시어머니는 정 많고 그러니까 건더 나갔지...

### 3. 출산

#### 산할머니 불러서 산후조리

인저 여자는 때문(월경)이라 게 있잖어. 그걸 안 해야 있는 건 줄(임신한 줄) 알지. 그렇게 몰랐어요. 주용이 아버지도 여기 계시지만 암만 내외간이라도 여편네가 애가 서는지 어떤 고통을 받는지, 어떤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애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스물다섯에 큰딸 낳고, 큰딸 낳고 나서 그 아래가 스물여덟에 가서 둘째 낳고. 그리고 세살 터울인데... 스물다섯에 낳고, 스물여덟에 낳고, 서른 몇 살에. 서른둘에 낳았나 보다. 주용이하고 우리 막내딸만 차이가 지지(나지). 주용이하고 막내딸은 여섯살 터울. 주용이는 서른아홉에 낳았으니까. 딸아이를 서른셋에 낳은 게 맞지? 둘째하고 셋째가 연년생. 주용이는 서른아홉에 낳아서 (그다음엔 임신이) 똑 떨어지더라고.<sup>19)</sup>

시집서 산할머니 불러가지고 (낳았어). 그것도 있는 사람 한해서 산할머니 부르지, 없는 사람이야 그냥 시어머니가 다 해산 바람<sup>20)</sup>하는 거 아녀. 나는 그래도 대증가랍시고 형제도 있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산할머니 불러서 (산후조리) 해주시더라고요. 산할머니 불러서 삼칠일을 봐주시고. 산모 밥 해다 주고, 갓난애 씻기고 그러는 걸 산모가 안하고 산바라지 할머니를 불러다 해주시더라고. 애 다섯을 낳아도 그거<sup>21)</sup>는 몰랐어요. 삼칠일 동안은 그래도 산방에서 애 젖이나 멕이고. 씻기는 것도 산할머니가 씻기지 산모는 애를 안 씻겨봤어요. 애 안 씻겨보다가 외할머니 돼서 씻겨보려니까 그것도 어렵대. 그것도(산할머니도) 있는 사람 한해서 얘기지. 다 보통 시집가면 시어머니가 해산바라지하고 산후조리 들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는 암만 고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고생은 안 했어요.

우리 큰딸아이는 숙모님 친정어머님께서 와서 (산할머니 노릇) 해주셨고, 둘째 애부터

19) 출산할 당시의 나이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셨다.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니, 25세에 첫째딸, 29세에 둘째딸, 30세에 셋째딸, 33세에 넷째딸, 39세에 아들을 출산했다.

20) 바라지.

21) 해산하고 나서 바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는 동네 사시는 일가 어른이 와서 또 해주셨고. (특별히 애만 받으러 다니시는 분은 아니고) 그야말로 할머니뻘 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와서 해주고 그러는데, 그때는 애 해산 바라지 하나 하면 광목 열 마씩 바꿔주시더라고. 광목으로. 그때는 옛날이니까 광목이 없었잖아요.<sup>22)</sup>

(산할머니는) 삼칠일 동안은 집에 있는 거지. 밥해주고... 지금들은 제왕절개를 해서... 우리 외손자들<sup>23)</sup>은 밤에 밥 한 번도 안 해줬어. 우리는 삼칠일 내내 밤밥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야 뭐 애 젖도 잘 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없는 사람은 자기네 식구끼리 그렇게 하지. 우리처럼 산할머니 불러대거나...(못하지). 또 산할머니 부르면 댕가가 있어야 되니까.

나는 입덧은 안 했어요. 나 같은 처지<sup>24)</sup>에 입덧이나 하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제 애 서는 줄도 모르시지 어른들은. 잘 먹으니까. 입덧하느라고 토약질을 한다거나 그러면 어렵지. 그러니까 이날 이때까지 속같은 거 저기해서 속씩이지는 않았어요.

세상은 다 살게 마련이야. 죽으라는 법은 없어. 나 같은 처지에. 그 참..., 지금 세상들은 그래도 친절에서 다 치닥거리 해주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처지에 그러면 어렵지. 애들 무슨 고통스러운 일 있으면, “그저 세상은 다 살게 마련이니까 편하게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그래요.

### 선녀들이 지나가는 태몽을 꾸고

어휴 참 세상에 딸도 그렇게 나오는 딸이 어땠어요? 낳는니 딸, 낳는니 딸. 우리 주용이 꿈을 태몽 꿈을 큰딸 적에 선녀를 봤어요.<sup>25)</sup> 선녀가 지나가는데, 친절 근친 갔다가 태몽을 꿴는데, 현충사 앞에 큰 은행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거기 마침 친절에 갔다가 태몽을 꾸는데, 은행나무 이렇게 쳐다보니까는 시커먼 구름이 꺼떻게 오더니 흰하게 별안간 벗어지는 동시에 하늘에서 은빛 나는 비행기가 몇 대가 지나가더라고 그러더니 선녀가 지나가요. 선녀가 지나가니 딸이 얼마나 많겠어. 지나가고 나더니 우리 조카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조카아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내가 반쯤 봤다가 췌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 큰딸이 아들인 줄 알았어요. 조카가 남자아이라. 그런데 그 선녀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주용이를 낳은 거잖아.

22) 광목이 귀했다는 뜻.

23) 딸들이 외손자를 낳았을 때는.

24) 한국전쟁때 친절 가족들이 전부 몰살당해 홀로 된 처지를 말한다.

25) 큰딸 태몽으로 나머지 딸들 아들 태몽까지 한꺼번에 꾸는 셈이다. 꿈에 선녀가 많았다고 한다.



시어머님과 아들 딸들과 함께 옛사당 앞에서

본인이 염치가 없지 어른들한테…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니까, 어쩔 그렇게 나는 그제 (아들이) 하나면 쉬여도… 그건 내 팔자니까 어쩔 수 없고. 늦게 나라는 거니까.

시부모님들이 딸 낳아서 어떡하느냐고 걱정하고 하시면 더 불안할 텐데 우리 어머니나 시아버님 그런 티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거 한가지 그거지(고마운 거지)… 우리 둘째딸 낳고서는 이제 첫째 딸 낳았으니까 아마 아들 낳을 줄 아셨던지, 둘째딸 낳았다고, 애우는 소리는 다르던데 또. 바깥에서 들으시고서는 딸인가 보다 그러시고는 당신 둘째 아드님 부르시면서 아무개나 장가들여야 손자보지 손자보기는 다 틀렸구나 하는데 아휴, 나오는 장사가 없어.<sup>26)</sup> (그때) 우리 시어머님은 서울 인저 당신 아드님 공부 가르치신다고 서울에 올라가셨지. 그랬는데, 시어머님 안 계시면 한테야.<sup>27)</sup> 시아버님이 그러시는데 애 낳은 지 사흘 되면 나와야 하는데, 조례는 하더라도 바깥에 왔다갔다 해야할 거 아녀? 시어머님도 집에 안 계시고 해서 아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 나오는 장사가 없어. 우리 어머니께서 애 낳은 지 삼날(삼일째 되는 날), 둘째딸 낳은 지 삼날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반가운지 그 바람에 둘째딸 낳고 삼일날 나왔지. (시아버님) 얼굴을 대할 수 없더라고. 딸

26) 미안해서 얼굴들고 나올 수가 없었다는 뜻.

27) 기댈 곳이 없다는 뜻.

이 뭔지. 근데 그래도 지금은 그게 아녀. 참 딸도 낳을만 해요. (웃음)

그런(딸만 낳아서) 조바심하고, 어른들도 우편 일이냐, 우편 일이냐 그러셔도 뭐 그냥 별저기 없었어요. 그런데 하시는 하더라고 주용이 있기 전에. 주용이 낳고 나서는 뭐 세상이다 참, 첫째는 조상님한테 득죄(得罪) 안 하니까 좋고, 아주 조상님한테 득죄하는 줄 알고. 여자라는 게 남의 가문에 가면 그래도 할 노릇(아들 출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낳느니 딸만 낳고, 딸만 낳고, 계속 딸만 낳더니 똑 (임신이 한동안) 떨어지더라고. 아유-

(넷째딸 낳고 아기 안 생겨서) 걱정한 말을 어떻게 다 해요? 보통집같으면 괜찮은데, 남의 종가라. 그래서 인제 어른들은 별 말씀 안 하시지만 본인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나이는 그래도 먹었잖아 먹을 만큼. 그래서 애가 쓰이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주용이 위로 유산 하나 했어요. 거울에 인저 머리..., 지금이야 편하지만, 그때는 더운물을 데워서 퍼다가 씻는 관국 아녀? 그래 더운물을 우리 시어머님이 아랫방 쓰시는데 거기다 더운물을 데웠는데 거기서 퍼다가 앞뜰에서 감아야 할텐데 그걸 떠가지고 나오다가, 그때는 옛날에는 농사짓고 하니까 소 맥이고(먹이고) 소똥물 받고 하잖아요? 큰 도라무통(드림통) 놓고 소똥물 받아놓으면 그게 얼지. 거울에는 어는데 그걸 깨뜨려다 소죽도 쭈고 그러는데, 그 도라무통 있는 걸 생각 안하고 주춤주춤하고 나오다 탁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유산이 되더라고. 딸 수로는 여섯달인데, 우리 시어머님께서 보시니까 (아기가) 다 생겼더라고. 집안이 난가(亂家)지 또, 그리고 나서 똑 떼었다가(한참 있다가) 애를 낳았어요. 주용이를. 그럭하고 나서 똑 떨어졌다 낳으니까 여섯 살 터울이 되었지. 아이구, (속상해서) 말도 못 해요. 아주. 그리고 나서 바로 (애가) 있으면 괜찮은데 똑 떼고 나니까 걱정들 하셨지. 으찌 되었든 여자는 죄야.

### 조상님이 도와서 낳은 아들

스님도 시속을 따른다고.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지만.<sup>28)</sup> 내가 보통집안 같으면 그런 마음을<sup>29)</sup> 안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남의 종갓댁으로 와가지고 할 노릇을 해야할 거 아녀. 주용이 낳기 전에는 셋째딸 낳고서 제일 그런 생각이 났어. 혹시나 혹시나 했는데, 나는 자꾸 딸만 낳으니까 계속 딸만 낳을 것 같고, 주용이 가져서도 딸 낳을 것 같고 아들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28) 아들 딸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풍속에 대해.

29) 꼭 아들을 낳아야겠다는 마음을.

딸꿈 아들 꿈 다 한꺼번에 꿰는데, 우리 주용이는, 그렇게 그냥 노냥 딸만 낳았으니까, (주용이를 임신했을 때 꿈에) 단군할아버지라는 양반이 등을 두덕두덕 하면서 아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라져버렸는데, 주용이가 있어서 주용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나는 조상님네 덕이다 싶지. 그래서 우리 조상님, 우리 주용이한테 그대 조상님네한테 잘 하라고.

그리고 나서 인제 주용이 낳고 나서는 자연으로 안 낳더라고요. 그대 내려오는 말이 있지. 서른 아홉에 풀 죽을 때 낳으면 단산하고, 풀 나올 때 되면 낳는다는 말도 그것도 괜한 말이야. 우리 주용이나 5월에 낳았어요. 음력 5월 초이레 날에 낳았어. 그것도 참 밭에 가서 고추모, 참깨모 하다가 들어와서 낳았어요, 우리 주용이. 시어머님 따라서 밭에 나갔다가. 에이, 얘기를 하면 참. 딸 넷을 낳고, 그거 있는데도 또 딸이지 아들 낳을 가망이 없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아들은 편하더라고요. 이리 드러누워도 편하고 저리 드러누워도 편하고. 주용이는 옆드려서 밭을 매고 해도 조금도 복이는 게 없어. 편하게 하더라고. 드러누워도, 잘 때도 편한데. 여자애들은 그게 아녀. 다른 애는 모르는데, 우리 셋째 낳을 때는 드러누우면 애가 자꾸 이리 오르는 것 같더라고. 달 차니까. 달 안 찼을 때는 모르지만. 그랬었어요. 아이구, 나 신경쓴 말은 다른 건 시집살이하느라고 신경 쓴 거 그런 건 본인만 다 잘 저기하면(참으면) 괜찮은데, 그거는(아들 낳는 것은) 마음대로 못하는 건 그거잖아.

밭을 나가 밭을 매다 들어와서 밭 씻거나 하면 밭이 이렇게 소복히 부어요. 노산(老産)이잖아. 지금은 서른 아홉까지 낳는 사람 없지. 노산이니까 밭등이 붓더라고. 그러면 밭등 부은 게 그렇게 불쌍해. 누구한테 내색도 못하고, 아주 요렇게 소복히 부어요. 밤에 자고 나면 어떻게 너 언제 밭등 부었더냐 하고 쪽 빠지더라고요. 그랬었지.

그런데 우리 주용이 낳을 때는 주용이 산할머니를 얻어서 낳았는데, 그런데 애는 애머미가 낳지 산할머니가 낳은 게 아니잖아, 그런데 산할머니를 붙들고, 우리 일가라 대모야. 높은 행렬은 대모라고 하거든, 행렬이 높으면 젊어도 대모거든. 숙질빨 되는 사람도 있고 할 아버지빨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면 그냥 젊은 사람은 대모, 대부라고 했었어요. 그 대모라는 양반이, 주용이 산할머니인데, (시어머니가) 애 낳은 놈은 당신 며느리가 낳았는데, 그 대모 무릎을 껴앉으면서 “대모 얼마나 애쓰셨냐”고 그랬다고, (웃음) 그 대모 되시는 분이 “내가 낳았나 나더러 애썼다고 그러냐”고 그랬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딸을 많이 낳으니까 별일도 다 많아요. (웃음)

## 그래도 아들이 좋아

우리는 시집살이 그렇게 안 해서 그런지 왜래 시부모님이 산모 위안시키느라고 그런 밭<sup>30)</sup>

은 절대 안 하시더라고. 어휴 그런 말하면 서러워서 어떻게 살아. 그런데 우리 막내딸 낳고서는 그렇게 암만 티를 안내도 사람이 염치가 있지 넷까지 낳았으니 어떡해요 그거. 그래 누가 뭐 소리만 해도 딸 많이 낳다고 그런가 보다 싶고, 고까워서 막내딸 낳고서는 은근히 많이 울었어. 누가 뭐라고는 안 해도. 갓난 거 이렇게 색색 잠든 거 보면 아무쪼록 큰소리 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눈물이 툭 떨어져. (웃음) 그랬지. 그래야 그티, 애들한테 니들 낳을 때 고통받았다는 소리는 하지도 않았어요. 저희들도 들으면 기분 나쁠 거 아냐? 그런데 우리 막내딸은 그에 낳고 주옹이를 낳았으니까. 저희 언니들더러 “사내동생 봤어? 나는 사내동생 봤어.” 그렇다고 장한 척을 해요. 그러면 저희 큰 형이 그래요 “내가 봤지, 너희가 봤냐?” 하고 농담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난 아들이 제일이야.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고 해도, 오죽하면 우리 셋째 딸 애가 우리 외할머니는 우리 외삼촌밖에 모른다고. 내가 뭐 표나게 외삼촌 외삼촌하고 두둔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아들이 제일이다 아들이 제일이다 하는 게 어린 마음에도 새겨졌는지, 할머니는 외삼촌밖에 모르시는데 뭐. 그래 어휴 외삼촌만 내가 아는 게 뭐냐. “아니죠 외삼촌만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 하시는 거 보면 오로지 밤낮 아들 아들...” 그런데 우리 셋째딸도 그래요. 남매인데 위로 아들 낳고 아래로 딸 낳았는데 그냥 개도 그렇게 아들 아들 아들 하더라고. 그런데 그애가 공부를 또 잘해. 그래 더 신통해서 그런지. 그래 그 아래 딸 아이는 나는 거저니까 하며 제 에미 맘을 굶어. “그렇게 하는 거 아냐. 너도 중하고 오라비도 중한거지 에미맘은 다 그런 거다” 하면, “아냐” (하지).

#### 4. 집안 살림살이

##### 시댁살이, 시댁식구들

옛날에 층층이하에 시할머님까지 계신데 (시집) 왔거든요. 시할머님은 옛날 할머니니까 그냥... 우리 할아버님께서 기미년 만세통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일찍 혼자 되셔서 밤낮 하얀 옷만 입으시니까. 그냥 그 하얀 옷이 그저 고운 때만 묻으면 벗어 놓으시고, 고운 때만 묻으면 벗어 놓으시고, 그 하얀 옷을 찌들 때까지 못 입으시잖아요.

우리 시할머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신 얘기 들으면, 얘기가 5남매인가? 5남매를

30) 씨받이를 들여서 아들을 낳으라는 말.

냥으셔서 하나 성취도 못 시키시고<sup>31)</sup> 서른... 여섯에 혼자 되셨다고 하시던가? 우리 시할머니가 옛날 양반이래도 터울이가 연년생도 있으셨어. 그래가지고는 우리 시증조할머니는 스물 셋에 혼자 되셨대요. 영감님(시할아버지)이 고을살이 나가셨다가, 옛날 양반은 암만 아드님 귀해도 그 며느님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냐? 당신 아드님 잘 나서 귀한 생각만 하시고



시부모님

는 고을살이 나가시는 데도, 벼슬 나가시는 데도, (시증조할머니가) 영감님(아드님)을 데리고 댕기시니까, 마나님(시할머니)이 혼자 독수공방하시는 거 아냐. 아무리 줄줄이 열두 행랑을 거느리고 산다고 해도, 내외분 사이에 이려고저려고, 우리 시할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들은 애기들도 잘 하더라도, 나는 그해보지도 못하고 살았다 하시는 걸 보면... 그렇게 살았대 그때.

시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죠. 그런 거 몰랐어요. 그야말로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시부모님이 하라면, 소금가마 끌으라고 하면 암만 기운 없어도 끌어야지 반대는 못해보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서운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접어야지. 그거 속에다 넣고 있으면 안되는데, 그래도 가끔가다 서운하게 하셨던 거 생각나기도 하는데, 소용없는 일이지 뭐. 내가 친정이 없으니까, 다른 동생(동서)들은 아무렇게도 인저 친정에서 뭐 해오잖아. 나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누구 하나 치닥거리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가 가장 그런데, 난 편하게 좋게 둥글게 살아가요. 내가 신경 쓴다고 돌아가신 양반이 나 그렇게 해주시러 올 일도 없고. 편하게 살아야 해요.

그래 시택 오니까 그렇게 시아버님이 착하셔서, 뭐 나는 하도 아버지 시집살이 무섭게 하고 와서, 시택 오니까 아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편해요. 마음이. 시아버지라도 약주 잡수시고 주정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아버님은 약주 잡수시면 더 좋아요. 이택 내력이, 사람마다 다 각각이에요. 술 취하면 고약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택 내

31) 아이들이 다 어려서 죽었다는 말.

력은 그런데 안 그러세요. 시아버지도 그렇고 주용이 아버지도 그렇고. (시어머님도) 잘 도와주셨어요. 진지 않혀놓으면 불 때주시고, 며느리니까 니가 해야 한다고 다 맡겨두지 않아요.

동서들은 시댁와서 처음만 저기하고는(같이 살고는), 한... 지금들 같이 살아요 어디?, 안 살으니까 바로 되도록이면 살림집을 마련시켜놓고 결혼시키는 게, 제일 상책인데. 한 집에서 산거는 우리 둘째 동서만 한 2년, 2년 살다가 벌써 눈치가 틀리잖어. 그래서 인저 집장만해서, 이렇게 남의 종가로 저기한테도 그걸 딱 떼서 집 한 채를 못 쥐서 처음에는 (그냥) 내보냈어요. 서울로 살림을 나는데, 남의 셋방으로 전세 얻어서 살다가 나중에는 집 장만해서 그렇게 오늘날까지 살아요.

그런 맘은 없고.<sup>32)</sup> 한 이태(두해) 같이 한술밥 먹은 정리가 그렇더라구. 우리는 동서간이라도 그쪽은 어떨런지 몰러도, 나는 또 이름이 다르지, 남의 맘며느리가 싫으면 싫은 표하고 좋으면 좋은 표 이렇게 못하고 살았어요. 오로지 꼭 참고 시는 게 제일 상책이다 하고 살아 버릇해서 그렇게 살았지.

다르긴 뭐 달라요.<sup>33)</sup> 그런데 인저 여러 일가들은 아무렇게도 종부 대접을 해주시지. 일가들은. 그렇지만 시어머님 시아버님이야 우리 시아버님은 마냥 착하셨는데. 그렇기는데도 뭐 특별하게 충하하거나(차별하거나) 그러시지는 않더라고.

아버님이(남편이) 착하시니까, 그래도 남편한테 할 소리는 못 하고 살지. (웃음) 못 하고 살아요. 지금 가끔 가다 어떤 때 그러지. 아휴 서운해도 내색을 못 하고 살았어요. 다른 건 서운하지 않지. 내가 말이나 동서가 들어 들어왔는데, 둘째가 들어왔을 때 둘째가 있는 집 따님이야. 그래도 나하고는 틀릴 것 아니야. 아무래도 친정이, 둘째 며느리 친정은 형세 있게 살고 하니까 해 오는 것도 다르지. 어떤 때 제일 나쁘냐면, 동서 친정 다녀올 때 뭐 해오고 하면 나는 할 노릇을 제대로 못 했으니까 그게 죄가 되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눈치를 주거나 하지는 않으셨는데, 내 자신이 저렇게 해 오면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나는 그걸 못했구나 하는 생각, 항상 죄스럽지 뭐. 없이 살면 죄스러운거야.

남편한테야 뭐 다 알고 데러오고 서로가 그런 걸 뭐. 그래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살다가, 어떤 때는 살려면 싫은 소리도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격지심에 내가 할 노릇을

32) 동서들 분가할 때 부러운 맘.

33) 아랫 동서들과 자신의 역할이 좀 다르냐는 질문에.

못하고 살아서 그런가보다 해서, 언제가 한번은 내가 처음 그랬나봐. “당신도 처가집이 부자고 떳떳하게 처가집에서 뭐라도 해주면 사람 대하는 게 다를 거 아니냐” 하니까 화내더라고. “내가 겨우 값어치가 그런 사람밖에 안되냐”고. 그러니 다시는 말 못하죠. (웃음) 본인이 그러는데 어떻게 해. 나는 자격지심에 아무래도 있는 집 저기면 더 자랑스러울 꺼 아니야. 그런데 그 티가 없으니까, 그거 한가지는 좋았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그렇고….

### 행랑사람, 일하는 사람

이 댁에는 옛날에 열두 행랑을 거느리셨대요. 행랑이 열둘이요. 저 느티나무 있죠? 그 위가 우리 아흔아홉칸 집터인데,<sup>34)</sup> 나는 보진 못했지만, 우리 집 하나에다 열두 행랑이니까 굉장했겠지. 그러니 터가 넓지. 집터만 천평이라니까. 농사도 한 두섬지기면 한 40마지기지? 그때는 일꾼 두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러다 중간에는 토지개혁에 다 빼앗기고 그럭하고 나서. 지금도 집터는 그냥 있어요. 느티나무 있는 데.

인저 나 시대 오니까 행랑이 있는데, 행랑이 두 채 남았더라고요. 그 행랑에서 우리 일가 분들이 살았는데, 그 일가 양반이 천상 거기 와서 행랑살이를 하시니까 빨래 같은 거 하시고 제사할 때 다 거들어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계(행랑사람이 일해주는 것이) 사변 나고서 없어졌지 아주.

나는 들에는 안 나갔어요. 들에는 안 나갔다가 이제 나이 먹어서 주용이 낳기 전부터 좀 땡기다가 저기 했지. 그때는 행랑사람들도 없고 하니까 천상 허는 수 없지. 나가서 해야지 뭘.

(행랑사람이 없어졌어도) 암만 적어도 부엌에 심부름할 사람을 두어주세요. 태관 돈 내고 식모가 아니라, 그런 것도 일가 사람들을. 일가가 워낙 많으니까 없는 사람도 많을 거 아녀. 그러면 와서 밥이래도 먹고 그런다고 와서 있고 그랬대요. 나 (시집) 와서도 두어 사람 두어주시더라고. 살면서도 (일할) 사람 없이 짜들게 살고 (그러지는 않았죠).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는 사람 두고 살으셨다면서요?” 그래. (웃음) 그건 그렇지. 지금 우리 며느리는 애쓰는 거여. 시에미라고 이렇게 별로 거들어주지도 못하고,<sup>35)</sup> 오면 지가 다 부엌에 들

34) 집 건너편에 옛집터가 있고 큰 느티나무가 서 있다. 옛날의 아흔아홉칸 집은 1919년 3·1운동 때 일제의 만행으로 불에 타버렸다고 한다. 이때 남편의 할아버지도 일제에 의해 총살당하셨다. 당시 할아버지는 구한말에 시어선전관을 지내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명망과 영향력을 유지하고 계셨다. 3·1운동이 발발한 후 화성 화수리 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이 크게 일어나 시위대에 의해 화수리 주재소가 불에 타고 일본인 순사부장이 살해되는 등 매우 격렬했었다고 한다. 이에 일제는 제암리사건처럼 반일 시위에 대한 보복으로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학살을 자행했는데, 그때 마을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할아버지가 총살당하시게 되고, 집은 전부 불타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실제 3·1운동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자세히 전하는 바가 없다고 한다.

어서서 해야지. 시에미라고 뭐 얼마나 거들어 줘야지. 나 저런 생각하면 좀 딱해요. 며느리 자식도 정들면 다 마찬가지로. 딸이고, 아들이고. 이들도 소중하다고는 하죠. 그렇지만 며느리도 거 참 생판 모르는 데 와서 살려니 얼마나 어렵겠어. 그래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는 안 하는데, 하느라고 해도 저는 좀 어렵겠지 그래도.

## 부엌

그냥 옛날 부엌은 저렇게 안 생기고, 부엌에 인저 마루가 있어요. 반빗보는.<sup>36)</sup> 거기 올라앉아서, 어휴 아래서 하다가 올라앉아서 반빗보려면은 그것도 어려워요. 마루를 올려 놓으니까. 부뚜막이 가령 이 아래면 반빗바루는 조금 위애다 놓아서 하니까. 반찬 거기서 하고, 그걸 반빗마루라고 했지. 부뚜막이 따로 있고, 반빗하는 건 마루가 따로 있고, 이렇게 부엌이잖아 전체. 그러면 이 아래는 부뚜막이고, 요 위는 반빗마루를 놔서. 그러게 지금은 바지바람이니까 괜찮아, 옛날에는 꼭 한복입고 하면, 제삿날은 꼭 치마저고리 입히더라고. 치마저고리 입으면, 지금은 제삿날 의복 없이 그냥 저기하지만, 치마저고리에다 무색은 안 입히시잖아. 옥색 치마 옥색 저고리 그렇게 천 단복 시켜서 하시는데, 제사 한 번 잡숫고 나면 한번 잡수기 전에 벌써 옷은 다 망가지는 거지. 뭐, 거기 반빗마루 올라가려면 또 이렇게 언덕이 있어. 언덕으로 하니까. 반디마루는 이렇게 높여 놓고 부뚜막은 아래고 하니까. 그때 긴 치마저고리 입고서는 그 부엌바닥을 다 훑치니, 미친년 아랫도리 같으시 뭐. 단이.

## 빨래

나는 시댁와서 빨래는 이제 행랑사람들이 주로 와서 하니까. 빨래같은 것도 애 낳기 전에는 내가 안 하고 애 낳으면 아무렇게도 애기저귀 빨고 뭐 어찌고 하려면 제손으로 빨아야지 어떻게 이웃으로 저기해요? 그렇게 해서 그렇지.<sup>37)</sup> 행랑사람들이 와서 빨래는 이제 얼마큼 모아 놓으면, 빨래하실 때 되었으면 “빨래 해야죠”하고 와서 자청해서 하는 때도 있고, 시어머니께서 이러저러해서 빨래가 모였으니 “빨래 좀 와서 해줘야지” 그러면 와서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사변, 내가 사변 때 (시집) 왔는데, 한 3년 지나고 애 낳고 하니까 “부르시지 말라고 지가 그냥 한다고” 그렇게 하고는 이날 이때까지 하다가….

35) 허리가 아파서 서서 다닐 수 없어 며느리를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을 말한다.

36) 반찬 만드는.

37) 애 낳고 나서는 빨래를 손수 하기 시작했다는 말.

세탁기가 있으니까, 나는 바보가 세탁기를 잘 못 써요. 그 조실을 못 맞춰서.<sup>38)</sup> (웃음) 그러다가 인저 간신히 물 받아서 비누칠해서 집어넣으면 돌아가서 하는 거 고것만 하는 거지. 달리 하다가 중간에 뭐를 어떻게 하네 어떻게 하네는 몰라요. 그렇게 살았어. 지금도 그렇게 어지간한 건 내가 손으로 빨지. 그리고 세탁기에 빨 것도 있고 손빨래 할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아이고 참, 세탁기는 찌든 빨래 가지도 않아요. 그저 날마다 갈아입는 사람 한해 세탁기 얘기지. 우리야 시골서 아무러케도 며칠 입어야지 그렇게 날마다 갈아입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하는 거지. 지금도 세탁기를 남처럼 이랬다저랬다 하질 못해. 한번 비누칠해서 세탁기에다 넣으면 그때가서 저기하는 거지. 지금 애들 뭐 세탁기 하다가 빨래가 적은 경우에는 물도 어떻게 하고 탈수도 어떻게 하고 한다는데 못해요. 그걸.

빨래를 뭐 손빨래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지금도 손빨래 많이 하는 셈이지. 그래 찌든 빨래같은 거는 비누칠해서 비벼가지고 넣어야지. 지금 아이들은 우선 갖다가 세탁기에다 그냥 넣고 세제 넣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 해 봐요. 지금도, 비누칠해서 넣어야지. 저렇게 해서 때가 가나 하면 아니나 달리? 찌든 거는 안 가요. 찌든 건 못 써.

## 바느질

(바느질이) 어렵죠. 아휴, 지금은 그저 치마저고리나 하면 된다고 하는데. 치마저고리만 한다고 해도 치마저고리 해서 입는 사람이 없잖아요? 워낙 삭줘서 그렇게 해 입지? 근데 그때는 다 푸주다리미 해서 꼬매서 저고리에도 솜 넣고, 옛날에는 여자바지 있어요. 여자바지에도 솜 넣어야지, 지금처럼 뭐 내복이 있어요? 뭐. 그래 솜바지에 인제 속속곳이라는 게 있어, 또 지금으로 말하면 속에 뽀스 입는 식으로. 그러면 지금은 뽀스는 적기나(작기나) 하죠. 그전에는 속속곳도 이렇게 가랭이가 넓어 가지고 가랭이를 벌리고 요강에 대고 소변을 보니까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빨래도 뭐 말도 못하지 뭐.

(웃을 빨려면) 뜯어가지고, 흰 빨래는 또 삶아야지. 잿물로다 삶아가지고 푸주다듬이 해서 다듬이해야지. 옛날 옥양목이고 광목이고, 그거 하얀 걸로 하면 파리가 낙성하게(미끄러지게) 그냥 뽀뽀뽀하게 다듬어서 바느질을 해요. 나는 얼마 안 했어요. 우리 시어머님이 많이 하셨지. 다듬이만 같이 시어머님 모시고 하지, 바느질도 시할머님 웃은 내가 해드

38) 조작을 못해서.

리고. 시아버님, 시어머님(웃)은 혹시 틈이 나면 (하지만), 할 여가가 없어요. 부엌에서 밤  
낮 저기 하느라고, 바느질 할 여가도 없고….

그러다 인저 사변나고서부터는 인저 그게 좀 줄어든 거지. 우리 세대에 와서는 또 이렇  
게 막말로 미친년 마냥, 처음에 몸빼를 입고서 뭐 하려니까 간단하고 좋아 아주. 그 치마,  
그냥 밤낮 치마 이렇게 해서 허리띠 땡겨매야 간단한데 그렇게 하려니까 그것도 어렵고  
했는데, 이제 몸빼를 입으니까 세상 아주 편해요. 몸빼 입은 것도 한… 내가 시택 온 지가  
올해 56년일세. 그런데…(한참 생각하심) 애들 초등학교 데려 보내서도 푸주다들이 해서  
해 입었던 생각은 나는데, 지금 그래 (안 하나니까) 살만 찢 것 같은데, 살찌는 게 좋은 건 아  
닌데 어렵다고 하잖아<sup>39)</sup> 지금은. 그때는 그게 아주 최고 어려운 거여. 다듬이질해서 바느  
질하는 게. 그래 한 겨우내 치마저고리 입어서 휘질러 놓은 것을 음력으로 이삼월달에 죄  
그거를 빨아가지고는 푸주다들이 한 달을 하나봐요. 그러면 자고 새면 그거지 뭐. 자고 새  
면 푸주다들이 해서 꼬매놓고 또 저기 해서 또, 한꺼번에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 연탄불 꺼져 고생하고

장작하다가, 연탄쓰다가 기름보일러로 바꾼거지. (기름보일러로 바꾼지는) 얼마 안 되  
죠. 하여튼 한참들 보일러 설치한다고 할 때 그때서야 설치 했으니까. 그런 거야 (연탄가  
는 거야) 아무 것도 아니지. 어휴, 지나고 보면 그때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연탄불 한 번만  
꺼져봐. 한번 꺼지면, 우리는 위낙 산청에 나무가 있으니까 숯도 구워놓고 쭈시고 그랬어  
요. 참숯 같은 거 해서 하면 그걸로 피고 그런데,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세상이 저기하니까  
는 번개탄이라는 게 있더라고. 꺼질라고 하면 번개탄 좀 넣고 하면 쉽게 꺼지고 그러다가  
기름보일러 되었을 꺼야 아마. 많이 편하고 말고. 많이 편해졌지.

### 김장김치

옛날에는 인제 우리 식구 먹을 만큼 (김장을) 하는데, 인제 애들이 커서 성취하고 나니  
까, 신심이 더 쓰여지더라고. 그전에는 인저 행랑사람들 있고 할 때는 그 사람들 와서, 우  
리 어머님은 자녀가 아드님 삼형제거든요. 그래 아드님 삼형제하고 내가 낳은 아이들하고  
하면 별로 세지를 앗죠(많지 앗죠). 그랬는데 애들이 장성해서 성취하니까, 에미 마음에

39) 살찌면 건강에 나쁘다고 하잖아.

가서 호라시들(고생) 하는게 딱해서 (김장을 해주죠), 그전에는 그냥 거저와서 하다시피해서 조금 저기했는데, 지금은 김장 한 번 하려면 몇 십만 원 들어가요. 김장하니 오너라 하면 와서 저희들이 싸는 건 싸요. 그러면 각각 너희들 먹을 거는 너희들이 싸서, 인저 차들이 있으니까. 지금들은 편하죠.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데, 지난해, 그렇지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지난해는 배추 300포기를 했어요. 300포기를 했더니, 작년에는 배추가 안 되서 조금하니까, 애들 갖다 먹는 애들도 갈급나고 주는 사람도 좀 저기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기 손수 그런 거 같은 거를 당신이 가꿔요. 배추 같은 거. 그래서 아직은 편한 생활을 했는데, 이제 더 연세있고 꿈질거리지 못하면 이제 사먹어야지 뭐. 할 수 없지 뭐. 우리가 죽는 날까지 건강히 살다가 자연스럽게 가야 한다고 그걸 내가 아주 참 구습으로 하는거야. 그게 상책이지. 살다가 막말로 참 몸에 병이나 생기고 해서. 자식들 못할 노릇시키면 어떻게 하나 무서워요. 지금은 내가 생애 애착이 워낙 무서워요.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작년까지도 했는데, 이제 해가 바뀌고 올부터는 그저 앓지 말고 자연스럽게 가는 게 상책이다 싶더라고.

## 5. 봉제사

### 제사, 시제 모시기

(옛날에는) 제사만 여덟번에다가 춘추절사, 정월 차례, 8월 차례해서 두 번이면 10번이지. 정월은 봄, 춘으로 들어가는 거고, 추는 추석. 대개 다 춘추절사라고 하지. 옷대 시제 말고 밤제사만 그런 거지.

우리는 제사가 옛날에는 겨울에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시제로 내모시고 해서 봄, 봄하고 인저 3월, 4월, 5월에 제사는 시제를 내모시니까. 6월에 시어머님, 8월에 인저 시아버님, 그러고는 시제로 내모셔서 괜찮아요.<sup>40)</sup>

시제도 지내지. 옷대 시제도. (시제는) 일년에 한번, 음력 10월달에(지내요). 그전에는 시제도 (반상이) 많았었죠. 옛날 시제는 산지기들이 다 잡수니까, 산지기들이 하고 지낸 제물만 가져오지, 지금은 제물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지만...

시제가 그러니까 몇 반상인가? 나는 그 시제는 안 차리고 산지기들이 차려서 지내는 거

40) 종부가 허리가 많이 아파서 여러번 제사 지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제사를 줄였다고 한다.



제사상을 마당에 내놓은 모습



제사 음식 준비하는 모습

니까, 옛날에는 나 오기 전(결혼 전)에는 산소 다니며 잡수셨다는데, 그때는 열흘 걸렸어. 열흘씩이나 지냈어. 재물을 가지고 산소를 다니면서, 산소마다 산꼭대기 저리로 다니니까 하루에 몇 분 못 지내지. 나 온 후로는 사변 후로는 그게 없으시고, 사당에서 시제를 잡수셨다거든. 그리고 나서 지금도 인제 사당에서 잡수는 것도 여려 반상 안해요.

지금은 가령 몇 반상인가 하면, 두 반상 서너 반상 차려서 내려서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더 줄였어요. 가만있어. 우리 시제가 언제부터 확 줄었지? 칠팔년 더 됐지.<sup>41)</sup>

(옛날에 상을) 많이 할 때는 그러니까나 시택와서 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여덟 반상..., 여덟 반상 하다가 세 반상으로 줄였어요. 중간에.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한 반

상으로 줄인 거여.

(제사 준비 사진 보여주며) 제삿날, 그때 시제날 탕 건더기 써느라고 앉아서 한게 마침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 이거는 제사상에 놓을 거 상 피임새 하는 거지. 이게 저기니까(낮으니까) 앉아서 하지 조금 높으면 무릎을 꿇어야돼. 그때는 높이 고였는데, 중간에는 좀 또 (높이를) 줄였어요. 줄이다가 몇 반상 하던 거를 줄여서 한 반상 해가지고 몇 반상을 내려서 써요. 그런데 조금 경제된다고(경제적이라고) 한다고는 몰라도 좀 죄스

41) 반상수를 줄이게 된 이유로, 남편 김진세 씨는 "종답하는 사람들이 안 차린대요. 시향도, 그렇게 많이 차리면 안 차린대요. 종답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에 한 반상씩 차리면 안 차린다고 해서. 힘드니까 안 한대."라고 대답했다.

러운 맘이 있어요.

그 여러 반상 제 각각 잡수다가, 인제 저렇게 (낮게) 괴서 한 반상 차려서 여러 반상 잡수게 하니까 나쁘긴 나빠. 내외분 앞에 한 반상씩 괴는 건데, 지금은 두 분은 커녕, 옷대 조상들 몇 분을 잡수고서 저기하는 걸 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래도 안한다 는 거야. 막말로 사정하다시피해서 지금 한 반상 가지고 여러 반상 잡수는 건데, 그나저나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하나니까.

(시향때 떡치는 사진을 보여주며) 떡매, 시향때 떡하느라고, 한번 시제 차리려면 찹쌀을 여섯말, 여섯말을 해서 두 번에 쳐서 하더라고. 나는 안 하고 동네사람들이, 논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주고 그

랬지. 이렇게 지리하니 살아도 저렇게 막일같은 것은 안 해봤어요. (떡치는 것은) 아직은 하지 그런데 거기도 이 분<sup>42)</sup>이 이렇게 세차게 젊어서 하던 사람인데, 이제 올해는 환갑이야, 그래서 올해는 더군다나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딴 사람들을 얻어서 하겠지. 이 사람들 세상 뜨면 고만이지. 뉘. 그러게 이렇게 걱정이야. 저렇게래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해마다 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한다고 하거든, 만약 저분이 이제 늙어서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싶고, 주가포로래도 잡쉬야 하나. 걱정이야. 주가포는 편이고 먼이고 안 쓰고, 과일하고 식혜, 포만 해서, 그러면 조금 간단하지.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것도 벅차. 그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 음식을 괴는 모습



시향 때 떡치는 모습

42) 사진 속의 떡치는 사람.

러니까 걱정이야. 남의 조상님 모시는 게 참...<sup>43)</sup>

그 전에는 꼭 (밤)열두 시가 한이었는데, 이제 다들 제사 잡수고 갈 사람이 있는데는 그렇게 안 되지. 그래서 딱 한 번 열 시에 제사 잡수봤나봐요. 그런데 그후로는 도로 또 늦게 되더라고. 열두 시 안에는 잡수. 그래도 열한 시 반쯤이나 그러는데, 제사 잡수고 가야 하니까들. 그런데 이제 잘 경우에는(자고 갈 경우에는) 조금 늦추지. 우리는 그렇게는(초저녁에 제사지내는 것) 아직 안 해요. 적어도 열 시 넘어서 열한 시 반에 가서나 하지. 그런데 앞으로가 걱정이여. 주용이가 출퇴근하는 날에는.

손님 치르는 건 상관없는데, 밤제사 잡수기가, 겨울에 음력 동지선달이 얼마나 추워요? 그때 애는 난리지, 나가서 해야할 일은 해야지, 시간은 자꾸 가지. 그 고통받고 그런 신경 쓴 얘기를 하면 말도 못 하지만, 그거 다 제외하고 사니까 나 사는 게 제일이다 싶었지.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뭐.

그때만 해도 옛날이고 하나까 밤제사 잡수고 장국밥 한 그릇 얻어먹을 생각하고, 행랑에도 오고, 안에도 오고 그러죠. 그때야 참 아휴. 없는 게 뭐지. 한 끼라도 좀 먹고 그러려고 참여하는 제관도 있고, 당연히 참여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랬죠. 그때는 제사때고 시향때도 몇십 명씩와. 많이 올때는 60~70명씩 왔어요.

그와 반대로 지금은 제관이 너무 없지. 지금은 오라고 잡아 끌어도 안와. 지금은 우리 시 동생하고, 주용이하고, 일가양반 한 분 오시는 분 있어요. 기제사에는 그렇고. 시제에는 아무렇게도 적어도 한 열댓 명. 열댓 명도 어떨 때는 더 오는 경우 있고 그래요.

시제는 낫이고, 사람 얻어서 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기제사에는 밤에 사람 많은 건 어렵지. 지금은 그렇게 안 추워요. 옛날에는 추워서 옛날에는 여기 분합<sup>44)</sup>이 없었지. 그냥 마루니까. 옛날에는 반빔을 그냥 마루에서 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추워? 부엌이 아니고. 부엌만 해도 이가 맞지 않아서 옛날집이니까.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조금만 틈이나도 얼마나 바람 들어와. 지금은 조금만 바람 들어와도 춥다고 야단.

## 제사음식

우리가 잡수 때는(제사 때는) 우리가 다 제수 흥정 다 하고. 이제 큰 반상차리는 것은(시

43) 지금까지 시제를 맡아 해주던 사람들이 더 이상 못하게 되면, 앞으로는 제수를 차리는 대행 회사에 맡길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

44) 마루문.

제는) 자기네들이 농사짓는 사람이 시제답하는 사람들이 흥정해다 하고 그래요. (제사때) 장은(장보기는) 주용이 아버지(가 하지). 아주 옛날에는 할머니(시어머니)가, 할머니하고 모자분이 하셨는데, 그후로는 인제 나는 시장에 안가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가요. 여태 시장 구경도 못 한 사람은 나 밖에 없을꺼야.<sup>45)</sup> (여기서는) 조암장으로 가지. 제사 전날에.

생활하는 중에는 암만 간단히 잡쉬도 제사가 제일 어려워. 그만큼 정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고. 산 사람 먹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여. 제사는 그게 아니잖어. 여간해서 간도 안 보고 그냥 대중해서 하고, 저녁 제사 잡술 때 제탕, 국 끓이는 거. 끓이는 것도 그냥 어렵해서 했다가 제사상은 간을 안 맞추고 그냥 어렵해서 모셨다가. 나중에 이제 산 사람 먹을 때만 간을 맞추고 그랬지. 제사음식 간보거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과일이 이저 이 맥에는 시제 과일은 오색. 밤, 대추, 감, 산자, 약과. 그렇게 해서 5색 쓰고. 인제 우리 기제사에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 거(바나나)는 기제사 때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쓰지. 시제 때는 그런 거 안 써요. 아주 시제 때는 정해있어요. 밤, 대추, 꽃감. 꽃감 아니면 감 그냥, 거기에다 약과, 산자 해서. 과일이 세 가지고 조과가 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죽었다고들 그래서 지금... 지금은 과일은 그냥 그대로 하고 키만 줄인 거지. 키만. 높이만. 그전에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서 껌던 과일을 지금은 그냥 앉아서 몇 개만 껌니까 좀 수월하죠.

오색과일에 탕, 삼색탕. 삼색탕은 소탕은 두부, 어탕은 인제 옛날에는 송어 썼었는데, 지금은 그냥 동태 살짝 얼간했다가, 그러니까 귀신도 속이는 거지 뭐, (웃음) (송어는) 어휴 진짜 비싸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대목에 가서 하려면 더 어렵고 하니까는 봄에 그거를 사서 절이더라고 송어를, 그러니 얼마나 짜고 말도 못하지. 나중에 차례 잡수고 나서 먹지도 못해 짜서. 상하지 않게 하려고. 어휴... (그리고) 육탕 소고기, 그렇게 삼탕. 옛날에는 오탕, 육탕 썼대요. 옛날에는 쓰는 거 못 봤으니까.

(포는) 북어포 있죠. 식혜. 제사에는 식혜 포가 제일이거든. 그래 인제 만약에 나중에 저기하게 되면 주가포라는 게 식혜하고 포만 놓고 차려 잡술까 하는 거지. 나중에 정 못하고 저기한다면, 내심으로는 그것도 (힘들지만)... 지금 젊은애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눈이 벌겍잖어. (웃음) 나가서 사회생활 하려고. 그런데 우리 며늘아이는 다행으로 닥치면 곧 잘 해요. (제사 준비때는) 옆에서 우리 종답하는 이가 와서 거들어줘요.

이맥에는 제사지내려면 같은 저기래도 제사지내는 풍속이 다 달라요. 우리 친정에는 제

45) 허리가 굽어서 걸어나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장에 안다닌다는 말.

사에 반상을 안 쓰시고 삼색 나물하고 몇 가지만 쓰시는데, 이택에는 칠첩 반상을 써야돼. 제사에. 요런 늦반상이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거 칠첩 반상에다가 아무래도 칠첩을 떼야되, 나물이며 구이며, 구이는 소고기구이, 젓갈, 나물, 나물도 삼색나물 이렇게 접시다 담고, 간장도 인저 초간장하고 그냥 맨간장하고 두 가지 쓰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인저 50여 년이 넘었으니까 익숙하지. 눈 감고 다 하라고 해도 다 하는데, 힘이 부치는 거지. 그거 깨끗하고 정하게만 하면 돼요. 제사음식은. (웃음)

(또) 친정하고 틀린 거는 우리 친정은 북어포를 이렇게 얹어서 쓰는데, 여기 오니까 제쳐서 쓰더라고. 시댁오니까. 그러길래 시어머니 뵈고 “저희는 북어포를 이러저러하게 쓰는데, 이택은 다르네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님네는 아마 혼신이 얹어서 돌아가셨나보다” 그런 소리를 다 하셨어. (웃음) 얹어서 쓰니까 북어포를, 여기는 오니까 자쳐서 쓰더라고. 그러니 우리도 그와 같이 하는 거지 뭐.

우리도 저기 처음에는 그렇게 하셨는데,<sup>46)</sup> 서로가 몸들도 늙으시고 하니까 사다 쓰기 시작해서. 내내 사다 쓰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맛이 있든 없든, 막말로 귀신 속이기야 누워서 팔떡 먹기지. 우리는 그냥 옛날에는 산소에 추석차례를 하실려면 스물네 반상이었대요. 스물네 반상을 산소로 맷기며 잡수려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택에는 추석에 송편도 안 하세요. 그냥 추가포로만 잡수지. 나 시댁오니까 대감택이라면서, 우리는 그래도 대감택은 아니래도 우리 증조할아버지께서 병사를 하셔서 우리집 택호는 병사택이여. 그런데 대감택이라면서 어떻게 추석에 저렇게 잡수나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겠어요. 스물네 반상을 산소로 다 맷기며 갖은 걸 다 해가지고 모시고 다니려면 얼마나 어려웠겠어 그래. 우리 시증조모님께서 이러다키는 안 되겠다 제례를 하자 그래서 그 양반이 그렇게 법을 새 법을 내셨대. 그래서 추석에 편도 안하고 편해요. 편(을) 하면 거기에 갈락도 부쳐야 하고 적도 있어야 하고. 다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추가포만 하면 되니까 포하고 과일만 하면 되니까 그거 한 가지는 편하더라고. 다른 건 몰라도. (웃음)

## 제 기

(옛날에는 늦그릇을) 썼지. 쓰다가 누가 닦아? 우리 집대 부엌에 있는 사람 봤죠.<sup>47)</sup> 그 사람이 닦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올해 칠십이여. 그래서 중간에 스댕<sup>48)</sup>으로 개조를 했어요. 그

46) 집에서 약과나 산자를 만들었다는 말.

47)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동네사람. 바로 앞에 살면서 허리 아픈 이신열 씨를 대신해서 부엌일을 도와주고 있다.

48) 스테인레스로 만든 그릇.

러니 세상 편해. 우리 넷째 시삼촌이 계셨는데, 혼자 참 안될 일이라고, 스맹으로 접시부터 50개를 사다 주시드라고. 지금 낱알이 스맹, 지금 스맹 나오는 거 보면 얇아요. 그런데 우리 넷째 시삼촌께서 개조해서 제기 접시 사오신 거는 50개 사오셨는데, 그때 제기 접시 하나에 천 원이라고 그러시던가? 좋아요. 아주 탄탄한게. 그래 그걸로 쓰고, 반상만 늦그릇 반상하는 것만 스맹으로 바꿨어요. 제기 접시는 그때 시삼촌께서 해다주시고.

### 새로 지은 사당과 납골당

접때 사당에 가서 사진 찍어 가셨나? 그거 이제 작년. 그렇지 작년엔 사당 짓고 납골당 짓고 그랬었죠.<sup>49)</sup> 뭐 도저히 산소 별초를 할 수가 없잖아요. 조상님네 덕으로 옛날에는 나무들 해가느라고 산에서 나무 꺾어 가는 사람들이 와서 (별초) 일해주고 했는데, 근래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도 논히는 사람들이 별초는 했어요. 시집살이 한 사람들 보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지. 그래도 워낙 참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이해성들이 있으시고 하니까. 막말로 무지랭이 촌사람들 마냥 그렇게 저기는 안 하셨으니까.

(비용은) 종답에서 나오는 거는 시제 지내고 뭐 어찌고 하는데 별 거 없고, 아주 모 잡아서 종답 한 군데를 매매했어요.<sup>50)</sup> 해가지고



해풍 김씨 옛사당



새로 지은 사당

49) 2002년에 옛사당을 헐고 자리를 옮겨 새로 사당을 지었고, 사당 뒤편에 납골당을 건립했다.

50) 납골당을 짓는 데 1억, 사당 재건축하는 데 3억, 총 4억이 들었다고 한다. 이 비용은 종산을 팔아서 충당했다. 물론 종산을 파는 데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다.



2002년에 새로 지은 납골당

이러저리 하지는 얘기까지 다 통과되어서 납골당 짓고 다 했죠. 암만 종손이지만 맘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

지금 월 대종회의<sup>51)</sup>는 서울 영등포에서 하시고 했는데, 간단한 거는 여기 조암에서도 더러 몇 번 했을꺼야 아마. 집에서 몇 번 했는데, 어휴 그것도 어려워요. (납골당 짓는 것에) 반대한 사람은 없느냐? 그런 사람도 더러 있었나

본데,<sup>52)</sup> 아마 그냥 대종회에서 눌러서 한 거 같더라고. (납골당을 짓자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대종회 회장. 종손이 회장 하는 게 아니라 회장이 따로 있어. 대종회 회장이. 이게 워낙 사당이고 납골당이고 하는 거 종가에서 한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끝까지) 반대는 못했지. (납골당 짓고 나니) 편하고 말고, 별초를 안 하니까. 별초 마흔... 우리 지금 납골당에 모신 할머님, 할아버님이 마흔 세분이랬나, 마흔 다섯 분이랬나? 그랬다는데...<sup>53)</sup>

아직은 우리 그런 일은 없어요.<sup>54)</sup> 앞으로가 걱정이지. 우리 종답이 저쪽으로 많이 있거든요.<sup>55)</sup> 서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있는데, 그게 이대로만 나간다면 모르지만, 거기서 무슨 저기가 생긴다면(개발이 된다면) 또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많이 그래도 개발됐죠. 산도 옛날에는 여기 뽕뽕 둘러가 다 우리 산이었는데, 산들도 다 뒤희어떻다 해서 산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51) 해풍 김씨 대종회는 198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일년에 한번 3월 1일에 열린다. 본부는 서울에 있는데, 많이 모이면 5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하고, 종가가 가까운 조암에서 대종회를 할 때는 20~3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한다. 대종회가 있기 전에는 집안의 대소사는 소종회에서 상의했다고 한다.

52) 납골당을 건립하는데 반대한 집안 어른들도 있었다고 한다. 납골당을 짓는 대신 흩어져 있는 산소를 이장해서 한데 모으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애초에 별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납골당을 건립하려고 했으므로 이장은 큰 의미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결국 납골당을 건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53) 23군데의 산소를 다니며 별초를 해야 했으므로 매우 힘들었다는 말. 현재 납골당에 모신 분의 수는 43분이다.

54) 개발 이익 때문에 종답을 둘러싸고 집안 사람들끼리 분쟁이 나는 것.

55) 현재 종답은 5천평 정도 되는데, 그 전에는 더 넓었다고 한다.

## 6. 남의 집 종부노릇

### 시어머니께 배우고 며느리에게 가르치며

아휴, 남의 종부는 손가락만 빨아도 좋다며. (웃음) 수다한 제사 잡수는 데 아무렇게도 손가락 빨지 안 빨겠어요? 그거 다 일일이 손으로 주물러서 하는 건데, 그래 그걸로다가 남의 종부는 손가락만 빨아도 좋다고 한 말인거 같아요.<sup>56)</sup>

이제 당신(시어머님)이 데리고 하시니까, 그거를 나를 맏기고 당신이 딴 데로 가시면 모를까, 당신하고 같이 살면서 봉제사 받드니까. 이제 그걸 하시는 대로 오늘날까지도 시어머님이 하시는대로 하는 거지. 내가 새법은 내가 안 하지. 그런데 인제 할 수 없이 대중회에서 이러이러하니까 반상을 좀 줄여야겠다. 뭐시 어찌야 겠다 그러는 건 그대로 해요 그냥. 나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웠지.<sup>57)</sup>

우리에는(며느리는) 지금 가끔 기제사에는 와야지. 참 덕말마따나 종부인데, 지금 세상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흔치 않아요. 그런거 보면 저 자유생활 하고 싶었지. 그렇게 시집에 와서 억매이는 생활하고 싶지 않을거 아냐? 그런 때는 좀 딱한 때가 있지.

아휴, 내가 시집살이 한 놈이, 나 당한 일은 그 사람도 그렇겠지 하는 생각에,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이때까지. 다행히도 우리 며늘아이는 그렇게 으레 봉제사 받들려니 하고, 그래 입버릇처럼 우리는 조상님네 덕으로 사니까 봉제사 잘 받들어야 한다. 아주 저희들 귀에 박힐 정도로 하는 거지. 그래야지 내버려두면 그게 뭐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꺼 아냐. 시댁와서 하는 사람이 저희 풍속 다르고, 옛날에 사돈네 먹는 풍속 다르다는 게 그거야

(요즘은) 오로지 봉제사만 잘 받드면 된다는 생각으로 (며느리에게)이야기 하고 있어요. 남의 조상 말은 종가에 와 가지고 제사 잘 잡쉬야지, 조금 이래도 귀찮으면 귀찮다 좋으면 좋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냥 편하고 좋게만 살아온 것 같애 난, 내 맘은. 거기다 불만 불평은 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웃음) 지금 아이들처럼 그렇게 자꾸 억역해봐요, 싫으면 싫고, 좋은 건 좋다고 할텐데. 우리 세대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인제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테지 뭐.

나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sup>58)</sup> 나쁘지. 이왕 여자는 남의 집에 출가해서 살게 마련인데, 출가한 이상에야 그 집 풍속을 따르고 시행을 해야지 그렇다고 저 혼자 반대한다고 실

56)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말.

57) 종부의 일을 따로 시어머니한테 시간을 내서 배우지 않고 그때그때 따라 다니며 배웠다는 말.

58) 요즘 젊은이들이 제사를 경시 여기는 풍조에 대해.

천이 되지 않을 거 아녀. 그러니까 편하게 (맘)먹고 살아야지.

### 마실 갈 시간도 없어

아휴, 일 많은 말을 다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그렇다고 서운하다고 (생각하고) 살아보지도 못했지만. 서운해야 소용없는 일이지. 팔자에, 타고난 팔자여. 모든 것은 다 운명이지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조금도 참 싫은 내색을 못하고 살았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내가 손 좀 보여 줄까, 남부끄러워도? (손을 보여주시며) 이게 겨울에 얼음 깨틀고, 옛날에 김치독 얼지, 지금은 안 얼잖아요. 언 김치 꺼내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동상이. 이게 동상일테지, 별거 아닐테지. 아니 그런데 살성이 나빠서 난 더군다나 더하지. 여름에야 괜찮지. 겨울에만 이렇게 그냥. 되도록 손에 물을 묻히지 말아야 하고, 어휴 아주 살성이 나빠요. 이렇게. 고무장갑도 노랑 끼던 사람이 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갑갑하면 또 그거 훌쩍 벗어야지.

(허리가 구부러진 것은) 한 40대부터 그런가? 허리 아파도 꾸부리고, 그러게 허리가 기억자로 굽어졌잖아요? 내가. 아프죠. 허리를 이렇게 쪽 피야되는데, 쪽 피구는 한 세발짜국이나 띄면 저절로,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졌는지,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져요. 천생이지. 나는 살아도 내가 어째서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졌나를 충얼 안하고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남처럼, 남 하는 대로 동네에서도 일 시키지 않고, 그냥 그래도 남보다는 편하게 산 셈이여. 부녀회에는 난 이때까지 부녀회에는 나가지 않고 부녀회에서 모 어떻게 하는 건 내리는 건 날게. 하리는 건 저기 하는 건 내고, 참여하는 건 못 하죠. 부녀회도 지금은 다 밤에 다 하잖아. 옛날에 젊었을때도 안 했어. (너무 바빠서) 남처럼 그렇게 휘젓고 땀겨보지를 못했어. 공동작업도 안 해봤죠. 공동작업도. 우리같은 집은 더군다나 좀 빼주지. (일이 많으니까) 인심 덕분에 좋다고 빼주고, 어쩔다고 빼주고.

(부녀회에서) 버스대절해서 놀러 간 거는..., 부녀회에서 한 번 딱 갔었나 봐. 땀일코스(당일코스)지 뭐. 가서 자는 건 안 되지. 애들하고나 나가서 참 어디 여행가서 자거나 하지, 내가 단독으로 가서 어디 여행대니고 그래보진 못했어요. 워낙 바빠서. 내가 낮에 하루에 한 시간만 없어도 자리가 나는 집안인데. 똑 떼서 나가질 못해. 지금은 땀길만 한데, 지금은 허리가 이래서 못 땀긴다니까요. 너는 그만큼 살다가라 하는 거니까. 할 수 없지 뭐.

어이고. 마실이 뭐여? 지금까지도 밤낮 요 안에서만 돌지. 남의 이웃집 그제 이집 가고 저집 가고 해보지를 못했어요. 마실은 더군다나. 바쁘기도 하지만 워낙 그렇게 이 집 가

고, 저 집 가고 그러는 게 습관이 안 되어서 그렇더라고요. 안땀겨서 마실이라는 건 더군다나 더 몰려.

(종교는) 불교예요. 여기서 조암에 쌍봉산 화운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이 해풍 김씨가 이룩한 절이래. 쌍봉산 화운사라는 절이. 우리 시증조모님께서 당신이 거기에 당기시니까 대대로 당기는 거지. 행사 때는 꼭 참여해야지. 초하루는 거는 시월 초하루는 신곡을 올리잖아요. 맘이 그래야 편안하고 좋아. 그게 웬일인지 마음에 위안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도 못 할 거 같어. 여러 사람들 쫓아다니려면 아휴 힘들어.

### 딱 한번 참석한 친정부모님 제사

이제 시댁와서 첫해는 제사 참여를 시키시데요. 그래 이제 해산하고 나면 아이가 딸리잖아. 아이가 딸리니까 제사 때 같은 때 이제 아무래도 애가 좀 시원찮거나 그러면 안에서 제사 참석하기 어렵죠. 처음에만 첫해만 제사 참석시키고 그후부터는 안 시키시더라고요. 지금도 인저 친계, 친계는 하죠. 시아버님, 시어머님한테는 하는데, 내가 허리가 그러니까, 그냥 남자 양반들만 하지. 그래도 죄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습관에 젖으니까. (여자는 제사 참여) 안 하는 집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이렇고 하니 까는 인저 돌아가신 지 삼 년간은 여자도 참례를 하지만, 그 저기 후에는 그냥 안 시키더라고요. 며느리도 인저 그냥 차리기만 하지, 제사 참사는 첫해만 시키지. 첫해만. 만약에 작년에 시집왔으면 그해 1년은 제사 참사 시켜요. 딸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참사는 하죠. 지금은 각기 다 가니까(시집갔으니까) 안 하죠.

그런데 옛날에야 참 시댁살이 하고, 나 젊어서야 그게 아니지. 친정 제사 참사를 어떻게 해봐요. 오로지 죽으나 사나 시댁에서만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딱 한번 친정 어머니 아버지 제사 참사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서 제사참사를 하고 싶어도 내 몸이 허락치 않아서 못 다녀요. 또. 그래 딸이라는 게 그런가봐. 그때 맘 같아서는 나도 어머니, 아버지 제사참사 좀 정성껏 땀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먹기는 먹었어요. 그런데 딱 일년 해보고는 못 한거야. 가을이거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사가. 그런 거를 나 친정 제사에 가져고, 당장 내가 손해나는 거를. 그래 딸자식도 소용없어. 내 발등의 불부터 끄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내가 내 몸이 허락치 않으니까 또 못 땀기는 거고. 그래요. 땀길만 하니까는 몸이 허락치 않아서 못 땀기는 거야. 그 전에는 그 시댁살이 얽매이니까. 감히 친정 제사 참사를 어디가서 해봐요? 못했는데, 지금은 좀

가서 해도 되었는데 이렇게 못 가네요.

### 속상해도 참지

나는 그해보진 못했어요.<sup>59)</sup> 아무렇게도 살려면 좀 있겠지. 그런 저기가.<sup>60)</sup> 그런데 말이라는 게 내 입 밖에서 나가면 벌써 퍼지게 마련이여. 그래서 그런 생각하고. 나 친정에서도 행랑사람들 있고 그러면 여기서 들은 얘기 저기 가서 하고, 저기서 들은 얘기 여기 와서 안 해 버릇해서 그런 건 몰라요.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나 혼자 스스로 풀지. 난 그 티를 못하고 살았어요. 사람 사는 건 다 마찬가지로겠지. 별 사람 어딴졌어요? 그래도 그 티를 못 하고 살았지. 세상사는 게 참 그렇게….

## 7. 요즘 생활

### 농사지어 다 대주고

인제 워낙 이 안에는 다 그야말로 다 우리 땅이다시피 하니까, 다 우리 땅들 지어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많고 하니까 집에서 특별히 농사는 많이 안 졌는데, 그래도 아마 40마지기는 지으셨을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일꾼을, 저기까지 일꾼 계속 있었죠. 그러다가 인제 토지개혁 나고, 토지개혁 나고서도 사람 두고 살았지. 그러다가 점점 세상이 약아지니까, 남의 집을 안 살아도 능히 자기 활동하며 할 수 있는 세상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꾼도 때려치고 조금만 해서, 감농해서 우리 먹을 만큼만 해서 산다고 사는 거지. (지금은) 이제 당신(남편)이 혼자 하지는 못해도 사람 사서한다 그래도 허던 습관이 있으니까. 감농하고 그냥 (조금 농사지어요). 채소같은 것도 약 안 줘요. 약 안주고 그냥 해서 뜯고 그러는데, 밤낮 애들이 그러지 우리 거는 무공해다, 무공해다, 애들 오늘날까지도 쌀은 애들 다 대주고 그렇게 살아요. (웃음)

남의 만이는 더해요. 우리 막내 시동생도 지금 예순 셋 되었나? 그래도 그냥 감장해서 컸어요. 그러다가 작년, 지난해서부터는 그냥 엄마가 언제까지 이 치닥거리하려고 하나. 우리도 우리가 와서 갖다 해 먹을 테니까 그러라 그러는데, 그래도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

59) 행랑에서 일하는 사람과 마음 폭 터놓고 이야기 해 본적이 없다는 말.

60) 마음 터 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근데 막내 시동생은 그게 인제 한가지 걸려. 심어서 주기는 주되 하는 것은 갖다가 하게끔 그렇게 해요. 그래도 내가 내 자식은 해주며 그거 시동생하나 있는 거 못해주나 하는 생각에 그게 좀 죄책감이 들더라고. (웃음) 그래 애들이 “엄마는 속도 없느냐?” 그러는데, 아 속이 없지 않으면 어떻게 해 우리 막내 시동생은 막내로다 저기 해서, 밤낮 자기가 막내라 장한 척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내가 막내인데, 막내인데.” 그와 같이 형님한테 또 하기도 잘하지만,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주면 좋은데. 김장을 이제 작년 부터 못해줘요. 거리는 다 대주지 무며 배추며. 우리 애들도 아직은 이저 들쭉만 안 해주지 다 여기서 해서 저희가 실어가고 하니까아 한 세상 사는 거 그저 좋게 살면 좋지 뭐.

### 등가려운 증

(누우시면서) 나 좀 등 좀 (방바닥에) 댈게요. 이 등 가려운 증이 나면, 그전에 시아버지 계실 때에도 옆치 불구하고 옆에서 (남편에게) 껴달라고 하고 그랬지. 날이 이렇게 흐릿한 날이면 더 해요. 그리고 뭐 좀 신경 쓸 일 있거나 그러면 또 그렇고, 이것 때문에 병원에도 노랑 댄졌어요. 그랬는데, 아휴 참말로.

(등 가려운 것은) 병이 아니고 신경성 신경통이러는데, 신경성 신경통은 고칠 수 없나니까, 하이칼라 병이라 가만히 편안하면 괜찮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

아니, 우리 본인은 그런 것(신경을 쓴 것) 같지 않은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안나오고, 신경성 신경병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의사한테 “나는 워낙 맘이 태화탕 같아서 신경 안 써요.” 그랬더니 의사가 암만 태화탕 같은 사람도 신경을 안 쓸 수 있겠냐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맞는 것도 같고.

등 그런 게(그러기 시작한 게)… 오래됐죠. 거의 30년 가까이 되나봐. 그런데도, 어휴, 비오려면 아주 더 죽겠고, 약도 소용없고, 임시변통으로는 파스밖에 없어. 가렵다 싶으면 파스발라야지.

이게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등이 가렵고 한데, 그때는 때렸어, 그냥 하도 못 견디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만만한 게 동냥애비라고 그게 버릇이 되서 그런지 그렇게 때리면 가라앉고 그랬어요.

우리 시어머니께서 임종시에 참 내려오는 말이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실 양반이 지금 다 몰고 간다고 하면 몰고 가실 수가 있다고 하면서, 당신이(시어머니가) “에미 여기와서 옆드리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옆드리니까 한 십분 있으면 돌아가실 양반인데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시더라고, 그러니 시어머니하고 참 당신도 부족한 점(며느리에게 불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자리한 모습

만스러운 짐)이 있으셨을 텐데 말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만 살았지, 시어머니하고 아무 저기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실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구요. 돌아가실, 조금 있다가 운명하실 양반이 등을 쓰다듬어 주실 때, 자식이 뛰여, 며느리 자식도 자식이니까 당신이 그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니까 그냥 흐느껴 울지, 그러니까 “울지마라 울지마라” 그러면서 쓰다듬어주시던 게 엇그제 같은 데,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100일 동안은 괜찮더라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럼 그런데 아프다가 가면 서로가 못할 노릇이지. 아이들이 그게 무슨 죄여. 그래서 그냥 지금도 속으로 밤낮 자는 듯이 가야지. 고생하지 말고 자는 듯이 가야한다고. 지금도 암만 약이 좋다고 해도 고생하는 사람들은 고생하잖아요. 생사에는 큰 소리 못하고 사는 거여. 낳고 죽는 것은. 그래.

### 자식들, 남편한테 고맙지

우리 둘째딸만 마음대로 시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이제 교편 잡고 살고 있으니까 맘대로 활동을 못 하지. 인제는 다 돌아가시고 했으니까 사람 사서 조금 하고 집에는 못 와요. 친정에는. 저 할 일 해야지. 그것도 남의 맘며느리로 가가지고. (웃음)

(맘며느리 자리로 시집간다고 할 때) 반대 안 했어요. 다 제 팔자여. 반대한다고 안 할 것



회갑잔치 때의 이신열 할머니와 남편

도 아니고, 우리 큰 딸아이는 둘째로 가고, 둘째딸은 맏으로 가고, 근데 공교롭게도 다 남의 지체로 가더라고. 셋째딸은 넷째로 갔나? 그리고, 막내는 셋째로 가고, 뭐 맏으로 가서 신경쓰거나 그런 애들 없어요. 우리 둘째딸만 그렇지.

자식은 뼈뚜루 안 나가고, 곧게 만드시 나가니까. 고마운 거고. 남편은 딸만 낳는다고 구박을 하거나 그러면 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티 없이 딸을 많이 낳을 팔자라 그런지 그티 없이해서 그래도 딸 많이 낳았다 소리 듣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 안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고마운거지.

우리 주용이 아버지께서는 워낙 양반이 가정적으로 그 옛날에 어머니 그 시댁살이에 머리가 젖은 사람이라. 어머니 시댁살이 할 때부터 어머니 도와준 버릇이 있어서 잘 하더라고요. 그런 건 고맙지. 왜 “안에서 뭐 하느냐? 해놓는 게 뭐 있느냐?” 그러는 사람도 많았는데, 우리는 그런 소리는 안 듣고 살았으니까. 그저 그냥 일어나서 꿈적거리는 것만 고맙게 생각하고 사니까. 그게 고맙죠. 그거 참 성질이나 고약해 가지고 남은 어쩔데 왜 못하느냐 우짜느냐 그러면 그것도 어려울 것 아냐? 안 그래요. 그런 거 몰라. 왜래 내가 나가서 하지 말라는데 왜 하느냐고, 나는 마음에 그래도 불안하죠. 혼자만 히는 거 딱해서. 그래한 60대까지는 발에 가서 발일도 거들고 했는데, 칠십되니까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마음은 안 그러는데 하고 나면 표가 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에서나 살살 하는 거지.

안에서도 남부끄러운 소리지만, 지금은 이제 물이 안 디어도 더운물이 나오고 그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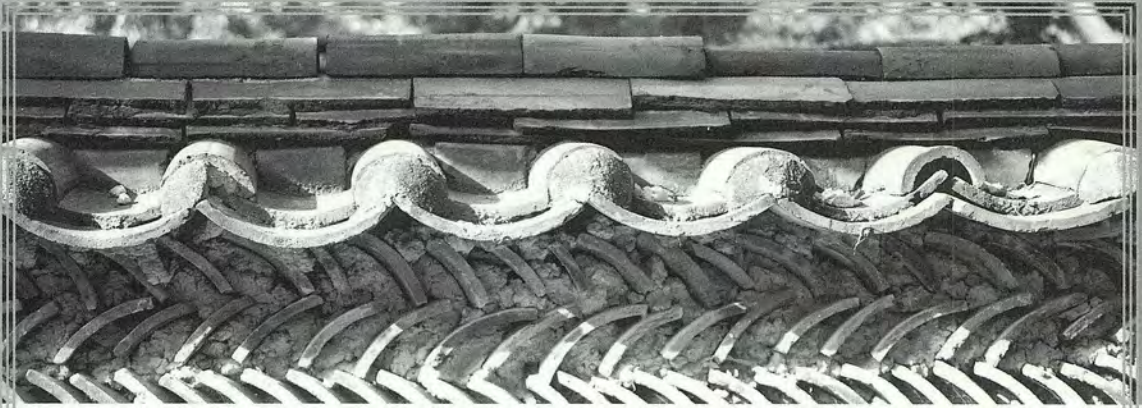
종택 마당에 함께 자리한 이신열 할머니와 남편

옛날에는 안쪽에 부뚜막 있을 때 큰 가마솥에다 물 디어서 인저 사랑에 손님 오시면 손님 대접하려고 데워서 퍼다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여기서 저기서 틀면 더운 물 나오니까 상관없는데. 그럴 때 내가 허리가 그러니까 더운 물도 맘대로 퍼가지고 못 다녀요. 그러면 암만 바빠도 “나 물 좀 떠다 주실래요?” 죽은 목숨이지 시키려니까. 그러면 “그려” 그러고 으레 자기 씻기 전에 나 먼저 씻으라고 아침에 눈뜨고 나오면 먼저 씻어야 하니까, 물 떠다 주고 그런 때가 고맙고 그래요. 그래 어떤 때는 내가 염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미안한 점이 많지만, 그 표를 어떻게 해봐. 내 속으로만 그렇다 싶지. 그렇게 살았어요. (웃음)

### 다시 태어나면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나서 일가정을 이루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여자로 태어나서 고생한 거지. 남자로 태어나서 나도 이렇다 하고 큰 소리 좀 치고 살고 싶고.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그래보지 못하고 살았으니까.<sup>61)</sup> 오늘날까지도 저런 아이들도 달래고 저희들 하고 싶은대로 하지 막아보지도 못하고, 과히 틀린 일 아니면 저희 하지는 대로 해주는 게 좋지. 무조건 으른이라고 반대만 해서도 안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냥.

61) 큰소리 한번 못 쳐보고 살았다는 말.



# 제사 안 지내면 성당 못 나옵니다

- 시흥시 청주 한씨 안윤자 종부의 구술생애사

여 백

# 제사 안 지내면 성당 못 나옵니다

- 시흥시 청주 한씨 안윤자 종부의 구술생애사

## I. 개 관

### 1. 조사대상 선정과 조사과정

1999년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했던 '종가 및 명가' 지정작업에서 경기도내 11곳이 종가 및 명가로 지정되었다. 본 구술작업은 이 지정작업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시되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시흥의 청주 한씨 종가는 가묘와 전통적 후원이 있는 고가와 함께 교지 등의 가전유물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하여 그 종부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곳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인조의 장인인 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 문익공(文翼公) 한준겸(韓浚謙)의 불천위를 모시는 곳으로, 경기·수도권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종가로 알려져 있다. 이 종가는 여타 종가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전승적 측면에서의 제사의례나 음식 등은 소개되어 왔으나, 정작 생활문화를 꾸려가는 종부의 삶에 관해서는 달리 조사된 것이 없었다. 또한 근래 들어 이 집안이 400여 년 동안 이어왔던 선산을 가로질러 고속도로가 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이로 인한 종가의 변모와 함께 종부의 삶에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었으리라 판단하였다. 여기에다 다른 조사작업 과정에서 시흥시를 몇 번 개인적으로 방문하였던 터라 이 지역에 대한 심정적인 익숙함 또한 청주 한씨 종가의 종부를 이번 작업의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있어 함께 작용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 조사자: 장선미(전 순천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안윤자 종부

이같은 이유로 구술대상자를 일차 선정하고 나서, 이번 작업에 대한 취지를 먼저 전화로 말씀드렸다. 조사대상이 종가가 아닌 종부 자신이란 것 때문인지 수줍은 목소리로 “난 말할 게 별로 없는데” “말재주가 없는데” 하시며, 약간은 부담스러워 하셨다. 그러나 딸에게 들려주는 식으로 편하게 얘길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자 선선히 약속을 잡아주셨다.

하지만 종부의 장기 외유와 바쁜 일정들 때문에 본격적인 구술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방문날짜가 수 차례나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원래 계획보다는 늦은

2004년 1월부터 구술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구술작업은 서로에 대한 서먹함을 허물고자 점심식사를 함께 하고 난 오후에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모두 약 5시간 정도의 내용을 녹취하였다. 기본적으로 구술내용은 최대한 그대로 옮기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중복된 부분은 삭제하였으며, 시간 흐름상 순서별로 정리하거나, 항목별로 나눠야 할 때는 부득이하게 편집을 기하게 되었다.

청주 한씨 종가는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에 위치한다. 거모동 사거리에서 월곶포구 방향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동보아파트가 나오는데, 이 아파트 입구를 지나면 바로 오른쪽으로 대여섯 채의 조립식 공장들이 나타난다. 공장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보면 그 끝에 기와집이 자리하는데 이곳이 바로 청주 한씨 서평부원군파 종가이다. 기초자료에는, 헌집으로 불렸던 가묘가 있는 목조와가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2002년 비용과 관리상의 문제로 헐리고 말았다.

1996년에 완공된 지금의 종가는, 앞에는 솟을대문에 낮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ㄱ자형 종가살림집인 유천재(柳川齋)가, 뒤에는 한준겸 사당인 문익사(文翼祠)가 자리하여 전통적인 종가의 배치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유천재를 막 들어서면 대문 오른쪽으로 “韓傑澤 安允子 韓丙勝”이란 이름이 나란히 쓰인 문패가 보인다. 종가란, 관습과 의식과 유별이 지배되어 전할 거라는 조사자의 예상을 빗나가게 한다. 사실 안윤자(安允子, 63세) 종부는 엄밀히 말해 종부는 아니다. 한국전쟁



청주 한씨 서평부원군파 종가와 한준겸 사당(서현강 사진)



경기도에서 지정한 종가  
인증패와 종가의 문패

중 시아버지와 세 분의 시숙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어, 4남 1녀 중 막내였던 남편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청주 한씨 서평부원군파 종친회에서도 남편을 실질적인 종손으로 여기고 있음은 물론이다.

화사하게 조사자를 맞이하시는 종부의 느낌은 일상적으로 생각해왔던 이미지의 종부라기보다는 세련된 사모님이었다. 미주앉아 말씀하시는 내내 낭랑한 경기말씨와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서 누대로부터 체득되어 온 가풍의 일단을 느낄 수 있었으나, 조사자는 처음부터 그냥 사모님으로 불렀다.

구술작업은 주로 남편과 두 분만이 사신다는 운치있는 한옥 거실에서 이루어졌다. 남편은 마침 출타하시고 안 계셨다. 안윤자 종부는 오목조목한 이목구비에 아무저 보이는 미 인상이지만 의외로 눈물이 많은 분이셨다. 그래서 연속극을 못 보신다고 하셨다. 종부는 자신에게 잘해 주셨던 돌아가신 시어머님과 직접 생업에 뛰어들어야만 했던 시절을 얘기하실 때 눈물을 흘리셔서 잠시 작업이 중단되곤 했다. 이렇게 자신에게 뚜렷하게 각인된 상황이나 사건 등에서는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으나 그밖의 상황들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았다. 아마도 힘들었던 기억에 비해 다른 상황들은 그리 깊을 만하다고 느끼지 않으신 것 같다. 그러나 눈물이 많다고 해서 감정을 잘 드러내는 분은 아니셨다. 구체적인 어려운 상황을 여쭙보면 그저 말씀으로만 “어휴~ 힘들어 말로 다 못해”라는 식으로만 말씀을 하셔

서 조사자의 마음을 애태우기도 하였다.

15년 전 선산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선영들에 대한 대대적인 매안(埋安)을 하게 되어 열네 반상이 네 반상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나만 편하게 되었다”고 조심스레 얘기하시는 모습이 그동안 종부라는 자리가 만만치 않았었음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가족 모두 천주교 신자인 관계로 고조부 내외의 제사는 때로 미사로 대신한다고 한다. 종가 대문의 문패에서 볼 수 있듯 종부가 속해있는 이 종가는 그동안 어느 종가보다도 많이 현대화되고 간소화되어 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요즘 젊은 세대에 대한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후대에만큼은 지금 이대로 물려줄 것이며, 또 이어주길 바라고 있었다.

이후의 구술작업들은 이전 작업에서 빠진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 보충을 하거나 종부가 떠올리는 기억의 애매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일이 기억을 챙기며 살만큼 삶이 녹록치 않았으며, 애매모호하고 뒤섞여 얘기되는 부분이 적지않았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종부와 조사자를 배려하여 서재로 자리를 비켜주신 남편에게까지 가서 물어보아 자신의 기억을 바로잡거나 확인해 오시기도 하였다. 전체 구술작업이 끝난 후에는 남편을 통해 몇몇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술자와 구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구술작업은 종부의 정확한 발음과 차분한 말씨, 게다가 방문날짜의 잦은 변경에 대한 미안한 마음까지 더해져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종부는 말씀을 많이 아끼시는 편이어서 때때로 조사자가 질문을 하여 이야기를 이끌기도 하였다. 그러다보니 안윤자 종부 또한 어느 한국여성들과 별반 차이없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남편과 자녀들의 기억 속에서 자신의 얘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의 이 작업이 한 여자의 개괄적인 일생 이야기로 치우치고 정작 깊은 내면의 얘기를 끌어내지 못한, 그래서 작업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데는 미흡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사전에 관련된 책자와 선행 사례집을 검토하며 요모조모 여러 상황을 열어놓고 질문항목을 준비하긴 하였으나 본 조사자의 경험 부족으로 말미암은 요인이 아닌가 조심스럽기만 하다. 게다가 방문 일자가 많이 변경되고 지연되어 시간적인 제약이 많이 따랐는데, 좀 더 많이 구술자와 만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 2. 청주 한씨와 한준겸

### 청주 한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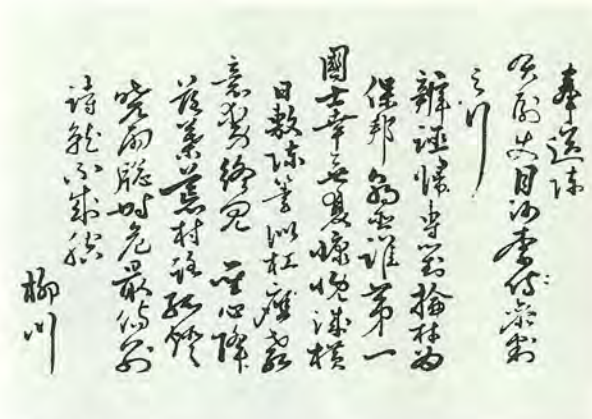
청주 한씨(淸州韓氏)의 연원을 보면 마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마한 원왕(元王)의 아들인 한우량(韓友諒)이 청주 한씨의 고시조로 모셔지고 있다. 그후 우량의 32세손 한란(韓蘭)이 중시조가 되었고, 여기에서 청주 한씨는 30여 개의 파로 갈려지게 되었다. 한란은 태조 왕건을 도와 삼한통합에 큰 공을 세운 후 삼중대광 문하대위(三重大匡門下太尉),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에 서훈된 인물이다.

한씨 일문(韓氏一門)은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크고 작은 정치적 변혁과 역사적 사건에서 권력구조의 핵심세력으로 위세를 떨치게 된다. 한상질(韓尙質)과 한상경(韓尙敬) 형제가 조선 개국에 공을 세우게 되는데, 상질의 손자가 바로 계유정난의 주인공 한명회(韓明滄)이다. 한명회와 한확은 자신의 자녀와 누이를 권력의 핵심인 왕실 또는 세가로 혼인시키며 한씨 일문이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 당대의 석학 한계희(韓繼禧), 명필가 한호(韓濩)·한형윤(韓亨允)·한구(韓構), 청백리 한승정(韓承貞), 화가 한종유(韓宗裕), 실학자 한치연(韓致淵), 구한말 참정대신 한규설(韓圭畵), 독립운동가 한용운(韓龍雲) 등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문익공 한준겸은 중시조 한란의 19세손으로, 인조 때 그의 딸이 인열왕후(仁烈王后)로 책봉되면서 자신은 서평부원군에 봉해졌다. 그리고 청주 한씨 서평부원군파의 파조(派祖)가 되었다. 묘는 원래 강원도 원주에 있었으나 장남 한회일(韓會一)에 의해 이곳으로 옮겨진 뒤, 후손들이 그의 묘 아래에 정착하여 서평부원군파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아들 한회일은 한성좌윤을, 증손인 한두상(韓斗相)은 돈령부 판관, 고손인 한종로(韓宗老)는 고성군수, 29세손 한익동(韓益東)은 한산군수를 지냈다. 안윤자 종부의 시아버지가 되는 32세손 한중현(韓中鉉)은 초대 군자면장을 역임했으며, 당대 문명을 떨친 한학자기도 하였다.

### 한준겸

서평부원군 문익공 한준겸은, 아버지가 경성관관 효윤(孝胤), 어머니가 예빈시정 신건(申健)의 딸로,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자는 익지(益之), 호는 유천(柳川)으로, 회산부부인(檜山府夫人) 창원 황씨와의 사이에 2남 6녀를 두었다. 1586년 별시문과 병과 급제하였고, 금천현감(衿川縣監) 재직시에는 정여립 사건으로 투옥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때는 류성룡(柳成龍)의 종사관을 지냈으며, 1610년에는 17세 된 그의 넷째딸을 능양군(綾陽君, 후



한준겸 글씨

에(仁祖)과 가례시켰다. 유교칠신(遺教七臣)<sup>1)</sup> 중 한 사람으로, 1613년(광해군 5) 계축옥사로 귀양살이를 하던 중 5도도원수가 되어 오랑캐를 수비하기도 하였다.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딸이 왕후로 책봉되어 자신도 서평부원군에 봉해졌다. 이듬해 이괄의 난에는 왕을 호종하였고, 정묘호란 때는 왕자를 시종하고서 세상을 떠났다. 풍모가 준수하며 문장으로 이

름이 높았고, 특히 예학(禮學)에 조예가 깊어 국가의 고사(故事)나 문헌전장(文獻典章) 등의 일에 관여하였다고 전해진다.

그의 묘는 원래 원주에 있었는데 한 지관이 장남 회일에게 말하기를, “지세가 불리하여 후손이 영락(零落)하겠으니 옮기라” 하여 1636년에 이곳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현재 문익사에는 한준겸 내외의 신주만을 모시고 있다. 원래는 그의 아들 한회일, 손자 한이성(韓以成), 증손 한두상 내외도 함께 모셔져 있었지만,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매안(埋安)하였다고 한다. 문익사 뒤로는 경기도기념물 제163호인 청주 한씨 묘역이 있다.

### 3. 안윤자 종부의 생애사 요약

안윤자 종부는 1941년 거모동에서 그리 멀지 않은 죽을동에서 2남 2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아버지 안종해(安鍾海) 씨는 당시 대학을 나와 서울에서 은행원을 하였고, 어머니는 수원에 친정을 둔 정씨 집안의 외동딸이란 것만 안다. 생모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지 않다. 세 살 되던 해, 백일도 채 안된 남동생을 두고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안 종부가 일곱 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이화여대를 졸업한 종로의 한 갑부집 노처녀와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버지가 계신 서울로 올라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1) 유교칠현(遺教七賢). 선조로부터 영창대군 보필을 부탁받은 박동량·서성·신희·유영경·한응인·한준겸·허성 등 일곱 명의 신하를 말한다.

어려서부터 말이 없고 내성적이었던 안 종부는 이복동생(1남 1녀)인 제 자식과 차별을 두는 새어머니의 냉대 속에서 외롭게 자랐다. 어린 마음에 정을 붙이지 못했는지 초등학교 2학년 때 고향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하여 할머니 밑에서 다니다가 6학년이 되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 시춘기가 되면서 더욱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해갔다. 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안 형편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가지 못한다. 나중에 이복동생의 진학을 위해 포기하라는 새어머니의 요구 때문이었다. 유학까지도 보내주시겠다던 아버지셨건만, 워낙 내성적인 성격 탓에 새어머니에게 말씀 한 번 못해보고 진학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스물세 살 나던 해 중매 반 연애 반으로 교사인 남편을 만나 결혼식을 올린다. 그때가 1965년 6월 30일. 서울 종각에 있는 종로예식장에서였다.

시댁이 증가라 해서 가족 구성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들어와 보니 친정에서의 그녀만큼이나 외로운 곳이었다. 한국전쟁 중 남편과 아들 셋(2002년 둘째 시숙이 북에 생존해 있음을 확인함)을 잃은 시어머니 유씨가 계셨고, 남편의 6살 위 누님은 이미 출가한 상태였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엄마의 정을 몰랐던 안 종부에게 마치 친딸처럼 대해 주셨다. 심성이 고운 양반으로, 늘 부족하기만 했던 안 종부를 칭찬해 주시고 생전 야단이나 타박을 하지 않으셨다. 고부갈등이란 걸 전혀 모르고 살았다.

결혼하고 처음 1년 반 정도는 주말부부로 살았다. 남편은 강화에서 수학교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그때 안 종부는 시댁에 들어와 있었다. 다시 남편이 서울에 있는 학교로 발령이 나게 되자 서울의 전농동으로 분가하였다. 정치가가 꿈이었던 남편은, 결국 교사생활을 그만두고 야당 당수의 비서관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후 다시 무소속의 한 국회의원 후보를 당선시키고 그의 비서실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이즈음 시어머니를 서울로 올라오시게 하여 함께 살게 된다. 이와 함께 기제사는 서울로 모셔왔지만, 집안의 가장 중요한 큰제사<sup>2)</sup>는 반드시 사당과 묘가 있는 이곳으로 내려와 지냈다.

그러나 청천벽력같은 일이 남편에게 일어나게 된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1974년, 남편의 나이 서른 셋일 때였다. 그때 안 종부는 임신 7개월의 몸이었다. 흰칠한 용모에 건장했던 남편은, 성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상태였고, 모두들 살아나기 힘들 거라 하였다. 그때부터 안 종부는 부른 배를 안고 간호하느라 병원에서 살았다. 남편은 혼수상태로 2개월을 중환자실에서 보냈고, 결국 다리 한쪽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그후 몇 번에 걸친 수술이 계속되었다.

2) 음력 7월 열엿새날 지내는 한준겸 불친위 제사를 말한다.

그러던 중 안 종부는 막내로 아들을 낳게 되었다. 내리 딸 셋을 낳았지만 전혀 서운한 기색없이 미역국을 끓여주셨던 시어머니에게 이제야 낮이 조금 섰다. 제대로 산후조리도 못하고 간호하기를 2년여. 그동안 처음으로 장만했던 내 집은 두 달도 못 살아보고 병원비로 날렸다.

남편은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하게 되고, 후유증에 시달리곤 하였다. 그러다가 좀 나아지면 직장을 다녀보지만, 오래가지 못하였다. 불규칙한 수입에 아이들은 커가고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찾은 게 작은 구멍가게였다. 한번도 직접 나가 돈을 벌어보지 못했던 그녀에게 그 일이 그래도 가장 쉬워보여 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상을 만만치 않았다. 소비자들의 외상과 사기로 1년만에 접을 수밖에 없었다.

다시 살 길을 찾아 막막해 하던 중 시누이의 소개로 시작한 게 야쿠르트 판매였다. 우선 자본금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다.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시작은 했지만,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의 연속이었다. 그날그날 자신에게 떨어진 배당량을 소비시켜야 하고 신규로 개척을 해야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참고 하다보니 8년을 버텼다.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대신 살림과 손자들의 건사를 잘 해주셨다. 친구들에게는 자존심 상해 말하지 않았던 ‘야쿠르트 아줌마’ 시절은, 안 종부의 표현대로라면 정신력으로 “빠딩긴” 세월이었다.

종부가 오십이 되던 해, 남편이 다시 직장을 나가면서 그간 하던 일을 그만두었다. 그로부터 2년 후 고속도로 부지로 종종 선산이 들어가면서 대대적인 묘지 이장작업을 하였고, 이때 받은 보상금으로 지금의 한옥과 사당을 지어 1996년 겨울 완공을 보았다. 그리고 이듬해 1월에 서울생활을 접고 이곳으로 내려와 살고 있다.

안 종부의 취미는 여행이다. 요즘의 큰 즐거움이기도 하다. 예전을 생각하면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일이다. 친구들과는 자주 여행을 다니다보니 국내 해외 웬만한 곳은 다 가보았다. 남편의 말없는 배려 아래 가능한 일이었다. 말 한마디 낮간지러운 표현에는 서툴러도 남편의 자상함을 누구보다 잘 안다. 비록 장애<sup>3)</sup>를 가졌어도 긍정적인 성격의 남편과 어려운 환경에도 잘 자라준 자식들에 감사하며 생활한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커다란 아쉬움은 있다. 꿈속에라도 한번만 찾아주셨으면 하는 분, 바로 돌아가신 시어머니다. 늘 부족하기만 한 당시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하며 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다. 그 칭찬이 안 종부에게는 힘이 되었고, 큰 가르침으로 남았다. 낮

3) 1974년 남편은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한쪽 다리를 잃었다.

설고 집설었던 안 종부가 그나마 종부로서 잘 해낼 수 있었던 것도 시어머니가 계셔서 가능한 일이었다. 종부라고 해서 큰 자부심이 들만큼 별다른 게 없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간호하느라고, 생업 전선에 나서야 했을 때에는 먹고사느라고 종부란 것에 큰 의미를 둘 수가 없었다. 그저 시어머님이 하라는대로 하였다. 이제는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 그런 생활을 40여 년을 지내다보니 요즘 젊은이들의 조상에 대한 희박한 의식이 걱정이긴 하다. 후일 아들이 결혼해 며느리를 들이면 시어머님이 남겨주신 칭찬으로써 잘 가르치려 한다.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자신이 시어머님이 하신대로 해왔듯이 아들 며느리 또한 그대로 따라주길 바라고 따라줄 것으로 믿는다.

## II. 안윤자 종부의 생애사 연표

- 1941년 시흥시 죽을동에서 순흥 안씨 안종해(安鍾海) 씨와 정씨 사이에 큰딸로 태어남
- 1943년 남동생이 태어남  
3개월 후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남
- 1947년 아버지께서 11살 아래의 종로 갑부집 처녀와 재혼함
- 1948년 아버지가 계신 서울로 올라감
- 1949년 서울 효제국민학교 입학
- 1950년 시흥 군자국민학교로 전학  
이복 여동생이 태어남  
한국전쟁 중 가족과 함께 전북 익산으로 피난했던 기억이 있음
- 1955년 서울 매동국민학교로 전학 후 졸업  
서울 배화여자중학교 입학  
이복 남동생이 태어남
- 1958년 서울 배화여자중학교 입학
- 1961년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 졸업
- 1963년 아버지께서 부산으로 발령 나 2년간 사택에서 아버지의 식사 등을 챙겨드림
- 1965년 공립강화고등학교 수학교사인 한걸택(韓傑澤) 씨와 혼인  
시어머니[柳憎愛]와 함께 헌집에서 살기 시작함

- 1966년 큰딸 지원을 외가가 있는 수원병원에서 낳고, 외할머니에게서 산후조리를 받음
- 1967년 친정아버지께서 향년 52세로 세상을 떠남  
남편이 서울 동명여고로 옮김  
서울 전농동으로 분가함. 그후 삼양동·수유리·답십리·유진상가 앞 등 여러 번의 이사 끝에 홍제동에 정착함
- 1968년 시어머니인 유증애 여사의 환갑잔치를 열어드림  
둘째딸 병숙을 헌집에서 낳음  
남편이 신민당 유진오 총재의 비서관으로 들어감
- 1970년 셋째딸 병주를 헌집에서 낳음
- 1971년 남편, 유진오의 정치활동 중단으로 비서관을 그만 둠
- 1972년 김광수 무주·진안·장수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비서실장으로 들어감  
시어머니를 서울로 올라오시게 해 함께 살게 됨
- 1974년 양옥집을 사서 방학동으로 이사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2개월만에 혼수상태에서 깨어남  
아들 성우(호적명 丙勝)를 서울 삼성제일산부인과에서 낳음
- 1976년 남편이 2년여의 병원생활을 마치고 퇴원함
- 1982년 구의동에서 구멍가게를 시작함
- 1984년 야쿠르트 판매업을 시작함  
제사를 지낸다는 조건으로 홍제동 성당에 나가면서 가족 모두 세례를 받음
- 1991년 남편이 대한교과서 교재교구개발연구소 초대소장으로 취임  
야쿠르트 판매업을 그만 둠
- 1993년 선산이 고속도로 부지로 들어감에 따라 이장·매안 등 선산의 묘지를 정비함  
손윗시누이[韓惠澤] 내외의 회갑기념여행에 동반하여 호주를 다녀옴
- 1994년 일년에 14회 지내던 제사를 4회로 줄임  
큰제사 지내는 시각을 돌아가신 날 자정에서 낮 12시로 옮겨 지내기 시작함  
둘째딸 병숙이 고모 증매로 혼인함
- 1995년 선산의 한준점 묘 앞에 있는 동자석을 도굴당함  
시어머니께 미수연(米壽宴)을 열어드림
- 1996년 동자석을 안산에서 다시 찾아옴

- 중가 살림집인 유천재(柳川齋)와 한준겸 사당인 문익사(文翼祠)를 완공함
- 1997년 시어머니 · 남편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옴  
 남편이 민주당 교통문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시어머니께서 향년 90세로 세상을 떠남
- 1998년 남편이 사단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에 취임
- 2002년 헌집이 헐림
- 2002년 남편 · 큰딸과 함께 호주로 회갑기념 여행을 다녀옴
- 2003년 친척을 통해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된 둘째 시숙 웅택(雄澤) 씨가 북에 생존해 있음을 확인함. 이산가족 상봉신청서 내놓음  
 큰딸 지원, 직장 동료의 중매로 혼인함

### Ⅲ. 안윤자 종부의 구술생애사

#### 1. 어린 시절

##### 세 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지금 시흥시, 여기는 거모동이고 저희 고향은 죽울리(죽울동)예요. 요기 정왕동에 조금 가면 거기(죽울리)거든. 거기가 고향인데 살기는 다 서울서 다 학교(다녔는데). 그전에는 죽울리라고 했는데 번지는 생각이 안 나. 난 순흥 안씨인데 저쪽 죽울동 가면 안씨 집안들 많이 있어. 살기는 다 서울서 다 학교 다녔는데. 어렸을 때 (서울로) 올라갔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여기 군자면사무소에서 면장님을 허셨어요. 그런데 고 전에 여기 시아버님이 면장을 허셨대요, 6·25 직전에 허시고, 바로 6·25 났을 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허셨거든.<sup>4)</sup> 아버님은 안(安)자 종(鍾)자 해(海)자, 어머니님은 어렸을 때 돌아가서 갖고 정씨만 알아. 제가 어머니 얼 굴도 잘 몰르거든요, 제가 세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서. 지 남동생 남매를 낳으시구. 제 동



생전의 친정할아버지 친정할아버지가 되시는 안용재(安鏞載) 씨는, 초대 군자면장이셨던 시아버님에 이어 제2대 군자면장을 지내셨다

생이 백일도 안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외동딸로 귀염받고 자랐고 내성적이  
구 천상 여자로 사셨다 그래요.

어머님이 우리 남동생 낳고 목에 뽀루지가 났대. 웬만하면 고약만 바르면 되는데 수술을  
해달라고. (뽀루지가) 너무 커지니까. 우리 아버지도 고대 나오셨거든요. 근데 아버지 친  
구가 의사분이셨대. 그래갖고 가까운 친구니까 그 분에게 맡겼나봐요. 그런데 이거를(수  
술) 하다가 약간 술기운이 있는데다가 수술을 했나봐. 그래서 동맥을 건드렸대요. 그래서  
돌아가셨거든. 그래갖고 (동생이 태어난 지) 백일도 안돼 갖고 돌아가서 갖고 그때만 해도  
분유가 없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젖 얻어 멕이러 이집 저집 다니시고 그랬대요. 암죽 먹구  
밥 끓인 거 멕이구. 그래서 개는요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더라구, 모유를 못 먹어선지. 그  
때 내가 3살 우리 남동생은 백일도 안 지나고, 서울서 남동생과 같이 살았지.

근데 남동생은 그냥 여동생 같지 않더라구. 서울 있을 때도 1년에 한두 번 볼까말까 그랬  
는데, 남동생은 지금 미국가서 살아요. 한 5년 됐어요, 미국 이민간 지가. 남동생은 삼성다  
니다가 정년퇴임하고 늦게 갔어.

## 아버지의 재혼

아버지는 6살 때 허셨을 거야. 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중대로 어떻게 했는가봐요. 우리  
아버지가 워낙 우리 엄마와 의가 좋으셨기 때문에 금방 재혼을 안하신 거지. 그래갖고 학  
교도 그만큼 나오고 그랬으니까 우리 계모가 종로의 갑부의 집 딸이에요. 그 시절에 이화  
여대도 나오구 그만큼 많이 배우고 그랬으니까 애들한테도 잘하겠다 그래갖고 아마 수십  
번 보다가 어떻게 결혼하셨나봐. 노처녀였어요. 집이 부유하니까 어디(직장) 다닌 것도 없  
고. 근데 그 양반도 계모 밑에서 자랐지. 그 양반은 딱 자기 혼자야. 근데 어휴~ (계모는)  
형제들이 없어 이복동생이야. 당신히고 혼자. 저는 그때 여기가 할머니가 계시니깐 할머  
니가 있는데서 어렸을 때 일곱살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할머니한테 있었구, 그 이후에 아  
버지가 다시 재혼해서 갖고 서울로 올라갔거든요. 서울서 계신데 아버지가 ○○은행에 다  
니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서울서 학교를 마쳤거든요.

4) 안윤자 종부께서 직접 겪지 않고 들은 기억이라 약간의 착오가 있는 듯하다. 시아버지인 한중헌(韓中鉉) 씨는 1947  
년 4월 1일부터 1951년 8월 6일까지 초대 군자면장을 역임하였고, 그 뒤를 이어 친정할아버지인 안용재(安鏞載) 씨  
는 1951년 8월 7일부터 1953년 3월 10일까지 제2대 군자면장을 역임하였다. 이후의 구술과정에서도 시아버지와 관  
련된 이 부분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구술하고 있으나, 편역상 종부의 구술내용을 그대로 옮겼음을 밝힌다.

## 외로웠던 성장기

제가 형제로는 친남매고, 이복동생 남매해서 넷이 자랐지요. 전 혼자 있고, 전 참 외로와요. 이모도 안 계시고 고모도 안 계시고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갖고 혼자도 혼자도 많이 울었는데, 어린 시절은 저는 학교다닐 때고 뭐고 계모 밑에서 자라 갖고 저는 굉장히 말이 없었어요. 학교 갔다오면 그냥 내 방에 들어가면 고만이야. 어떤 날은 내가 지금 생각해도 한마디 말 안한 날이 있어. 그렇게 지냈어요.

서울 종로 5가에 있는 효제동에서 살고 효제국민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가 다시 일루 왔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5학년까지 다녔어요, 할머니앞에서. 거기서 못 견뎌나봐. 군자국민학교 5학년까지 다니다가 중학교 갈라니깐 다시 서울 거기 배화 옆에 매동국민학교가 있어요. 거기 졸업허구 배화여중, 배화여고를 나왔어요. 4·19 때 고3이었거든. 학교에서 데모하고 그랬어요. 그런 데 참여하질 않았구, 워낙 내가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나서는 걸 안했어요. 내성적이구 말도 안허구 그러니까 친구도 많지가 않지. 친한 친구 몇 명 그렇게만 있었어. 제가 특별히 나서서 허는 일이 없었기 땀에 조용히 학교 다녔어요. 그때 아버지가 우리 배화학생들 코치선생으로 잠깐 계셨어요. 은행의 배구선수셨거든. 그래갖고 제가 배구를 좀 잘해갖고 헐라구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여자는 운동을 허른 체격이 넓어지구 보기 싫어진다구 해서 제가 운동을 못 했어요. 그래갖고 스무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제가 살기는 괜찮은데 계모의 저기(반대로) 해서 대학을 못 갔어요. 한 2년 정도 집에서 있었지요, 집에서 돕구. 또 아버지가 부산으로 전근이 돼갖고 부산가서 사택에 가서 아버지 식사해드리고 한 2년 있었어요. (계모는) 애들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여기(서울) 계시고, 나허구 아버지허구 가서. 2년 있다가 부산에서 올라오구, 나 결혼말이 나오구 결혼허구.

## 수원 외갓집

학교 다닐 때는 방학하면, 외할머니가 수원에 사셨거든. 외동딸이야 우리 엄마가. 그래서 시집을 때 바리바리 실고 왔대. 그래갖고 방학만 허른 방학날로 계모가 싫으니까 가는 거야, 외할머니한테. 그래갖고 개학날 와요 내가. 그래서 외할머니한테도 많이 키워졌지 내가.

어머니도 형제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를 할머니가 끔찍이 불쌍하게도 생각하시구 그러셨지. 거기 가서 많이 자랐지. 외가 집안은 평범해요. 정썬데 어디 정썬지는 몰라. 수원에 팔달문 있는데 거기 있었어. 지금도 외삼촌은 잘 살고 계세요. 외삼촌은 우리 엄마

하고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열네살 때 아우를 보셨다고 하니깐 우리 외할아버지가 일본 가 계셨기때문에 아우를 늦게 보신 거지. 할아버지는 뭘 하셨는지 몰라 일본서 십 몇 년을 계셨대니까.

## 2. 혼인생활

### 중매쟁이는 식모

우리집 양반 만나서 결혼얘기 나고 한 달만에 결혼했어요. 중매가 누구냐 하든 여기 살던 그 당시 6·25 때 한 열다섯 될 때. 우리집 어머니도 계속 그전부터 계속 식모를 두고 살았는데 오갈 데 없어갖고 열네 살짜리를 데려다 키웠나봐. 그래갖고 6·25 나고 그러니깐 우리집으로 보내졌대. 그 식모를, 우리집에 있었어요. 우리집에서 시집을 갔거든 개가. 그래서 그 여자가 중매를 한 거지. 그래갖고 내가 서울 때 결혼 적령기가 되고 그러니깐, 왔다가 여기 우리집 양반을 소개를 해갖고 그리고 어른들끼리 연결이 된 거지.

### 탈렌트같은 남자와 이지적인 여자

만난 건 삼월 일일 날 우리집에 처음 왔었거든 인사하러. 누하동으로. 막 강화고등학교에 교편 들어갈 때. 그 여자(식모)와 그냥 아무 부담없이 놀러오는 식으로 와갖고 봤지. 봤는데 우리집 양반이 지금은 사고가 나갖고 막 여기도(얼굴) 뼈뺏어지고 그런데, 탈렌트같았어. 너무 잘 생겼어요. 지나가든 안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어. 그 정도로 잘 생겼었어. 저도 아가씨 때 예쁘다는 소릴 꽤 들었어요. 남편은 날 처음 보고 참 이지적으로 생겼다고 그러대요. 그후로 강화도로 한번 만나러 갔었지 아미? 한두 번 갔었어.

그 당시에 우리 친정집에서 브라질로 이민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난 이민가야 한다 그랬더니 우리집 양반이 자기도 따라간대. 가만히 보니까 종손에다가 그런데도 간대요. 그래서 그럼 제가 안 가겠다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국 우리 친정도 못 갔어. 못 가긴 했는데. 그래갖고 중매로다가 결혼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중매가 많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유월 달에 바로 했어요, 유월 삼십일 날. 나는 직장 생활도 안하고 졸업하고 이태 있다가 그냥 결혼한 거지. 스물네 살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은 종로예식장에서 했는데. 종각 맞은편. 지금도 있나 몰라.

## 혼인날 풍경



1965년 6월 30일 서울 종로예식장에서 올렸으며, 주례는 전 국무총리 최두선(崔斗善) 씨가 맡았다



폐백 중 수줍어하는 신부 뒤로 살짝 엿보는 한 아이의 표정이 재미있다



신혼 첫날밤 새신랑이 발바닥을 맞으며 괴로워하는 모습이다



서울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는 광경으로, 초가집이 보이는 곳에는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 불편했던 한옥생활

그 마을이 보대라고 그러든가 버대라든가. 그 양반집<sup>5)</sup>이 산골이예요 지금두. 산 속에 있어요. 아휴~ 내가 시집 와갖고 그 외삼촌집에 인사를 기는데, 그때는 버스가 없었나봐. 버선을 신고 거기까지 걸어갔다니까 여기서. 그냥 발이 부르터갖고, 버선 안 신다가 신으니까. 지금도 생각하믄...

시집왔을 때는 여기 공장있는 데 한옥이 있었어요. 너무 불편헌 거예요. 부엌도 재래식이지 불 때지, 식모있구 일꾼도 다 있긴 허지만 어디 내가 가만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생활하는 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이면 녹초가 되는 거야. 내가 그전에 안허던 거니까 헐레니까 따라서 허는 것보다 사느라 왔다갔다 허는 것만도 힘들었어 내가. 밤이면 피곤해 갖고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데 왔다갔다 허는 것만으로 평상시에도. 그때만 해도 한복입고 하얀 행기치마(행주치마) 치고(두르고) 빨래허면 여기서 안허구 저기 냇가엘 가서 허구. 여기서 내가 한 1, 2년 살았나. 그래. 아우~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친정집은 그래도 재래식이어도 완전 이런 시골재래식이 아니지, 화장실도 그렇구. 그때 우리 시어머님하고 일꾼 둘허구, 식모 하나하고 살았지.

## 주말부부

시집오니까 뭐 며느리가 있나, 동서가 있나 뭐 혼자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여기두 질(제일) 가까운 곳이 팔춘(촌)이예요. 육춘(촌) 동생 하나 있는데 없어지고. 주위에, 이모는 계셨다가 돌아가셨지만 고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해갖고 우리가 둘이 다 외로운 거야. 그러구 이 제사 지낼 때도 너무 힘든 거야. 아무것도 그런 거 안해 보다가 와갖고. 그래 시어머님이 그냥 같이 하셨지. 뭐 늦게까지 하셨지. 시어머님이 참 저를 친딸모양 그렇게 해주셨어요. 한 평생을 야단 한 번 안치시고 친딸처럼 너무 친딸보다 더 귀엽게(해주셨어). 그래갖고 지금 돌아가고 안 계시니까 더 뵈고 싶은 거야. 너무 잘해주셨어요, 저한테. 시댁에서 조금 1년반쯤 살았나 보다. 그러구 (남편이) 강화고등학교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살고 일주일마다 (남편이)한번씩 이쪽으로 왔어. 그래갖고 바로 서울로 발령이 났어.

## 서울로의 분가

분가해서 켈 먼저 전농동에서 살았어. 방 하나에 부엌도 없어. 그냥 방에서 나오면 뒷마

5) 안산에 있는 남편의 외가인 진주 유씨 유문형 씨댁을 말한다.

투있구 그 밑에 아궁이 있구. 찬장 요만한 거 그 옆에다 놓고 살았지. 살림날 때 뭐 줄 거나 있어 여기는. 장(옷장)도 없이 여기 와서 있으니까 방이 작으니까 못 갖고 올라가고 이불도 저기다 쌓아놓고 그러고 살고 그랬지 처음에야. 그때 시어머님은 헌집<sup>6)</sup>에서 일꾼 들하고 식모하고 그렇게 사셨지. 그때는 제사를 제가 못 지냈죠, 어머니가 지내셨지. 지금 생각하니까 큰 제사때는 온 거 같아요. 삼양동에서도 살아보고, 수유리에서도 살고 뭐. 수도 없어. 교편생활 할 때, 집세는 올려달라 그러구, 워낙 시집에 없으니까 보태줄 사람은 없고. 하여튼 홍제동에서 하여튼 오래 살았어. 유진상가 바로 맞은편. 지금 힐튼 호텔 있죠? 그 맞은 쪽에. 거기서 살았어. 그때는 연립이었었거든요. 지금은 다 그 연립 다 허물구 아파트 지어놨대.

###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다

1972년도에, 어머니가 연세가 환갑이 지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셨어요 서울로 오시라구. 여기 식모했던 애허구 일꾼허구 짝을 지어줘갖구 개네들에게 맡겨놓구 (서울로) 올라오셨지요. 그때부터 인자 같이 어머니허구 같이 생활한 거지요.

애들두 참 할머니한테 잘했지. 할머니도 잘하시고. 여기 이사오기 직전 홍제동에 살 때도 애들은 많고 방 세 개에 살았으니까 우리 부부 살고 딸네미들 살고 아들 방 하나 있고 할머니 방 하나 있고 이렇게 넷이 있어야 되는데, 방이 세 개니까 우리 아들이 대학 다닐 때까지도 할머니허구 있었거든. 할머니가 담배를 피셨어. 그러니까 다른 애들같으면 아마 안 있었을 거야. 한번 싫대는 소리 없고 한번도 싫은 소리 내색 한번 없었어요. 그러구 살았어요. 근데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울더라구 우리 아들이. 너무 울어갖고 나는 놀랬어. 나는 눈물이 다 안 나오더라구.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하루 원종일 아휴. 우리 딸들보다 더 울어아주.

## 3. 남편 그리고 74년 3월 24일!

### 학생편에 썼던 수학교사

우리 남편은 여기의 군자국민학교 군지중학교 여기서 그때만 해도 서울로 유학간 거지,

6) 예전에 있었던 모자형의 한옥집을 말한다. 1925년에 지어졌으며, 2년 전 77년만에 헐려져 지금은 그 자리에 공장이 들어서 있다.



교사 시절의 남편(1967년)

서울사대부고. 워낙 공부를 잘했어. 서울사대부고 나오고 서울사대 가고. 자기는 정치외교학과를 간다고 했는데 어머님하고 누님은 하도 풍파를 많이 겪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사범대를 가라, 선생이나 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간 거예요. 졸업하고 스물네 살에 결혼했어. 결혼 바로 직전에 학교를 발령났어. 강화에서 한 1년 했나. 그리고 서울 동명여고에서 한 1년 있었어요. 담당은 수학이고.

선생할 때, 어느 학부모가 담배를 한 보루를 갖다가 안 받는다 그랬더니 책상 위에다 넣고 갔대. 우리 애 좀 잘 봐달라구. 근데 그담부터 교단에 서면 개 얼굴만 딱 비드래. 나한테 그러드라구. 그 담부터 이러면

안되겠다 그래서 일절 안 받았어요. 나도 모르게 눈길 이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학생편에서 갖구 맨날 교장허구 수 틀리든 싸우구 데모하구. 생전 애들한테 거 뭐지? 사친회비라고 그러지 옛날에는. 맨날 졸라야 되는 데 그 애길 안하는 거야. 그걸 가져오란 소리를 안한대, 생전 애들한테. 그러니까 맨날 꼴등이구 담당 반이. 교장은 또 선생님 북으고. 왜 애들한테 빨랑 가져오라구 그러지 안 그러다고. 공납금이. 수업료. (학생들 생활이) 어려우니까 (안 낸 학생이) 많지. 그러니까 학생들 편이지,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노상 학생들 편에서 갖고는 교장하고 같이 그냥 맞부딪치는 거야. 그러니 누가 좋대? 그래서 동명여고에서도 교장허고 싸우고 나온 거지.

### 야당 총재 비서관 시절

워낙 그 전부터 남편이 학교 과를 잘못 간 거야. 그런데 학교 저기를(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정치를 들어간 거지. 그래갖고 신민당 유진오 총재의 비서관으로 들어간 거야. 유진오 박사님이 유세할 때도 자기가 다 꾸며주고. 그때만 해도 지방에 내려가면 우리 집 양반이 체격도 좋으니까 국회의원 나오는 줄 알았대요. 그렇게 언변이 좋아요. 우리집 양반이 시아버님을 닮아 언변이 좋아요. 여기 성당에서도 작년에 사목회 회장을 했지만

나가서 연설을 할러든 다른 사람들은 종이에다가 적어갖고 하잖아요? 안해요. 그냥 허지. 주례도 많이 허고 그러든 주례 내가 가서 듣잖아. 내가 제발 주례는 간단하게 너저분하게 제발 허지 말라고 해. 내가 몇 번 가서 보든은 참 조리있게 잘 맞게 잘해. 아까워요, 젊었을 때 사고만 아니었으면 한 자리 했을 텐데. 아까운 사람이여. 그때? 집안 일? 몰라요. 지금은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가정적이지. 자기 몸이 아프고 그럴 때 집안에 있었지 그 전에는 뭐 없어요, 밤이나 돼야 집안에 들어와 자지. 집안에 밥이 끓는지 어쩐지 모르셨지. 2~3년을 유진오 박사를 돕다가 그만두셨지.

### 남편의 꿈을 접게 하다

그때는 대한교과서 김광수 씨 전라도 정읍 그 양반 비서관으로 있다가, 수유리 가는 방학동에 살았는데, 그러다가 74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때는 통행금지 시간이 있을 때니까, 통행증을 가지고 다녔어 비서관이니까. 근데 워낙 술을 좋아해갖고 내가 그때 요만요만 딸네미 셋 낳고 아들 임신해서 7개월 뎀데 1974년 3월 24일 3월달인데, 옷을 입고 이불 속에 드러누워 있는데, 이렇게 일어나보니까 11시반이더라구, 아직 안들어왔어. 늦는구나 하고 도로 누었는데 새벽 4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고려대학 병원이라구, 교통사고라구. 그래서 배를 이만한 배를 끌구 아침에 나가는데 방학동 그때는 가로등도 없을 때 신개발 지역이라. (병원가기 위해) 나갔는데 그냥 피가 낭자했더라구 버스 스는 데<sup>7)</sup> 갔더니. 그때 남편은 버스에서 내려갖고 뒤를 돌려는데 그냥 옆으로 달려든 거야. 그날 백미리에 다치고 다치고 다치고 해서 세 번을. 너무 다친 데가 많아서 한 세 번을 백미리에 부닥쳤거든. 그래갖고 지금 장애자예요. 우석병원(고려대학교병원의 전신) 갔더니 그냥 하여튼 이런(몸을 가리킴) 뚫어진 구멍에서는 모두 피가 다 나왔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안 다친 데가 없어. 가서 보고(남편을) 보고 주저앉았어. 그래도 나는 굉장히 담이 신(센)가봐. 그때부터 병원에서 살았지 몸은 이래갖고(불러가지고). 어휴~ 말도 못해 얘길 하면.

### 과부상이 없으니 걱정말라

근데 웬만한 사람같으면 죽었어요. 우리집 양반은 워낙 건장하구 키도 크구 그랬으니까 살았지 웬만한 사람같으면 그냥 의정부에서 달려온 차에 그래갖구. 차주가 자가용인데 초보야 그런데 밤이니까 냅다 달려 온 거지. 초보운전이었는지 그래도 옆에 뒀는데 그래도

7) 사고 현장인 버스승강장을 말한다.



남편이 퇴원하고 1년 후(1977년) 수유리에 살 때 찍은 것으로, 교통사고 후 남편의 얼굴은 많이 달라졌다.

뺑소니 안 치고 병원으로 그랬으니까(움겼으니까) 살았지.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이가 한쪽으로 다 쓸려갔고는 철사로 죄다 묶어갔고 손발을 묶어놓고 교정시키느라구 두 달을 있었지. 나만 가면 펜치 갖고 와서 이것 좀 자르라고. 안 다친 데가 없어 하여튼. 여기도(양미간) 부러져갔고는 코가 약간 삐뚤었는데 지금은 조금 낫지. 여기도 부러지고 안 다친 데가 없어요. 살아난 게 기적이예요. 그래갔고 사고 나갔고 사흘 있다가 우리 시누가 알랑가 몰라 효제동에 김봉수 작명소. 거기 좀 가보제. 나를 끌고 가더라구. 죽는지 시는지 가보자구. 그래서 갔지. 지금 죽을라고 그런다고 했더니 안 죽는대요. 올케 인상이 과부상이요

만큼도 없으니까 걱정말고 가서 있으래. 그래도 시누하고 가서 돌아왔는데 안심이 되더라구. 남편은 이렇게 부어갔고 말도 못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아이구 누가 뭐 의논할 데가 있나 뭐 혼자 중환자실에서 한두 달을 있었는데 제정신이 안돌아와.

### 처음 가진 우리집을 병원비로 날리고

그래갔고 유진오 박사가 와갔고 “이 사람은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죽으면 안된다”고 그래갔고 자기가 일본에서 매일,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의술이 약이 저기한(발달하지 않은) 때라 약은 미리 갖다 놓으면 안된대, 그래갔고 매일 날라다가 주사를 맞히고 그랬더니 한 2달만에 조금 정신이 돌아왔어요. 중환자실에서 두 달 정도 있었네. 겨우겨우 살아갔고 병원에 한 2년 있었나봐요. 그래갔고 그 집 팔구 그때부터는 고생이지. 그때는 차주가 워낙 돈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도 그때 돈으로 100만원 받고 방학동 집 팔아서 병원비로 다 썼지.

사고나기 전에 그때는 집 형편이 좀 나아서 새로 지은 지 1~2년 살았던 집을 우리가 산 거지. 방학동에 돌 붙인 집이 한창 유행이었어요. 좋았지요. 그때는 우리가 성당 안 나갈 때라 이사하니까 어디 가서 (점을) 봤더니 절대로 (이사를)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구. 그 쪽

은 삼살방이 끼었으니까 절대 가지 말래. 사람 죽는대요. 저 양반이 뭐 한창 혈기왕성할 땐데 그런 걸 뭐 믿어요? 그까짓 걸 뭐 믿는다고. 저 사람 뺨에 옹겨서 갔지. 근데 그런 걸 보면 맞히대. 거기로 이사가고 두 달만에 그랬는데(사고났는데). (남편이) 그 집에 들어가 기 싫대요. 당장 10원 주더라도 팔래. 그래서 그냥 싼값으로 팔구, 그 다음에 수유리로 전세 얻어서 나왔어요. 나는 지금도 보고싶어. 이사가는 방향은.

### 아들 얻은 기쁨도 모른 채

내가 임신 7개월 때라 병원에 있을 때 내가 애를 낳았어요. 고려대학 병원에 있는데 그때도 (남편이)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횡설수설 할 때인데 간호하다가 양수가 터졌어. 막 터지니까 뭘로 추스릴 수가 없으니깐 (남편이) 주더라구. 갖다놓은 란닝구, 팬티 이런 걸. 막으라구. 그걸로 막고 어떻게 기어내려갔는지. 아휴~.



사고 두 달 후에 태어난 막내 성우의 돌잔치(1975년)

(병실이) 11층인가 7층인가 그런

데, 전화가 어디에 있는고니 맨 아래 1층에만 있었어요. 그 계단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 혼자 기어내려갔대니까. 그 병원에서는 낳기가 싫더라구. 퇴계로<sup>8)</sup>에 있는 산부인과가 좋다구 해서, 그 병원에서 낳고 싶어갖고 앰브런스 불러서 거기를 갔어. 밤 11시 넘어갔고. 진짜 잘해주더라구. 산모한테. 아, 그런데 딸 셋 낳고 낳으려고 힘을 주는데 힘을 두 번 주고 (아기가) 나오려고 하니깐 간호원들이 “아줌마 또 쉽게 낳으려고 하는 것 보니까 또 딸 낳으려나봐” 그러니까 그냥 맥이 탁 풀어지더라구.

그런데 낳는데 어머! 어머! 아줌마 아들이야! 그러더라구. 그런데 딸 셋 낳고 아들 낳았는데 아빠가 왜 안 오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빠 어디 잠깐 가셨다구. 병원에서 조리도 못했어. 조리도 못허구. 병원에서 (남편은)제정신이 아니니 나만 찾는 거예요. 딸 셋 낳고 아들 낳는데두 좋은 줄도 모르고. 자기 몸이 다리가 괴로우니까. 그래갖고 일주일 집에 있었

8) 목정동에 있는 삼성제일산부인과학을 말한다.

나? 몸조리도 못했어. 병원에 나가서 계속 서 있었어. 시어머니는 그때 같이 계셨지 애들도 1학년 유치원 다니고 그러니까 집에서 애들 관리하시구. 나는 병원으로 왔다갔다하구.

#### 4. 생업전선에 나서다

##### 순진한 구멍가게 사장님

남편이 병원에서 어느 정도 추스르고 나왔지요. 다 못 낫구. 활동은 잘 못하는 거지. 나와갖고 집에서 한 몇 달 있다가 김광수 씨 지금도 그 양반이 (남편을) 친아들모양으로 생각을 해요. 그 양반이 대한교과서주식회사에서 나오라고 다니다가 종로 5가 효제동에 있다가 사무실을 옮겨 강남의 양재동으로 나갔다가 몸이 안 좋아서 쉬고. 너무 생활이 기울다 보니까 내가 활동을 안 할 수가 없드라구. 애들은 다 한창 학교 다니구. 우리 큰딸이 중학교 3학년, (둘째딸이) 중학교 1학년 이러다 보니까 아빠는 집에 계시구. 난 진짜 친정에서 너무 마음적으로 고생을 해두 물질적으로 고생을 안해봤기 땀에 직장생활도 안해봤지 너무 곱게 자란 저기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거기에 구의동에 가게 났다고 그래요. 저 구의동에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했지. 시는 건 홍제동에서 살고 출퇴근했지. 근데 홍제동에서 거길 다닐려니까 너무 힘들드라구. 돈도 없고 그러니까. 한 1년반쯤 했나? 그러는데, 그냥 도둑만 맞고 사기만 당하고 그러는 거야. 잠깐 탄소리 하는 통에 갖고 도망가고 또 누가 와서 뭐 어쨌다 하면 내가 깜빡 속이갖고 너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물건을 거짓말해서 가지고 가서 외상도 하고 하여튼 거기서 버는 건 하나도 없어. 내가 장사가 첫경험이고. 내가 너무 순진하게만 자라갖고 거기서 돈 번 것도 없고 외려 손해만 봤지. 남편은 집에 있고 시어머니가 애들허구 건사하시구 그때 생전 처음 뛰어든 거지 생활전선에.

##### 밀천없이 할 수 있는 일

구의동 수퍼생활을 접고, 유진상가 있는 데 연립서 사는데 생활이 잘 안되니까 우리 시누가 자네가 나가서 활동을 해야지 어떡허냐구. 돈은 없고 뭘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제가 야구르트를 했어요. 그것밖에 할 게 없더라구. 마흔세 살에 그 일에 뛰어들었어요. 애들은 자꾸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집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구르트를 했어요. 그것밖에 할 게 없더라구 제가 야구르트를 하면서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구

중학교 들어가구 그래갖고 그 힘든 걸 끌고 다녔어요 제가. (울음) 그때가 큰애가 고등학교 때야. 자본금 없이 시작할 수 있구, 그때만 해도 야구르트 그 이미지가 괜찮더라구. 그때 마흔세 살인 내가 들어갔는데, 몇 년씩 허는 여자들이 있더라구. 야! 이 힘든 걸 어떻게 몇 년씩을 했을까 했는데 제가 8년을 했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어후! 내가 이걸 채피해서 어떡해야 되나. 누구라도 만나면 어떡해야 되나? 몇 번 망설이다가 혈 수 없이 나간 거지. 그때가 쉼 힘들었지. 그거 허는 사람들이 그거(남편 잃고 어려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괜찮은 사람들도 같이들 나오잖아 맞벌이 혈라구.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나 혈 때는 진짜 생활에 안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

### 미안해하는 가족들

어렸을 때는 물질적으로는 고생을 안했는데 그렇게 닥쳐가지고 혼났어 그때 아휴. 너무 힘들어. 정신력으로 빼탕긴 거지. 내가 이거 안 하면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 그때는 땅 팔아봤자 흘랑 쓰면 그만이니까 우리 시어머님은 그래요. 그전부터 내려오던 거는 암만 힘들어도 손대지 마라 그러셨어. 워낙 그전부터 완고히 그런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감히 그런 생각들을 안했지. 식구들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미안해 하셨어. 일하고 들어오면 얼마나 수고가 많냐, 얼마나 다리 아프냐, 그 맛에 그래도 했지요. 시어머니가 다 애들 밥 다해 주구. 잠깐잠깐 애들 아빠도 어떨 땐 일을 하게 되는 데도 있었어. 그래도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 사람인데. 어떨 땐 들어와서 막 신경질도 내고 그랬지. 다 받아줘. (남편) 수입이 일정하질 않았지, 다니다가 쉬고 다니다가 쉬고. 남들모양 꾸준하게 다닌 거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 딱딱 갖다주는 거 그게 부러웠지.

### 야쿠르트 할 분이 아닌데

들어갔는데 연희동 그때 사는 동네는 홍제동인데 그 동네서는 하기 싫고 그러니까 연희동에서 했는데. 내가 허던 데가 백련사 꼭대기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휴 그때는 라면도 있어갖고 그걸(○○라면) 옆에다 끼고 들고 백련사 꼭대기를 올라가고. 아후 지금은 못해 지금 허라븐.

아침에 7시 반쯤 나가 갖고 저녁이면 늦게 들어오지 껌껌할 때 들어오지. 노란 제복에 모자 쓰구. 지금허구 똑같지 뭐. 더우나 추우나 정해진 숫자 팔아야지. 스트레스 받아, 신발에 땀이 질퍽하게 젖었다니까. 그러든 내가 이렇게 다니든 거기 동네사람들이 도대체가 야쿠

르트 할 분이 아닌데 야쿠르트 한다구 남자분들도 그러구. 하여튼 보는 사람마다 그래요. 어휴 그러면 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처음 (구역울) 이어받으면서 시작하고 자꾸 개척하는 거지요. 배당이 있기 땀에 그걸 다 치우구 들어가야 돼요. 그담에도 꼭 같은 배당을 주니까 그걸 소모를 못 시키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받는 직업이에요 그게 말도 못해요. 아주 그냥 휴~ 아침 깨면 그거 스트레스 받는 거야. 너무 힘들어요.

### 힘들었던 판매활동

월급은 아니고 수당인데 괜찮았어요. 미리 쓰는 거지. 내가 항상 돈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쓰고쓰고 그러는 거지. 그럼 월급되면 없는 거지. 남는 게 없는 거지.

그게 그래요. 한달 말일이면 백프로 완납을 해야 되거든. 그때는 백 몇십만원씩 있어야 돼요. 그게 인제 없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거기 허는 사람한테 뛰달라 그게 힘들어요. 말 일때만. 그게 백프로 완납시키는 돈이 없으니까. 돌아가는 자금이 없으니까 그것도 애먹고. 미리 생활비로 썼지요. 항상 내게 돈이 있잖아, 수금. 그러니까 그걸로 우선 쓰는 거야. 매일 애들 학교가는데 뭐 달라 뭐 달라 그러니까. 수금을 해도 완납을 해도 그게 모자라요 내가 썼기 땀에. 수금이 한 달에 말일에 딱 완납이 안되는 거예요. 잘 돼야 70프로지. 아휴 그 수금하는 것두요 보통 애먹는 거 아녜요. 집집마다 해두요 뭐 널모레 와라 며칠 후에 와도 사람 없고. 그게 말일에 딱 완납 수금이 안 걸려요. 야쿠르트 가격이 그렇게 많질 않아도 그냥 이사가고. 몇 푼 안되는 것도 주지도 않고. 그래도 큰 액수는 아니니까 그걸 어떡해 내가 대체해야지. 마음 고생, 육체적인 고생 아휴. 힘들어 갖고 내가 목 디스크가 왔었어요 하는 도중에. 이걸<sup>9)</sup> 들지를 못했어요. 들고 가다가 놓치구 그랬다구. 그때 너무 많이 울었어. 그걸루 어떻게 꾸려 나갔어. 지금 같아선 못했을 텐데. 그때 나도 어떻게 했는지 몰라.

### 친구들도 모르는 비밀

내가 불임성이 없어요 한번 사꿨다 하면 끝까지 가는데 제가 정이 그리워 갖고 한번 빠지면 고만인데 처음에는 제가 잘 못 빠져요. 그거(야쿠르트) 잘허는 사람들은 잘해요. 성격이 활발한 사람은 더불더불 해갖고 갖다 팔고 그러는데 난 그걸 못허는 거예요. 맨날 남아갖고 그 스트레스...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자고나면 스트레스야 자고나면. 그때는 친

9) 야쿠르트를 담은 리어카를 밀지 못했다는 말이다.

구들을 통 안 만났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통 일절 뭐 아주 친구는 안 만났지. 지금도 친한 친구 한 둘 밖에는 몰라요. 나머지 친구들은 내가 뭘 했는지 몰라. 내가 애길 안했거든. 그 래갖고 그만 두는 그 즈에 내가 먼저 찾았지. 그래도 내가 지금 감사하는 건 젊어서 고생 은 사서도 한다고 하는데 나이 먹어서 지금 잘 살진 못허도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있는 게 감사해). 지금 노인네들 시장에서 장사하는 양반들 보면 너무 딱한 거야. 그래도 난 젊 어서 했기때문에. 이후 너무 딱해 그런 양반들 보든. 난 그래도 그나마 복이 있다 싶어. 내가 그만 둔지가 50에 그만 두었으니 10년이 넘었는데 고만 두고 바로는 (시장 노인들) 만나기 만 허든 한 보따리씩 사줬어요. 사줬는데 지금은 잊어버렸지.

### 8년만에 그만두다

마흔세 살에 들어가 갖고 8년이 됐으니 오십이 됐을 때 남편에게 대한교과서에서 다 시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출근하게 됐어요. 대한교과서에서 자매(회사)를 냈어 대한 교육개발원이라구. 그걸 하나 책임을 해갖고, 그게 어디 있었냐면 압구정동 있었어 현대 백화점 앞에. 거기 다니게 되니까 회사에서 차를 하나 내줘. 기사를 뒤갖고 출퇴근을 했 거든. 직책은 높은 직책을 줬지. 그래서 거기서 한 4년 다녔어요. 그 사장 아들이 하다가 안되갖고 지금은 없어졌는지 몰라, 그래갖고 그만두고. 그때 남편이 그만 두고 그만 고생 하라고 해서 (야쿠르트일) 나이 50에 그만 댔지. (남편은) 미안해해서 자기가 못 배운 사 람이면 몰라도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지. 내가 나가서 고생허니까 들어오면 그렇게 미안 해서 그랬지요. 나는 그렇게 그때도 고생을 하면서 내가 고생을 해도 나도 언젠가는 남편 을 믿기 땀에 언젠가는 괜찮을 거다 그런 마음으로 했지요. 고생 무척 했어요 내가. 안해 보던 걸 해갖고. 아휴~ 말도 못해. (생업에 뛰어들 것) 구멍가게하고 야쿠르트하고 그 게 끝인 거지. 그 다음부터는 여기 이사오구 그 동안에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있 는 걸로 살구.

## 5. 한국전쟁

### 기억에 없는 한국전쟁

6·25 때는 내가 아홉 살 때라 잘 몰랐지. 서울 있다가 전쟁이 나니까 다시 고향으로 왔 지. 고향으로 왔다가 계모랑 같이 피난 나갔지. 제 동생은 할아버지하고 부산 가고, 할머



「충효가정」(1947년) 백범선생이 당시 면장이던 시아버님께 써 준 것으로, 오른쪽엔 한중현 동지 존념(韓中鉉同志存念; 한중현 동지를 늘 생각하며)을, 왼쪽 말미엔 72세 노부(老夫) 백범 김구라고 적고 있다.

생전의 시아버님 당시 한학자로 유명했던 시아버지 한중현(韓中鉉) 씨는 초대 군자면장을 지내셨다.

나는 고 전에 돌아가고, 그때는 계모할머니가 있었어. 동생허구 배타구 서해안에서 부산까지 가시고, 우리 동생허구 계모할머니 자식허구 우리 할아버지허구. 네 명이 갔었지. 계모할머니가 자기가 데리고 들어온 아들이 하나 있었어. 저는 아버지하고 전라도까지 갔었어요. 이리에 가서 있었어요. 걸어서 가다가 기차 좀 타다가 그러고 갔어요. 그냥 가는 데까지 갔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걸어가다가 거기서 정착한 거야. 우리는 아버지, 엄마, 나, 동생 어린 그때 얘기가 있었지, 식모로 우리집에 왔던 개 데리고 다섯이서 갔지. 그때 여덟 살 댜데 뭘 알어? 한참 간 것 같애. 어디 가다가 뒷간에서도 잔 생각나고 그래. 방이 없어 갖고, 헛간에서도 자고 막 기억이 나. 지금 기억이 없어. 돌아오니 먼저 와 있더라구. 집은 그대로고, 그때 증조할머니는 피난 안 가시고 거기 계셨어요. 거기도 괜찮게 사셨어.

### 풍비박산된 시댁의 당시 상황

우리 시아버지는 일제 때 일본인들이 개머리판으로 무릎 한쪽을 으껴서 평생 다리를 절으셨대요. 지팡이 짚고 다니셨는데, 6·25 때 면장을 허셨어요. 바로 그 다음으로 우리 할아버지께서 허시구, 우리 시아버님은 유식허셨대요. 남한테 베풀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시구. 글씨를 그렇게 잘 쓰시구. 언변이 좋으셨대. 그래서 우리집 양반이 언변이 좋은가봐. 근데 형제분이 없으시지. 우리가 3대고 아들이 4대째예요 독자로. 6·25가 나자 시아버님을 면장했다고 인민군들이 총살한 거지. 아버지가 끌려 나가셨으니까 육 허는 젊은 혈기에 아버지 찾겠다고 형이 먼저 나갔는데. 우리집 아저씨가 4형제, 영웅호걸 해서 영택(寧澤)이 웅택(雄澤)이 호택(豪澤)이 걸택(傑澤)이, 우리가 걸택이거든요 한걸택 씨. 막내에, 누

님이 한 분 계신데, 하나하나 세상을 떠나 남편이 독자가 돼버린 거지. 그때 큰아들은 약혼까지 해놓고 둘째는 어디 국민학교 선생님하셨대나. 하여튼 대학교 다 졸업하셨어요. 안 오니까 또 둘이 같이 나간 거야 둘째하고 셋째하고. 두 분이 아버지허구 형 찾은다구 나갔다가 저기로(북으로) 끌려갔대구. 끌려가다가 셋째는 돌아가셨대 폭격에 맞아갔고.

나중에 시어머님이 동네 누구한테 들으니까 면장들 모두 거기(관악산)로 끌고 갔다고 그러드래. 그래 일꾼 하나 데리고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봤더니 시체들이 말도 못하게 많드래. 근데 우리 시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장화 있잖아 꺼먼 거, 그걸 신고 나가셨대나? 찾느라고 발로 툭툭 쳤더니 그걸 신은 다리가 채이드래. 그래서 보니까 자기 영감이드래. 그래갖고 일꾼 지게에다 저갖고 와서 파묻으신 거예요. 나중에 큰아들도. 시아버님이 (제사가) 음력으로 8월 초엿새날이야.

### 북에 살아계신다는 둘째 시숙

근데 둘째분(한웅택)은 작년에 소식을 들었어요. 이북에 살아 계시요. 지금 칠십들이셔요. 소식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거기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냐면 우리 집안 내에 육촌(촌)이 있는데 거기도 딸 넷에 아들 한난데, 거기 아들이 우리집에 있다가 (두 시숙과) 같이 나갔대요. 그래서 그 양반도 거기(북에) 있는데 그 양반은 간부급인지 어쩐지 작년에 신청(이산가족 상봉)이 들어와갖고 작년에 만났어요 형제들을. 그래서 그분에게 들었지, 그전에는 전혀 몰랐지요. 다 돌아간 줄 알고 제사 다 지내고 그랬지. 평양에서 좀 떨어진데서 사시나봐. 위 수술을 두 번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교사하던 웅택이란 분이신데 여기서는 결혼 안허구 거기서 결혼허구 아들만 둘이라던가 셋이라던가. 우리도 신청은 해냈는데 언제나 될건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도(형님께서도) 신청을 하면 빨리 되는데 고생하시나봐. 거기서는 간부급이나 정도 돼야 빨리 될 거 아냐 아무래도. 근데 거



큰시숙(左)과 둘째 시숙 한국전쟁 중 큰시숙(한영택)은 사망하고, 둘째 시숙(한웅택)은 52년만에 현재 북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서도 서로 자주 못 만난대. 전화도 없고. 이쪽 도에서 이쪽 도를 갈래도 무슨 허가증을 받아야 된단나? 그래서 자주 못 만나는 거지. 그 두 사람도 한 2년 전에 누구 결혼식이 있어갖고 결혼식에 왔다가 만났대. 남편이 나도 형님이 있다고, 형님이 살아계시다고 덜 외롭다고 그러더라구. 그 소리 듣고 난 다음에.

### 올케를 챙기는 시누이



호주여행 중 시누이 내외와 함께(1993년) 남편보다 여섯 살 위인 시누이는 한사코 마다하는 올케를 당신들의 회갑기념여행에 동반하였다

남편 누님은 남편보다 6살 위예요. 예순아홉 되셨나봐. 존함은 한혜택(韓惠澤). 영, 웅, 호 다음에 누님, 걸. 그 안에 여자분이 있었는데 돌아가셨대. 지금 흑석동 사셔요. 최씨네로 가셨는데, 시집가서 남편은 공무원 생활하시구. 그 분이 참 똑똑해, 고등학교 나오셨구. 우리 시누 존경해요. 머리가 비상하고. 일처리 참 잘하셔. 집안 내에 우애있고. 이 양반은 우리집에서 알아줘. 친정일에도 열심히 하셔요. 최씨 집안으로 만이로 가셨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잘 모셔갖고 효부상은 안 탔어도 하여튼 잘하셨어요. 남편 공경하시구.

당신 남편 환갑 때는 호주를 가신다고 그러드라구, 환갑기념으로. 고 두 분 사이에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남편은) 직장에 다닐 때

니까. 안 간다고 그래도 저를 고생했다고. 처음 해외에 나간 거야. 호주를 그 양반 덕분에 처음 간 거야. 그 형님은 그래도 많이 도와 주셨지. 큰 보탬은 안 되두 어려울 때.

## 6. 제례의 변화

### 큰제사 때만 늦그릇으로

그릇을 내놓으면 기왓장이 있더라구 한옥집이니까. 기왓장이 한두 개는 남겨져 있잖아

그걸 곱게 빵아갓고. 빵는 것은 생각 안나고 빵아놓은게 있더라구 한꺼번에. 그러믄 지푸라기를 몽치를 만들어갓고 물 조금 문혀갓고 그걸 닦더라구. 잘 닦이더라구. 그건 힘 없으면 안돼 힘이 있어야지. 그 일은 제사지내기 5일전에 해놔야지. 하루 종일 닦아야 돼. 혼자 닦는 게 아니지, 식모하고 같이 닦어. 손가락부터 젓가락부터 술잔까지 밥그릇 국그릇 시접이니 시접두 뭐 한두 개여, 시접도 많지. 마당에다가 명석 깔아놓고 그전에는 그렇게 닦았는데 지금은 또 약이 나왔대. 요즘엔 낫그릇 안 쓰고 제기가 나왔잖아 나무로 된 거.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그걸루 지내구 큰 제사때만 낫그릇으로. 그릇 뒷정리도 복잡해. 낫그릇은 그냥 물에다 하면 얼룩이 생기더라구. 먼저 젖은 행주로 닦고 그 담에 마른 행주로 한참 닦아야돼. 그래야 뽀얗지, 그렇잖으면 얼룩이 지더라구. 완전히 마른 다음에 갖다 집어넣어야 돼. 행주질도 두 번 세 번 해야돼. 젖은 거 마른 거 돌아감서.

### 종갓집이라 해도 푸짐하진 못해

시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온 다음에도 그때 큰제사는 여기 와서 지냈어요. 내가 (시집)오 나끼는 뭐 넉넉하게 풍족하게는 하진 않으시드라구. 워낙 넉넉하지 않아서. 정성드리라고 어머님이 그러시니깐. 장이 5일에 한번씩 서잖아. 5일장이 되면 장날 임박해서 제사하고 장날 비슷하게 해갓고 미리 다 사놓는 거지. 많이 푸짐하게는 못해도 기본적으로 다 놓고 했지. 우리는 거창하고 풍족허구 그런 종갓집은 아니지.

제일 먼저 일주일 전이면 마른 거 사. 산자, 약과, 북어 그런 거 사요. 상하지 않을 거 먼저 사놓고. 그담에 며칠 있다가 과일같은 거는 너무 일찍 사놓으면 그러니까 사흘 전에 나가서 과일 사구. 나물도 그때 같이 사. 같이 사서 냉장고에다 넣어 놓구. 히는 날은 워낙 바쁘니까 될 수 있는대로 안 나가지. 어찌다 내가 정신없어서 빠뜨린 거 있으면 나가서 사지만 웬만한 거 다 준비해놓지. 옛날에는 돼지도 잡고 그랬지. 큰제사는. 혼자 도저히 못해요. 어떤 때는 사람도 좀 사고, 그렇잖으면 아는 사람 좀 불러다 허구. 우리 딸들이 있으니까 많이 했지 많이 도와줬지.

### 한여름 큰제삿날

다른 기제사는 겨울이니까 전날도 부치기도 그러는데, 요 큰제사는 꼭 아침에 다 해야 돼. 음력으로 7월 열엿새, 한참 더울 때니까. 그 양반 제사(큰제사)는 여름이니까 미리 해놓으면 쉬더라고. 나물 세 가지 허고 적허고, 어적 육적 소적 산적허고. 육적은 쇠고기 어적은 생선 소적은 두부. 삼색과일 들어가고. 그 담에 산자 약과 유가종류 들어가고. 꽃감



초헌례(서현강 사진) 신위 앞에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으로, 초헌관은 종손이 맡게 된다



사신례(서현강 사진) 작별을 고하는 의식으로, 참사자 일동은 큰절을 두 번 하여 예를 다한다



큰제사에 사용하는 바리(左上), 주발(右上), 시지와 술잔받침(서현강 사진)

대추 밤. 밤 대추는 꼭 끼어야 된다고 그전부터 그러시대. 자식이 잘 된대. 밤 대추는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구. 탕, 무 넣고 쇠고기 넣고 육탕 소탕 어탕 있어요 따로 따로. 고기넣고 바다 해물 넣고 그 담에 두부 넣고 그렇게 따로따로 담아야지. 생선도 큰 것도 못허구 쪼그만 거 놓시고 정성으로. 저 아래는 굉장히 거창하게 지내대. 전라도니 경상도는 엄청나게 지내잖아요. 해물도 뭐 문어서부터. 근데 우리는 종가집이라 해

도 특별하게 저기헌(차리는) 게 없는 거 같애. 그렇지만 밤에 지내면 동네를 다 돌려요. 조금씩이라도 돌렸어 그 밤중에. 집집마다 제사는 틀리잖아요. 우리 친정집에서 보기에는 닭같은 거는 제사상에 안 올렸거든? 그런 거 못봤어. (여기는) 닭 삶은 거 올라가고 그러더라구. 그래서 이상하다 했지.

### 한나절이 걸렸던 열네 반상

제사는 (일년에) 열네 반상을 다 지냈어요. 정월 초이튿날, 정월 초나흔날, 삼월 열이튿날, 사월 열... 하여튼 다 기억이 안나. 겨울서부터 봄 사이에 많구 여름에는 없어. 여름에는 한준점 그 양반만 혼자 있어, 가을에 한 분인가 있구. 겨울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더 힘들어. 근데 어머님은 저한테 한번 힘들게 했다는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 전에는 다 지냈죠. 옛날분들까지 다 지냈죠. 그래서 열네 반상이 된 거죠. 아후! 옛날에는 무척 많았어요. 하여튼 떡국을 끓인 걸 쏟아놓으면 소쿠리로 하나야. 매 반상마다 새로 끓여야 했으니까. 그걸 붙은 걸 한달을 먹었어. 한 반상을 허구 다 물리고 또 한 반상. 그러니까 제수도 엄청나게 장만한 거지. 두 분 지내잖아요? 두 내외 분. 그걸 다 치워요. 간장서부터 싹 갈어(새로 바꿔). 과일이구 전이구 다 가는 거야. 그래 제사 시간을 아침 일찍 서둘러도 점심 때나 돼야 끝나는 거야. 추석이나 설날에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는 제사를 지내면 몇 시간씩 지내야 돼요. 그렇게 그전에는 열네 반상을 다 장만하는데 많이 해야해. 한준겸 그 양반은 저 사당에 가서 지내. 그 양반 외에는 거기서 못 지내요.

### 맹헌 잡수셔서 열네 반상이 네 반상으로

지금 제사는, 신산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나고 내가 많이 편해졌지. 왜냐면 고속도로 난 거기에 많이 계셨거든 산소가. 그거 다 없애구 이왕 이렇게 된 거 종친회에서 다 의견이 났지. 그래서 제사가 줄은 거지. 그 다음부터 간략화 된 거지. 묘가 아니라 그 안에 향아리에다 유골만 담아서 비석만 세워놨지. 옛날 양반들은 맹헌 잡셨다고 그러대? 맹헌 잡수셔서 인제는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고 그러시드라구. 한 4년 됐나? 그때부터 4대까지만 지냈죠. 저 양반(한준겸) 한 반상 물리구 그냥 다른 조상들도 열 몇 분 같은 상에다 그냥 허구 나머지 시아버님허구 시어머니 한 반상 해가지고 세 반상을 지내요. 추석이구 정월(설날) 때는 다 각자 지내니까 우리집 양반 혼자 지내지 혼자. 제사를 확실하게 지내는 거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는 웬만하믄 성당에 다니니까 거기서 그냥 미사 드리고 그래요. 지금은 2대밖에 안 지낸다는데, 우리는 다른 집에 비하면 많이 지내는 거래.

### 낮시간대로 옮긴 큰제사

큰제사 때는 다 나이 잡수신 분들이 올라오시드라고. 그래서 제삿날이면 많이 올 때는 뭐 스물다섯 명 삼십 명 그랬지. 남자분들이 많았어. 전라도 경상도 하여튼 각도에서 다 오셨기 땀에. 집안에는 가깝질 않으니까 워낙 손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튼 한씨라고 하면 다 왔으니까. 헌집이 있을 때는 사랑방에(묵었지). 제복 등은 여기 다 준비되어 있지. 내가 며칠 전에 다 손질해놓고, 오시면 다 건 쓰고 위에 도포 입고 (제사를) 지내셨지.

큰제사는 돌아가신 저녁 12시를 넘어서 그 다음날 낮에 열두시에 지내요. 낮에 지낸 지가 여기 이사왔갖고야. 그게 알아보니까 그래도 관참대, 저녁까지만 지내믄 된대. 자정까



신도비 너머 보이는 선산(1970년대 초반) 한준겸 신도비의 바로 뒤로 고속도로가 나면서 종종 선산이 양쪽으로 나뉘게 되자, 신도비는 도로 건너편에 있는 한준겸 묘 옆으로 옮겨놓았고, 그 옛자리는 현재 주춧돌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도로가 나기 전까지 이 일대는 해마다 봄가을이면 인근 학교의 소풍장소로 각광받기도 하는 곳이었다



아이들의 놀이터였던 신도비(1970년대 초반)



새로 조성된 침주 한씨 묘역 고속도로 부지에 있었던 선영들을 옮겨와 종택 뒤에 매안하였다

지 안에만 지내면 된다고 그러더라구. 전날 자정부터 그 다음 날 자정되기 전까지만 지내면 된다고 그러드라구. 시집을 때는 안 그랬지 밤에 지냈지, 그때는 어머님 계실 때는. 우리 시어머님은 6·25 때 폭격이 떨어지고 그러는데도 이불 쳐놓고 제사지냈대구 그러더라구요. 불빛 안 나가게. 밥도 쌀밥이나 돼요. 그래도 하여튼 안 빠뜨리고 지내셨대 뭐 한 가지를 놓고 그래도, 서울 살 때도 꾸준히 제사는 지냈지요. 시어머니께 “뭐 없는데도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그래도 지내야 한다. 맹국을 끓이더라도 지내야 한다” 그때도 열심히 지냈지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 달라진 제사 풍경

요즘에는 각 도(道)에서 안 와. 점점 갈수록 밤에들 못 오시드라구. 노인네들이 연세도 있구 그러니까. 인근의 서울 3년 전까지만 열 분 열다섯 분 정도 오시드니 작년부터 많이 돌아가셨어. 그래갖고 뭐 일곱 분 다섯 분 오셨나? 다 칠십살로 팔십살 다 넘으셨죠. 아침에 오셨다가 낮에 지내시고 바로 가시고, 그것도 우리가 봉고차를 대고(대절) 이렇게 해야 오시지, 파고다공원에서 한테 모이서 갖고. 이제 그 양반들 돌아가믄 못 올 거야. 지금 젊은 사람들 그렇게 참석하라고 해도 안 오드라구. 자기 식구밖에 몰라 요즘 젊은 사람들.

근데 나이 잡셨으니까 며느리 두고 있을 거 아냐? 부인들도 안 오셔들. 남자들만 오시지. 와서 좀 차리는 데 놔주기도 허믄 좋은데 안 오시드라구. 어쩔 땐 너무 진짜 야속해. 남자들분만 (오시는 게). 같은 조상인데 좀 와서 좀 숟가락이라도 놔주면 좋은데. 귀찮아서 그렇지. 언젠가는 한번은 몇 분은 모시고 왔더라구. 한번 오고 안 와. 그때는 그래도 식모가 있구 그랬잖아, 어머니도 허시구 그러니까 덜 힘들었지.

## 7. 종택과 선산

### 터가 섰다는 헌집

시집오니까 이 집 옆에 기와집<sup>10)</sup>이 있었는데 그 안에 사당이 있드라고 조그맣게. 이 동네는 그 전에는 아파트도 없고 다 초가집인데 우리집만 기와집이었어. 집이 넓었지. 원래 헌집은 아흔아홉 칸이었대. 그런데 헐리구 우리 아버님이 지신 거래. 짓는 동안에 유문형 씨<sup>11)</sup> 집 외가 동네 있는 고 아래 동막골이라나? 거기 가 계셨대, 식구가 다. 이거(헌집) 짓는 동안에. 거기서 사셨대. 외갓집은 아니고.

집터가 그렇게 섰대요. 어머니가 밤이면 뭐 허는 소리가 들렸대. 어쩔 땐 나가보믄 빗자루가 지붕 꼭대기에 있고 솔뚜껑이 올라가서 있고 그랬대. 난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직접 겪으셨어. 그래서 해마다 굿을 안하면 안됐대요. 내가 와갖고도 한 1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은 꼭 허셨거든. 동네 무당이 하나 있었어. 그 사람 불러다가. 신발장이 지붕 꼭대기에 가서 없나, 아침에 나오믄 난장판이래. 그래 자식들을 많이 잃으셨

10) 헌집을 말한다.

11) 시어머니의 바로 아래동생인 해업(海擘) 씨의 아들로, 시어머니에게는 큰조카가 된다.



현집의 대문 앞에서(1960년대) 남편 양옆으로 집에서 일했던 일꾼들의 모습이 보인다. 대문 오른쪽은 머슴방이, 왼쪽은 사랑방이 있었다

대.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자녀가 누나 하나 동생 하나 둘밖에 안 잃었는데, 우리 시할머니는 그러니까 손이 없는 거야 다 잃으셨대. 낱기만 하든 며칠 있다 죽고, 낱기는 많이 낱았는데 죽었대. 그게 터가 세 갖고, 그래서 시아버님. 큰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동네서 이 터 센 집이라고 소문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올라갈 때 말길라구 누가 와서 살라고 그러든 안 살라구 해 터가 세 갖고, 그 집 가든 큰일난다구. 그렇게 자식을 다 잃으셨대. 시집왔을 때 시아버님도 안 계셨구, 어머니만 혼자 계셨지. 나 시집오고 그 이듬해 환갑하셨거든. 시어머니가 40대 중반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야. 그

래갖고 이 새집은 누가 자리를 잡아줘서 좋다고 해갖고 옆으로 옮긴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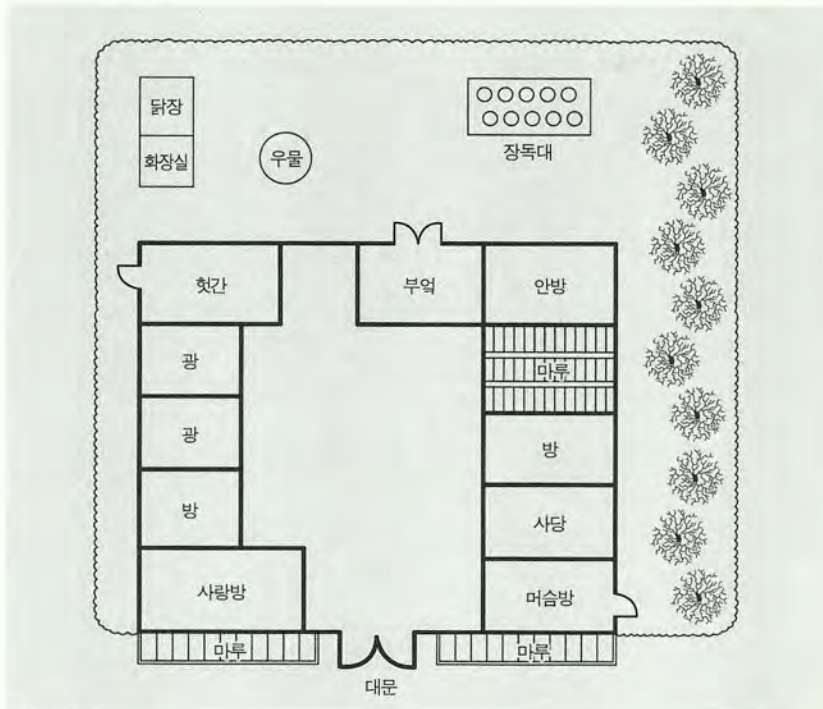
### 아까운 응무늬 약장

막(시집)왔을 때 워낙 없어갖고 종갓집이다라는 느낌은 없었어. 말만 종갓집이지, 뭐 특별한 물건이 없더라구. 옛날 사람들이 그렇지 뭐, 살림이 뭐 있어. 쌀 뒤주 큰 것도 있었지. 근데 다 없어졌어. 다 파셨어 웬만한 거는.

우리가 서울 가서 살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 때야. 서울서 내려오면 돈이 아쉬우신지 우리 집이 종갓집이니까 그렇게 고물장사들이 많이 드니들었어. 맘이 약해서갖고 이것 좀 팔라 그러면 넘어가신다구. 그래서 팔구 그랬거든. 약장도 시뻘건 용으로 된 약장이 이만한 게 참 좋았어요. 어느 날 왔더니 그것까지 다 파셨어. 내가 이거는 세상 없어도 어머니 돈 없으시든 제가 어디 꾸어서라도 드릴 테니까 이것만은 팔지 마시라고 했더니 파셨어. 그건 지금 생각하든 너무 아까워. 지금 있으면 그거 굉장히 좋을텐데. 그래서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은 장(幘) 조그만한 거 하나 어머니가 쓰시던 거 그거 있어.

### 통째 없어진 반단이그릇장

시집오기 전에 근데 유기늬그릇 사기그릇도 있고 그런데, 반단이 모양으로 된 제기그릇



현집 평면도

넣는 데가(그릇찬장) 있는데, 그걸 다 도둑을 맞았어. 도둑맞은 때가 우리가 여길 안 살 때니까. 뭐 하나하나 들씩 없어지더니, 그때 현집은 우리 일꾼허구 짝 지어 준 식모 그 두 내외가 지키면서 농사 다 맡아서 여기를 관리하고 그랬지. 식모는 우리집에서 13~14년을 살았어.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있는 사람에게 얘기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사오고 몇 개 남은 거 저쪽 현집에 있었거든 여기 짓고도. 거기다 놔뒀는데 하루는 가보니깐 차가 와서 실어갔나봐. 제기 들어있는 반닫이까지 없어졌어. 흠랑. 누가 알고 가져갔지. 우리가 잘못으로 잃어버린 거지. 상당히 오래된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사기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거여. 그걸 갖다가 팔아먹었으면 값을 꽤 쳐줬을 거여. 놋그릇은 내가 여기다 들여다 놔거든. 지금도 수저가 이렇게 (손에서 팔꿈치까지 가리키며) 길어요. 근데 그걸로 어떻게 잡셨는지 닳았더라구, 귀통이가 닳았어요. 젓가락은 괜찮은데, 수저가 그렇게 닳았더라구.

### 살림집과 사당을 성주하다

헌집은 헐렸는데 도에서는 헐지 말라 문화재로 그대로 뒤라 했는데 이게 사람이 안 사니까 자꾸 내려앉는 거여. 그냥 폭삭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지을라니까 돈이 없고. 그래서 저걸 헐어버리고 그냥 두자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를 줄까 그러다가 그냥 공장(조립식 공장)을 지어갖고 세를 준 거야. 공장은 우리가 지어서 임대해 준 거지. 바로 옆의 공장 그대로 옛날 헌집(자리)이에요.

이 집도 돈이 있어서 지은 게 아니라 마침 이 고속도로<sup>12)</sup> 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우리 산이었는데 거기가 잘렸어 가운데로. 거기서 보상이 나왔어요. 그 돈으로 지은 거지. 이게 한옥이 그 돈 다 들어갔어요. 그렇게 비싸더라고 이게. 아후~ 엄청나요, 몇 배예요. 보는 사람은 좋대는데. 그런데 이게 잘 짓지는 못했어. 우리 처음 경험이라 잘 못 지었어요. 96년도에 짓구. 여기서 깎구 그랬거든 여기 터가 넓으니까. 한 2년 정도가 걸렸을 거예요. 한옥은 불편하잖아 아무래도 지금 세대는. 근데 나는 여기다가 사당만 짓고, 살림집은 통나무로다가 2층으로 아담하게 지을라고 그랬거든? 근데 도(道)에서 여긴 도문화재이기 땀에 한옥을 지어야 된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었는데 너무 불편해 사는 게. 96년도 겨울에 완공이 되어갖고 우리가 여기로 97년 정월달에 다 끝날 무렵에 이사왔거든.

### 350여 년 전의 조상님

고속도로 날 때 산소를 다 뺐(뺏)잖아요. 몇 백년된 거. 한준겸 씨 바로 밑의 아드님인가 되지. 한 삼백 년됐다 그러는데, 어찌면 관이 하나도 안 썩고 그냥 미라예요. 썩질 않았어. 몸도 그대로. 머리로 다. 이상하게 두 분을 모셨는데 한 분은 다 썩었는데 요쪽은 안 썩었어요. 350년 됐다나? 400년 됐다나? (둘 중 어느 것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지요. 알아볼 수가 있어요? 머리가 새까만 게 이렇게 긴 채로 있어. 너무 무거워서 포크레인이 들었다니까. 옷감이 찢는 것도 그대로 있어 안 썩고. 근데 한 분은 다 썩어갖고 관의 물이 흥건해. 관을 어찌나 잘 썼는지요 관의 못질도 안 허고 나무로 허고(박고) 회로 허고 그래갖고, 어휴~ 튼튼허기가 말도 못해. 그런데 한 분은 다 썩어갖고 물이 됐잖아. 그 물이 또 뭐 간질에 좋다네? 노르스름허더라고. 그 물두 받아가려구, 그 물 먹으면 간질병이 싹 낫는데. 그게 몇 초롱이 돼. 비닐로 물 뜨러 다니는 통 있잖아요, 그걸로도 병으로도 받아가고 그랬으니까. 확실한 건 몰라도 꽤 많이 나왔어. 다들 가지고 갔으니까. 그래갖고 시신이 썩지 않은

12) 서해안고속도로를 말한다.

것은 항아리에 못 넣고 묘로 다시 해놨지. 썩어 없어진 한 분 뼈는 그대로 맞춰서 안에 같이 넣어놨지요.

### 선산의 석물을 도굴당하다

95년도인데 이사오기 직전에, 이장은 다 끝낸 다음에. 이것 옮기고 거기 다 세워놨을 때지. 그때는 거기 문을 안해놨었거든.

한번은 우리가 (이사를)오기 전에 우리집 보는 사람이 산소가 파졌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와서 보니까 산소에 구멍을 뚫어놨는데 관이 비이는데(보이는데) 관을 못 들어냈어. 관이 하얀 회로 돼있더라고. 굉장히 단단하더라구요. 어



한준겸 묘 앞의 동자석 도굴당했다가 1년만에 다시 찾은 동자석이 상석 양쪽에 서 있다

머어마하더라구. 그래서 도둑들이 파다가 말고 그냥 갔대니까. 봉분 앞에다 놓은 조그만 동자석만 가져가고. 전국적으로 해놨거든 수배를.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갔더니 우리 거라고 그러더라구. 한참 후에 찾았어, 1년 후에 찾았나? 근데 찾기는 요 근처에서 찾았다고 그러대, 안산에서. 그래갖고 그거 찾아오고 난 담에 철망 다 하고 문 딱 해갖고 열쇠를 채워놨지. 거기를 울타리로 다 했어요 철망으로.

### 선영관리

시(市)에서는 봄이면 이 집과 사당에 나무에 벌레 생기질 말라고 약 뿌려주고 저쪽 한준겸 씨 묘에 추석 전에는 한 번은 거기 벌초해줘요. 선산 여기는 종친회돈으로 다 해야 하는데 관리비가 무척 많이 들어요 지금. 여름이면 풀이 엄청나게 자라거든. 여름에 한 세 번을 깎아야 돼요. 이 전체를 산이고 뭐고 다 깎을래면 여름 한철에는 한 100~200만원은 가져야돼. 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사람을 얻어서 돈주고 해야 될래니까. 그 돈은 우리가 다 해야지 종친회에 돈이 없으니까. 그게 힘들어.

## 8. 생각만 해도 눈물나는 시어머니

### 피주기 좋아하시는 어머니

시어머니 존함이 유(柳)자 증(憎)자 애(愛)자를 쓰셔. 미워할 증, 사랑 애를 쓰세요. 안산에서 오셨어. 애 아빠한테 들어보면, 손이 귀한 명문 종가에서 아들을 학수고대하였는데 큰 애로 딸을 낳으신 거야. 그래서 외조부가 그냥 미울 증(憎)을 넣어 지으신 거래요. (웃음)

그전에는 이 주위 모두가 한씨네 땅인데 시할아버지가 여자를 좋아하셔서 갖고, 하룻밤 자고나면 이 땅 떼 주고 저 땅 떼 주고 그래갖고는 땅을 다 팔아잡숫고 돌아가서 갖고, 우리 어머니도 처음에 시집 와갖고 고생 많이 허셨대. 끼니가 없으셨대 하여튼. 말씀이 없으시니까 힘들다 그래도 힘들단 소리도 안하시구. 그래도 그 헌집에 계실 때 거지가 잘 찾아왔어요. 한번도 그냥 보낸 거지가 없어요. 아예 밥상이 따로 있어요. (피주는 시늬를 함) 그냥 이렇게 막 주는 게 아니라 시커먼 밥상이 하나 있더라고 (시집)오니까. 꼭 거기다 채려서 한옥 옛날 바깥의 쪽마루에다가 췌어요. 거지들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구 장사(장수) 오면 아무렇게나 그냥 보낸 적이 없고. 그러구 6·25 때도 서울서들 다 친척들, 사람들이 와서 밥 먹을 게 없는데두 죽을 먹드래두 여기 안 있다간 사람이 없어, 우리 집에서 안 있다간 사람이.

### 호미질 허구 밭을 맬망정

우리 어머님은 식모가 있고 그러니깐 부엌 살림은 몰라. 나가서갖고 속으로 화가 많으시니까 아들 다 잃어버려 영감 그렇게 가서, 저 관악산에 가서 일꾼을 데리고 시신을 찾아온 양반이여. 그렇게 대범하셔요. 그런데두 그렇게 남매 키우시구, 제사 다 지내시구. 내가 시집오니까 부엌엔 통 안 들어가시고 그냥 밭으로 나가시더라구. 바깥에 나가셔서 호미질 허구 밭 맬망정 부엌살림은 몰르셔. 그러다 (잘되기를) 바라고 있던 막내아들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우리 시어머니 너무 좋으셔, 그런 시어머니 없으셔. 천당 가셨을 거야.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내가 착해서 어머님 모신 줄 알아. 근데 또 그래 서로가 잘해야지 한쪽만 잘 허면 또 그렇더라구. 어르신이 잘하시니까 나두 못되게 못하겠더라구 나도 잘하게 되구. 너무 워낙 잘하시니까. 시집살이는 그런 거 없어. 간장, 고추장도 당신이 움직이실 때까지 담으셔서 난 지금 간장 고추장 잘 모르잖아. 워낙 그전부터 식모 두고 사셨기 땀에 음식솜씨는 아주 좋으신 건 아니신데 안해 보셔서. 참 심

성이 고우셨어. 꿈속에서도 뵈었으면 하는데 안 오시더라구.

### 하루 일곱 번 투가리 미역국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인자하시구 남 주기 좋아 하시구 굉장히 인자하세요. 내가 우리 애들을 넷 키웠는데 육 한번 하신 적 없고 이렇게 한 번 때려 본 적이 없어요. 암만 애들이 말썽을 부려두 그렇게 인자하세요. 외아들<sup>13)</sup>에 와서 딸만 내리 셋을 낳았는데 한번을 쟁그리신 적이 없어, 제가 외려 쥐구멍이라도 어디 찾아(들어가고 싶도록) 생전, 어느 시어머니는 뭐 또 딸 낳았다고 미역국도 안 주고 그런대는데, 저는 미역국을 시어머니가 식모



60대 시절의 시어머니(1970년대) 지금도 안운자 종부에게는 눈물나게 하는 심정이 착했던 분으로, 생전에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항상 칭찬을 해주셨으며, 90수를 누리다 가셨다

가 있는데도 직접 끓여 주셨어요. 요만한(양손을 둥그렇게 보이며) 투가리에 바글바글 끓여갖고 하루에 일곱 번을 주시는 거야. 진짜 그 미역국을 생각하면 지금 너무 맛있었어요. 밥도 찬밥 한번 안주셨어. (양손을 공기그릇 크기 만하게 둥그렇게 하며) 요만한 데다가 끼니때마다 일곱 끼를 그렇게 해주셨어. 그렇게 부엌에 안 들어가시는 양반이, 나는 그 복(인복)은 있는 것 같애. 막내손주를 낳았다고 하니 가 너무 좋아하셨지. 아빠는 모르지, 아팠을때니까. 또 딸 낳았으면 안되지.

### 어떡허냐 나뭇에 수고를 해서

시어머님은 90세에 돌아가셨어. 88잔치를 헤드렸거든요 63빌딩에서. 그때만 해도 걸으셨는데 그 이듬해가 그 헨가 운동부족으로 그런지 다리를 못 쓰고 일어나지를 못하시더라구.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1년을 그냥 누워계셨어요. 대소변을 다 받아냈는데. 워낙 노환이었으니까. 그래서 기저귀를 채워 드리면 다 빼버리구 그냥 밑으로 싸서, 핀으로다가 옷에다 찢러도(고정해도) 용하게 빼내서, 돌아가실 때까지 빼내시대. 그렇게 싫으신가봐, 답답하고. 그럴 때는 막 성질이 나더라고. 좀 귀찮아서 (통명스럽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허세요” 그림서 내가 기저귀 채워드리면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어휴 어떡허냐 이

13) 남편을 말한다.

렇게 수고를 해서 나뻘에 수고를 해서" 그러든 내 속이 좀 누그러지고, 아휴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막 했던 게 사라져요. 뭐든지 그렇게 칭찬해주시구 진짜 지금 생각하든 어머니한테 배운 거야. 내 자식 며느리한테도 칭찬을 해야 되겠다. 꾀고 꾸짖는 건 별로 없었어. 꾸짖으셨던 생각은 하나 안 나. 칭찬을 많이 하셨지. 돌아가신 날은 그동안에 내가 너무 힘들어선지 눈물이 안 나더라구. 근데 한달 지나니깐 어머니를 생각하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나한테 잘해주시구 진짜 친딸 모냥 해주셔서 지금 생각하든 너무 눈물이 나. (울음)

서울 계시다가 여기 집 짓구 1년 있다가 돌아가셨지. 이 집은 97년도에 이리로 왔거든. 여기서 그래두 1년 사시다가 (돌아가셨지). 그래서 지금두 어머니가 한번 오셨음 좋겠어. 내가 엄마없이 자랐는데 너무 나한테 잘해주셔갖구, 너무 착하시구 너무 좋으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 육식을 즐겨하신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육식을 좋아하셨어요. 육식을 참 좋아해서 갖고 일주일 이상 (육식을) 안 잡수시면 속이 또 이상하시더라구. 속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고기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없어도 그건 꼭 해드렸어요. 벌써 며칠 지나면 잡수시고 싶으실 것 같애. 그래서 갖다드리든 너는 어찌면 내 속을 그렇게 잘 아냐? 그러구 고맙게 잡수시고 꼭 그러셨어. 곰국 그런 걸 좋아하셨어요. 곰국은 내가 안 떨어뜨렸어요. 돌아가실 때도 편하게 돌아가시고, 좋은 데로 가셨을 거 같애. 내가 엄마 정을 못 느껴서 어머님한테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이 또 잘해주시고, 고부간의 갈등 그런 걸 몰랐어.

## 9. 계모가 있는 친정

### 딸네집에도 못 와봤던 친정아버지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소심하시구 내성적이시구 아주 점잖으세요. 은행가셔서, 정직하시구 그런 양반이거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착하셨어. 내가 시집와서 여기 사는 동안에 딸네집에 한번이라도 가보고 싶은 생각이 왜 없으셨겠어요? 딸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도 못 보시구 돌아가셨어. 한번도 못 오셨어요 못 가게 해서.

술도 안 잡수시고 담배도 안 피시는데 스트레스맵에, 내성적인 사람이 속으로 병이 생기

잖아. 간경화가 대부분 보른 내성적인 사람이 많이 있거든. 걸으로 확 못 푸니까 고것만 속으로만 썩히시니까 병이 된 거야. 그래갖고 고 직전에 저희 아버지가 간이 안 좋으셔 갖고 간경화로 돌아가셨거든요. 쉰두살에 너무 일찍 가셨어요, 엄마도 일찍 가신데다가. 제가 시집 온 다음 고 이듬해 돌아가셨어요.

### 사위에게까지 박정했던 계모

그때는 모두들 많이 (학교를) 못 갔지요. 근데 내 생활 형편에서는 내가 대학에 충분히 갈 수 있었거든. 아버지가 은행에 계시고 하시니 살기는 부유했거든. 아버지가, 공부하면 유학까지 보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대학간다고 하니까 자기 자식들 공부 못할까봐 내가 가문은 니 동생들 못한다 이거죠. 워낙 욕심이 많아요 그 양반이. 그 양반(계모)은 또 얌전한 성격이 아니야. 그러니까 막 해대구 다 얘기 허는 거지. (나는) 될 수 있는대로 (계모와) 안 있지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해요. 계모는요 변덕이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던 말을 그냥 모함을 해갖고. 그러면 내가 기가 막혀요 아주.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은 거지. 여기 와서 후회도 허구 많았겠지. 아버지와 차이가 열한 살 나요. 아버지도 연세도 있고 하니까 나를 학교 보내주잔 말을 못해 계모한테. 여자가 그러니깐 남자는 따라가고 기를 못 펴요. 워낙 착하기 땀에 그걸 꺾질 못해. 이 양반(남편) 같으면 어렵도 없지. 그 때만 해도 집이 두 채고 그랬는데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도 우리 동생 얼마든지 대학 2년 뒤 자기가 뭐 허면(생각을 해줬다면) 마쳐줄 수 있지 그걸 못 마쳤어요. 원체 나는 못 갔으니까. 내가 시집을 와서도 내가 또 형편이 안되니까 내가 그걸 못 마쳐준 거지. 그게 참 진짜 생각허면 참 걸리지 서럽고.

기억에 남는 건, 내가 직접 못 들었는데 한번은 결혼을 허고 시골서 살 때, 이 양반이 서울 친구들을 만나러 올라갔는데 술은 만취되고 통행금지는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못 내려오는 거지 시간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친구들에게 우리 친정집을 가르쳐 왔나봐. 날 거기다 데려다 달라.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드래. 그때는 누하동이었는데. 근데 그 애길 (남편이) 나한테 안해. 누구한테 들었냐면 날 중매해준 사람에게 들었어. 그 정도로 내가 마음적으로 많이 고생이 됐지.

### 계모의 타박과 이복동생들

그러구 우리 계모가 생일이 우리 시어머니 생일 하루 전날이야. 우리 시어머니는 생일 정월 스무이튿날이구 계모 생일은 스무 하루예요. 그래서 내가 시골 살 때 젓먹이를 업고

게모 생신이니까 가잖아요? 가갖고 고 이튿날 생신이면 뭘 또 사갖고 와야 되잖아. 그게 맘에 안들어갖고 자기 시어머니 생신은 저런다고(챙긴다고)…, 그게 왜 이해 못해요? 그걸 이해 못허고 막 투덜거리구. 또 어떨 때는 못 가요. 여기는 손님들이 오니깐 생신 때 못갈 때가 있지. 전날이니까. 그럼 또 안 온다고 야단이구 가면 간다 오면 또 와서 어떻게 한 다구(야단이구). 하여튼 잔소리가 많았지. 그 양반은 엄마라고 부를 때가 있구 안 부를 때가 또 많고 그러잖아요? 엄마라고 안 그러다고 또 야단이에요.

거기 애들 들은 참 착해요 이복동생들이. 안 배웠으면 안 배운 사람이라 몰라서 그런대지만. 이렇게 사이좋은 걸 또 못 봐. 그래갖고 떼어놓으려구 그냥 내 욕을 허고, 앉으면 그러는 거지. 세뇌교육을 받는 거야, 앉아서 즈이 엄마한테. 그래서 거리가 멀더라구 암만 착해도, 개네들은 대학 다 졸업했어요. 아들허고 딸허고, 딸도 약대 나오고 해가지구 지금 약방허구 있는데. 남동생과는 두 살 차이고, 호랑이 띠니까 쉰다섯 살, 그 다음이 양띠니까 쉰 넘었지.

## 10. 요즘의 생활

### 남편의 근황

여기 이사 와갖고는 사학진흥재단 거기로 사무총장으로 발령이 나갖고 거기 한 3년 다니다가 지금 그만 둔지가 한 3~4년 됐나봐. 57세에 다니기 시작해서 60이 돼서 그만 뒀나봐. 3년 임기 채우구 나왔지. 발이 넓지 여기 지금도 이름대면 모른 사람 없지. 나이가 들어가니까 기운을 못 차리고 (사고 당시) 워낙 피를 많이 흘려놨기 땀에 좀 힘들어요. 건강 하지 못해요. 지금도 아픈 데가 많아. 일주일이면 두세 번은 가야돼.

지금 종친회 회장이구 사무실이 종로에 있어요. 자주는 안 나가고 제사 때 회의허고 그러지 한달 전에. 일년에 한번인가 간부들 한번씩 다시 저기(선출) 허구 그러대. 종친회에 워낙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힘드신가봐 이끌고 나가기가. 젊은 사람들이 같이 호흡이 돼서 하면 좋은데 다 노인네들 다 70들 넘은 노인네들이니까. 그니깐 총무 겸 다 혼자 끌고 나가지.

우리집 양반이 다리가 그러니까 내가 다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지. 하다못해 별난 데 다.



창경원 식물원 앞에서(1972년)



시어머니의 미수연 때(1995년, 시계방향으로 큰딸 지원, 막내 성우, 시어머니, 둘째딸 병숙, 셋째딸 병주, 남편)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구. 우리집 양반도 운전을 허는데 좀 서둘리요. 그래서 내가 차의 사고가 무서워서 힘들어도 내가 하고 다니지. 근데 좀 여자가 안 갈 때가 있잖아. 웬만한 데 남자분들 만나는데 나도 가서 만나고 그랬거든. 그럴 땐 나갈 때 신신당부 하지 차조심 하라구.

남편 성격은 몸이 그래도 하나도 비판하지 않아요. 내가 외려 그림은, 뭐 이런 사람도 있구 저런 사람도 있는데 뭘 그러냐. 그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비판이 되갖고 자살한다 뭐 어쩐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몰라. 긍정적이고 결심이 대단하구 그래요. 당당하구 남자답고 안되는 거 없고 뭐든 할 수 있다 그거지.

### 1남 3녀 자녀들

애들이 공부를 잘했는데, 큰 애가 이대 간다고 그랬는데 근데 못 보내줬더라구. 니가 웬만한 데로 낮춰서 가거라 장학금으로 다. 어떡허느냐 장학금으로 해서 가거라. 그래서 수색에 있는 항공대학을 갔어요. 거기서 4년을 장학금을 타 갖고 졸업하고 ○○통신에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비율이 높았는데. 거기서 칠팔년 다녔지. 다니다가 ○○○에서 끌어

간 거야. 작년에 결혼하구. 둘째도 고것도 공부를 잘하구 전교 1등을 하구 그랬는데. 낮춰서 가라 그래서 가까우니까 국민대학 들어가서 장학금으로 가 졸업하구. 셋째딸은 명지여고를 다녔어. 한번은 내가 야구르트를 할 땐데 (선생님이 불러서) 학교를 들어갔어 명지여고를. 담임선생님이 여자분이셨거든. 갔더니 “병주어머니! 병주 대학가는데 저기(인하공전) 좀 보내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스튜어디스로. 병주가 예쁘고 그러니까 거기 보냈으면 좋겠대. 그러지요 뭐 그래서 거기(인하공전) 보냈어. 졸업하구 ○○항공 취직했지. 그리고 막내는 중학교 때 야구르트 하고 그러는데, 공부 잘 하구 1등하고 그랬는데 사춘기에 내가 집에 없고 그러니까 공부를 점점 안 허드라구. 할머니가 계셔도 여자애랑 틀리더라구. 그러더니 공부가 아주 뒤떨어지더니 대학갈 썸 되니까 아주 안되더라구. 그래서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갔지.

큰딸은 서른아홉 작년에 시집갔어. 둘째딸이 서른일곱, 셋째딸이 서른다섯. 막내 성우가 74년생, 두 살 터울에다가 셋째딸하고 막내는 네 살 차이지. 큰딸이름이 한지원, 둘째가 한병숙, 병자 돌림으로 지 고모가 지어주시구, 셋째가 한병주, 넷째가 한성우. 넷째는 병자 돌림인데 귀한 아들을 얻었다고 김봉수 작명소를 갔더니 병자로는 이 애한테 좋은 이름이 없다고 그래갖고 성우라고 지은 거야 호적에만 병승(丙勝)으로 돼있고.

작은딸이 먼저 (시집을) 갔어요. 즈이 고모가 중매한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큰딸이 작년에 가고. 직장에서 직원이 중매했대나? ○○○에 다니다가 우리 큰딸이 머리가 좋거든. 그렇게 결혼을 허라고 해도 안허더니 자가 어떻게 골라 잡아갖고 갔어. 지금 분당에서 사는데 지금은 직장에 안 다녀(사위와는) 네 살 차이여. 다 짝이 있더라구. 우리 딸들이 다 키들이 크고 날씬날씬해요. 셋째딸이 굉장히 이뻐. 개가 ○○항공 스튜어디스 8년을 다녔어요. 스마일로도 뽀하고 그랬거든. 근데 8년을 다니니깐 이런 데(은 몸)가 죄다 아프고 못 다니겠대, 너무 힘들어갖고. 나와갖고 지금 다른 직장엘 다니는데 결혼을 안했어. 눈이 너무 높아갖고는 못가는 거여. 그래서 지금 남매가 서울 홍제동 아파트에서 둘이 살어요. 우리 애들이 할머니한테 자라갖고 어른한테 잘해요. 지금도 양쪽에 다 시어머니가 계신데 너무 칭찬이 대단해. 아들은 기둥으로 하나만 있는 게 좋구 딸이 역시 많은 게 좋아. 요즘에는 다 잘하잖아. 그전에는 안 그러더니 우리집 양반이 아들 있으니까 든든하다고 그러더라구. 저번에 월급 타다가 보너스 탔다고 갖다 주니까 너무 좋더라구. 작년에 취직했는데. 취직도 좋은 데 잘됐어요.

## 천주교 입교 - 제사 안 지내면 못 나옵니다

성당은 서울로 이사오구 한참 살다 그랬지. 우리집이 성당에 다니는데 식구가 모두 84년도에 홍제동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시어머님은 마리아, 우리집 양반은 야고보, 나는 안젤라, 우리 애들은 잊어버렸어, 세례받고 바로 냉담들 해갖고. 시어머님은 그전에는 미신을 믿으셔갖고 1년에 한번씩, 내가 시집을 오니까 곳을 허시드라구. 그렇게 미신 믿고 그러시다가 잘 되는 것도 없고, 84년도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허고 그러니까, 성당에 나가시는 지금 불광동 시는데 애 아빠 친구분이 성당에 나가자구. 뭐 곳을 허고 그러냐고.

처음에 신부님한테 가서 그 조건을 먼저 세웠어요. “우리 제사를 안 지내면 여기 못 나옵니다” 그랬더니 “아! 지내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됐어요. 만약 못 그러게 했으면 안 갔지. 그래갖고 한번에 성당에 나가 세례를 받았어, 우리 식구가 다. 믿으니까 좋아요. 시끄럽지 않고 엄숙하고 좋아, 제사 다 지내고. 천주교에서는 조상님인데 어쩌냐 그래요. 맞는 말이지. 우리 한씨네 종친회도 가보니까 많아요(신자들이). 지금은 다닌 지도 20년이 거짐 돼오는데 성당에 나가면 활동이 많거든요. 우리집 양반이 혼자 한 3년 성당의 총회장 맡으셨구. 저는 그걸 못해요. 성격이 맞질 않아. 그런 게 싫어. 그래서 성당에만 주일에 열심히 나가고 남편 수발이나 허구 그러지. 난 (자라온)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활동적이구 그게 안돼요. 내가 생각해도 참 안 좋아요 성격이. 나는 순종하는 그런 저기(성격)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나 저나 똑같아요.

## 친구들과 다니는 여행

서울에 자주 가요 난 집에 안 있어요. 하여튼 친구들을 잘 만나. 우리집에도 잘 가고. 거기 아파트에 지금 우리 애들이 살고 있거든. 우리 애들은 어려서부터 오래 살아갖고 거기가 질 좋대 딱 데 안 간대. 애들이 둘 있으니까 맨날 반찬해다가 갖다 집어 넣어주고 그러는데, 요즘엔 안 그래. 지 직장 나간 다음부터는 안 먹고들 다니니까. 김치나 좀 갖다 넣어주구.

취미활동이라야 수영도 다녀보고, 컴퓨터도 좀 배우다 말구. 근데 그것도 그렇더라구. 나이 먹어서 젊은 사람들허고 같이 허니까 내가 진도가 못 나가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구. 욕심이 있어요 좀 그런 욕심은. 못 따라가니까 못하겠더라구.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녀요. 친구들과하는 외국여행 많이 다녀요. 1년에 한번씩 꼭 가. 북유럽도 갔다오고 다 갔다왔어 웬만한 데는. 남편은 그전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간다는 아무 소리 안하고 갔다오라고 그래요. 자기 혼자 밥 다 해먹고, 내가 다 준비는 해놓고

가지만, 한번도 가지 말란 소리는 없어. 내 회갑 때도 잔치는 안 허구 여행 다녀왔어요. 큰 딸허구 셋이서 호주를 두번째 또 갔다 왔지. 여행사에서 패키지로. 몇 달 전에는 우리집 양반허구 몇 달 전에 서유럽을 갔다왔는데 (남편) 몸이 불편하니까 괴로워서 못 다니겠어. 로마, 이태리 그쪽에 다 갔다 왔지. 10박 10일인가. 이종사촌끼리 계모임이 있거든. 여자 들끼리 하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다 왔어.

### 대대로 내려온 거니까 물려야죠

걱정이 태산이네, 근데 조상님께 제사는 지내야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간소화 됐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도 그것도 헐지 모르겠어. 내가 “이걸 물려받아서 지낼 까?” 그러니까 (남편이) “어휴 지내겠지 지들도 봐왔으니까 지내겠지” 그러대. 대대로 내려온 거니까 물려야죠, 끊을 수 없잖아. 명절 때는 (손님이) 안 와요 다 각자 집에서 지내느라고. 옛날에는 자기네들 지내고 인사는 왔었지. 그것도 없더라구 인제는. 요즘 세대는 다 자기 가족 세대잖아. 가족뿐이 모르니까 한씨네고 자기네 (친척도) 몰라. 생각을 안 하더라구. 종친회에서도 다 노인네들이니까 종친회 총무 좀 맡아달라고 그래도 안해. 아주 젊은 사람들도 50대들도 안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몇 분만 나가시는데 점점 없어질 것 같애. 보통 제사 때는 못 오지 우리 아들도 직장 나가야 하니까, 여기서 사는 걸 싫어해 우리 아들도. 오질 않아 도대체. 무슨 때 오라고 해야 오지 갑갑해서 싫대요. 서울은 하여튼 나가든 다 있잖아. 나도 맨 처음 와서는 못살겠더라구.



## 이제 시대에 따라가는 거지

- 안산시 진주 유씨 권보남 차종부의 구술생애사

여 백

# 이제 시대에 따라가는 거지

- 안산시 진주 유씨 권보남 차종부의 구술생애사

## I. 개 관

### 1. 대상자 선정과 조사과정

오래된 전통 종가(宗家)는 어느 집들과는 달리 '하나의 고유한 생활문화를 간직한 생활 사박물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종택 건축물과 선대(先代)로부터 전해진 고문서, 민속품 등의 가전유물(家傳遺物)과 유적·가가례(家家禮)의 의례·의식주 등의 생활요소가 서로 어우러져 그 종가만의 가풍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1999년에 경기도에서 '종가 및 명가' 지정을 위해 설정한 종가의 기본적인 기준으로는 고 건축물(1950년 이전)의 유무와 전통적인 정원이나 후원과 같은 종가 주거환경의 보존 여부, 사당과 같은 의례 건축물의 유무, 고유 음식 및 가양주 등의 유무, 종가 및 명가로서 갖추어야 할 가풍의 보존 여부를 들고 있다.<sup>1)</sup> 당시 선정된 전통 종가에 안산 진주 유씨 백 참관공파 22대 손인 유문형 님이 있었다. 당시 조사보고에 의하면 정원과 후원이 딸린 한옥 종택과 4대 봉사, 설, 한식, 추석의 절사(節祀)를 지내며, 전통적 살림살이와 가풍(家風)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종가의 종부인 권보남이 종부로서의 자질이 있음을 여러 곳에서 추천 받을 수 있었다.

\* 조사자 : 김지옥(경기도 문화재전문위원)

1) 이러한 기준에 따른 1차 예비조사에서 '적극 추천' 대상이 된 종가는 경기도내 17개 시·군으로부터 총 63건의 전통종가 신청을 받아 1차 현지조사에서 18건이 선정되었고, 2차 조사에서 11개 종가가 선정되었다.

그녀의 친정은 대전에 세거한 안동 권씨 유희당과 종손가로, 시대에 못지않은 명문가이다. 종부인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로부터 보고 익힌 그녀의 삶은 종가라는 특별한 환경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조사내용은 종부의 출생에서부터 현재까지 개인의 일생사를 중심으로 조사 기록하면서, 종부이기에 갖게 된 주변 환경, 즉 4대 봉사와의 집살이, 종택과 가전유물, 종부로서의 가치관 등에 대하여도 폭넓게 조사하였다.<sup>2)</sup>

“아이, 난 뭐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본 종가도 아니고…”

“종가가 버젓이 있는데, 나는 (우리가) 종가라고 안해요. 그 종가택에 대한 예의고…”

처음 이 일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였을 때 권보남 종부가 한 말이다. 그 후로도 사양을 하였으나, 다시 전화를 드렸을 때에는 아들과 의논을 해보았는데, 사실대로만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하였다면서 응해주셨다. 전화로 몇 차례 가는 길을 가르쳐 주다가 아예 큰길까지 차로 마중을 나온 막내아들 차를 뒤쫓아 들어선 종택은 말 그대로, 이미지 그대로의 “종갓집”이었다. 그러나 대문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다가 조사자를 맞아주신 종부는 생각보다 “젊은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조사자는 면담 내내 한번도 “할머니”라는 호칭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저 “종부님”, “어머니”라고 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별로 낯설지 않았고, 정말 ‘곱다’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는 그의 말씨에서 오는 느낌이 컸는데, 경기도 양평이 친정인 친정어머니로부터 말투를 교육받아, 차분하고 단정한 서울 말씨를 쓰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충청도 사투리로 말하는 것을 어머니께서 고쳐주신 때문이라고 한다.

처음, 주말에 찾아뵙고 조사의 취지를 말씀드린 후 다음에 뵈 때까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으면 간단하게 적어 놓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종부는 색 바랜 원고지 뒷면에 자신의 살아온 내력을 간단히 적어주셨다. 조사자가 이런 책을 만들 것이라고 하면서 예로 드렸던 책에서 다른 종부의 이야기를 보고는 “난 이렇게 굴곡이 있는 삶을 안 살았는데…할 이야기가 없는데…” 하시면서도, 제목까지 붙여서 정리를 해주셨던 것이다. 이 내용들은 다시 이야기로 해주셨지만 결국, 당신이 직접 써주신 글에 이렇게 적었다.

진주 유씨 종가는 엄연하게 있으나 나를 종부라고 하면 부담스럽다. 그러나 차종가로서 역할은 했다고 생각한다.

2) 본문의 서술은 종부의 말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구술부분과 조사내용의 편이상 조사자가 서술한 부분이 혼용되어 있다. 또한 본문 중에는 문장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종부가 직접 써준 내용이다. 특히, 기제사와 종택, 가전유물에 대한 부분을 조사 기술하였는데, 이는 종부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문의 서술내용과 형식이 타 조사자와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시아버님이 평소 말씀하신 것은 “손님 접대 잘하고, 제사 잘 지내고, 고기가 없으면 소탕이라도 잘 차려라.”고 하신 말씀이니 이를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

종부의 기본자세를 드러낸 말이다. 권 종부는 면담기간 내내 조사자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조리 있게 대답을 해주셨다. 군소리가 없으셨다. 종부는 조사자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함께 TV를 보고, 잠을 자면서도 언제나 한결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조사자는 종부의 깊은 속내를 이끌어 내는 데는 실패하였던 것 같다. 그녀의 시어머니와 작은 시어머니들에 대하여서나, 시댁식구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사연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자는 여러 날에 걸쳐 종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 온 내력을 테이프 녹음하고 들으면서, 4대 봉사와 절사, 매년 10월이면 정성껏 올리는 ‘집고사’의 절차를 묻고 적으면서, 꼼꼼한 남편 유문형 님이 주제별로 정리해 둔 가족 앨범을 보면서,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화장대를 열어보고, 잘 정리해 둔 찬장 안의 제기(祭器)와 떡살을 들춰보면서, 종부가 새로 복원한 경성당과 우물을 돌아보고, 대청마루와 안방, 집안 곳곳에 있는 가전(家傳) 생활품과 종손[남편]의 서각작품들을 보면서, 170년이 넘은 종택과 종부에 빠져 있었다. 마지막 ‘과도기 조선 여인의 삶 내력’을 듣고 보았던 것이다. 생활 방식은 바뀌어도, 젊은 며느리에게로 이어질 종부로서의 종가에 대한 책임감과 자존심은 한국여인의 독특한 기질로 이어질 것을 믿게 된다.

## 2. 안산 진주 유씨 내력

진주 유씨(晉州柳氏)의 시조는 고려 때 상장군(上將軍)을 지낸 정(挺)으로, 그 11세손 영정(永貞, 司僕寺正을 지냄)의 후손 때부터 안산에 세거하였다. 변암 채제공(樊巖 蔡濟恭)의 말을 빌리면, 이 진주 유문(晉州柳門)은 여흥 민(閔)씨 암(黯, 1636~1694, 우의정을 지냄), 사천 육(陸)씨 내선(來善, 1617~1704, 좌의정을 지냄)의 가문과 함께 조선 후기, 경기도와 충청도 즉, 기호지방 남인을 대표하는 3대 가문 중 하나였다. 17세손 유적(柳頤, 晉安尉)이 선조(宣祖)의 부마(駙馬)가 되었고, 그 조카 유명견(柳命堅)·유명천(柳命天)·유명현(柳命賢) 형제가 판서에 오르는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또한 이 집안의 사위였던 표암 강세황 등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면에서도 큰 성취를 남겼다.

문과를 하거나 문학으로 이름을 떨친 이들로는 유격(柳格), 서경(西峒) 유근(柳根; 대제학), 개산(皆山) 유석(柳碩, 관찰사를 지냄), 유래(柳萊), 해암(海巖) 유경종(柳慶種), 근재(勤齋) 유신(柳愼), 창소(蒼巢) 유원명(柳遠鳴), 모산(帽山) 유원성(柳遠聲) 등을 들 수 있다. 독립운동가 유익수(柳益秀)는 정재 유명현의 7대 손이다. 부곡동의 정재초등학교는 유명현의 지손들이 그가 살던 오교장(午橋莊)의 부지를 정부에 기부하여 그 땅 위에 세워진 학교이다. 4백 년 전에 세워져 지금까지도 그 안채가 남아 있는 청문당(淸聞堂)<sup>3)</sup>과 함께 오교장은 조선 후기 문화운동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손꼽히는 명소이다. 세거지는 안산 부곡동 일대이다.<sup>4)</sup>

제보자 댁인 유문형가는 그 대종가에서 5대조 때 분파한 차종가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권보남은 실상 이 진주 유씨 본 종가에서 분파한 차종가의 종부이다. 종부의 남편인 고 유문형은 진주 유씨 백참관공파 22대 손으로서, 지금도 인근 사람들이 “매미골 한옥집”이라고 하는 170년이 넘은 종택 경성당에서 조상제사를 모시면서 3대가 함께 뿌리를 이어왔다. 지금 이 종택을 지키고 있는 이는 고인의 부인이자 차종부가 되는 권보남(權寶男)이다.

종택이 있는 부곡동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안산 I.C를 나와 첫번째 신호등에서 좌측 주유소 뒷길로 올라간다. 3분 정도 마을길을 곧바로 가다가 큰길에서 좌회전을 한 후 바로 오른쪽 마을로 꺾어 들어간다. 행정구역명으로 부곡동인 이 마을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윗마을(만수동천 매미골)과 아랫마을로 나뉘어 있으며, 진주 유씨 집성촌이다. 아랫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장로회 교회가 있고, 굿당도 있다.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면 안산 진주 유씨 본종가로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청문당이 있다. 현재 종손은 돌아가시고 종부는 서울에서 살고 있다. 마을 안쪽으로는 가건물로 된 공장과 낡은 한옥 몇 채가 있을 뿐 옛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윗마을에는 제보자의 댁인 경성당과 시동생 집이 있고, 목장을 하는 타지인 가구가 세 집 정도 있다.

3) 청문당은 조선시대 고가로 경기도문화재자료 제94호로 지정되어 진주 유씨 성산공파 종친회에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다. 진주 유씨 16세손 유시회(柳時會, 1562~1635)가 건립한 가옥이다. 이때부터 이곳에 세거하여 온 이래 많은 인물들을 배출한 진주 유씨는 조선 중기에는 기호남인(畿湖南人) 3대가의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남인 문사들이 이곳에 모여 교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학의 산실이 되었다. 특히 청문당의 만권루(萬卷樓)는 조선 4대 서고(書庫)의 하나로 기호남인들의 학문적인 기반이 되었다.

4) 『안산시사』 중편, 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64쪽.

### 3. 권보남 증부의 생애사 요약과 의의

권보남은 1934년 지금의 대전시 대흥동(무수동)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금년 나이 70세인데 나이 보다 젊고 차분한 성격으로 보인다. 대전 무수동에 있는 안동 권씨 유희당 종손인 부친 권용환과 연안 이씨의 딸인 모친 이현균 사이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위로 오빠와 언니가 있으며, 아버지는 그 당시 은행(금융조합)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유복하게 자랐다.

태평양전쟁과 일제시기에 국민학교를 마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전여중·고를 졸업하였다. 몸도 약하고 아버지께서도 반대하여 대학진학을 포기한 채, 결혼 전까지 대전 무수동 종가에서 지냈다. 그 무렵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년 후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셨다. 그 후 자주 서울에 있는 언니 집에 올라와 있었는데, 29세가 되던 해에 중매로 진주 유씨 백참판공과 2대손인 유문형과 혼인하였다. 시아버지께서 시주와 집안을 두루 따져보고 혼인을 허락하셨다. 권 증부는 서울에 있는 다방에서 신을 본 후 신랑에 대해 궁금하기만 하여, 직접 포천에 있는 남편이 될 사람의 직장에 찾아갔다. 그 만남에서 긴 이야기를 들은 후 마음을 정하기는 하였으나 몇 차례의 만남도 없이, 서울에 있는 예식장에서 신식 결혼식을 올리고, 시내에 있는 호텔에서 첫날밤을 보낸 후 안산 시택으로 들어왔다. 그 날은 하루 종일 폐백을 올린 것 같았는데, 당시만 해도 마을은 유씨 집성촌으로 친척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모양이다.

그 날로부터 증부는 시택에서, 남편은 포천에 있는 직장에서 지내면서 주말부부가 되었다. 많은 가족들 속에서 낯선 시집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신혼방에 작은 액자를 손수 걸어주셨다. 그 안에는 매달 가족과 친척들의 생일과 제사를 적은 종이가 끼워 있었다. 시아버지께서 작은 붓글씨로 직접 쓰신 것으로, 매달마다 한 장씩 바꾸어 끼어 두고 볼 수 있게 만든 액자였다. 일가친척들의 제사와 생일은 잊지 말고 잘 챙기라는 시아버지의 뜻이었다. 증부는 지금도 그 액자를 고이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먼 친척 것까지 적혀있어 실제로 그것을 보고 사용하지는 않았다. 시부모님과 남편, 7명의 시누이와 시동생, 일꾼들이 함께 산 대가족이었다. 늘 한복을 차려입으시고 사랑방에서 학문과 손님 초대로 소일하셨던 시아버지와 이러한 시아버지를 하늘처럼 떠받들면서 조용히 일만 열심히 하였던 전형적인 조선시대 여인이셨다는 시어머니, 유난히 며느리에게 기풍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던 시아버지의 모습도 이 때의 기억이다.

6개월 후 남편의 직장이 있었던 포천으로 분가하여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다. 남편은 일

때문에 매우 바빴지만 말이 없고 자상하였다. 이때 첫아들을 낳고, 이후로도 아들 둘을 더 낳았기 때문에 가문의 대를 이을 자손 때문에 해야 하는 걱정은 없었다.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다시 부친 소사에 있는 농촌진흥원으로 발령이 났다. 그곳으로 이사를 가서 둘째 아들을 낳았다. 그때만 해도 공무원 월급이 참 적었다. 남편은 월급봉투를 모두 주지 않고 생활비만 주었는데, 종부는 이것으로 알뜰하게 살았다. 소사에서 2년 정도 살다가 남편이 한국마방이라는 개인 회사에 들어갔다. 그 후에도 소사에서 조금 더 살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 세검정으로 이사를 갔다. 남편은 개인사업을 시작했는데,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실패를 하였다. 그 후유증이 컸다. 그래서 본가로 돌아와 살게 되었다. 그때가 제일 힘든 시기였는데, 종부 나이 38세로 본가에서 막내아들을 낳았다. 시어머니는 이미 종부가 결혼 후 3년이 되던 해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본가에는 셋째 시동생과 막내 시동생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 시아버님은 여전히 사랑에 선비로 계셨다.

막내가 3살 되던 해에 남편이 부산으로 취직이 되어 다시 나가게 되었다. 이때부터 제사를 가지고 다녔다. 7년 정도 부산에서 살다가 남편이 다시 안양에 있는 대림공전에 나가게 되어 안양으로 이사를 왔다. 그때 이후에야 생활에 안정이 되었다. 당시 큰아들은 고1, 둘째가 중2, 막내가 국민학교 2학년이었다. 이렇게 하여 안양에서 17년을 살다가 남편이 65세에 정년퇴직을 하면서 다시 본가로 돌아왔다. 그 동안은 막내 시동생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가 종택 위쪽에 새로 집을 지어 분가를 하였다. 당시 시아버님께서는 노환으로 누워 계셨는데 3년간 꼬박 대소변을 받아내는 병간호를 하였다. 시아버님은 1996년에 돌아가셨는데, 종부에게는 이때 시아버님께 해드린 3년간의 병치레가 만머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2000년에는 암으로 2년간 투병생활을 하던 남편이 돌아가셨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야 시아버지로부터 물려오던 재산을 정리하였다. 물론 종택과 가전유물은 만아들의 몫으로 이어졌으나 다른 재산은 남편의 7남매를 포함하여 현대의 법에서 정한대로 나누어 졌다. 유언만으로도 모든 것이 인정되었던 시절은 끝났던 것이다. 종부는 지난 해부터 기제사를 4대 봉사에서 2대 봉사로 간소화하였다. 적은 월급을 알뜰히 모아 몇 차례 이사를 하면서 아파트를 장만하고, 아파트 투기같은 것은 하지 않았지만,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는 학군이 좋다는 강남에 위장이사를 마다하지 않았던, 아마도 제1세대 극성과 어머니이기도 했던 권 종부다운 결정이었다.

권 종부의 삶의 내력에서 우리 어머니 세대의 모습을 살필 수 있었다. 이 어머니들의 시어머니 세대와는 또 다른, 그래서 철저하게 가풍과 삼종지도(三從之道) 등의 유교적 규범



가장 최근에 정원에서 찍은 남편과의 한때

을 따라야 했던 조선시대 시어머니들의 삶에서는 벗어난 듯하지만, 요즘 며느리들과 대비해 보았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전통적인 여인'의 삶이 묻어있는, 그러한 '과도기적 여인의 삶'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지난 해부터는 서울에 있는 모 여자대학 평생교육원에 다니면서 수필과 시를 공부하고 있다는 종부는 팔순에는 자신이 쓴 글을 모아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 이러한 그녀의 바람에서 한 여자로서 살아온 삶의 당당함과, 그리고 한 가문의 종부로 살아온 삶의 내력이 한옥 종택과 잘 어울리는 뿌리 깊은 단아함을 느끼게 한다.

시아버지께서 늘 머리맡에 두고 쓰시던 연상을 전화기 받침대로, 남편이 만들어 쓰던 경상을 화장대 옆에 두고 쓰는 이. 대청마루에 남편이 만든 서각 작품과 수석, 초상화를 두고, 사랑채에 증조부, 시아버지, 남편의 초상화를 걸어두고 사는 이. 고적한 골에 자리 잡고 있는 170년이 넘는 종택을 고치고 가꾸면서, 평생교육원에 다니면서 느즈막이 찾은 자신의 취미생활과 건강을 지키기에 부지런한 이. 박물관에 가전유물(家傳遺物)을 맡기고 전시회에 초대를 받는 이. 매일 아들들의 안부 전화를 받는 이. 그가, 흔치 않은 요즘 종부 권보남이다. 그의 일생사를 엿본다.

## II. 권보남 종부의 생애사 연표

- 1934년 대전시 대흥동(무수동) 474번지에서 안동 권씨 유희당 종가 막내딸로 출생하였다.
- 1941년 8세에 대전 옥정국민학교(현 신흥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 1944년 국민학교 4학년 때 태평양전쟁이 심해 종가가 있던 고향 무수동으로 가족이 이사하였다.
- 1945년 국민학교를 중단하고 시골 종가에 있을 때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았다. 2년 후에 국민학교 4학년에 편입하였다.
- 1948년 시골 분교 목달국민학교를 졸업하였다.
- 1949년 대전여자중학교에 입학하였다.
- 1950년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 1952년 대전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 1963년 12월 8일 29세에 충무로에 있는 예식장에서 진주 유씨 유문형(당시31세)과 중매로 결혼식을 올렸다.
- 1964년 첫째 아들 승중을 서울 광화문에 있는 산원에서 출산하였다. 난산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산후바라지를 해주셨다. 포천에서 거주하였다.
- 1965년 남편 유문형님이 부친 소사에 있는 농촌진흥원으로 직장을 옮겨 이사를 하였다. 진흥원 관사에서 거주하였다.
- 1966년 둘째 아들 승재를 소사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출산하였다.
- 1966년 결혼한 지 삼 년이 조금 넘어, 둘째아들 백일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별세하셨다.
- 1969년 남편의 공무원 퇴직으로 서울 세검정으로 이사하였다. 가마니를 짜서 관공서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 1970년 지금 살고 있는 안산 부곡동 시대, 종가로 들어왔다.
- 1971년 셋째아들 승준을 안양 산부인과에서 출산하였다. 종부 나이 38세였다.
- 1973년 남편이 동남식품(펩시콜라)에서 근무하게 되어 부산으로 이사하였다. 승중, 승재는 장전동에서 금정국민학교를 다녔다. 이때 시대에서 분가하면서부터 제사를 가지고 다녔다.
- 1979년 남편이 안양에 있는 대림공전(지금의 대림공대)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안

- 양 동덕아파트 나동 103호로 이사하였다.
- 1993년 남편이 65세 때 정년퇴직을 하면서 안양아파트를 큰아들에게 물려주고 안산 부곡동 종가로 돌아왔다. 시아버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셨다.
- 1994년 큰아들 승중이 반남 박씨의 장녀인 박정윤과 남편 친구의 중매로 혼인하였다.
- 1996년 2월 28일 오후 2시에 3년간 병석에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숙환으로 79세에 사망하셨다.
- 1997년 경성당에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를 정리하여 『안산시사』에 수록하였다.
- 1998년 둘째아들 승재가 같은 직장에 있던 풍양 조씨의 장녀인 조근희와 연애 결혼을 하였다. 남편의 병환 발생.
- 1999년 경기도로부터 '전통종가 인증서' 를 받았다.
- 2000년 10월 2일 남편 유문형이 2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69세에 사망하셨다.
- 2002년 경기도와 안산시의 지원으로 종가 사랑채인 경성당을 복원하였다.  
종부의 수필 「우물」이 『창작수필』2002년 겨울호에 등단상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 2003년 경성당 옆에 있는 우물을 복원하였다.

### Ⅲ. 권보남 종부의 일생사

#### 1. 출생

종부(宗婦) 권보남은 1934년 개띠해에 대전 무수동에 있는 안동 권씨 유희당과 종가에서 부친 권용한, 모친 이현균 사이에서 3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위로 오빠와 언니가 있으며, 아버지는 그 당시 은행(금융조합)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남동생을 기대하는 어른들의 바람으로 보남(寶男)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어린 시절에 종부는 이 이름이 남자이름 같아 싫어하였더니, 아버지께서 돌림자인 원을 넣어 권명원(權銘遠)이라고 다시 지어주었다. 그러나 안동 권씨 집성촌이었던 종가가 있던 시골 국민학교에 다닐 때에는 같은 이름의 또래 남자가 있어 이 이름도 좋아하지 않게 되었

다. 중학교에 들어가자 호적대로 이름을 쓰게 되어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명원이라는 이름은 결혼식 전까지 묻혀지게 되었다.

## 2. 부모 형제들

부친 권용한은 안동 권씨 유희당가의 종손이며, 조부께서는 한말 진사 벼슬을 하였던 분이라 마을사람들은 이 종가를 “진사댁”이라고 불렀다. 부친은 결혼 후 배재학당을 졸업하고 황해도 금융조합(지금의 은행)에 재직하셨다. 후에 대전으로 전근하여 이후 계속 대전에서 사셨다. 모친 이현균은 연안 이씨가 4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다. 생활수준이 높고 개화된 가문으로 경기도 양평에서 사셨으며, 학벌은 없었으나 문장이 뛰어나고 명석한 분이라고들 하였다. 어머니는 심장이 약해서 건강한 체질이 아니셨는데, 권 종부가 이를 닦아 치녀시절까지도 몸이 약했다.

“친정어머니는 어떤 면에서는 시어머니와 비슷하셨어요. 어머니 친정은 개화된 집안이어서, 아버지쪽보다는 의가가 더 개화한 집안이셨어요. 어머님이 학교는 못 다니셨지만 머리가 깨셨어요. 그리고 근엄하셨어요.”

“조선시대 여인 같지는 않으셔서 시어머니보다 신식이었어요. 저는 친정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권 종부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두 분 모두 한 종가의 종부로서 제사를 모시고, 집고사를 지내고, 남편을 떠받들고, 자기주장 없이 가정에서만 지내신 것 등이 비슷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친정어머니가 더 개화되고 교육적이셨던 것 같다. 권 종부가 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했을 때에도 이를 지지해 주었다. 그러나 어머니도 종부도 건강이 약했다.

권 종부의 형제로는 부모님 결혼 10년 만에 태어난 오빠와 언니가 계신다. 권 종부보다 5살 위면서 외아들이자 종손인 오빠는 유치원을 거쳐 서울에서 중·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성주 이씨인 이정자와 결혼한 후 충남대학교 교수로 정년을 마쳤다. 지금은 대전에 살면서 종친회 도산학회 회장으로 일하고 계신다.

권 종부보다 3살 위인 언니는 전쟁의 와중에 진학의 기회를 놓쳐서, 결혼 적령기에 화가인 이양로(전주 이씨) 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3남매를 두었다. 대학을 나온 오빠에 비해 국

민학교만 나온 언니는 한문도 잘하고 아주 똑똑하다. 권 중부는 결혼 전에는 언니네 집에 올라와 있기도 하였는데, 그래서인지 언니는 중부에게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다. 형부는 1972년도에 권 중부의 남편인 유문형의 유화 초상화를 그려 전시회에 출품하기도 하였고, 시아버지의 초상화도 그려 주셨다. 또한 형부가 권 중부의 얼굴을 스케치해 준 것을 남편이 각을 하여 대청마루에 걸어두었다. 권 중부는 친정식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친척들 잔치 때나, 유회당에서 행사가 있으면 가보기도 한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친정 쪽 권씨 딸네들의 모임에도 나가고 있다.



중부의 얼굴 형부 이양로 화백이 스케치 해준 것을 남편이 각을 하였다

### 3. 어린 시절

친정할아버지(권경채)께서는 조선시대 말에 진사벼슬을 하셨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진사댁”이라고 불렀으며, 중부에게는 “권진사댁 손녀딸”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어린 중부는 그런 것이 부담스러웠다.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부르는 것이 되게 싫었어요. 양반이라고 이렇게 떠받드는 것이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모르겠어.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진사 할아버지의 장례식날을 중부는 이렇게 적어 주었다.

잠을 깨고 보니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모두 사랑채에 나가 통곡을 하고 있었다. 나는 울지도 않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때가 새벽이었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안아 어머니 옆에 앉혀 주었다. 너무나 무서워서 울지도 못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가 5살 때였다.

중부는 이것이 어린 시절 최초의 기억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기억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것이 있다.

아버지 손을 잡고 대전에 있는 목척교를 지나 야시장에 다녀오면서 한아름 선물을 사가지고 오던 기억은 나의 일생에 지주가 되었다. 사랑이라는 것, 아버지는 나에게 늘 애칭으로 “뿌땅(목단꽃이라는 의미)” 이라고 부르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와 늘 대화가 많았다. (아버지는) 딸이라기보다는 친구라고 하셨다.

#### 4. 학교시절

종부가 8살 되던 해에 대전에 있는 육정국민학교에 입학하였다. 입학하던 날, 빨간 가방을 메고 아버지 손을 잡고 교문을 들어가니 벚꽃이 만발하였다. 언니, 오빠 틈에서 일본말을 배운 탓에 매화반에서 반장을 했다.

당시 학교에 들어갈 때에는 창씨개명을 해야 했고, 또 부친께서 도시의 직장에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모두 이름을 바꾸어야 했다. 당시 권 종부는 동림인자(東林仁子)라는 이름을 썼는데, 학교에서만 불렀고 집에서는 사용하지 않아 해방 후에는 없어졌다.

종부가 국민학교 4학년 때에는 태평양전쟁의 막바지 때였다. 일본은 식량과 물자보급을 위해 어린 학생들에게도 일을 시켰다. 하루 종일 선생님과 함께 산에 가서 말먹일 풀을 베고, 관솔을 따고, 학교 운동장을 파서 콩을 심고, 시내에 나가서 말똥, 소똥을 주어다 운동장에 심은 콩에 거름을 주었다. 그 전에는 일본인 선생들의 교육이 철저하여, 신사참배를 하고 확인을 받아오는 공책이 있었으며, 학교에서 우리말을 쓰면 이름을 적어 벌을 주기도 하였다. 종부는 학교에서는 철저하게 일본말을 하였으나, 집에서는 일본말을 쓰지 않았다.

“친정 작은 아버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셨거든. 그래서 철저하게 지켰고, 그리고 우리 친정 쪽이 조선말에 진사벼슬을 해서...”

그러나 4학년 때 담임이었던 일본인 여자 선생님은 아주 친절하게 잘 지도를 해준 선생님이라 해방 후에도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그 당시 움이라는 피부병이 많았는데 종부도 움에 걸려 3개월간 휴학을 하기도 하였다.

국민학교 입학 당시에는 벚꽃 핀 학교에 행복하게 입학하였으나, 전쟁으로 시골에 전학을 가기 전 상황은 너무도 험악하였다. 종부의 어린 마음에 상처가 컸다.

결국 4학년 때 시골 무수동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고, 그 해 해방이 되었다. 계속 시골에 살면서 1년을 놀다가, 그곳에 있는 작은 분교에 다시 4학년으로 편입을 하였다. 그래서 동기들보다는 2년이 늦게 되었다. 해방이 된 후부터는 한국인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쳤는데, 남들보다 늦게 국민학교에 편입한 종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집에서 아버지께 한글을 배웠다.

“아버지께서 ‘가자 ㄱ 각, 가자 ㄴ’,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가자 ㄱ 각, 가자 ㄴ 간, 가자 ㄷ 감, 가자 ㄹ 감, 가자 ㅁ 감, 가자 ㅂ 갑’, 이런 식으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나자 ㄱ 낙, 나자 ㄴ’, 이런 식으로...”

새로 편입한 시골 국민학교에는 한 반에 여자가 4명, 남자가 25명이었다. 일제시대 때, 대전에서 다니던 국민학교에는 교복과 뺏지가 있었는데, 시골 학교에서는 없었다. 짧은 검정치마에 저고리를 입고, 보자기에 책을 싸 들고 다녔다. 그때 함경북도 길주에서 온 총각선생님이 담임이었는데, 이름은 홍화성이었다. 최선을 다해서 1회 졸업생이 되었고, 종부는 대전여중에 합격을 하였다. 그 당시에는 3:1이라는 높은 경쟁을 뚫고 합격을 한 것이라,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담임도 좋아하며 냉면을 사주었다. 그 당시 냉면 그릇이 어찌나 크던지 집에 있는 세수대야만 하였다. 냉면은 먹어도 먹어도 줄지를 앓았다. 그 때 난생 처음으로 냉면을 맛보았다. 종부는 시골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에 대한 정서가 풍부해진 것 같다고 하였다. 이때부터도 글을 잘 쓴다고 늘 선생님들께 칭찬을 받았다.

“국민학교 때는 공부 잘한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 선생님께서 나를 인정해주셔서 기억에 남아요. 작문시간에 겨울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기억을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어린 생각에도 학교를 못 가면 시골에서 농촌처녀로 된다는 게 싫었어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대전여자중학교는 일본인들이 쓰던 잘 지은 붉은 벽돌 건물로 된 학교로 담쟁이 넝쿨이 가득하였다. 단발머리에 세라복 교복을 입었는데, 자주색 넥타이 주름치마였다. 중학교 때에는 친척집에서 기숙을 하였다.

여고시절에는 대전여고 근처에서 친구 3명이 함께 하숙을 하였다. 그 당시에는 많은 친구들이 자취생활을 하였으나 종부는 하숙을 하면서 졸업을 하였다. 당시 하숙비는 한 달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돌아오면 양장교복을 벗어 벽에 걸어두고 짧은 검정치마에 흰 저고리를 평상복으로 입고 지냈다



대전여고를 졸업하며 뒤로 보이는 건물이 판자로 지은 교실이며, 졸업생들은 모두 졸업장을 들고 문예부 후배들과 함께 찍었다

에 쌀 5말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친구들과과는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데, 한 사람은 호주로 이민을 갔고, 한 사람은 일산에 살고 있다.

고등학교 때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학교를 육군병원으로 내어주고, 한쪽에 판자로 가 건물을 지어 수업을 받았다. 학교와 가건물 사이에는 철조망을 쳐두었는데, 학교 안에 있는 강당에서 무용수업을 받을 때면 군인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구경하였던 기억이 생



처녀 때 대전 무수동 집에서 정자와 연못이 있는 보기 좋은 종택으로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생하다. 가건물 교실에는 책상도 없었으며 교복을 입은 채로 가마니를 깔 바닥에 다리를 붙이고 50~60명이 쫘쫘히 앉아서 공부를 하였다. 당시에는 국사시간은 수업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권 중부는 고등학교 때에도 문예반에서 활동하였다. 그 당시 박목월 시인이 와서 특강을 하였는데, 까만 두루마기를 입고 강의하던 모습이 너무 멋져 자신도 그와 같은 시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조사가 끝나갈 무렵 어린시절에 존경하는 인물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중부는 이 얘기를 또 해주었다. 박목월과 같은 시인이 되고 싶었다고.

학교에는 인문과 두 반과 가정과, 상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중부는 대학 진학반인 인문과에서 공부를 하였으나 졸업 후 아버지의 반대와 집안의 형편으로 대학진학을 못한 채 시골 무수동 집에 내려갔다. 중부는 지금도 간혹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듯했다.

“여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해서 참 가슴 아팠어요. 어머니는 보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된다고 그러셨어요. 평범하게 살아라고. 심지어 삼사 일간 굶기도 했어요, 혼자서. 어머니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대전여고를 졸업하고 시골로 내려온 그 이듬해인 중부 나이 25세 때 어머니께서 뇌일혈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2년 후에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그 후 결혼 전까지 직장을 가질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집에 머물면서 간혹 서울에 있는 언니집에 올라와 있었다.

처녀시절, 특별히 받은 신부수업 같은 것은 없었다. 다만 제사를 지낼 때면 어머니 옆에

서 음식을 돕고, 집고사를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습득했다고 믿는다. 시집을 오고 보니 많은 부분이 서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였는데, 특히 제사의 제물 음식이 달랐다. 친정에서는 제물고기로 생물을 쓰는데 시댁에서는 모두 익힌 고기를 쓴다는 것이다. 같은 남인(南人)집안이라는데 왜 다른지 이유를 모르겠다.

## 5. 결혼과 결혼생활

“시주를 시아버님이 미리 보셨대요. 궁합은 별로 안 좋았는데, 내가 시주가 좋다고 시아버님이 적극 추천하셨대요. 나는, 사실 스스로 느꼈어요. 종갓집은 몸도 약하고, 친정 부모님도 될 수 있으면 장남을 피하셨는데…”

이게 종부가 시작한 결혼 얘기의 첫 말문이었던 것 같다. 종부가 서울 언니집에 와 있을 때 당시 고려대학교 교수로 있던 고종오빠와, 함께 교수로 근무하고 있던 남편의 이모부가 소개를 하여 선을 보고 혼인을 하였다.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옛날은 아니라 서로 선을 보고 결혼을 하였다.

“지금도 그 다방이 있어요. 종로 2가에 희다방이라고. 거기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많이 나왔습디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인제 고종 언니하고 우리 언니하고 우리 형부하고 그렇게 나갔어요. 남편 쪽에서는 친구분들, 이모님, 이모님 딸, 아파 시아버님도 나오셨을 끼예요.”

그때 종부는 투피스를 입고 나갔다. 그 당시만 해도 여고 출신이 드물어서 종부는 양장을 자연스럽게 했다. 당시 남편은 포천에 있는 농촌지도소 지소장으로 하숙을 하면서 근무하고 있었다. 남편은 황토색 국민복을 입고 나왔는데, 그 모습이 항상 떠오른다. 어떻게 정장이 아닌 국민복을 입고 나왔느냐고 했더니, 바쁜 사람이 뭐 옷을 갈아입고 나오느냐고 했단다.

“어렸을 때도. 난 자유로운 게 좋았어요. 구속받는 게 아주 싫었는데…그런데, 나오는데 마다 장남이대요? 그런데, 요번에는 그냥, 너무 중간에 있는 분들이, 교수님들이 그냥 뭐, 당연지사로 하는 거니까, 본인들의 의사 없이 그냥, 집안끼리는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당사자들이 서로 사랑하네, 뭐 그런 말은 안 해봤지마는… 이 양반이 참 선량하시잖아요…”

이렇게 여럿이 차를 마시고 둘만 있을 시간도 갖지 못한 채 모두 헤어졌다. 그렇게 선을 보고 혼인이 결정되었지만, 종부는 너무 아는 것이 없어 궁급하고 걱정이 되어 직접 남편 될 사람이 있는 포천 직장에 찾아갔다.

“그 당시에 이렇게 믿는 집안이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도 궁급하고, 걱정되고, 참,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내가 포천엘, 그 직장엘 갔어요. 그거 보면 내가 더 적극적이었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가 좀 당돌했던 것 같애. 그 당시는, 도대체 뭐 알아야지요. 이쪽에 몇 남매인지도 모르고… 그 때, 솔직히 언니 아들이 들이 댔어요. 그래 들잔치를 보러 왔다가 대전으로 내려가려는 찰나에, 고모님이 쪽지를 가지고 왔어요. 진주유씨. 학벌은 서울대학교. 거기에 또 미



결혼식 사진 1963년 12월 8일 서울 충무로에 있는 예식장에서 신식 결혼식을 올렸다. 신부이름이 권명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 시절에 쓰던 이름이다. 당시 남편은 이 이름이 더 좋다고 하여 결혼식장에서 쓰게 되었다

국에 유학 갔다왔다. 거기에 또 생년월일…다 적어왔어. 그리고 시이모님이 너를 보러온다더라, 그래요. 그래 성북동에 고모님 댁에 갔지요. 그래 앉아 있는데, 시이모님이 오셔서 슬쩍 보고 가시대요. 그러고 난 후에 다방에서 맞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예요. 그래, 사주를 받고 나서야 내가 너무 불안해서 포천에를 갔어요. 내 일생일대에 중요한 결정인데, 내가 결혼할 사람이니까 어떤가는 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가니까 놀랐지. 그래 만나서 거기서, 다방에서 쪽-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들어보니까 너무 머리가 무거워. 이 가족 구성원들이. 나야 친정에는 아버지가 대전에서 은행을 다니셨고, 어머니와 삼 형제…그리고 나는 시골이라는 걸 모르고, 복잡한 가족도 아니고… 그랬는데, 가서 얘기를 들으니, 이 집이 참 복잡합디다. 참 복잡해. 칠 남매 만이고, 누님 한 분만 결혼했고, 대가족이고…거기다가 서할머니도 계셨고, 서할머니의 자녀도 있었고, 그리고 농사를 지니까 일꾼도 있고, 근데, 그걸 들었을 때, 참- 그래도 알았으니까. 마음이 정말 무겁데, 결혼을 앞두고…”

“그런데, 남편 될 사람에게 대해서는 처음부터도… 그때도 숨기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나를 손을 잡으면서, 당신이 잘못 걸렸대, ‘당신 참 이 손가지고 어떻게 고생을…’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고생이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그냥 뭐 식모 두고 살면 되지, 이랬던 것 같애,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 손을 잡으면서, ‘이 손을 가지고 어떻게 고생하느냐고, ‘참, 당신 잘못 걸렸지…’ 그래. 근데, 그 말을 심각하게 듣지를 않았어요.”

종부는 집으로 돌아와서는 남편이 될 사람의 너무 솔직하고 진실한 면을 보고는 “이게 내 운명이구나”라고 생각했단다.

“그리고 고종오빠, 중매하신 분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나도 잘 모른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랑은 서울대학 나왔고 미국까지 갔다 왔는데, 너는 사실 고등학교밖에 안나왔고, 그쪽에서 하자면 너는 해야잖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걱정이 되더라고…”

“그리고 이 양반이 세련됐잖아요? 말하는 것도 상대방을 참 편하게 해주지요? 뭐 좀 차원 있게 대해주는 그런 면이 내가 좋았나봐요. 그리고 이 양반이 충주 외가쪽에서 중·고등학교를 지냈기 때문에, 형제들하고 다른 면이 있어요. 아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sup>5)</sup>

그 후 무슨 파티에 가야 된다고 서울 언니네 집에 남편 되실 분이 찾으러 왔는데 못 만나고, 그리고 밥을 한 번 같이 먹고 서신 연락도 안 해본 상태에서 만난 지 두 달만에 결혼을 했다. 이 때, 종부의 나이 29세, 남편의 나이 31세, 시아버지 57세, 시어머니 59세 때였다. 시어머니가 연상이셨는데 예전에는 그런 예가 많았다.

그 시절에는 드물기는 하였지만 친구들 중에는 신혼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종부는 서울 사보이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신혼여행이었던 셈이다. 결혼 첫날밤에 호텔로 이종시누이와 바로 아래 시동생이 간식을 사와서 함께 먹고 이야기를 하다가 갔다. 평소 남편을 잘 따랐던 두 사람이 신혼부부의 어색함을 없애주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 몇 번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결혼이라 서로가 서먹서먹하고 긴장을 하였던 것 같다. 신랑은 술을 전혀 못 마시기 때문에 술로 분위기를 조절하지도 못했다. 그래서인지 첫날밤의 특별한 기억이나 장래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다. 종부가 예단으로 마련해간 잠옷을 갈아입고 잤는데, 첫날밤에 치마와 저고리를 신랑이 벗겨주는 옛날과 달랐던 점을 꼬치꼬치 묻는 조사자에게 종부는 웃으면서 말했다.

5) 조사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남편 유문형님과과는 안산시사편찬위원회의 일원으로 지인(知人)이었다는 사실을 아신 후에 하신 말씀이다.

“이 양반은 미국까지 갔다오신 양반이라 촌스럽지는 않았어요. 정말 세련됐지.”

“평생을 우리는 눈빛만 보고 그냥 느낌으로 살았지. 특별히 애정 표현같은 건 안 했어요.”

자녀계획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냥 낳았다. 아들 셋을 낳고 마지막에는 유산을 한 후 자연 조절을 하였을 뿐,

특별히 다른 수술을 하지는 않았다. 결혼 후 곧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를 이었고, 또 국가 정책으로 산아제한을 장려하기 이전 세대여서 출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다.

다음날 시댁인 안산 부곡동 현재 살고 있는 본가로 들어왔다. 택시를 타고 왔는데, 아주 먼 곳 같았다. 집에 도착하니 잔치준비와 폐백상을 거창하게 차려 두었다. 대청마루에 차린 상 앞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일가 친척들에게 폐백을 올렸는데 하루 종일 절을 한 것 같았다. 여기가 유씨 집성촌이기 때문에 일가친척이 모두 모인 듯했다.

이후 6개월간 종부는 시댁에서 살았다. 남편은 포천이 직장이었으므로 주말에 다녀가고는 하였다. 정말 대가족이었다. 장남인 남편 아래로 출가하지 않은 남동생 셋, 여동생이 둘이 있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손아래 고모가 형제분 계셨다. 농사를 많이 지어서 일꾼이 두 명 더 기거하고 있었으며, 이웃 행랑채 사람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11번의 기제사와 설, 추석, 한식의 절사가 있었다. 첫 느낌으로도 손님접대와 봉제사를 최고로 치는 철저한 유교집안임을 알 수 있었다.

“시동생, 시누이들이 저녁을 먹고 배추꼬리와 무우를 깎아 먹고, 그게 간식이드라고. 고구마 같은 걸 깎아먹고 찌먹고, 친정에서는 참 외로웠는데, 시집와서는 가족이 많아서 좋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둘째 시동생과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종부에게는 처음이었던 대가족과의 생활,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시집살이에 대한 기억은 이때의 것이 대부분이었나 보다.



시부모님과 함께 예식장에서 신식 결혼식을 올린 다음날 종가에 돌아와 폐백을 올린 후에 시부모님과 함께 찍었다

시아머니가 사시는 모습은 친정에서 어머니가 하시던 것을 보아온 것과 분위기가 유사하였다. 제사를 모시고, 남편을 떠받들면서 사는 모습이 그러하였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달랐다. 시댁에 있는 동안 시아버지께 저녁 자리끼로 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간혹 가풍(家風)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유난히 시아버지께서 말씀이 많으셨다. 주로 “선대에 어느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다더라- 하는 식의 얘기”였다. 종부에게 직선적으로 말씀하시는 법이 없었다. 이야기를 듣고 잘 생각해 보고, 종부도 그렇게 본받아 하라는 뜻이었다.

당시 시아버님 앞에서는 감히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다. 그 후 몇 년을 살다가 어느 날 종부가 아버지께 “아버님, 제 뜻은 이런데요,” 하니까 “그냥 ‘네’ 로 끝나라.” 하고 일언지하에 말을 자르셨다. 특히 제사에 못 왔을 때 내리는 꾸중은 대단했다. 나중에는 시아버지께서도 질서를 잡기 위해서 종부에게 더 가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 후 종부도 결혼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결혼 후 아들 둘을 낳고 난 후의 일이었다.

6개월 후 분가하여 포천에서 살 때 큰아들을 낳았는데, 서울 광화문에 있는 산원(産院)에서 출산하였다. 난산이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산후바라지를 해주셨다. 조금 후에 부천 소사에 있는 농촌진흥원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때는 관사에서 지냈다.

그때만 해도 공무원 월급이 적었다. 월급봉투를 주지 않아 생활비를 주는 대로 살았다.

부천 소사에서 2년 정도 살다가 남편은 농촌진흥원을 그만두고 한국마방이라는 개인회사에 들어갔다. 그 후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 세검정으로 이사를 갔다. 거기에서 개인사업을 시작했는데, 해변가에서 크는 부들(억새풀)로 포대를 짜 정부에 납품하는 일을 하였다. 아산 쪽에 공장이 있었는데,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실패 하였다. 그 후유증이 컸다. 그래서 다시 본가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 그때가 제일 힘든 시기였다고 기억하는데, 종부 나이 38세였다. 막내아들을 그때 여기 본가에서 낳았다. 당시 시어머니는 이미 종부가 결혼 후 3년이 되던 해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셋째 시동생과 막내 시동생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 시아버님은 여전히 사랑에 선비로 계셨다. 막내가 3살 되던 해에 남편이 부산 펄시콜라 회사로 취직이 되어 다시 나가게 되었다. 이때부터 제사를 가지고 다녔다.

“아폴로 발사 때 그때, 텔레비도 샀을 거예요. 부산에서 살 때. 내가 그걸 볼려고 산 게 아니라, 아폴로 발사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 전화기는 서울에 있을 때, 백색 전화기가 당첨이 되었어요. 전화국에 당첨되었지. 그 당시는 힘들었어. 손가락으로 돌리는 전화기. 운이 좋아야 됐어, 세 번 넣어서 당첨 됐어. 만아들이 초등학교 일학년 때쯤이지 아파. 이 집

(본가)에는 그보다 나중에 들어왔어.”

부산에서 7년 정도 살다가 펄시콜라가 코카콜라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직장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바로 안양에 있는 대림공전에 나가게 되어 안양으로 이사를 왔으며, 그때 이후로 생활이 안정되었다. 당시 큰아들은 고1, 둘째가 중2, 막내가 국민학교 2학년이었다. 이렇게 하여 안양에서 17년을 살다가 남편이 65세에 정년퇴직을 하면서 본가로 돌아왔다. 조금 후에 큰아들이 결혼을 하여 안양의 아파트를 물려주었다. 둘째 아들은 사당동에 방을 얻어 내보내고, 막내 아들은 함께 본가에 들어와 여기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삼수를 하여 대학교에 들어갔다. 본가에서는 막내 시동생



권보남 종부의 결혼시절 한때

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가 종택 위쪽에 새로 집을 지어 분가하였다. 당시 시아버님께서 노환으로 누워 계셨는데, 종부는 3년간 꼬박 대소변을 받아내는 병간호를 하였다. 남편은 안산시내에서 일을 보시다가도 시아버지께서 변을 보시고 싶어하면 마다 않고 집에 들어왔다가 일을 끝내고 다시 나갔다. 시아버님은 1996년에 돌아가셨는데, 3년간의 병치레는 외지로 오래 돌아다녔던 종부에게 만머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했다. 그 후 남편도 폐암으로 2년간 암 투병을 하시다가 2000년 10월 2일에 돌아가셨다.

“(남편은) 2년 동안 투병생활을 했어. 침샘암 수술을 해서 1년 동안 항암주사를 맞고, 폐암으로 항암주사를 맞고, 고생 많이 했죠. 수술하고서는 활동도 하셨어요. 매일 정자(亭子)있는 데까지 산책하고 좋아하시더라고, 하루에 꼭 한 시간 동안 산책하고, 참 좋아졌어. 다니면서 자꾸 체중이 불어 당신은 너무 좋아하셨는데, 나중에 폐로 전이가 되더라고. 약으로 치료를 하고 항암주사도 한 여덟 번 맞으셨어. 그때 참 힘들었어요… 돌아가시면서도 유언을, 당신은 현명하니까 알아서 소신껏 해라. 이 한마디예요. 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뭐는 이렇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알려주셔야 하는데. 전혀 말이 없었어요.”



시아버님의 장례식

후에 종부는 원고교정을 보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남편은) 수술 후 항암주사를 맞고 많이 건강을 회복하였다. 다시 『안산시사』 집필을 계속하던 중 폐암으로 전이가 되어 8번의 항암치료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병원을 다니면서 힘든 세월을 보내며 고생 많으셨다. 『안산시사』의 2년이란 장정은 고인의 의지대로 끝이 나고 출판이 되었다. 병석에 누운 남편에게 찬사가 쏟아졌다. 10월의 향기 그윽한 국화 화환을 한 아름 받으며 생애 마지막 찬사를 유문형씨는 그렇게 받았다. 69세, 고회를 한 해 앞두고 눈을 감았다. 지역사회를 위해 이루어 놓은 공이 길이 남아질 것이다. 『안산시사』하권 끝장에 후기를 읽어 볼 수가 있다.

## 6. 출산과 자녀교육

결혼한 지 1년이 지나 첫째 아들 승중을 출산하였다. 늦은 나이에 가진 첫 출산이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산원(産院)에서 출산하였는데 난산이었다. 시어머니께서 산원에서부터 산

후바라지를 해주셨다. 그러나 삼신상을 차린다던가, 금줄을 달거나 하지는 않았다. 시어머니께서 그런 걸 즐겨하지 않으신 때문이다.

1966년에 둘째 아들 승재를 출산하였는데, 소사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낳았다. 둘째 아들부터는 순산을 하였다. 이미 시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다. 1971년에는 셋째 아들 승준을 지금 살고 있는 본가에서 출산하였다. 집에 있다가 산기(産氣)가 있자 남편이 택시를 불러 안양 산부인과에 가서 낳았는데, 종부 나이 38세였다. 순산을 하고 일 주일 만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을 앞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택시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라 종부가 아이를 안고 마을길을 걸어 들어왔다. 그때, 이웃 할머니들이 산모가 힘들게 아이를 안고 움직인다고 걱정을 했는데, 종부는 힘은 들었지만 남편에게 아이를 안고 오게 할 수가 없었다. 당시만 해도 남자가 아기를 안는 것이 어색한 시절이었다. 종부는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했다.

1973년 부산으로 이사를 하여, 아들 승중과 승재는 장전동에 있는 금정국민학교를 다녔다. 아이들이 국민학교에 다닐 때, 종부는 선생님을 자주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학년이 끝날 때면 월간지에 돈 봉투를 끼워 “책 좀 읽어 보세요”라고 하면서 주었다.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그 후 1979년, 남편의 직장을 따라 다시 안양으로 올라왔을 때에는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되었지만 세 아들이 모두 한창 공부할 때였고, 또 모두 학교에 다닐 때라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종부는 평화시장과 같은 큰 시장에 새벽장을 보러나가 아이들의 속옷, 양말 등을 묶음으로 한꺼번에 싸게 장만하였다. 옷을 사야할 때는 미리 백화점을 돌아본 후 시장에 가서 비슷한 디자인의 옷을 골라 사서 입히기도 하였다. 또, 백화점 가격 인하 세일이면 첫날 아침 일찍 가서 백화점 문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제일 먼저 들어가 좋은 옷을 싸게 골라 사 입혔다. 그래서 이웃사람들은 종부네를 아주 부잣집으로 알고 기도 하였다.

종부는 아이들에게 과외를 시키거나, 공부를 못했다고 야단을 친 적이 없다. 다들 크게 힘들이지 않고 공부를 잘해주었다. 큰아들이 시험을 치는 날에는 도시락을 싸들고 수원까지 따라가 학교 교문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였다. 종부는 주로 시험 합격을 위해 절에 가서 축원을 하고, 역술인을 찾아가 미리 운세를 점쳐보기도 하였다. 자식들에게 억척스러운 욕심은 없었으나,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였던 둘째 아들은 서울대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학군이 좋다는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당시 강남에 살고 있던 고모집으로 가족 모두가 주민등록을 옮긴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때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접수하던 사람이 이렇게 작은 집에 어떻게 두 가구가 사느냐고 물어, 사실대

로 털어놓고 사정을 했다. 그렇게 해서 둘째 아들은 강남에서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 들어갔다. 그는 안양에서 서울 강남까지 착실히 학교를 다녔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은행에 취직을 하여 안심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얼마 가지 않아 회사에 사표를 내고 말았다. 학교 때부터 취미로 하던 영화 만드는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은 지금 여의도에서 영상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막내 아들은 3번이나 재수를 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과에서 문과로 방향을 바꿀 때에도, 다시 미술을 한다고 진로를 바꾸어 학원을 다닌다고 하였을 때에도, 종부는 반대하지 않았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잘 찾아서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남편도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다.

이렇게 아들들을 키운 어머니들에게는 또 다른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의 일이다. 권 종부의 기억에는 큰아들 때가 가장 진하게 남아있는데, 그는 대학교 1학년인 20살에 해군에 지원하여 들어갔다. 너무 어린 나이에 가는 것이 안쓰러워 눈물이 났다. 또 자식들 중에 처음 가는 것이라 버스터미널까지 배웅을 나갔고, 면회도 한번 다녀왔다. 진해까지 면회를 갔는데, 마침 아들은 배를 타고 훈련을 나갔던 터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 후로는 가지 않았고, 다른 두 아들은 자기들끼리 다녀왔다. 아들을 둔 어머니들이 치루어야 하는 통과의례였다.

## 7. 자녀들의 결혼과 가족들

1993년 종부 61세 되던 해에 남편 유문형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안산 부곡동 종가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해에 큰아들 승종(承宗, 42세) 씨가 반남 박씨의 장녀인 박정윤과 남편 친구의 중매로 혼인을 하였다. 큰아들에게는 그 동안 살고있던 안양의 아파트를 물려주었다. 혜정(10세)과 호정(8세) 남매가 있으며 현재 서울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1998년에는 둘째 아들 승재(39세) 씨가 같은 직장에 있던 풍양 조씨의 장녀인 조근희와 연애결혼을 하였다. 종부는 자식들이 결혼할 때 궁합을 본다거나 가문을 따진다거나 하지 않았다.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이므로 찬성하였다. 두 며느리가 모두 맏딸들이라 시댁의 가풍에 잘 적응을 하고, 60대의 젊은 사돈들과도 서로 친하게 지낸다.

“막상 살다보니까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 힘들진 않았나 봐.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구. 우리 집은 제사 잘 모시고, 손님 대접 잘하면 되는 곳이야. 어머니께선 우리 집 앞을 지나 산에

나무하러 가는 나무꾼들도 집안에 불러들여 막걸리 대접을 하시곤 했지. 며느리들이 다 부덕(婦德)해서 우리 집의 이런 가풍을 잘 따라 줘.”<sup>6)</sup>

둘째 아들은 자상한 것이 남편을 제일 많이 닮아, 매일 종부에게 안부 전화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둘째 며느리도 작가였는데, 결혼 후 직장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하였으나, 아이를 가지면서 직장을 그만 두었다. 종부는 그 재능이 아깝다고 생각하였다. 서정(7세)과 선우(3세) 남매를 두고 일산에서 살고 있다. 막내 아들 승준(34세)씨는 프리랜서로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현재 종부와 함께 살고 있다. 아들 가족들은 주말이면 빠지지 않고 어머니를 찾아오며, 수시로 전화를 한다. 그래서 종부는 늘 아들,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는 기분이다. 며느리들은 매달 용돈 봉투를 화장대 서랍에 넣고 가는데, 간혹 편지도 함께 넣어두어 종부를 감동시킨다. 아들, 며느리들은 종부가 글쓰는 취미를 적극적으로 하기를 권유하며 노트 등 필요한 것을 사다주기도 한다. 종부는 이러한 마음들이 고맙기만 하다.

“나는 항상 조그만 일도 상의를 해. 저들 의사를 따라주고. 며느리들도 서로 말을 않으면 멀어지니까, 시답잖은 얘기도 다 알아야해. 아들과만 대화하면 섭섭해 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며느리가 알고, 아들이 알길 원해. 며느리부터 알고. 용돈을 쥐도 며느리들이 나를 주더라고. 그렇게 해야 돼. 큰며느리, 작은며느리가 봉투에 넣어서 놓고 가. 화장대 서랍에...아무 때고 주고 가지. 어떤 때는 편지도 몇 자 적어놓데, 작은애가 작가라 틀리네. ‘어머니는 부자세요. 효자 아들이 셋이고 예쁜 며느리가 둘이고 손자들이 있고, 어머니는 부자시니까 어머니 힘내세요’ 이래 썼데. 말만 들어도 좋데... 지들이 결혼하고 바로, 선생님이 계실 때도 그랬어요... (용돈을) 같이 쓰게 줬지.”

며느리들의 이야기는 잡지 인터뷰에서 볼 수 있었는데, 큰며느리 박정윤씨는 시집생활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였다.

“설날, 한식, 추석 때 올리는 제사 때는 여섯 반상을 올려요. 국도 여섯 번 올리고, 적도 여섯 번을 올리고..., 상을 여섯 번 차리는 셈이죠. 처음 봤을 때 무척 신기했어요. ‘이런 게 전통이구나’ 하고 생각했지, 힘들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6) 2001년도에 「3대가 모여 사는 종가」를 소개하는 어느 잡지에서 종부가 한 말이다.



남편이 살아 계실 때 어느 잡지사에서 종가 기사를 싣고 찍어주었다. 왼쪽부터 둘째아들 부부, 남편과 종부, 막내아들, 큰아들 부부와 손자들

그녀는 시아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다.

“저희 아버님께서서 한복 입고 전통 운운하니까 굉장히 보수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업에 보리차 떨어졌으면 손수 보리 찻물도 끓이시고, 세탁기도 돌리시는 생활인 이시죠. 시집살이라고 생각된 적은 없었어요. 두 분께 딸이 없으셔서, 우리를 딸처럼 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인지, 방과 부업이 꽤나 멀리 떨어진 재래식 부업 탓에 늦은 밤 아기 우유를 먹이는 일이 고역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직접 부업과 방을 왔다갔다 해 주었다. 모두가 정적인 아버님을 닮아서인 것 같다고.

“부모님께서 지키신 집을 저희도 잘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상들 은덕에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혜택 받은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말이에요. 아이들이 산과 들에서 필쩍필쩍 뛰노는 것을 볼 때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지켜야지요.”

아들들의 얘기다.

당시 남편 유문형의 말씀도 있다.

“우리집 자랑? 글썄... 옛것을 아끼고, 조상을 숭상하는 효(孝) 정신이 우리 집안의 자랑

이라고 할까...내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교육받은 것도 효고, 내가 내 아들들에게 가르친 것도 효야.”

“그린벨트 풀리카봐 전전궁궁하는 집은 아마 우리 집밖에 없을 거야. 이 한옥을 내가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 지킬 수 있었으면... 아내 위한다고 14년 전에 화장실하고 부엌만 현대식으로 손봤지, 나머진 내가 태어났을 적 그대로야. 아이들이 잘 지켜 나가겠지.”

매월 1차례 이상씩 제사를 지내지만 두 동생과 세 아들 가족 20여 명은 빠지지 않는다. 요즘 다른 집에 비해 많은 제사지만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 차남 승재씨는 “학생시절 불편하게 느꼈던 전통에 젖어드니 오히려 편하다.”고 말했다. 이 얘기가 권 종부에게도 인상적이었던지 종부는 조사자에게 다시 전해주었다.

## 8. 시대 식구들

시아버지에 대해 종부가 적어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시부님 : 유해엽 - 한학이 깊으셨고, 서예가셨다. 평생 한복을 입으시고 선비로 지내시다, 안산시가 되면서 안산 초대 문화원장을 지내셨으며, 선비로서 일생을 보내셨다. 노환으로 삼 년간 병석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시부님은 장남 부부에게는 철저한 장남의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철두철미함을 원하셨다.

아버님에 대해서는 섭섭함도 있었다. 그러나 돌아가시던 날 아침에 사랑에 나가니 내 손을 꼭 쥐시면서 “미안하다. 너에게 미안하다”고 하셨다. 미소 띤 얼굴. (1996년 2월 28일) 오후 2시에 운명하심. 왜 미안하다고 하셨을까?

권 종부는 시아버님에 대한 기억으로, 늘 선비로 사셨다는 것과 친구를 많이 초대하셨다는 것을 우선으로 든다.

“(시아버님) 생신이 돌아오면 여러 날 해야 돼. 안양친구 하루 하고, 안산친구 하루 하고, 친척들 하루 하고... 보통 삼일을 해야 되요. 손님 초대들. 당신이 메뉴까지 이야기하셔.

이 양반(남편)은 소탈하시고 안 그러시고 한데, 아버님께는 안 그러서. 당신은 항상 밖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니까, 어디에 가니까 호박전을 이렇게 부쳤더라. 우리가 튀김같은 걸 하면 무서워서 먹기 싫다, 노인들 그런 걸 싫어한다, 전통음식을 해라... 유명해요, 우리 시아버님은 무척 까다로우세요. 안산에서 소문나신 분이예요. 음식이건 매사에... 한 번에 교자상을 둘 정도 차려요, 삼일 내내. 여름에는 개를 잡아 친구분들을 초청하셨어요. 나는 그런 건 못 만지고, 먹지는 않지만 대접은 해요. 시아버님은 불교시고, 가끔 절에 가세요.”

시어머니에 대하여는 늘 시아버지의 한복을 다듬질하고 손질하는 모습과 일하시던 모습만 기억에 남아있단다.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어주셨다.

시모님 : 권태임 - 안동 권씨로 충주에 친정이 있다. 충주의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 성품이 온화하시고, 솜씨가 뛰어나 음식도 잘하셨으며 매사에 현모양처이셨다.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해 여러 차례 물어보는 조사자의 질문에서도 종부는 이렇게만 답하였다.

“시아버님은 평생을 사랑에서 한복 입고, 버선 신고, 선비, 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고, 농사 진 걸로 사랑에서 선비 생활로 사신 어른이었어요. 그러니까 친정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달랐어요.(친정아버지는 은행에 다니셨다) 여기는 18세기 생활 그대로예요. 친정에서는 현대적인 생활을 했는데... 그 옷이며 뒷바라지를 시어머니가 다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평생을 여기서 사시다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충주에서 만석꾼의 따님이셨는데, 시집오셔서, 우리 시어머니야말로 참말, 남존여비의 상징적인 분이셨어요. 영감님을 그냥, 하늘처럼 모시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다른 발언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셨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종부가 시집을 왔을 때는 미혼이었던 남편 형제들은 모두 잘 살고 있다. 바로 아래 동생인 첫째 시동생은 돌아가셔서 동서와는 교류가 없지만, 둘째 시동생은 분당에서, 막내 시동생은 바로 윗집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다. 세 명의 시누이들도 잘 살고 있으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로 맞이한 작은 시어머니와도 가깝게 지낸다. 종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 않는다. 다만 첫째 시동생이 갓 시집와 남편도 없을 때 서로 이야기

를 많이 하고, 잘 도와주었다고 추억한다. 현재 첫째 시동생은 슬하에 딸 셋을 두었고, 둘째와 막내 시동생은 각각 남매를 두었다. 그래서 명절이나 제사 때 모두 모이면 20명이 넘는 대가족이 된다.

## 9. 노후생활 : 요즈음 종부의 일상과 취미생활

### 요즈음 종부의 일상

사람은 태어나서 학교에 다니고 결혼을 하고, 부모님 모시고, 자식을 낳아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정년퇴직을 하고...그러다 보면 어느새 노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뜨고 나면 남은 삶의 내용이 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권 종부는 이러한 삶의 과정을 모두 거치고 노후 생활을 향유하고 있다.

종부는 회갑잔치를 하지 않았는데, 당시 시아버님께서 병환으로 누워 계셨기 때문이다. 칠순잔치도 하지 않고 사촌언니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남편도 칠순잔치를 하지 못하고 69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중조할아버지는 90세를 사셨고, 할아버지는 칠십 몇에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는 79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양반은 너무 적게 사셨어. 남자 나이 육십 구세면 너무 적죠. 할 일을 다 못했어. 막내 결혼시켜야지, 사는 걸 보셔야지. 그래도 당신 원 없이 취미생활도 다 하시고, 그래 사시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 양반은 죽음에 대해서 초연했어. 자기가 앞으로 얼마 못 사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정리 정돈을 다 해놓더라고. 일전에 (형광등에) 까만게 묻어서, 이게 어디에 하나 더 있을 텐데, 미리 이 양반이 사다 놓은 게 있어. 두 개가 있더라고. 그걸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 창고에 가보면 못도 큰 것, 작은 것, 이 다음에 참 필요해요. 거기 가면 다 있어. 그 당시에는 당신이 모두 하셨지. 근데 가고 나니까 내가 자연히 해지고, 나도 참 잘해. (남편이 살아 생전에는) 가을에 메주를 만들어서 짚으로 해서 이쁘게 다 달아 주셨거든, 그냥 메주만 썰면 되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내가 했는데도 잘 됐어. 그래 이봐! 당신 없어도 잘 하잖아...그랬어요, 내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울컥 묻어나 잠깐 다른 음성을 느끼게 하신다. 종부는 남편에 대

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언젠가 가족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다음 생에도 서로 다시 만나고 싶으냐는 며느리의 질문에, 남편은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시고 종부는 아니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엄마는 내세에 가서는 꼭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마음속에 맺혀...” 라는 소리를 가끔 하신단다.

종부는 지금은 몸이 건강하니까 괜찮지만 더 연로해지면 큰아들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누가 와서 모시던지, 종부가 가던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텐데, 아직은 모르겠다고 하신다. 그래서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신다. 어릴 때나 처녀 적에는 몸이 약했으나 결혼 후에는 크게 아팠던 기억은 없어 그리 걱정은 하지 않는다. 종부는 달력의 매주 수요일에 표시를 해두었다. 골다공증 약을 먹는 날이다. 그 외에는 집 주변을 산책하고, 식사도 때맞추어서 먹으면서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일전에 종합검사를 했더니 딱 건 없고 골다공이 있대요. 골다공이 있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약을 하나씩 먹는 날이 있거든.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물 두 컵 먹고, 한 시간 동안 돌아다니래. 약 먹는 것도 까다롭대요. 그거 외에는 괜찮대요. 건강해야지, 혼자 있으면, 자식 걱정 안 시키고...”

요즘 종부는 아침에 일어나면 누렁이 개에게 먹이를 주고 집밖을 한바퀴 돌아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세수를 하고 신문을 보고 나서 아침을 준비해 드신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막내아들은 주로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을 함께 먹기가 수월치가 않다. 종일 집에 있는 날은 책도 보고, 글도 쓰고, TV도 본다. TV는 뉴스나 정치 토론 프로, 세계기행과 같은 프로를 즐겨보는데, 요즘 특히 챙겨 보는 드라마는 「대장금」이다. 음식을 만드는 장면이나 내용이 너무 좋단다.

“대장금을 즐겨봐. 음식도 재미있고, 내용도 너무 좋아. 작가가 여잔데. 진짜 예전같이 하네요. 사실은 나는 현대 드라마가 좋아. 사극같은 거는 잘 안 보는데, 이거는 재밌어요. 지난 번에 보니까 시어머님이 만드시던 신선로, 그걸 똑같이 만들대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티벳 생활과 같이 다른 나라 보는 거, 이런 거 좋고...”

외출을 하는 날은 주로 정해져 있는데, 정기적인 모임은 권씨 딸네 모임, 유씨 딸네 모임, 대전여고 동창회가 있다. 이러한 모임도 젊은 시절에는 어려웠던 일이다. 유씨네 모임은 시누이들과 고종사촌, 이종사촌 시누이, 며느리들이 모이는데, 대부분 육십대 전후로 10명이 넘는다. 매달 13일에 모임며, 회비는 3만원씩이다. 권씨 딸네 모임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며 회원은 사촌과 올케 등 5명으로 회비는 3만원씩이다. 동창 모임은 매달 7일로 정해져 있는데 회비는 2만원씩이다. 이 모임들은 주로 만나서 점심을 먹고 그 동안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봄, 가을로 한번씩 여행을 간다. 유씨 모임에서는 하와이, 백암온천 등을, 권씨 모임에서는 중국을 다녀왔다.

주말이면 아들네가 집으로 오기 때문에, 종부가 아들네 집에 가는 일은 별로 없다. 시장은 아들들이 한가할 때면 와서 안산시내 큰 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뒷집에 살고 있는 동서가 차를 가지고 있어 함께 나가서 장을 봐 온다. 남편이 살아 계실 때에는 파, 상추, 고추 등은 텃밭에서 심어서 길러 먹었으나, 지금은 모두 사먹는다.

이웃에 마실을 가는 일도 별로 없다. 뒷말에는 유씨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촌수가 멀어 지금은 서로 왕래가 없다. 권씨네 시제 때면 큰종가에 가서 제사 일을 도와주어야 하나, 이제는 나이가 많아 일을 도울 나이도 지나 잘 가지 않는다. 이웃에는 목장을 하는 타지인이 있어, 서로 교류는 있으나 그리 친하게 지내지는 않는다. 뒷집에 살고 있는 동서와는 그래도 자주 만나는 편이다.

특별한 외출로는 가전유물과 관련하여 박물관에 전시를 보러가는 일이 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금도 남편 이름으로 몇 개 박물관에서 전시도록과 초청장을 보내준다. 유물과 관련해서 초청을 받으면 주로 막내 시동생을 가게 하지만, 전시 관람은 온 가족이 가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초청하여 점심식사를 대접 받았다. 그때 친정 쪽 고문서들<sup>7)</sup>도 그곳에서 정리 작업을 한지라 친정오빠를 잘 알고 있었는데, 종부에게 오빠와 많이 닮았다고 하여 새삼스러웠다.

종부는 친한 친구가 몇 분이나 되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세 사람, 고등학교 때 하숙을 같이 했던 친구들하고...” 그리고 한복하는 이리자가 동창이라 코미디언 이상용씨가 사회를 보는 패션쇼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전여고 동창회에 나가는데, 정치가 부인이 있어 정치적인 기부회에도 가보았다. 반포동에 대전여고 동창회에서 운영하는 아파트가 있어 가끔 나가 동창들과 시간을 함께 보낸다.

종부는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 이렇게 적어주셨다.

7) 유희당 유물로, 1989년 대전광역시문화재단자료 제17호로 지정되었으며 안동 권씨 문중에서 소장, 관리하고 있다. 유물로는 칠성검(七星劍), 교지, 흥패 및 백패, 옥관자 및 금관자, 흥배, 호패 등이 있다. 칠성검은 1728년(영조 7)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평정한 공로로 왕에게서 하사받은 장검이며, 교지로는 권이진이 역임하였던 관직인 경상도관찰사, 평안도관찰사, 호조관서 등의 교지가 있다.

…문화센터를 나가서 수필 강좌를 들었다. 주변이야기를 쓴다.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쓴다. 2002년 등단했다. 요즘은 시에 대한 관심이 많아 덕성여대 평생교육원에 나가 시를 배운다. 그런데 수필보다 시가 더 어렵다. 계속하고 싶다. 신문이라도 보고 모든 면에 관심과 열성이 없으면 안된다. 나이 탓으로 돌리면 뒤처진다. 아들들 대화 속에 끼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래서 나는 관심을 갖는다.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지 말고, 살아 있는 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시력이 허락하는 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 취미생활

권 중부는 이야기 도중에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요즘 유행어를 아주 세련되게 인용하였다. 그리고 ‘노인 십계명’ 중 몇 개를 기억하고 있다. ‘항상 고맙다고 하라’, ‘항상 저주라’, ‘항상 움직여라’, ‘취미생활을 하라’ 라는 것이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하고 싶어 했던 시(詩) 공부를 시작했다.

“아들, 며느리들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님 십 년을 사실지, 이십 년을 더 사실지, 삼십 년을 더 사실지 모르는데, 할 일없이 지내시지 말고, 글이라도 쓰세요’ 그래. 예쁜 노트 같은 것도 사다주데. 그런데 그 말이 나에겐 참 부담스럽데. 그래서 한 자도 못 쓰겠드라고, 가만히 새겨보니 그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나이에 문화센터 가는 게 참 힘들잖아요. 사실 힘들었어요. 동아문화센터에도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등록을 하고 왔지. 남편이 돌아가시고 2002년도 일이에요. 남편이 투병생활할 때, 항상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한 얘기, 가을에 귀뚜라미 소리 들으면서 착잡한 심정을 쓴 게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갔지. 그랬더니 평을 해 주더라고. 평을 해주데. 내가 쓴 글에 한 가지 즐기찬 주제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쓰면 된다고 그러데. 조금 희망을 주어서, 글을 몇 편 썼는데, 화수분이라는 것은 피난 나오던 이야기를 쓴 건데, 잘 됐다고…선생님이 자꾸 희망을 주어서 용기를 갖게 됐지.”

“(문화센터에서 수필반은) 한 반에 열명 정도 되요. 나이가 많은 분이 많더라구요. 한동안 만나갔어요. 그 다음에 작품을 하나 썼는데, 신랄하게 비평을 해서 너무 속상하더라고. 서너달 만나갔어.”

“(문화센터 수강료는) 삼 개월에 팔 만원을 했어. 쉬었다가 용기를 내서 다시 갔지. 가서 「우물」 쓴 걸 냈지. 선생님이 아주 멋지게 됐다고, 이걸 잘 다듬으면 작품 되겠다고. 몇 번 다듬어서 냈더니 등단시켜 주시더라고. 책에 실린 작품이 「화수분」, 「마지막 천사」, 「마지막 천사」는 이 양반 돌아가셨을 때 쓴 것이고, 서너 작품을 냈더니, 책에 실어 주더니, 서너 번째 등단을 시켜 주데(『창작수필』 2002년 겨울호 제45회 등단상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요즈음은 안 나가요.”

“1년 전에는 덕성여대에 한 1년 다녔어요. 언니가 거기를 다녔어요. 역사 두 학기, 시는 한 학기 다녔어요. 새 학기부터는 덕성여대에 다닐꺼야, 분위기도 좋고. 멀어서 그렇지 괜찮아요. 그런데 수필은 주변 이야기를 그냥 쓰면 되잖아요. 하지만 시는 배워야겠더라고, 이번에는 시를 배울 거야, 매주 목요일에 두 시부터 두 시간 동안 다니려고 해요. 박○○라고, 그 분이 교수 정년퇴임하신 분인데, 해남 출신이세요. 그런데 말을 잘 못 알아 듣것어. 시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글씨도 막 갖겨쓰고, 말도 그냥… 그래서 옆사람에게 ‘선생님 저는 말기를 잘 못 알아 듣겠네요.’ 했더니 ‘아유 저도 그래요. 그냥 들으세요.’ 하더라고. 그 분도 육십 칠 팔세 되셨나?

그 선생님은 시를 이렇게 쓰래, 내가 시를 이렇게 쪽- 써 가면 평을, 너무 단편적이래요. 나는 본대로 쓰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래요. 꽃을 봐도 꽃으로 쓰지 말고, 비유를 해서 쓰래. 정동진에 파도를 볼 때, 그것을 경마장 말갈퀴가 훑날리듯이, 파도를 그렇게 비유를 하래. 그래서 옆에 나이 드신 분에게, ‘아휴! 나는, 이 선생님께 그만 배우고 딴 선생님 찾을까 봐요.’ 했더니, 아주 동감을 해. 자기도 그런 걸 느낀대. 자기는 두 학기를 했는데, 저 선생님 시는 너무도 21세기를 가서 우리와는 정서가 안 맞으니 딴 선생님을 찾자고, 그러다가 그만두었는데, 솔직히 지금 그럴 생각이예요. 시는 주관적이고 아름다워야 하잖아. 요즈음은 뭐, 돈을 똥으로 표현을 했더라고, 그게 시적(詩的)이라는 거야. 그렇지만, 완전히 비평이야, 비평만 하고…”

요즘 권 중부의 관심사인 시 공부 얘기가 나오자 모처럼 말이 많아진다. 그 관심도를 알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혼자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셨냐고 여쭙보았다.

“조금 그런 생각은 했어요. 나도 뭔가 하고 싶다. (남편이)서각 하실 때, 한창 화려하게 일본으로, 중국으로 다니실 때 참 서운하데요. 저렇게 혼자만 하시나…자기는 문화원 일

을 하고 (안산)시사(市史)하시고, 서각 참 화려하셨어요. 서각을 하더라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일본의 대표들과 유대를 갖고, 일본에서도 여러 번 전시도 하시고...그러면 물론 좋지. 하지만 외로울 때도 있었어요. 애들도 다 크고 한가로우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남편인 유문형은 젊은 시절부터 취미가 많았다. 등산, 수석채취, 여행, 서각 등 다양했는데, 부인인 권 종부는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다. 젊은 시절 지압에 좋다고 하여 수석채취에 몇 차례 따라가기는 하였으나 그게 고작이었다. 남편은 특히 서각 활동을 열심히 하셨다. 서각 활동과 관련된 사진만 정리해둔 앨범이 두 권이다. 한국서각협회 회장 등을 하시면서 일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셨는데, 전시회 때 권 종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러 장이 있다. 수술 후에도 서각을 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50대였을 때 문화센터를 갔어요. 나도 내 인생에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가서 3개월을 했는데, 그때 만 해도 그때 계속 했어야 했는데...동이문화센터에 다닐 때는 여자선생님에게 수필을 배웠어요. 혼자 가서 등록하고 (남편에게)말씀드리니까 잘했다고, 그 당시에는 계획이 있어서 다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삼 개월 하고서 그만 두었지. 신문 보다가 명사의 강의를 있다고 해서 다니고, 우리네는 체계적으로 한 건 없어. 집착력이 없는 것 같아. 항상 마음속에 하고 싶은 생각만 있지.”

지난해에는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 동사무소에 1만원을 내고 얼마간 다니기도 하였다. 다시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새봄이 오면 시 공부를 하려 다니실 예정이다.

#### IV. 종가생활

종가생활, 종부의 기본 의무는 자손생산과 봉제사라고 한다. 권 종부는 결혼 후 1년이 지나 별 어려움 없이 종손을 출산하였고, 그 뒤로도 아들 둘을 더 낳아 종가의 대(代)를 있는 데에는 걱정이 없었다. 조상을 위하는 봉제사도 매년 기제사 11번과 설, 추석, 한식차례 3번, 집고사(터줏가리) 1번을 시어머니께서 하시던 대로 지켜왔다. 그러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2002년도부터는 2대 봉사료 기제사를 줄이고, 명절차례는 설과 추석으로 간소화

하였다. 가을에 올리는 집고시는 시어머니께서 하시던 대로 지내고 있으나, 벗짚을 구하기가 어려워 지난 2002년부터는 신체(神體)없이 건궁으로 의례만 행하고 있다.

종부는 결혼 후 남편의 직장을 따라 포천, 서울, 부산, 인천 소사, 안양 등 객지로 이사를 자주 다닌 편이었는데, 서울에서 안산 본택에 잠시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면서는 제사를 가지고 다녔다. 본가에 작은 시동생이 있었지만 시아버지께서 종부가 제사를 모시기를 원하셨다. 시아버지와 시동생들은 제사 때가 되면 부산으로 꼭 내려오셨다. 유씨가 의 제사는 특히 여름제사가 많아 바캉스를 못 가봤을 정도였다. 또한 제사를 모시는 횟수도 많았지만 특히, 명절차례 때는 각 반상마다 제물을 모두 바꾸어 새롭게 차려야 하는 일이 여간 힘들지 않았다. 그래서 종부는 안양에 살고 있을 시절에 한 반상만 상을 차려 놓고, 지방만 바꾸어 모실 것을 시도를 해 본적이 있었다. 그러나 시아버님께서 한마디로 “안된다”라고 하셨다. 당시 남편이 담석수술로 병원에 계셨던 터라, 이 기회에 용기를 내 보았던 것인데, 역시 실패하였다. 그 자리에서 과일과 제물을 더 사서 일곱 반상을 차렸다. 혹은 시나 해서 다른 제물을 더 구입해 놓기는 하였던 것이다. 시동생들은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한마디도 종부 편을 들어주지 못했다. 그래서 시아버님 생전에 제사를 간소화한다는 것은 어려울 걸로 알았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남편이 마음에 불편해 하실 것 같아 그대로 일곱 반상을 계속 차렸고 돌아가신 후에도 1년을 더 했다. 지난해부터 아들, 며느리들이 “어머님 이제는 그렇게 다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큰 시누이와 시동생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찬성을 하였다.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찬성을 하네요. 그래, 나 혼자 단독으로는 못해. 사실, 송구는 스텝데… 항상 일곱 반상 했는데, 그때는 다 지내고 나면 오후 1시가 되요. 제물을 다 갈아서 하자면 시간도 걸리고… 시동생들에게는 그때 안양에서 서방님들이 ‘아버님 형수님 말대로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편만 들어 줬어도 그때 바꿀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지금도 애기를 해요. 요즘은 차례 제물 구입에만도 최소한 20만원은 들어요.”

제사나 명절 때가 되면 시동생과 아들들이 제물장만에 보태라고 봉투에 돈을 조금씩 넣어 부조를 한다.<sup>8)</sup>

8) 종부는 원고 교정에서 이 부분을 삭제시켰으나 조사자와 협의하여 그대로 신기로 하였다. 종부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 1. 기제사



고조모님의 기제사 독축(1997년)

이 덕의 기제사<sup>9)</sup> 방법은 조선 후기 기호(畿湖) 남인 3대 기문의 하나답게 남인의 제사 전통을 따르고 있다.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저녁 7시경이다. 원래는 당일 저녁에 준비하여 12시를 넘기면서 제사를 지냈으나, 서울에 있는 동생과 아들이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초저녁 제사로 바꾸면서 다음 날로 제사를 지낸다. 제삿날이 되면 제수(祭需)를 준비하고, 지

방(紙榜)과 축문(祝文)을 마련한다. 지방을 쓰는 법은 다른 지역과 대동소이하다. 지방은 쳐다보면서 왼쪽에 ‘현증조고통정대부행개천군수부군 신위(顯曾祖考通政大夫行介川郡守府君 神位)’, 오른쪽에는 ‘현증조비숙부인한양조씨 신위(顯曾祖妣淑夫人漢陽趙氏 神位)’ 라고 쓴다.

제사에 참사(參祀)할 자손들인 종손의 동생과 아들 형제가 모이기를 기다리는 동안 안채의 대청에 병풍을 치고 제상에 진설한다. 이 덕에서는 ‘행승정대부이조판서정재공시사기(行崇政大夫曹判書靜齋公時祀記)’ 라고 하는 진설도(陳設圖)가 있어 이에 따라 진설한다. 제물은 메, 갯 각 2그릇, 면, 편, 소탕, 육탕, 어탕, 편적, 적(炙), 숙주나물, 백채, 숙채, 고사리, 지짐, 육 간납, 어 간납, 침채, 간장, 약과, 식혜, 밤, 배, 산자, 깨다식, 사과, 꽃감, 대추 등이다. 진설이 끝나면 병풍 앞에 교의(交椅)를 놓고 지방함에 지방을 넣어 교의에 모신다. 강신(降神)은 종손이 분향(焚香)을 하고 술을 올리고 재배한다. 이때 모든 참사자들이 참신한다. 초헌은 주인이 고위(考位)와 비위(妣位)의 잔을 올린다. 이는 합설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 후 메를 담은 식기의 뚜껑을 여는 계반개(啓飯蓋)를 하고, 시저(匙

9) 경기도 지역에서 기제사(忌祭祀)를 지내는 절차와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전저(奠箸)를 하지 않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전저를 행하는 형태이다. 전저를 하는 집안은 주로 노론(老論)의 예법을 따르고, 전저를 하지 않는 집안은 남인(南人)의 예법을 따른다고 한다. 이 덕의 기제사는 전저가 없는 남인의 제사 전통을 따르고 있다(『경기민속지』개관편, 경기도박물관, 1998, 543~546쪽 참조).

箸)를 시접(匙楪)에 가지런히 올려놓는데 이를 정저(正箸)라고 한다. 정저가 끝난 후 참사자들이 모두 부복하고 독축한다. 독축 후 약 한식경 동안 참사자들은 부복한다. 기제사의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丙子十一月壬午朔二十六日丁未孝曾孫

文馨

敢昭告于

顯曾祖考通政大夫行介川郡守府君

顯曾祖妣淑夫人漢陽趙氏世序遷易

顯曾祖妣淑夫人漢陽趙氏諱日復臨

追遠感時不勝永慕謹以青酌

庶羞恭伸奠獻 尙

饗

초헌관이 가장 연장자였으므로 주인이 기침을 하면 참사자가 일어선다. 주인이 재배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아헌관이 향탁 앞에 나와 향을 다시 피운다. 술 두 잔을 올리고 자반을 적(炙) 위에 올리는데, 진찬(進饌)의 과정이다. 아헌관이 재배하고 종헌관이 향탁 앞에 나와 꿇어앉아 재배하며, 자반을 올리지는 않는다. 메 뚜껑에 술을 부어 종헌관이 올린 술잔에 술을 가득 채우는 첨작(添酌)을 한 후에 좌우 집사가 나와서 손가락을 메에 찌는 삼시를 하고 주인이 재배한다. 주인이 물러나면 집사자들이 병풍을 앞으로 돌려 제상을 가리고, 천장에는 차일을 치며, 족자를 꺼내어 병풍에 걸어 놓는다. 그리고 참사자들은 모두 조용히 서 있다. 합문(闔門)의 절차이다. 주인이 헛기침을 하면 병풍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족자는 말아 치우며, 차일은 그대로 둔다. 이른바 계문(啓門)이다. 이어서 국그릇을 내리고 새 그릇에 송늬를 올리는 헌다(獻茶)를 한다. 집사자들이 메를 세 손가락 떼서 송늬 그릇에 푼다. 주인이 향탁 앞에 나와 꿇어앉으면 참사자들이 모두 부복하여 잠시 기다린다. 잠시 후 참사자들이 일어서면 수저를 내리는 낙시저(落匙箸)를 하고, 메 그릇의 뚜껑을 합반개(合飯蓋)하고 일동이 재배하여 사신(辭神)한다. 이어서 축과 지방을 태우고 철상을 한 후 곧바로 음복을 한다. 음복은 먼저 술 음복을 한 후 저녁을 먹는 것으로 대신한다. 저녁은 제상에 올렸던 제물을 소재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고, 저녁식사가 끝난 후 서 울에 사는 가족들은 모두 떠난다.

지금까지 기제사에서는 여자들은 절을 하지 않았으나 권 종부는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기제사 때에는 남자들의 제의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철상을 하기 전에 며느리들에게 네 번 절을 하게 하였다. 명절차례에는 종부도 절을 한다.

## 2. 명절차례

명절차례는 설, 추석, 한식을 지낸다. 설날차례는 집에서 먼저 제물을 차려 모시고 산소에 가서는 세배만 드리고 온다. 그러나 추석과 한식차례에는 제물을 모두 산소에 가지고 그곳에서 차례를 지내고 산소 앞 잔디에서 둘러앉아 음복을 하고 돌아온다.

2004년 새해를 맞는 설 차례는 큰며느리가 처음으로 제물을 장만하고 모시는 차례였다. 2000년도에 종부의 남편이 돌아가시고, 2002년부터는 기제사도 2대 봉사로 간소화한 터였다. 큰며느리는 설 며칠 전부터 전화를 하여 제물로 무엇을 얼마나 장만해 가야할지 종부에게 물어왔다. 원래 차례상은 일곱 반상을 차려야 하기 때문에 여느 집 제물장보다 몇 배나 많은 분량을 구입해야하나, 종부는 며느리에게 한 반상만 차릴 정도로 준비해오라고 하였다. 그래도 큰며느리는 과일을 한 상자씩, 산자도 넉넉히, 밤도 2되나 넉넉하게 준비해왔다.

일곱 반상의 뭇은 시아버님, 시어머님, 자손이 없이 돌아가신 남편의 친할아버지 부부와 작은할머니, 돌아가신 첫째 시동생과 남편의 뭇이다. 한 상에 떡국 두 그릇을 함께 올리는데, 영감님은 주발이고 마나님은 바리에 담는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한 반상씩 제물을 모두 바꾸어 새로운 반상을 차려 올리고 절을 하였으나, 이번부터는 혼백과 떡국만 갈고 다른 제물은 그대로 두고 지냈다. 영정은 주독 안에 맏아들이 직접 지방을 써서 순서대로 바꾸어 붙인다. 권종부는 며느리들과 함께 시아버지, 시어머니 반상에만 절을 하였다. 손자, 손녀들은 남녀 구별 없이 아버지를 따라 모두 절을 하였다. 설 명절이 지난 후 어린 손주가 아주 여러 차례 하는 절을 모두 따라하다가 병이 났을 정도다. 아들들 가족과 시동생들 가족 모두가 모여 함께 차례를 지냈다.

차례음식은 과일과 떡국 등이며 기제사에 올리는 나물과 조기 등의 고기와 떡은 올리지 않기 때문에 기제사 때보다 간단한 편이다. 떡국도 방앗간에 주문하여 모두 썰어오게 하였다. 수절과는 종부가 직접 담았지만 유과류는 구입하였다.

차례를 올린 다음 젓상을 물리고 모두 모여 세배를 한다. 시동생과 동서들이 종부와 먼



설날 부엌에서 제물을 장만하는 중부와 동서 며느리들



설 차례 상차림



은 가족이 절하는 모습



조상차례를 모두 마치고 중부가 아들, 며느리에게 세배를 받는 모습

저 세배를 하는데, 이때에는 중부도 맞절을 한다. 그 다음에 아들, 며느리들이 중부에게 세배를 하고 삼촌들께도 세배를 한다. 이어서 손자들의 세배를 받는데, 아들들에게는 세뱃돈을 받고 손자들에게는 세뱃돈을 준다.

몇 해 전만 해도 세뱃꾼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많이 줄어들었다. 설 연휴 기간 중에 조카들이 다녀갔다.

### 3. 집고사

권 중부는 시어머니께서도 정성으로 위하였던 집고사를 지금도 지내고 있다. 집안을 위해서 지내는 '가을고사'로, 10월 상달에 좋은 날을 택해 집의 터를 위하는 고사를 모시는

데, 이러한 의례는 친정집에서부터 보아오던 것이었다.

친정집에서는 집안에 있는 큰 나무 아래 제물을 잘 차리고 아버지가 제복을 갖추어 입고 절을 하였던 것을 보아 왔다. 시집에 오니 집 뒤 장독대 옆 영산홍 나무 옆에 고사시루를 놓고 시어머니가 절을 하였다. 시집에서보다는 제물이 조금 간소하다는 것이 다르기는 하였으나 늘 보아오던 것이라 “여기가 무수동인가…”했을 정도로 집안 분위기가 기풍이 서로 다르지 않았다.

떡시루 안에 대주 밥그릇에 담은 쌀과 물을 올리고 초를 켜고 절을 하였는데,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남편과 아이들이 제배를 하고 종부는 옆에 서서 비손만 한다. 소지를 올리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런 무당일은 시어머니도 하지 않으셔서 종부도 할 줄을 모른다. 터주의 신체는 작은 항아리에 벼를 넣고 고깔 모양의 짚주저리를 씌운 것으로, 해마다 남편이 새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짚을 구하기도 어려서 지난해 모두 불에 태워 없애 버리고 건궁으로 위하고 있다. 이 맥의 경우에는 터줏가리 외에 그 옆에 하나를 더 만들어 두었는데 무엇이었는지는 모른다. 가운데 막대기를 땅에 꽂아 세우고 짚주저리를 세워두었던 것인데, 무엇인지 들은 적이 없다.<sup>10)</sup> 터에 절한 후 그대로 제물을 대청마루에 가져다 두고 다시 절을 한 후 여러 접시에 나누어 안방, 사랑방, 광에 가져다 둔다. 이웃에도 며느리가 떡을 한 접시씩 나누어주었다. 이 일은 아들들도, 손자들도 같이 절을 하면서 잘 하고 있다. 며느리들도 불만 없이 잘하고 있어, 권 종부 사후에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종부는 믿는다.

마을에서도 매년 정월에 마을고사를 지내고 있으나 여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 4. 음식과 세시풍속

종부에게 특별히 집안에서 전해오는 음식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신선료를 잘하셨어요. 사랑에 손님이 오시면…”

10) 『안산시사』 중권(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393쪽)에 남편 유문형이 제보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터줏가리와 함께 업주저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집에는 안채 뒤란에 터주와 업을 함께 모셔놓았는데, 해마다 음력 시월 초하루에서 사흘 사이의 하루를 골라 떡시루를 바친다. 떡 위에는 쌀이 담긴 주발을 놓고 가운데에 촛불을 막아 둔다. 이때 유씨는 제배만 올리고 비손은 하지 않는다. 집안 식구들은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으나 이들 집지킴에 관심이 없어서 유씨 혼자 받든다고 한다. 왼쪽의 터줏가리에는 해마다 단지에 햅쌀을 갈아넣으며, 업에는 이엉을 틀어 덧씌운다.”

시아버지는 손님 청하기를 좋아하셨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궁중요리에 보이는 신선로를 잘 만드셨단다. 지금도 낫으로 된 신선로 그릇을 두 개 가지고 계신다. 시어머니께서 만드실 때 옆에서 도와드리기는 하였으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잘 만들지 않았다. 손이 아주 많이 가는 음식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셨느냐는 질문에는 요즘 방송되고 있는 대장금에 나오는 것과 같더라고만 하신다. 방송국에서도 자주 음식 만드는 걸 찍고 싶다는 섭외가 오는데, 무척 꺼려하시는 것 같다.

요즘 중부가 챙기는 세시풍속도 아직은 남다르다. 1년 중에 꼭 하는 일에 대해 여쭙어 보았다.

“된장은 요즈음 2년에 한 말씩 썬요, 전에는 (남편이) 많이 도와줬는데… 지난 해에는 혼자 했어요. 올해는 안 썬어요. 아직 많이 남아서…간장은 정월에 담귀요. 제사 있는 집은 2월 장은 안 쓴다고 해서,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전에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데요. 2월에 담근 장은 제사에 안 쓴대요. 그래서 음력 일월 달 끝부분에 말 그려져 있는 날 딱 정해서, 말날 간장을 담귀요. 된장은 가을에 아무 날에나 썬고, 전에 어머님이 그러시드라고요. 김장은 11월 말에 며느리들이 와서 해요. 일요일 날… 시어머니 때는 김장을 참 많이 담았어요. 열독 정도 담아서 집 뒤란에, 땅에 다 묻고…참 많이 했지요.”

역시 간장, 된장 담는 일과 김장 일이 제일 큰일이었나 보다. 매달의 풍속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하였다.

정월 대보름 전날, 열나흔 날 저녁에 오곡밥에 나물 먹고 다음날 아침 일찍 땅콩과 호두로 부럼 깨고, 귀밝이술을 마신다. 정월 열나흔 날 저녁에 나물과 오곡밥을 먹는 날에는 김치를 먹지 않았다. 2월 초하루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제주도에 갔더니 2월 영등제라고 행사하는 것을 보았으나, 여기 풍속에는 그런 것이 없다. 3월 삼진날은 제비 오는 날,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에는 절에 가고, 오월 단오는 그네 뛰는 날인데 별다른 기억은 없다. 6월에는 예전 친정에서는 유두차례라고 하여 국수를 삶아 사당에서 차례를 지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지 못했다. 칠월 칠석에도 친정에서는 친정어머니가 밤에 밥과 미역국을 끓여서 뒷마당 장독대 위에 얹어놓고 비는 것을 보았다. 친정의 경우 오빠를 10년이 넘어서 낳았기 때문에 자손을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인 듯하다. 8월 보름에는 추석차례를 지내고, 9월 9일 중구에는 절에 가고 10월 상달에는 터주에 고사를 지내고, 11월 동지에는 팔죽을 해 먹는다. 그러나 방마다 떠 놓거나 문에 뿌리거나 하지는 않고 이 날 절에 간다. 윤

달에는 수의하고 조상님 무덤을 만지는 산(山)일을 하는데, 요즘에는 납골당 하는 것을 이 달에 많이들 한다.

## 5. 종택 - 경성당



경성당 전경

지금 종부가 살고 있는 종택의 사랑채인 경성당(竟成堂)은 건축학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아 학계에 잘 알려진 건물로, 진주 유씨네 21세손이자 차종손인 유신(1748~1790)의 아들인 중서(重序, 1779~1846)가 둘째아들 방(甯, 1823~1887)이 살림을 날 때 지은 집이라고 한다. 그 유명세에 비해 너무 낡아 허물어져 가던 것을 지난 2002년에 안산시의 지원

을 받아 말끔히 복원하였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랑채 복원문제를 모두 추진해 두었던 것이다.

인근에서는 이 집을 “메미골 한옥집”이라고 부른다. 아랫말에 있는 한옥집과 구분하기 위해 자연마을 명칭을 앞에 붙인 것이다. 집터에 대해서는 지난 봄 고조부(甯)의 산소를 옮길 때 (안산-수원간 고속도로 건설로 혈맥이 끊겼기 때문에) 공주에서 초빙해 온 풍수오 아무개가 “수십 대를 이어가면서 보전해야 할 자리입니다. 재벌 정 아무개의 재산과 바꾸어도 아까울 만큼 좋은 자리입니다.”라는 극찬을 남겼다고 한다. 또한 안채 뒤에 파 놓았던 방공호가 뒷산에서 흘러내린 정기를 끊어놓았다는 그의 말에 따라 이것을 메꾸었다.

170여 년 된 경성당 사랑채 지붕은 팔작 기와지붕이며 서쪽 끝에 한 칸의 누마루를 내어 지었다. 누마루 뒤쪽에 각 한 칸씩의 방(작은사랑)과 마루가 있었으나, 몇 해 전 마루를 반으로 줄이는 대신 방을 그만큼 넓혔다. 큰사랑 다음 칸은 본디 부엌이었으나 이곳에 보일러실을 꾸미고 전면의 텃마루에는 화장실을 두었다.

큰사랑 전면 상부에는 동농(東農) 김가진(金嘉鎭, 1846~1922)이 쓴 경성당 현판과 돌아

가신 남편 유문형의 증조부遠聲가 썼다는 경성당기(竟成堂記)가 걸려 있다. 이밖에 사랑채 기둥마다 걸려 있는 22개에 이르는 주련(柱聯)도 흥미롭다. 이 가운데 누마루에 걸린 3개의 주련만 소개한다.

山高華帽峰 下居簪纓之族村深覆釜谷中有鐘鼎之家(산고화모봉 하거잠영지  
 족촌심복부곡중유종정지가 : 높은 산 화모봉 아래 빗살처럼 모여 사는 한 가  
 문, 이들이 사는 깊은 골 부곡마을에는 집들이 술발처럼 들어섰구나)  
 이것은 원성이 73세에 쓴 것으로 화모봉은 사랑채 건너편의 봉우리이다.  
 宣廟賜牌之局寸土勿輿於他人(선묘사패지국촌토물여어타인 : 선조께서 내려  
 주신 땅, 한 줌이라도 남에게 넘기지 말라)  
 星祖定礎之基十世相傳于後裔(성조정초지기십세상전우후예 : 성조(14대조의  
 아호가 星山이다)께서 터를 잡으신 곳이니 후세까지 보전해 나가라)

안채는 17년 전에 새로 지었다. 초가였던 안채 부엌 서쪽으로 각 한 칸씩의 헛간과 뒷광이 이어 달려 있고, 여기에서 북으로 꺾여 역시 한 칸씩의 뒷방·뒷대문·안뒷간이 이어져 있다. 뒷광에는 김치·짬지 등이 담긴 단지를 두었고, 뒷대문은 행랑 출입을 위한 것이다. 지금의 안채를 짓는 데 쓰인 재목은 서울 미아리와 종로구 당주동에 있던 한옥 것을 많이 썼고, 들보는 인천에서 수입목(미송)을 사서 대신하였다. 이때 기와는 앞의 두 집 것을 그대로 썼으나 겨울에 터지는 등의 부작용이 많아 암키와·수키와를 한 장으로 구운 현대식 시멘트 기와로 바꾸어 덮었다.



새로 복원한 우물과 경성당의 누마루

대청 지붕틀은 무고주칠량(無高柱七椽) 형식으로 걸었으며, 전면에는 6짝의 분합문을 달았다. 새로 지은 안채와 재래식과의 다른 점은 건넌방 옆에 수세식 화장실을 붙인 점과 부엌을 입식으로 바꾼 점, 그리고 안방의 난방을 보일러식으로 개량한 것이다. 또 사랑마

당 남쪽에 1백여 평에 이르는 넓은 연못이 있었으나, 사랑채 누마루 곁에 있는 우물물이 줄어들어 급수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30여 년 전에 밭으로 만들었다.<sup>11)</sup>

당시 폐수가 된 그 우물을 급년에 종부가 안산시의 지원을 받아 복원하여 맑은 물이 넘치고 있었다. 종부는 이 우물에 대한 추억을 담은 수필을 써 지난해 『창작수필』 2002년 겨울호 제45회 등단상 당선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경성당에 대하여 종부는 조사자에게 다음과 같이 적어 주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조상님께서 귀하게 여겼던 것은 모두가 나도 귀하게 생각하고 아들들도 귀하게 생각한다. 쓸쓸한 고가를 지키는 나는 고독하지만 긍지를 갖고 산다. 앞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변해야 한다.

## 6. 가전 유물(家傳遺物)

이 태에는 14대째 보관하여 온 유물이 있다. 이것은 진주 유씨 차종가 고택인 경성당(竟成堂)에 소장된 사료들로 지난 1997년에 공개하였는데, 고문서, 간찰, 시문초고 등 1천 6백 여 점에 이른다. 고문서의 80% 가량은 진주 유씨 차종손인 모산(帽山) 유원형(柳遠馨, 1851~1945)과 관련된 것으로, 그는 구한말인 1906년에 평남 개천군수 및 맹산군수를 지내셨던 분이다. 그는 1910년 경술국치 후 모든 관직을 버리고 안산 향리에 내려와 은인자중하며 일생을 보냈다. 이 분이 유문형의 증조부가 되며, 종부 권씨도 이 분의 관복 입은 초상화를 경성당에 걸어두고 있으며, 소장 고문서에 대한 애정이 대단함을 알 수 있다.

이 사료 중에는 특히 구한말 격동기의 지방행정과 위민정책을 알 수 있는 관부 문서와 시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개화기 사료들은 일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말살되어 역사의 공백기로 남아 있는데, 경성당 고문서 중에는 민족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갑오경장에서 한일합방에 이르는 기간의 중앙 및 지방관아의 관부 문서가 많아 역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료들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주막집 주모가 몽당뽕으로 어눌하게 기록한 손바닥만한 언문 외상청구서 등도 보관되어 있어 당시의 생활상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 경성당 고문서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계회도(契會圖), 급분첩(給分

11) 『안산시사』 중권, 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390~393쪽 참조.

帖), 도장문기(導掌文記), 도장권처리결정문(導掌權處理決定文), 고행록(苦行錄), 시권(試券), 조장(弔狀), 신영시하기(新迎時下記, 1906년), 흠포전분배기(欠連錢分配記, 1906년), 석전대제여육단자(釋奠大祭餘肉單子, 1907년, 성균관의 춘절 석전대제와 관련된 문서), 혼서지, 사주단자(유한수, 1886~1962, 혼례 때 사주를 적어 신부집에 보낸 단자) 등이 있다.<sup>12)</sup>

종부 권씨는 지난 1997년, 남편과 함께 먼지가 쌓이고 구겨진 고문서를 다리미로 다리고, 펴고, 정리하였으며, 이 문서의 해제작업을 돕기 위해, 여러 날 동안 작업을 하는 일행들의 밥을 지어 먹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남편 유문형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를 점검하면서, 『안산시사』 집필을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경성당에서는 몇 건의 병풍과 글씨 등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현재 고문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보관중이고, 기타 유물들은 경기도박물관에 위탁하여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7. 경제적인 환경

종가로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없다. 시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유전되던 땅이 있었으나, 시아버지 생전에 마을 옆으로 도로가 생기면서 논, 밭의 일부를 매도하였다. 나머지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종손인 남편에게 유산을 물려주었으나, 이 일은 유언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시부님께서 유언을 하셨다. 내용은 생략하고, 법적인 증거가 없이 구두로써 당신 신념만을 믿으시고 어떤 절차도 밟지 않으셨다. (종부의 남편인 장남에게 물려주시는 유산에 대한 것인데) 시부님 사후에 정리를 못하고 그냥 두었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후 시부님의 7자식과 서모의 몫으로 분배되었다. 이것이 현실인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언을 공증과 같은 법적인 장치를 해두지 않고, 구술로만 하셨다는 말이다. 종손인 남편이 부친의 유언대로 하고자 하였으나, 형제들의 반대가 있었

12) 『안산시사』하권, 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1023~1051쪽 참조.

다. 그래서 이를 정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종손이 돌아가시면서 시동생에게 재산분배에 대한 일을 맡기고 돌아가신 것이다. 시동생이 주관하여 분배를 하였는데, 시아버지의 유언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종손은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던 것이다. 지난 해 일을 마무리했는데, 남편 몫으로 분배된 재산을 다시 정리하였다.

나는 조상님께는 죄송하지만 2대 봉사로 제사를 줄일 것을 결정하였다. 아버님의 유언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만 홀가분하다. 매스컴에 떠도는 일이 아니고 나에게도 현실이었다.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종가도 보존된다고 생각한다.

종가의 재산분배와 관련해서 적어준 종부의 심경이었다.

젊은 시절, 종부는 남편의 월급으로만 생활을 했다. 월급을 받으면 먼저, 그 달에 제사지낼 비용을 먼저 떼어두고 다른 쓰일 몫대로 나누어 알뜰하게 생활을 했다. 그 돈으로 제사 지내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부동산 투기같은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안양에서 처음으로 전세로 살고 있던 28평 아파트를 무리해서 구입하였다. 정년 후 결혼한 큰아들에게 그 아파트를 물려주고 종택으로 들어왔다. 남편인 유문형도 경제적인 면으로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월급쟁이는 항상 모자라아!!! 그래서 아들들한테는 월급쟁이 하지 말아라. 그래요.”

종부의 알뜰하고 지혜로운 생활모습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살필 수 있었는데, 특히 아이들을 한창 키울 무렵에는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자신도 털실로 옷을 직접 떠 입었는데, 그때 입은 스웨터가 지금도 있다. 요즘에는 손녀들에게 털실로 인형옷을 짜준다. 여름에는 짧게, 겨울에는 길게 드레스를 짜주면 아주 좋아하는데, 이것이 할머니가 손녀들에게 인기를 얻는 비결이다.

## V.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기억과 관심

### 1. 태평양전쟁과 일제시기

종부가 국민학교 4학년 때가 태평양전쟁이 한창인 때였다. 학교에 가면 공부는 하지 않고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말먹일 풀을 베고, 관솔(소나무 송진)을 따고 학교 운동장을 파서 콩을 심고, 시내에 나가서 말뚱, 소똥을 주워 운동장에 심은 콩에 거름을 주었다. 식량이 부족해서였던 것 같다. 전쟁의 막바지 무렵에는 적기가 왔다고 매일 방공호에 들어가라고 했다. 그때에는 솜방석같은 것의 한쪽을 꿰매고 양쪽에 끈을 달아 머리에 썼는데, 폭격소리가 나면 이것으로 눈과 귀를 막고 대피굴로 뛰어갔다. 이것이 폭격을 막아준다고 했다. 당시에는 B19기가 수시로 왔다갔다하여 항상 방공연습을 했는데, 실제로 폭격을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당시 종부는 아버지가 직장에 다니느라 대전 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피난차 무수동 종가로 이사를 갔다.

일본어는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배웠는데, 학교에서 우리말을 쓰면 이름을 적어 벌을 주기도 하였다. 마을에 일본신사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참배를 하면 공책 뒤에 도장을 찍어주었는데, 성적과 연결되었던 것 같다. 이것을 잘하지 않으면 벌을 받았다. 4학년 때 담임은 일본인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철저하게 잘 지도를 해주어 해방 후에도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그 당시 옴이라는 피부병이 많았는데, 종부도 옴에 걸려 3개월간 휴학을 하였다. 국민학교 입학 당시에는 벚꽃 핀 학교에 행복하게 입학하였으나 전쟁으로 시골에 전학을 가기 전 상황은 너무도 험악하였다. 어린 마음에 상처가 컸다.

당시 학교에 들어갈 때에는 모두 창씨개명을 해야 했으며, 부친도 도시의 직장에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어야 했다.

“시골있는 사람들은 안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하데요. 수풀 림, 어질 인, 아들 자, 동림 인, 아스모토히도꼬또. 이름을 아스모토라고 하고 성만을, 동림을 오토바이시라고 하데요. 동림은 성이고, 인자는 이름이고, 인자가 내 이름이야. 학교 들어갈 때만 쓰고 학교 다니는 동안에만 불렀지, 집에서는 안 불렀어요. 초등학교 2~3학년까지 쓰고, 해방되고 나서는 없어졌어요. 도시에서 공직생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창씨개명을 해야 했

어요.”

“왜정 때, 왜정 때는 치마를 못 입게 했어요. 몸빼를 입어야 외출을 할 수 있었어요. 기차도 못 탔어요. 치마를 틀어서 몸빼 바지를 해 입었어요. 완전히 강제적이었어요. 우리는 그 당시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어머님이 항상 외출하실 때에는 머리를 쪽지시고 몸빼 바지를 입으셨어요. 전쟁 날 때는 굉장히 심했지요. 강냉이밥을 먹고…”

종부는 한참 잠잠히 계시다가 요즘 정치 때문에 아들과 얘기할 때면, “니들이 전쟁을 알아?” 그러신단다. 요즘 유행하는 TV광고다. “니들이 게맛을 알아?”

## 2. 한국전쟁

종부가 중학교 2학년 때 전쟁이 났다. 전쟁이 난 사실은 몰래 놀러간 극장에서 알았다.

“대전극장에서 친구와 「햇님과 달님」이라는 여성 창극을 보고 있는데, 마이크로 ‘어느 부대 비상입니다. 귀환 하시오’ 라는 방송이 나오는데, 어린 마음에 들은 척 만 척하고 구경만 했거든요. 국극인데 일요일날 봤어요. 극장에서 나와서 보니까 저녁 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 그 당시 오빠가 실종되어서 어머님은 항상 기다리시고, 항상 우시더라고. 어느 날 서울에서 시골까지 걸어서 왔어요, 오빠가. 거지꼴을 헤가지고 오면서, 언어 먹으면서 왔대요. 살아서 돌아왔지. 어머님은 안고서 한없이 우시면서… 아들이 죽은 줄 알았대요.

대전은 완전히 폐허였어요. 집에서 보면 비행기가 와요, 비행기에서 새까만 게 주루룩 쏟아져 내려. 몇 초 있다보면 쿵쿵쿵 소리가 나. 우리는 항상 보초. 시내 쪽으로. 우리는 산 밑에 있으니까, 피해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젊은 나이여서, 산에서 구경하다가 인민군들에게 붙들려서 아주 혼났대요. 집에까지 붙들려 와서 사실, 아무 것도 아니라니까 풀려났어요. 오빠가 다섯 살 많은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허전한 집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어요. 나는 뭐 아직 어리니까 인민군들 심부름해주고, 후퇴하는 사람들도 보고, 언니는 처녀라고 저 외딴 집에도 숨겨 놓고, 어머님과 아버지와 나는 큰 집에서 그렇게 살았지.”

종부가 살았던 마을 이름이 무수동(無愁洞)이라, 근심이 없는 곳이라고 소문이 난 탓인지 실오라기같은 끈을 따라서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와 인산인해로 지냈다. 대전에 폭격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의 ‘뎀소장’ 이 그 곳에서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많은 대가를

주고 풀려났던 사건은 유명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후퇴하던 인민군들 중에는 신이 없어 천으로 발을 동여매고 거적을 두르고 가던 모습, 어느 장교가 부엌에서 아궁이에 일기장을 찢어 태우고 백지로 남은 부분은 종부에게 떼어 주면서 쓰라고 하였던 일, 그 장교가 종부의 수첩에 적혀있던 「신라의 달밤」(현인 노래) 노래가사를 가지고 싶어 하여 떼어주었던 일 등은 잊을 수가 없다. 그 때 보았던 인민군은 규율을 엄하게 지키는 군인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결코 사람들을 해치거나 강제적인 피해는 주지 않았던 것 같다.

“신라의 달밤은 수첩에 왜 적어 놓으셨어요?”

“그땐 한창 유행했잖아요.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가사도 좋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신라의 달밤 노래를 잘하세요?”

“몰라. 어릴 때는 유행가도 많이 알고 했지만. 그 당시 클레이지 러브같은 것, 팝송같은 것도 많이 알았는데. 지금 어떤 때 그 노래가 나오면 참 좋아.”

어머니는 젊었을 때에도 심장이 약하셨다. 당시 어머니께서 몸이 너무 쇠약해지면서 심장이 악화되었을 때 미군들이 가지고 왔다는 ‘페니실린’으로 목숨을 건진 일이 기억난다.

### 3. 사회·정치적 관심

종부는 요즘,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지난 시절 선거에 대한 기억을 물어보았다.

“이승만 대통령 때는 엄청 데모가 많았어요. 4.19 때는 처녀였고, 집에 있었지. 이때까지 투표는 꼭 했고, 투표 안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승만 때인가? 3인이 모여서 조를 짜서 물표를 찍었죠. 실제로 그렇게 투표를 했어요. 어릴 때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또는 이장이 누구를 찍으라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 땐 기억이 별로 안 나네. 결혼하기 전이니까 방황했던가봐.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때 경황이 없었을 거야. 대전여고 졸업하고 시집 갈 때까지 십여 년이 되는데…

60~70년대는 한창 결혼생활 하느라…공무원 퇴직하시고, 사업 실패하시고 그리고 안

산 시댁으로 이사하고 할 땐데...그러니까 내가 정신없이 살 때였으니 관심 없지, 한창 힘들고 정신없었지요 뭐.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는 우리 아이들 데모 할까봐 마음 조리던 걸 생각하면, 그때도 엄마보다 저희들이 판단이 있으니까, 싫어서 항상 믿었어요. 지식들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지는 않았어. 나는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있으면 항상 김영삼을 찍었으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김대중을 많이 찍데...”

“투표하실 때 가족들과 미리 의논을 하세요?”

“아니요. 자기 주장대로 했어요.”

예전에, 남편과 서로 다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서, 권 중부가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남편이 그 대통령이 잘못하는 일이 일어나면, “보라고, 뭐가 잘하느냐”고 하면서 놀리고는 하였다. 최근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권 중부가 지지한 후보가 되지 않아 아주 가슴이 아팠다. 선거를 하기 전에 아들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안정을 지지하는 권 중부와 386세대로 개혁을 주장하는 아들들과는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때도 속이 상해서 “니들이 전쟁을 알아? 6·25를 겪어 봤어?”라는 소리를 했다. 안정을 먼저 취한 다음에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권 중부의 의견이었다. 그래서 중부는 요즘 한창 논란 중에 있는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도 파병찬성 쪽이다.

“이라크 전쟁을 보면 비참하지요 뭐, 종교전쟁이지? 파병은 우리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가야지요, 누가 앞으로, 우리도 받을지 아나, 6·25때 그렇게 많이 와서 도와 줬는데...”

“나는 뉴스도 많이 보고, 100분 토론도 다 봐요.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그저 알고 싶어서...”

동창들하고 모이면 정치 얘기를 많이 한다. 공통 화제로 하기에 제일 편한 얘기다. 그리고 동창 중에 유명한 정치가의 부인이 있어서 그 사람이 행사를 하면 동창으로서 얼굴을 내밀어야 한다. 조사자와 면담이 있던 날 밤에도 중부는 TV에서 하는 정치 관련 시민토론을 늦도록 보고 잤다. 그리고는 각 당의 대표들이 나와 서로 돈을, 소위 정치자금을 조금씩만 쓴다고 하는 것을 보고는 “우습다”고 생각했단다. 실천하지도 못할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스웠다는 얘기다.

“요새는 TV 참 재미없어요. ‘장금이’ 나 보지 뭐, 뉴스를 봐도 재미없어. 아까 보니까 중국 자금성 보여주던데, 그런 거 좋아요. 요새는 뉴스 보면 답답하지 뭐, 정말 어디로 가는 건지...”

종부는 TV 뉴스, 정치토론 프로그램 뿐 만아니라 KBS 「진품명품」을 즐겨본다. 특히 진품명품을 재미있게 보는 것은 가전유물에 대한 애정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보인다. 종부는 요즘 사회에 대해 이렇게 쓰셨다.

너무도 급변하는 사회를 보면 70대 우리들은 어지럽다. 아침이면 신문을 꼭 보고 심야토론 방송도 꼭 본다. 관심과 할 일 없는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내 스스로 판단이 하고 싶다.

## Ⅵ. 가치규범

### 1. 신앙생활

권 종부는 약 30년 전부터 안양에 있는 삼막사 절에 다니고 있다. 매달 초하루와 4월 초파일 등 때마다 다니면서 가족의 안녕과 아들들 학교 합격을 기원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교통이 불편해 잘 가지 못한다. 기도에는 쌀 한 되에 초 2개를 쓰는데, 쌀은 본당에 놓고 초는 칠성각에 켜다. 삼막사는 특히 칠성각이 영험한 기도터라고 한다. 요즘에는 주로 4월 초파일에 가서 연등 하나를 단다. 거기에 아들, 며느리, 손자이름까지 다 적는다. 큰며느리와 함께 절에 간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에 있어서 함께 가지 못한다. 어릴 때 친정어머니께서는 절에 있는 사람을 불러 시주를 하는 것을 보았다. 절에도 함부러 다니지 않았던 것 같다.

“아들들은 무교야. 아무 것도 없어요.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내려오는 전통이지, 조상이 하던 전통 아니에요?”

종부는 매년 10월 상달에 집안의 안녕을 위해 터주에 고사를 지내는 것도 전통이라고 보

는 것 같다. 기제사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또 종부는 아들 결혼 때에도 궁합을 보지 않았다. 미신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이미 좋다고 결정한 후였기 때문이다. 무당을 즐겨 찾지는 않지만 아이들을 키울 때 학교문제로 역학을 보는 데가 있다. 얼마 전에도 막내아들의 일거리와 결혼문제로 가보았다. 효자동에 있는 이○○라는 젊은 여자 역학자인데 신청을 하면 3개월 후에나 순서가 돌아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다. 특히 학교 점을 잘 맞추는데, 막내아들에 대해서는 사주가 좋아 항상 대학교도 가든지 말든지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였단다. 한 번 보는데 한 명당 3만원씩 준다.

## 2. 요즘 주부들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요즘 젊은 여자들이 사는 거 보면 어떠세요? 애들 교육시키는 거 하며, 어른 모시는 거 하며?”

“자유스럽고 좋지 뭐”

“어떤 면에서요?”

“시집살이 안하고, 분가해서 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그래요, 난, 집에만 있지 말고 자기 개발 좀 했으면 좋겠어. 지금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너무 엄매였어. 오히려 지금 엄마들이 더 자유가 없어요. 꼼짝을 못해. 아이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니까... 아이들은 더 나약해지고... 아이, 딱해. 교육제도가 바뀌야 되는데. 주위에 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을 너무 과보호해서 허약하게 만드는 거 같애. 좀 더 하고 싶다는 것을 시켜서 개성 있게 키웠으면 좋겠어.”

종부는 며느리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잘 알아서 한다고 믿기 때문이란다.

“자식 사랑은 옛날보다 지금 엄마들이 더한 것 같아요. 이유식같은 것도 여러 가지 넣어서 만들어서 먹이는 거 보면, 난 대견해. 우리 때는 그냥 죽 만들어 맥였지, 언제 당근 갈고 뭐 갈아서 맥이고... 그래서 지금 엄마들이 자식 사랑이 더 꼼찍한 거 같애. 근데, 이혼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난 그 가정교육이 문제인거 같애요. 웬만한 집안에선 어떻게 이혼을 해요? 이혼은 하면 안 되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맞고 사는 거야 극소수지. 난 그걸 주장해. 자기 인생보다도 자식들 생각해야 되고, 또 자식들 불행하게, 이래저래 떠들게 하지 말고…”

“젊은 엄마들한테 그 얘기는 하고 싶어. 자기 능력개발 해가면서 살게끔…우리아 뭐, 그냥, 세대가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뭐 마스크를 통해서 자기 개발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자식한테 뭐, 자식한테 잘 못하지는 안잖아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했으면 좋겠어. 우리 세대 때는 뭐, 가전제품이 뭐가 있었어요, 밥솥이 있었어요, 세탁기가 있었어요. 밥하고 손빨래하고… 지금 사람들이야,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돌아요…그 대신 공부를 하든, 자기 개발을 하라는 거지…성공한 여자들 보니 그런데.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 부지런 떨으면, 아무 지장 없대요? 나는 뭐 직장생활 안해 봤으니까 모르지마는…힘들기는 하겠지.”

“요즘 여자들 반찬도 사먹는데, 그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조리기구는 좋은 게 또 얼마나 많은지. 어른들한테는? 예전 세대들은 같이 살았으니까…그냥 지금 사람들은 (부모님께) 전화 자주 해주고, 관심 보여 주면 되지 뭐.”

“친정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종부님은 잘하셨어요?”

“그때는 뭐, 전화도 없고, 편지도 잘 안 썼으니 잘한 거 없지 뭐.”

시아버지께서는 평상시에도 깍듯이 해 드렸다. 원하시는 반찬, 외상으로 혼자 상을 차려서 가져다 드리고, 연세 드셨으니까 소화 잘되는 것 가려서 음식준비하고, 시간 지켜서 간식도 해 드리고, 자리끼도 꼭 챙겨드렸단다. 종부가 어른을 모시는 방법이다.

요새는 대부분 시어른들과 분가를 해서 시는데, 며느리보다 늙은이들이 함께 사는 것을 더 싫어한단다. 서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다가 부모님이 힘 없어지면, 그때 가면 어쩔 수 없이 자식들과 같이 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시아머니로서 요즘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가문에 내려오는 법도는 계속 지켰으면 좋겠고, 설, 추석 차례하고, 서로 생일같은 거 잘 챙기고… 조상에서 내려오던 그 법도는 지켰으면 좋겠어. 제사 차례도 확 줄었으니까,

그거 좀 잘해 줬으면 좋겠고… 요즘 애들은 생일, 서로가 잘 챙기더라구요…남편과는 서로가 보완해야지 뭐. 서로가 생활도 같이 할 수 있으며 같이 했으면 좋겠고… 내조는 남편 하는 일에 관심 갖고, 될 수 있으면 도와주고…”

“예전 우리 전통적인 관습 중에서 이것만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꼭 지켜졌으면 싶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명절 차리고, 제사 지내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 이렇게 가족이 모이는 계기가 되지요? 동서끼리도 음식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런 계기가 되니 이어졌으면 좋겠고, 사실 4대 봉사는 부담스럽고, 2대는 적합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봤으니까. 애들이… 기독교 믿는 가정 보며는 국화꽃 한 다발 딱 놓고서, 그냥 기도를 드리더라고…그거보다는 이렇게 조상님들 숭배하고…그러니까 나는 애들한테 교육도 안 시켰고, 할아버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고, 내가 하다보니까 저들도 그렇게 하려니 하나니까…이게 하나의 교육이 되는 것 같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손녀, 인제 두 돌도 안 된 여석이 그냥, 그저, 아빠가 절하니까 저도 하고, 그러더니 병이 나서 저러구 아파서 있잖아. 하나 안 시켰는데도 아이들이 그렇게 절을 잘하데. 그리고 존대말 쓰고… 그게 좋다고 보는데, 그게 우리나라 문화여, 그게 우리나라 문화지. 내가 이런 소릴 하면 나보고 고리답답하다고 그래요, 어디 외국가고, 콘도에 가서 제사 지내는 집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내가 고리타분하지 뭐. (콘도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 그거요? 말도 안 되지 뭐, 안 할라면 고만 두지 뭐, 거기 다 제사 음식 가져다 해주는 것도 있다며? 그건 안 하는 게 낫고. 그래도 집에서 해야지.”

“근데, 올해 (설 차례는) 너무 추워서 그랬는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큰 아들한테 가야 되겠다 싶어요. 이제 여기는 너무 추워서 힘들더라고. 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안양에서 지내고 시아버님이 제사 지내러 오시고.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옛날 것에서 타파해야할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4대 봉사는 안했으면 좋겠어. 2대 봉사하고 설, 추석 명절만 하고…”

“또, 없어지지 말았으면 하는 우리 전통문화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 다 없어졌는데 뭘, 이제 세뱃꾼도 안 오지, 옛날에는 수 십 명이 오고 다 차려 내느라 힘들었는데, 어른이 돌아가시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그런데, 또 우리 후세들이 또 와서 절을 하고, 그래서 아직 남지요. 우리 애들이 또 이모댁에, 고모댁에 세배하러 가고, 또 우리 집에도 시누네, 언니네 애들이 와서 세배해요. 그런 건 있어야지.”

### 3. 관습 규범의 내면화와 저항

권 중부는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제 자유로워졌는데, 저, 중동, 아랍 여자들은 지금도 검은 천을 머리에 쓰고 서로 내외하면서 사는 게 안타깝단다.

중부와 의 대담 가운데서 일관성 있게 드러나는 이야기가 있었다. 선비이기만 하셨던 시아버지와 철저히 남존여비 사상을 지키며 사셨던 시어머니, 그리고 발랄한 성격으로 태어났지만 종가의 규범 속에서 자라 얹전한 제2의 천성으로 바뀌어 버린 자신의 젊은 시절과 한 가문의 중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규범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었다.

“시아버님은 평생을 현실에 맞지 않게 선비로 생활하셨는데, 그게 불만이 되더라고, 시어머니가 밭에서 김을 매시는데, 시아버님은 여름에도 버선을 신으시고 그늘에서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생각엔 시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면 영양제라도 먹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들 힘들었어요. 공무원에다 모두 미혼들이라서, 어머님을 보조를 못 해서 선아홉에 돌아가셨어요. 항상 한복을 입으시고 항상 미소 띤 얼굴이셨어. 시어머니, 당신은 불평이 없으셨지만 내가 볼 때는 안타까웠어요. 선생님(남편)께 말씀드리면 원래 그렇게 사신 걸 어떡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시아버님이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자녀들도 더 훌륭하게 교육을 시키셨을텐데. 예전에 보면 기독교 가정들이 매우 번창했어, 뛰어나잖잖아요(여성들이). 유교 가정들은 그대로그고, 대개 보면 그래요. 김활란이라는 분도 누구도 모두 기독교 인이데요,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 모두 신여성의 길을 걷고 그러더라고…”

“(나한테는)남들이 그래요, 이렇게 법도 있는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뭐가 좀 틀리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얹전하다는 거지 뭐, 연애도 못하고…똥가짐도 바르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남한테 보였나봐. 말도 함부로 안하고 떠들지 않… 개성이 없지 뭐… 현대 여성같

지 않고 점잖하고, 좋은 것도 아니지. 현대여성은 밝고 명랑하고, 나는 그걸 참 원했는데도… 그게 제2 천성이 되네요. 남들도 그래요. 원래 성격은 밝은데, 이런 규범 속에 자라서 그게 있다고…친구가 그래서 잘 봤다고 그랬어요.”

당시만 해도 현대여성이어야 원피스에 블라우스를 입었던 시절이었다. 대부분은 주로 짧은 검은 한복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검은색 하이힐을 신는 게 아주 유행이었다. 종부는 여고를 졸업한 터라 양장을 익숙하게 하고 다녔다. 바지는 입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늘 머리에 쪽을 지고 한복을 입었으나 종부는 비녀 쪽을 진 적은 없었다. 처녀 적에는 언니와 함께 퍼머를 했다.

“우리 세대에는 밖에 일하는 사람 없었어. 약국하는 사람 있었고. 한복을 해서 유명해진 이리자가 친구예요. 남편이 군대를 안 가서 먹고살기 힘들어서 바느질 하다가 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색깔 맞추길 잘한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했으니까 좋지. 손자손녀들한테도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우리 큰 손녀딸이 자기는 작가가 된대요. 유난히 책을 많이 봐요. 요새 동시도 쓴다나… 그래, 작가가 될라며는 보는 것도 많고, 많이 봐야 된다고 그랬더니…”

“근데, 시부모 섬기고 제사 지내는 이 정도는 젊은 여성들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되지, 제사를 지냄으로써 가족이 모여서, 우리 애들도 그래요, 현대 여성이지만 사촌들이 모여서 유대가 되서, 오히려 애들도 좋아하네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기 부부에 아이 하나만 낳아서 기르면, 아무 것도 안되잖아요?. 사촌이라도 제사 때 모여서 음식 먹고 유대관계를 맺고 해야지…”

“나도 경직된 종가의 규범이 부담스러웠지 일이 싫지는 않았어. 시부모님 섬기고 그런 건 신경 안 썼어요.”

종부는 발랄한 성격을 타고 났으나 ‘권진사택 손녀딸’로 자라면서 얌전한 성격으로 바뀌어, 밝고 명랑한 현대여성으로 자신의 꿈을 키우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다. 어린 나이에도 양반대접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기만 했던 종부였다. 자라서는 유교 가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남자처럼 학교를 더 많이 하지도 못하였다. 종부로서 조상을 위하는 봉제사에 불만은 없었으나, 시대에 따라 간소화하고자 시아버지께 개선을 시

도하였던 종부였다. 조선시대 선비의 삶을 사셨던 시아버지와 조선 여인의 삶을 사셨던 시어머니를 모셨지만, 유언만으로는 재산상속이 가능하지 않았던 현대를 사셨다.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강남에 위장이사 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극성 어머니셨 으면서도, 자신의 주장과 꿈은 접어두셨던 조선 어머니였다. 이제 자신을 위해 시 공부를 하면서 노년을 보내시는 종부는 2대 봉사와 한 반상 차리기를 시행하셨다. 종가의 개혁을 이루신 것이다. 현대 여성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게 종부의 생각이다. 조선시대와 현대를 공유한 과도기적 한국 여인의 삶을 보았다.

만약에 저승에서라도 시아버님께서 왜 2대 봉사로 바꾸었느냐고 하시면 무어라 대답하시겠느냐고 질문해 보았다. 마지막 질문이었다.

“이제 시대에 따라 가는 거지 뭐, 이걸 죄도 아니지 뭐”

“시아버님을 설득시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시아버님 때도 말년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이제 이 양반(남편)계실 때 하려고 하다가…그 후에 내가 하자고 했었어요. 시동생하고 다 의견도 물어봤고…”

어찌 설명이 길다싶다. 종부도 남편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마음에 죄스러워할 남편을 생각하여 4대 봉사를 계속 해왔다는 걸 보면, 자신이 그렇게도 바라던 2대 봉사를 실천하고도 죄스러운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다. 현대를 살아가야 할 자식들을 위해 그 죄를 감당하 시는 건 아닐까 싶다.<sup>13)</sup>

13) 종부는 마지막 원고 교정에서 “평생을 지키던 법도를 단축했을 뿐, 앞으로 며느리가 실행해야 할 문제를 내가 했을 뿐이다.”고 부연하여 적어주셨다.

여 백



알고 보니 '일부잣집'  
말며느리더라구

- 과천시 전주 최씨 조용기 종부의 구술생애사

여 백

# 알고 보니 ‘일부잣집’ 만며느리더라구

- 과천시 전주 최씨 조용기 종부의 구술생애사

## I. 개 관

### 1. 조사대상과 구술과정

종가(宗家)에서 종부(宗婦)는 직장자를 출산하여 가계(家系)를 잇는 것과 봉제사(奉祭祀)·접빈객(接賓客)의 역할을 전통적으로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변동 속에서 전통종가는 점차 해체되어 가고 있으며, 종부의 삶도 전통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조사자는 경기도 종부의 생애를 재구성하는 작업에서 종부의 전통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어떤 자의식을 지니고 살아왔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기도 종부의 구술생애사 작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후 초기에는 경기 북부지역의 종부를 중심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였던 종부의 신병으로 갑작스럽게 구술대상자를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때 경기지방사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던 연구자를 통해 과천시 전주 최씨 조용기 종부를 소개받았다. 조용기 종부의 남편은 과천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이셨고,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남기는 작업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셨다. 조용기 종부를 소개해주신 분과 남편의 권유로 구술자의 반성낙을 얻을 수 있었으며, 전화를 통해 만날 날짜를 잡을 수 있었다.

\* 조사자: 홍현영(전 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



조용기 종부와 남편

조용기 종부의 댁은 현재 과천시 문원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곳은 과천 신도시개발로 이주하게 된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었다. 조용기 종부의 댁도 원래는 과천시 막계동<sup>1)</sup> 응달말에 살았는데 과천 서울대공원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1979년에 문원동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조용기 종부 댁은 과천시노인복지회관 옆의 골목길을 따라 200m 정도를 올라가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제일 처음 지어진 집이라 한다.

처음 댁을 찾아갔을 때 컴퓨터를 치고 계시던 종부는 얼른 하던 일을 정리하고 반갑게 맞아주셨다. 집안에 들어섰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거실에 길게 드리워져 있는 줄이었다.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시어머니가 집안에서 활동하시다가 혹 넘어지실 것을 염려하여 달아놓은 것으로, 시어머니는 주방과 화장실을 가실 때 이 줄을 붙잡고 움직이셨다.

먼저 인사를 나눈 후에 조용기 종부께 구술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의도를 설명해 드렸으나, 처음에는 선뜻 응해주시지 않으셨다.

“어머님이 살아오신 삶을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라고 말씀드리자, “지가 살았던 얘기는 아무도 몰라요. 애 아빠도 몰라요.” 하시며,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눈물을 흘리셨다. “어머니 그런 삶을 혼자 가슴에 담고 계시는 거예요?”라고 설득하자, “그럼 나는 묻는 말에 대답만 할게요.” 하시며 구술에 응해주셨다.

조사는 2004년 2월에 종부의 댁 거실에서 이루어졌는데, 구술자의 하루일과가 마무리되는 저녁 7시쯤에 시작되어 3~4시간 정도씩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구술을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종부는 시어머니 수발과 말상대를 해드리느라 작업이 중단되는 일이 잦았으나, 조사자의 질문에 차근차근하게 답해주셨다. 그리고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자, 속에 담아두었던 자신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씩 풀어놓으셨다. 구술이 저녁 늦게 이루어진 데다 몸도 편찮으셔서, 피곤하고 불편한 점이 많았을 텐데도 힘들거나 싫은 내색 한번

1) 현재의 행정구역명은 막계동이나, 원고에는 구술자가 부르는 대로 막계리로 썼다.

없이 진솔하게 자신의 생애를 말씀해주셨다. 조용기 중부의 맥에는 고문서를 비롯하여 여러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기록물이 남아 있어, 이 중 일부 자료들은 집안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원고 작성은 녹취된 내용 중 구술자가 수록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과 반복되는 내용을 뺀 후에, 중부의 생애를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구술자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수록하였다. 가급적 편집을 줄이고 조사 현장의 상황과 구술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려 하였으나, 이야기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편집하여 담았다.

## 2. 막계리 응달말의 전주 최씨 이야기

조용기 중부의 시댁은 전주 최씨이지만 '맥계 최씨'라고도 불리는데,<sup>2)</sup> 이는 과천시 막계동에 세거하였던 전주 최씨 일가를 지칭하는 별칭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의 대학자인 성재(性齋) 허전(許傳)은 막계리와 이곳에 사는 전주 최씨의 가풍에 대해 「맥계최씨장기(麥溪崔氏莊記)」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sup>3)</sup>

부림현(富林縣)의 치소(治所) 남쪽 5리 근처에 있는 마을의 이름은 맥계(麥溪)이다. 청계산이 동쪽에서 남쪽과 서쪽으로 3면을 두르고 있으나 오직 한 길만이 북쪽인 남태령(南台嶺)으로 통한다. 그 땅은 험하여 천석(泉石)의 경치나 정사(亭榭)의 아름다움은 없다. 그러므로 서울에서 떨어진 거리는 일사(一畝)에 불과하며, 세가(勢家)가 빼앗은 바도 없어서 풍족한 땅이다.

최씨는 여기에 고려 말에서부터 터를 잡고 살아왔으며, 조선의 개국공신 영의정 평도공(平度公)과 형조좌랑공, 이조좌랑공으로 전해졌다. 군수공, 승지공, 참의공, 생원공이 효인충의(孝仁忠義)를 가법(家法)으로 삼아 8세(世) 9정려(旌閭)를 이루었다. 그래서 대대로 인리향당(隣里鄉黨)에서 그 가풍이 이름

2) '맥계(麥溪)'는 한자식 이름인 막계(莫溪)가 변한 것으로, 이 이름은 원래 이곳에 흐르는 내가 맑아 '맑은내'로 불리던 것이 '맑내', '막내'가 되고 그것을 한자로 취해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의 '청계산(淸溪山)'이란 산이름도 이 '맑은내'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 한다(『과천향토사』하, 1993, 670쪽).

3) 조선시대 연구자인 허홍범 선생이 해제한 「맥계최씨장기(麥溪崔氏莊記)」(허전, 1884)의 일부를 게재한 것이다.

이 나서 사모하게 되었으며, 산천초목까지도 모두 정채(精采)가 있게 되었는데, 이는 전고(前古)에 없던 것이다.

그 주손(曹孫)<sup>4)</sup>으로 하여금 그 가풍을 서술하게 하여 한 고을에서 선사(善士 : 뛰어난 선비)가 되었는데, 그가 아들 다섯을 두어 사치함을 삼가고 덕을 많이 기르도록 하였다. 또한 집안에서는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어른을) 공경하게 하여 말과 행동을 조심하도록 하여 스스로 한 가문의 규범을 이루었다. 내가 심히 이를 애지중지(愛之重之)하여 이 글을 쓴다.

전주 최씨는 최순작(崔純爵), 최아(崔阿), 최균(崔均), 최군옥(崔群玉)의 서로 다른 시조를 따라 크게 네 파로 이루어져 있다. 막계리의 전주 최씨는 문열공파조(文烈公派祖) 최순작의 9세손인 최사위(崔士威, 1362~1425)를 파조로 하여 성립한 판윤공파(判尹公派)에 속한다. 전주 최씨가 막계리에 세거한 것은 판윤공파조 최사위의 장남인 처사공(處士公) 최조(崔肇)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5)</sup> 따라서 막계리의 전주 최씨는 이곳 과천에서 500년도 더 된 세월을 세거한 것이다.

전주 최씨의 중시조인 최유경(崔有慶, 1343~1413)은 조선개국 원종공신으로서 시호는 평도공이며, 청백리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는 한양 신도읍의 도성축조도감(都城築造都監)을 맡아 사대문(四大門) 축성에 중심적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 그의 신위를 모신 사당인 효렴사(孝廉祠)<sup>6)</sup>는 용인시 기흥에 세워져 있는데, 화재로 전소되었던 것을 1989년 10월에 새로 건립하였다. 또한 매년 음력 10월 15일에 문중인들이 모여 시제사를 올리고 있다.

최사위는 1404년(태종 4) 황해도관찰사를 지내고 이어 한성부판윤을 역임한 후 전주 최씨 판윤공파의 파조가 되었다. 최조는 최사위의 아들이며, 자헌대부로 형조판서를 거쳐 이조판서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처사로 과천에 우거하였다고 한다. 이후 11세손인 최선민(崔善敏)과 그의 아들 옥호(玉浩), 14세손 언영(彦英), 15세손 덕순의 자손들이 과천에서 세거하였다.

조용기 종부의 시대는 효행으로 이름이 나 있는 집안으로, 이 문중에 12개의 효자·열녀 정려가 내려졌다. 특히 최사립(崔士立)은 『삼강행실록』에 그의 효행이 기록되어 있다. 그

4) 만손자를 뜻한다.

5) 전주 최씨가 막계리로 입향한 시기에 대해서는 자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조선 초기의 최조를 입향자로 보고 있다.

6) 효자로 자식의 도리를 다했고, 조정에 출사하여 청렴한 정치로 민생을 살핀 공을 기리는 뜻으로 '효(孝) 자와 '염(廉) 자를 따서 명명한 것이다.



최사립 효자정각(파천시향토유적 제4호) 최사립은 남다른 효성으로 이름이 높아 중종 때 정려가 내려졌으며, 일제 말기에 소실되었다가 1995년에 복원되었다

는 어려서부터 집안 어른의 가르침을 잘 따랐으며 소학에서 배운 대로 행하기를 힘써 효성이 지극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산소 옆에 움막을 짓고 3년간 조식으로 상식을 올렸다고 한다. 부친이 병을 얻어 갈화탕<sup>7)</sup> 먹기를 소원하자, 엄동설한에 칙꽃을 구할 수 없어 정화수를 떠놓고 정성 드려 기도를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칙냉쿨을 엮어서 만든 벽에서 줄기가 자라더니 꽃이 만발하게 됐고 그 꽃을 따다가 아버지께 드렸더니 병환이 깨끗이 나았다고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 때처럼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중종조에 정려가 내려졌다고 한다. 중종 때 세워진 효자 최사립의 정려각은 막계동 산111번지 근처에 있었는데 일제 말기에 불에 타 소실되었다. 하지만 현판은 당시 최완규<sup>8)</sup> 씨가 불 속에 뛰어들어 구해냄으로써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정려각은 1995년 선바위 앞에 다시 세워졌다.

최사립의 세 아들 중 덕린(德麟)·덕순(德峯)과 덕린의 아들 돈, 덕순의 아들인 기도 계속 기문의 전통을 본받아, 효행으로 정려가 세워졌다. 이후 최극인(崔克認)·최주민(崔柱旻)·최종운(崔宗運)·최구현(崔九鉉) 등과 최훈의 처 평산 신씨(平山申氏), 최구현의 처

7) 칙꽃을 달여 만든 탕이다.

8) 조용기 중부의 시조부를 말한다.



1999년에 발간된 가족신문인 『응달말』 창간호



『응달말』 발간기념 가족모임 가족신문이 발간될 때면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하는 자리를 갖고 있으며, 현재 『응달말』은 제7호까지 나온 상태이다

전주 이씨(全州李氏)의 효행을 기려 모두 12개의 효자·열녀 정려가 내려졌다. 1995년 4월에 '십이정려효열'을 복원하여 천안시 입장면 용정리에 세웠다.

한편 막계리 전주 최씨는 지난 백 년 사이에 두 번의 큰 풍랑을 맞았다.

첫 시련은 조용기 종부의 시조부대에 가산을 모두 잃어 가세가 크게 기울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27년까지 막계리 근방에 있는 땅의 대부분은 조용기 종부 시댁의 소유였으나, 시조부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시조부는 집안의 아는 사람이 재판의 뒷돈을 대주면 나중에 2배로 갚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재판기간이 길어지면서 돈이 부족해지자 토지와 집뿐만 아니라 종중 산까지 저당을 잡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에서 돈을 대준 쪽이 패소하게 됨에 따라 빌려준 돈을 받기는 커녕 담보로 잡힌 토지까지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살고 있던 집도 내주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종부의 시댁은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가는 문제부터 살집을 구하는 것, 제사를 모시는 것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다행히 담보로 넘어갔던 종중 산은 되찾게 되었으나, 나무장사로 생계를 근근히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피나는 고생 끝에 논밭을 장만하여,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두 번째 시련은 1977년 막계리가 서울대공원 부지로 책정됨에 따라 조상의 선영을 옮기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땅을 떠나야 했던 일이다. 이때 선대 묘소의 이장과 토지보상, 거주지 이전 등의 문제로 집안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한다.

전주 최씨가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1979년에 용인시

남사면 완장리에 묘역을 새로 조성하여 500여 년 동안 막계리에 모셔졌던 조상의 묘 52기를 이장하였다. 그러나 책정된 보상가가 낮아 모든 석물을 수습·이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묘소 앞에서 있던 비석 12기는 막계리 산111번지에 모아 보존하고 있다.

또한 거주지도 이전해야 했기 때문에, 4년밖에 살지 않은 벽돌집을 헐고 문원동 이주단지에 새로 집을 짓게 되었다.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안채의 벽을 헐어 벽돌에 붙어 있는 시멘트를 망치로 하나씩 떼어서 문원동까지 운반하였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담장으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서 조용기 종부의 댁은 새로운 가족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1999년부터 『옹달말』이라는 제호로 가족신문을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제7호까지 발간되었다. 막계리 전주 최씨가 세거하였던 마을이름이기도 한, 『옹달말』을 통해 가족·친지의 근황과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4대에 이르는 가족 구성원의 생활과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 3. 조용기 종부의 생애사 요약

조용기 종부는 1941년 음력 4월 18일<sup>9)</sup>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도이리에서 아버지 한양 조씨 조인원과 어머니 남양 홍씨 홍월례 사이의 4남 4녀 중 셋째딸로 태어났다. 맨 위로 태어난 오빠 둘은 돌이 지나자마자 모두 죽었으며, 이후로 딸만 4명을 낳자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와 다섯 동서들에게 심한 시집살이를 당했다고 한다.

남동생들이 태어날 때까지 집안에 남자 자식이 없어 일손이 부족하였고, 어머니가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종부는 어린 나이였어도 집안일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했다고 한다. 그 당시 친정집의 형편은 그리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할머니가 여자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꺼려하여 겨우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 1949년에 향남 국민학교를 얼마간 다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 발안초등학교로 재입학하였다.

한국전쟁 때 조용기 종부의 친정집에는 중공군들이 한동안 들어와서 거주하였다고 한다. 당시 아버지와 남동생은 피난을 갔고, 여자형제들은 친정 근처의 만신집에 잠시 기거

9) 친정아버님이 딸들의 출생신고를 늦게 하여 서류상에는 출생일이 1942년 2월 20일로 기록되어 있다.

하였으나 어머니를 혼자 집에 둘 수 없었던 종부는 집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 나이가 어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종부는 폭격이나 중공군의 활동 등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다. 어린 종부의 눈에는 중공군은 그리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다.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폭격을 피하게 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썬워주고 자신들의 먹을 것을 나누어주던 '사람' 들일 뿐이었다. 그리고 친정 마을은 좌우갈등이나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 강하지 않았던 농촌 마을이었기 때문인지 전쟁 중에 학살된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집안일과 농사일을 돕고 지내던 조용기 종부가 남편을 만난 건 23세가 되던 1963년 8월이었다. 근처 동네에 살고 있던 시누이가 주선을 하였는데, 종갓집에 형제가 9남매라는 말을 듣고 결혼을 망설였다고 한다. 그러나 처음 남편을 만난 그 날, 발안장터 사진관에서 약혼사진을 찍게 되었고, 이로써 막계리 '응달말 가족의 안주인' 이 되는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맞선을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11일에 결혼식을 올렸으나 당시 군 복무 중이던 남편은 곧 부대로 복귀하였다.

결혼과 함께 시작된 막계리에서의 생활은 농사일과 집안 대소사로 인하여 너무 힘에 겨운 세월이었다고 한다. 결혼하자마자 군 복무지로 갔던 남편은 제대 후에 직장을 잡아 다시 타지로 떠나게 됨에 따라, 나이 드신 시부모를 모시고 집안을 건사하는 일이 종부의 몫으로 남겨졌다. 3년간 병석에 누워 계셨던 시아버지의 병수발은 "남덜은 이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구 해요."라는 말이 앞설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시부모를 공경하는 조용기 종부의 생활이 알려져 1975년에는 과천 시흥향교에서 효부상을 수여하였고, 1991년에는 과천시에서 효행선행부문 과천시민대상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용기 종부는 남들이 생각한 것처럼 시부모님을 잘 모시지는 못했다면서 이 상을 '부끄러운 상' 이라 부른다.

한편 막계리가 서울대공원 부지로 수용되면서 1979년 조용기 종부의 막계리 생활은 그 막을 내렸다. 문원동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농사일도 그만두게 되었고, 시제사도 모시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 시작한 문원동에서의 삶 역시 고달픈 날들이었다고 한다. 막계리에서 문원동으로 생활공간이 바뀐 것은 종부의 생활과 의식에 큰 변화를 주었다. 이는 일상생활, 시간에 대한 개념, 경제적 활동과 관념, 사회적 관계망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즉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던 막계리와는 달리 도시지역인 문원동에서는 새로운 생활방식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와서 살아보니까 사는 게 난감해 그냥. 오줌 똥두 돈을 내고 쳐야지, 물 사먹고,

과 뿌리 하나두 죄 사먹어야 하니까. 뭐 못 살겠는 거야.”

농촌에서는 일상생활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인 양식과 연료·생활용수 등을 어느 정도 자급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도시에서는 사소한 부분까지 돈을 필요로 하였고, 이렇게 돈을 매개로 하는 생활에 익숙해지기까지 조용기 종부는 막계리에서의 고생과 다른 차원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용기 종부는 점차 도시의 생활방식에 적응해 나갔고, 이런 어려운 생활을 헤쳐 나갔다. 이 시기에 조용기 종부는 가산을 일구기 위하여 여러 곳은 일들을 하였는데, 순박하고 성실한 성격 때문인지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았다. 이런 가운데 종부는 틈틈이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4년 전부터 건강이 나빠지셔서 바깥 출입이 불편해지신 시어머님을 병간호하면서 지내고 있다.

## Ⅱ. 조용기 종부의 생애사 연표

1941년(1세)	4월 18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도이리에서 태어남
1949년(9세)	향남국민학교 입학
1950년(10세)	한국전쟁이 일어남
1952년(12세)	발안국민학교 4학년에 재입학
1963년(23세)	8월 27일 남편과 맞선을 보고 약혼사진을 찍음 9월 11일 남편과 결혼함
1964년(24세)	10월 20일 장녀인 최경순이 막계리에서 태어남
1966년(26세)	8월 18일 아들인 최경락이 친정집에서 태어남
1969년(29세)	시어머니 박일채의 환갑 잔치, 10월 24일 막내딸인 최경춘이 태어남
1973년(33세)	3년간 병석에 누워 계시던 시아버님이 돌아가심
1975년(35세)	3월 1일 막계리 부녀회장으로 활동함(1977년 4월 15일까지) 9월 28일 과천 시흥향교에서 효부 표창
1976년(36세)	1월 16일 새마을 공로 표창

- 1977년(37세) 5월 건설부고시 제89호에 의하여 막계리 일대가 공원지역으로 정해짐
- 1979년(39세) 막계리의 선영을 용인시 남사면 완장리로 이장함  
문원동으로 이주해 옴
- 1983년(43세) 4월 13일 종로5가에서 남성의류 소매점을 3년간 운영
- 1987년(47세) 11월 1일 문원4동 부녀회장 역임, 12월 20일 장녀인 최경순이 결혼함
- 1989년(49세) 10월 중시조인 최유경의 사당인 효렴사를 새로 건립
- 1990~1992년 문원동 부녀회 부회장 역임
- 1991년(51세) 과천시에서 효행선행부문 과천시민대상 수여
- 1993년(53세) 1월 15일 문원동 부녀회장 역임
- 1994년(54세) 5월 15일 아들인 최경락이 결혼함
- 1995년(55세) 10월 24일 최사립 효자정각 완공, 10월 28일 최사립 효자정각과 효성  
문의 현판 부착, 효자정각 정려판 봉안
- 1996년(56세) 12월 28일 막내딸인 최경춘이 결혼함
- 1999년(59세) 가족신문인 『응달말』 창간호를 발간함
- 2001년(61세) 8월 제주도로 열다섯 식구와 함께 회갑여행을 다녀옴
- 2004년(64세) 시어머니, 남편과 문원동에 살고 있음

### Ⅲ. 조용기 종부의 구술생애사

#### 1. 어린 시절

##### 아들 없어 시집살이하던 어머니<sup>10)</sup>

4남 4녀인데 오빠들은 돌 지나면서 바로 돌아가셨대요. 돌 되면 돌아가시고 돌 되면 돌아가시고 그래 갖구 오빠는 뵈지 못했으니까 이제 딸은 위로 넷, 밑으로 남동생 둘. 제가 셋째 딸이에요. 그게 딸로는 셋째딸은 보지도 않고 데려가고 귀여움 받는다고들 하셨는데

10) 친정어머니가 아들을 낳지 못하신 것은 아니다. 결혼하신 후 아들 둘을 낳으셨지만, 둘이 지난 지 얼마 안 되어 모두 죽었다고 한다. 그후 딸 네 명을 낳고 다시 아들 두 명을 낳으셨는데, 아들을 낳기까지 오랜 기간을 시집살이를 하셨다고 한다.

친정에서도 저는 참 (한숨) 고생 많이 했어요.

(친정아버지는) 다리가 무릎이 안 좋으셔서 그러셨는데, 그때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어요. 그 시기에 아버님이 신경통이시라 일을 못 하셔서 일을 지(제)가 다했어요. 그니까 친정에서는 식구들이나 남들이 다 “재가 아들이지, 만아들이었어야 한다.”



생전의 친정아버님과 친정어머님의 모습

지금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냥 그게 제가 못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을) 안 하면 되는데 지가 다했어요. 일을 배깁 일도, 배 털고 배고 이러는 거부담... 왜 그렇게 했냐 하려는 (한숨) (친정어머니가) 위로 오빠 둘을 낳으셨는데 그때는 어려워서 갓구, 이제 둘 되면 오빠를 떼놓고 어머니가 친정에 가셔서 쌀 같은 걸 얻어갓고 오셨대요. 얻어 갓구 쌀을 몇 말씩 이고 오셨대. 그래서 하루 종일 젖을 안 먹었으니까 불은 젖을 멕이고 멕이고 했는데, 그게 언처 갓구 돌아가고 돌아가고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돌아가시구 따님만 넷을 나니깐 시집살이가 심하셨대요. 아버지 5형제 분들, 고모까지 7남매로, 아버님이 셋째신데, 근데 지금도 동서가 여러 분이면 동서 하나 병신 만 들기는 우습잖아요. 그래 그 시대엔 그렇게 작은엄마, 큰엄마들이 아들 못 낳다고 (친정어머니를) 구박하신 거예요. 먼저 낳아 갓구 돌아간 거는 돌아갓구, 기냥 딸만 기집애들만 나왔다고. 그냥 그런 말을 하시면서 항상 그렇게 구박을 받으시고 그니깐, 그런 저거(어머니의 고생)라도 덜어드리려고 내가 한다, 그래 갓구 내가 손수 그렇게 일을 했어요.

아버님이 그전에 면에 다니셨는데, 쟁피하시고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딸들은 다 늦게 해가지고, 그래 가지구 아들 낳으라고 면에서 제 이름을 지어 주셨대요. 남자 동생 보라고 ‘용기’ 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커갓구 남동생 둘을 낳구.

그래서 (친정어머니를) 시집살이를 많이 시키고 그러시니까 그냥 일이라도 열심히 해서 엄마 좀 도울 수 없을까 해갓구 이렇게 일을 했어요 제가. 큰엄마, 작은엄마도 그러구 큰 아버지, 작은아버지들도 딸들만 계집애들만 나왔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예전엔 많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도 약주만 잡숫고 그러시더라고. 그래 일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 갖고 주로 일을 많이 하다가 왔지. 뭐.

지금도 딸들은 다 친해요. (남)동생들도 다 있는데 어린 동생이 되니깐 안 가지드라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1년에 몇 번밖에 못 가지드라고. 형제들은 자주 만나죠. 형제들은 자주 만나고, 동생 택이니깐 서울 시누들이 가면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어머니 생전에는 자주 다녔어요.

(친정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죠. 한 십이 년 되셨어요, 십이 년. (한숨) (친정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다치셔 갖고 병원에 계시다가 그 길로다가 돌아가셨지 뭐. 교통사고라도 그때 당시에는 보험처리같은 것도 하나도 못 하고 노인이시니깐 교통사고로 병원에 몇 달 계시다가 돌아가셨어.

저 있을 적에는 잘 살으셨어요... 시아버님이 저 데리고 친정에 갔다 오시더니 (시댁)엔 쌀가마 쌓아논 게 없는데, 쌀이 40~50가마가 방에 꽉 차있고 요기 주무실 자리만 비어있고... 보시고 오셔서 “새애기 친정 어른들은 안 잡수셔도 배가 불리시겠드라.” 그렇게 쌀을 쌓아놓고 살으신다구. 그전엔 그래도 잘 사시는 편에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엄니를 구박하고, 지금 말로 하면 ‘왕따’ 를 시킨 거지 뭐. 근데 돌아가시기 전 무렵에는 그래도 쥔 호강하고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어. 작은어머니 한 분 생존해 계신데 그런 분들보단 그래도 자식들하고 같이 사시다가 돌아갔으니까.

### 이름이라도 쓰려고 몰래 다닌 학교

내가 (친정집에서) 살 때에도 뭐 잘 산다고 했는데,<sup>11)</sup> 학교들은 이제 안 보내셨지. 할머니가 못 보내게 했어. 할머니가 구박을 하니까, 형제들을 학교들을 못 보내게 하시드라구. 학교도 굉장히 멀었지 뭐. 거기서 한 30리 거리 땡기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 갖고 다 저들을<sup>12)</sup> 학교들을 못 보내게 하시드라구. 할머니가. 그렇게 며느님들이 다첫이니까 며느님들하고 입덜을 한테 모아 갖고 우리 어머님을 그렇게 구박을 하신 거야. 지금은 아들 딸 차별이 적은데, 그 시대는 아들 없으면 구박을 했잖아요. 제일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 같아요. 제가. (웃음)

그래도 아들 형제들은 고등학교까지 가르쳤지. 그나마 딸들은 저하고 제 밑에만 초등학교라도 다녔지, 그 위로는 더군다나 학교는 못 갔어요. 그전에는 향남국민학교가 있었는데

11) 조용기 중부가 성장하였을 때 친정집의 형편은 어느 정도 괜찮은 편이었다고 한다.

12) 여자형제들을 말한다.

(한숨) 거기를 한 1년 몰래 다니다가 못 다니게 돼. 그러고는 6·25 나서 안 다니다가 이제 발안국민학교 거기를 그래도 내 이름은 써야 되지 않느냐구 그래 갖고 거기를 (다녔어). 그냥 첩피한 애인데 (웃음) 제가 가끔 그래요. 당신(남편)은 손해보고 결혼해서 답답할 거다 그러지. 그래 4학년 때 들어간 거예요. 학교를 안 보내줘서 몰래 다니다시피했지 억지로.

나쁜 아냐 사촌들도 다 못 갔어. 그때 거기가 산골이구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아서 그런지 거기서 중학교까지 나온 여자들은 딱 2명밖에 없어요. 남자들은 있는데 여자들은 없어요. 그니까 너나없이 거기는 다 초등학교밖에 못 다녔어. 남자 둘만 고등학교 다니고 그 동네에서. 거기 15가군이 14가군가인데도 둘만 중학교 다녔어요.

(학교는) 멀어요. 공동묘지를 거쳐서 집·동네를 나가는 거라 항상 무서웠어요. 공동묘지를 거쳐서 공동묘지 옆에 그냥 소나무가 뻑뻑하게 서 있는 데로 땡기는 거니까. 그래서 학교 가는 것은 항상 아침에 일하다가 가니까 만날 늦어가꼬 만날 뵈 거예요. 뛰다가 보면은 필통도 없어지고 책도 없어지고 보자기를 써서 매고, 그 식전에 들에 가서 일하다가 와서 밥해 놓고 밥도 먹고 갈라니깐 늦어가꼬 맨 뛰고 그렇게 다녔지….

### 부모 귀여움 받는 친구들이 부럽더라구

초등학교 (친구들이) 가끔 모이는데, 모임이어도 연령 차이들이 많지. 제 나이 때 들어간 친구, 그리고 나보다 더 먹은 친구, 다 그냥 친구들이야. 우리는 들에를 가며는, 진짜 내 친구 몇은 그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지 복이 많아서 그런지 여름에 지나가며 보면 낮잠 자고 부모가 파리를 비켜주는<sup>13)</sup>거야.

그 친구랑 같이 모임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은) 못 살더라고. 너무 불쌍해. 만나면 가끔 두 달에 한 번 모이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끼리 아홉 명인데 모여요. 그때 빠지고 땡기던 애들은 지금 못사는 거예요. 근데 그 부채질 해주고 밥도 안 하고 들일도 안 땡긴 사람들은 지금 다 농사지어서 이고 가서 오일장에 가서 판다고 그러드라구.

그렇게 고생하는 집에 시집을 가더니 (지금은) 잘 살으니 다들 (나를) 부러워해요. 그래 그걸로 만족을 해요. 그때는 일을 좀 안 해보고 살았으면 했어요. 일좀 안 하고 호강스럽게 살고 싶었어요. 친정에서 없이 살았던 건 아닌데 만날 일이 많으니까. 딸들만 낳아서, 시집보내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집에 가서 일 안 하고 호강하면서 좀 살아봤으면 하는 그 생각이 나더라구.

13) 쫓아주는 것을 말한다.



조용기 종부의 처녀시절(뒷줄 왼쪽)

어디를 가보지 못했어요. 어디 간 게 올케  
 다했고 큰외할머니네 갈 때 그 거기 갔다가  
 한 보름만에 왔다. 그것밖에 간 게 없어요.  
 거기도 남양이예요.<sup>14)</sup> 한참 걸어가면 남양  
 읍에 가서 남양읍에서 하루에 두 번 가는  
 버스가 있던가? 거기 가서 며칠 있다가 온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더라구. 다 같  
 이 여자로서 의사촌 언니들이니까, 오빠도  
 있고 그랬는데 그렇게 부모한테 사랑받고  
 일 안하고 살고 그런 게 비교가 되더라구.

그때는 잘 사는 거보담두, 겨우 살아도 부  
 모가 귀염둥이 아들 딸로 키우시는 걸 보고  
 무척 부러웠는데... 결혼해 갖고는 다 실패  
 들을 했어. 언니도 형부가 돌아가고 오빠도  
 올케가 돌아가구 혼자 살아가는 거 보면 불

쌍해요. 그런 게 자꾸 비교가 돼요. 생각이 나요.

어렸을 적에, 돈이 많아서 호강시러운 거보담두 부모님 해다 주시는 밥 먹고 그렇게 일  
 안하고 사는 걸 부럽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불행이 닥쳐오는 거 보며는 오히려 우리  
 들은 그때 고생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래도 지금 밥은 먹고 사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행복  
 한 거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도 다 그렇게 비교가 돼요. 그냥 그 친구들도 부모한테 사랑받으면서 살던 아이들  
 이 지금 제대로 못 사는 거 보니까. 밥을 먹기는 먹는데 만나보면은 옷차림이나 얼굴 보면  
 그때 그런 생각이 나. 자랄 때는 그렇게 곱게 호강하면 자라고 그 시대 들에 나가도 하물  
 며 밭에 참외를 따러 가도 양산을 쓰고 멍기고 부채질을 하며 얼굴 탈까봐 뒤통을 쓰고 멍기  
 던 사람이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되고 (한숨) 저렇게 허리 꼬부라지고 저렇게 합죽이가 됐  
 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비교가 되더라구. 그래도 우리 형제는, 큰언니네는 연세가  
 좀 있으셔서 그런데 막내 동생네는 더 잘 사니까. 동생을 만나서 “너 그때 생각 안 나니.”  
 물어보면 여동생도 “맞아. 개들은 들에 갔다가 보면 엄마가 앉아서 파리를 날려주고 부채

1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을 말한다.

질해주고 그렇게 키운 딸인데, 그 언니들이 시집가서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사나.” 그런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

중공군 제일 높은 대장이 우리 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렁방<sup>15)</sup>에는 피난민 두 분이 계셨고, 아버지는 남동생 데리고 이젠 어디로 방공 구멍이를 어디에다 파놓구 그리루 이제 피해가신 거거든. 동네 분들하구, 그리구 언니하구 우리 막내 여동생하구는 내가 같이 (만신집에) 가가지구, 그때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혼자 집에 계시니까는 집에 가 있겠다구. 그때 나이가 어려서 무서운 것도 별루 몰랐으니까 (집에) 있었던 거 같아요. 그렇잖으면 어디루 갔겠지. 그런데 언니는 다 크구, 탕기 고랭이라구 그래서 머리를 붙잡은 머리가 (팔뚝을 손으로 만지시면서) 이만침 했어요. 이제 (언니는) 처녀 같구, 나는 머슴애 같구. 그러니까 그때 친정어머나가 만신집에 가끔 다니셨는데, 이제 동네에서 좀 멀으니까 거기루 피난을 가는 건데, 내가 데려다 주구 혼자 왔어요. 아버지하고 남동생은 먼저 (피난)가시고 미숫가루 해서 반죽해서 가시구.

가시구 나서 내가 주먹밥 해가지구, 언니를 데려다 주고 오니까 거기 중공군들이 혼자 탕기지 말라구 막 떠들어 대는데… 무슨 내 짐작에 그런 거예요. 인제 비행기가 떴다 하면 못 나가게 하구. (집으로) 올 적에 비행기가 뜨면은 기어서 오구. 한참 거리를 오는데 기냥 폭격 소리가 막 나구 총소리가 나구 그러드라구. 이 사람들은(중공군) 전신에다 다 나뭇가지 꺾어서 시퍼렇게 하구 탕긴 거야. 머리서부터 다. 나보고두 해라구 거기 하라구 그러니까, 우리네야 뭐 애들인데, 머리두 단발머런데 어디다 뒤풀(나뭇가지) 대요. 길어도 붙잡아 매지지도 않구.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나무를 꺾어가지고 앞을 세우고 같이 왔어요. 집에까지. 집에까지 오니까 어무니가 필쩍 뛰시는 거예요. 거기 집에 있지 왜 왔느냐구. 나두 거기 가라구 해서 보내신 건데, 나는 그냥 왔어요. 왔는데 왜 왔느냐구 필쩍 뛰죠. 거기 있지 왜 왔냐구. 죽을라구 왔냐구. 여기 왜 왔느냐구. 나는 엄마 하구 있는다구 그래구 기냥 왔어요.

왔는데 거렁방에서 밥을 먹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날 저녁이면은 돼지 한 마리를 갖다가 우리 마당에서 잡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각을 떠서 노나주는 거야. 집집에 안들었어요.<sup>16)</sup> 몇 집만 있는데 우리 집에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젠 우리 집만 중공군이 많은

15) 건넌방을 말한다.

거야. 그리구 저녁마다 돼지를 잡구 저녁마다 회(의)들을 하드라구. 모여갖구, 그래 가지구 있는데 닭·돼지, 동네에 있는 거는 다 갖구와서 우리 집에서 잡는 거예요. 그래 잡는데 뭐 그런 거를 생전 보기를 했어. 못 봤는데 그런 잡는 거를 구경한다구 유리 구녕으루 내다보구 그랬어요. 내다보구 그랬더니 거기 피난 온 분이 두 분 있는데 내다보지 말라구 그래요. 그래두 고집 부리구 내다보구 그랬지. 그 사람들이 허면은 밥이구 국이구 꼭 갖다 줘요. 갖다주고 우리 고추장·간장 그런 거를 달래서 주면은 꼭 그 중공 중국 돈을 주는 거야. 우리는 쓰지도 못하는 돈을. 그래서 우리네는 무슨 돈인지도 모르구 그래 받으라 그러니까 받았다가 기냥 다 간 뒤에 버렸지. 근데 버리구 왔는데 기냥 났으면 괜찮은 건데. (웃음) 뭔지도 몰르구 그냥 버린 거예요. 그래 며칠을 한 일주일을 있었나 봐요. 아니 일주일도 더 있었어, 우리 집에들. 그래 가지구 동네 쌀이구 간장·된장은 다 퍼다 우리 집에 다 갖다 놓구 우리 집에서 노나서 이렇게 먹드라구. 또 그래 우리 것두 인제 쌀 있는데, 쌀이야 뭐, 그때도 쌀가마는 많았는데, 우리 거는 그래도 인제 자기네 말하자면 여관이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거는 안 갖다가 먹드라구. 인제 고추장·된장만 갖다가 먹구. 그래 이제 피난민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보담 젊으셨는데, 피난민이 어떻게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같이 한방을 쓰는데 같이 합숙을 하고 자구. 일어나서 갔나 하구, 유리 구녕으루 내다보면은 그저 왔다갔다 왔다갔다하구. 좌우간 몸에다 참나못가지를 다 꺾어가지구 해가지구 다니면은 꼭 뿔아서 마당에 났다가 나갈 적에 그걸 하구 나가. 그래 우리네도 나가게 되면 그걸 하구 나가라 그래. 그래 여자들이 뭐 어따 꽃을 데가 있어. 이렇게 뒤집어 씌워갖구 쫓아오구 그랬어요. 그래서 중공군, 우리들을 해꼬지를 안 하구 그래서 무서운 줄도 몰랐어요.

어느 날 기냥 갑자기 돼지도 잡아서 각을 떠서 매달아 놓구, 광에 죄 매달아 놓구 했는데, 미쳐 다 못다 먹구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야. 새벽에 자구 일어나 보니 없는 거야. 그래서 어머 이게 웬일이냐구. 내가 이케 보니까 방이구 뒤구 자기 물건을 다 가지구 갔드라구. 고추장·된장 먹구 남은 거는 놔두구. 동네 거 퍼온 거지 뭐. 다 피난들을 가구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갔드라구. 고기가 큰 게 있었어. 고기는 그래두 잘 은어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허면 그렇게 줘. 맛은 입에 안 맞아두, 그래두 그런 걸 해서 우리들은 꼭 주고 그랬어.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무섭다는 거를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빨갱이가 됐다 그럴 것 같애 갖구. (웃음)

16)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집에 중공군이 들어가던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어느 날인가 갑자기 나갔는데, 고기를 두구 샀으니 저걸 찾을 텐데, 어떻게 하나구. 나는 그런 거야. 나도 어리석은 거지. 갑자기 가면서 그걸 두구 샀으니까. 그래서 아휴 저걸 두구 샀으니 어떻게 하나구. 저걸 잊어버리구 샀을 텐데 저거 혼났다가. 조그맣어두 그 얘기를 “동동동동” 거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정엄마가 그래요. 가만 있으라구, 두구 가면 우리가 먹으면 되지. 뭘 걱정을 하나구 그래서. 아니 두구 가면 그 대장한테 줄병들이 혼날 거 아니냐구. 이러구 냈는데 온 거예요. 몇 시간을 갔는데 가지러 왔드라구. 그래서 가져가면서 “아휴 참 잘됐다구.” 그랬어요. 근데 가져갔는데 그 사람들두 우리한테는 참 잘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 잘하구, 나갔다 들어와서는 얘기도 해주구 이랬는데. 갈 적에 고기 다리 하나가 매달려 있으니까 엄청나지 뭐. 근데 그 사람들이 퍼주구 가드라구. 해먹으라구. 그래서 가져가라구 이케 했더니, 많다가 이젠 자기네는. 근데 건너방 있는 이가 중국말도 좀 허구 있는 거야. 중공군하구 대화두 하구 그래. 일러주구 그랬는데 몰래 주고 가는 거니까 아무 소리 말구 꿰어 먹으라구 이랬 거라 그러드라구. 나는 가져가라구 손짓을 하구 있었더니. 괜찮다고 그러구 했어요.

가구 나서 해방된 거예요. 이젠 해방됐다고, 한국인들이 태극기 들구 군인덜이 오구 설치구. 그 길루 가서 언니한테 일러줘 데리구 와야 되잖아. 그래서 가서 데려오구. 그래 아버지두 돌아오시구 다 들어와서 사시는데 다 괜찮았지. 6·25 그때 겪었어두 무사하게 잘 지냈어요. 그 동네는... 근데 시집오니까 이곳 동네는 몇 분이 돌아가셨드라구. 폭격에. 그래서 체삿날이 막계리 동네에 몇 덕이 (갈다고) 그러드라구. 근데 우리 친정 동네는 그런 일은 없어요. 다행히 잘 넘어간 걸루 그래서 감사히 생각을 했지. 감사한 것도 몰르구 그냥 아휴 저기 착한 사람은 다 살았나 보다. 고사리들만 있지, 저기도 몰르구 하여튼 나이들두 어리구 하니까 또 그때는 어리숙들 하구 그러니깐 그런 저기두 모르구 6·25를 겪었어 그때.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라. 나가지 못하게. 그 비행기 소리 나면은 붙잡구 들어오구, 나는 배깁에 뛰어댕기구 그랬어. (웃음) 그니까 6·25 난 지가 벌써 몇 해야. 그니까 나는 어렸으니까 뭣도 모른 거야. 난리난 것도 모르구 비행기가 뜨면은 나가 돌아댕기구 그러면은 못 나가게 끌어들이구 그냥 그러다 6·25를 겪고 지났어요.

동네 사람이 빨갱이루 6·25 때 나가 가지구 빨갱이 역할을 한다 그래 갖구 거기서(동네) 들볶인 거야. 딸허구 영감님이 인제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 논밭 있는 데서 조금 가면은 큰 구멍이가 있어. 들어가두 뭐 아마 몇십 명은 들어갈 구멍이가 있었어. 금정 구멍이라구 했는데 그 분덜이 그리루 간 거야. 남들이 막 기냥 빨갱이라구 난리를 친 거지. 그래 거기루 이사를 갔는데 우리 밭이 가까워. 그 금정 구멍이 있는 데서. 이렇게 무를 심구

허면은 무를 뽑아가구 잎파리는 잘라 놓구 잘라 놓구 그렇게 무가 없어지드라구요. 무를 많이 뽑아가는 거는 아니구. 그래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지. 그때는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걸 몰랐지. 어디루 갔는지두 모르고 있는데 이상하다 했는데 친정아버지가 만(맨)날 거기를 가시는 거야. 일어나시면 식전에 가시구. 우리들두 일어나면 거기 가서 일하는 건데. 그때는 일두 안 하구 기냥 겨울철이니까 있는데, 아버지가 가시니까 거기서 금방 뽑고 간 발자국이 있드래. 발작이 그리루 났드래. 아버지가 슬그머니 가보신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들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미처 거기 있는 거는 몰랐지 인제.

그래 갖구 빨갱이 가족이라구 한국 군인들이 잡을라구 갔는데 여자들은 나오라구 소리를 질렀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걸 내가 본 게 아니고 들은 소리여. 친정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셨지. 군인덜이 한국 군인덜이 인제 나오라구 아무개 나오라구, 거기 있으면 나오라구. 총을 이렇게 하구 가니깐 여자가 손을 들구 항복하구 인제 나온 거야. 여자 손이 나오니까 총을 안 쏘고 기냥 살려줬어요. 그래 가지구 그 분이 어떻게 해가지구 그냥 살았는데, 여자들 손이니까 그냥 살려줬다는 거지. 남자 손이면 총을 쏘 건데 그냥 그랬다구. 그리구 아버지가 귀뜸을 하셨다 그러든가. 동네 사람이니까. 남자는 그렇게 나갔지만 여자들이니까 불쌍하잖아. 아버지 연세 또래 되는데, 이케 아버지는 맞닥치구 해서 절대 오해를 할 사람이 아니라구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뭐를 갖다가 넣어 주셨대나. 거기서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구 여러 날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구 거서 살다가 나오시구. 그 남편은 그때 돌아갔는지 그건 생각 안 나구. 그 가족은 여지껏 살다가, 나 결혼하구 얼마 만에 아주머니는 돌아가구. 그 아들두 돌아가구. 며느리서부턴 거기서 그저 있어요.

## 2. 결혼과 출산

### 맞선 보던 날이 약혼날

일을 하도 그렇게 잘하니까 잘한 건지 미련을 땀은 건지. 그래 잘하니까, (남편의) 셋째 누님이 좀 떨어진 동네에 살으셨어요. 논이 아랫 논이 있는데 만날 거기에서 일하고 논에 밥 이고 가고 이런 걸 하니까, 그걸 보시고 나를 중신을 하신 거예요. 농사를 지러 다닌 거를 보시고, 그래서 그러셨는지 어째서 그러셨는지 중신을 하셨어요.

(한숨) 선을 몰래 본 게 아니라, 난 외가댁에 처음 니들이 갔다 왔는데, 오는 날 와서 자는데 아버지가 “너 널 맞선봐야 한다.” 그러시드라구요. 그래서 “저 맞선 안 봐요. 맞선 보래

면 외가댁으로 다시 갈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당장 결혼은) 안 해도 되니까, 체면이 안 서니까 (맞선은) 봐라. 아무개 엄마 동생이니까, 아무개 엄마가 중신을 하니깐 한 번 봐라. 그래 아니 소리소문 없이 무슨 시집을 가냐고 그랬지.

시이모님이 생일이 칠월 초이튿날이세요. 칠월 초이튿날이 생신인데, 남양 청용골이라고 시이모님 댁이. 시어머니가 청용골에 오시기 전에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아들(남편)이 있는 부대로 전보를 띄우셨대요. “엄마가 위독하다. 시간 있으면 다녀가라.”고... 그래 아들이 그 전보를 받고 터덕터덕 집에 들어오니까, 시아버님이 “이모 아주머니 생신에 가셨다.” 그래서 그 길로 (남편은) 그냥 이모네로 간 거예요. 남편은 이모네로 갔는데, 가니까 “어머니 외갓집에 가셨다.” 하더라. 그럼 거기서 또 한참 걸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여름에 더운데 가 보니까 “어머니, 누님네 가셨다.” 그러더라. 어머니가 발안<sup>17)</sup>으로 오셔 갖고, 발안으로 다시 오니까 “온 김에 선을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 갖고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그냥 누님이 동생한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올라왔는데 온 김에 선을 좀 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논도 아래 위고 아는 처지고 그러니까, 중신도 서로 좋은 일이니까 보자고 그러서 갖고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신랑댁은 어머니랑 아버지랑 오신 거지.



군대에 있던 남편에게 보내진 전보 이 전보를 매개로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



당시 군복무중이던 남편과 맞선 당일날 찍은 악혼사진

17) 중매를 서신 셋째 시누이가 사는 곳이다.

(웃으시며) 근데 (시)어머니랑 (시)아버님이랑 연세 차이가 15년 차이세요. 아버님이 상처를 하셔서 어머니랑 처녀결혼을 또 하신 거예요. 그래서 15년 차이시라 연세가 많으시니까 우리 (친정)아버님은 또 옛날 양반 상민을 엄청 챙기셨어요. 지금 양반 상민이 어딿어요. 돈만 있으면 하는 건데, 그 시대엔 그렇게 가리셨어요. (시)아버님은 연세 들고 그러시니까 혹시 서첩이나 아닌가 하고 (친정)아버님이 그걸 가리신 거지.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구 괜찮더라 하셔. 근데 난 안 할러구 했었어요. 9남매에 맏이니까. 그때는 보통 오남매 칠남매 했어요. 그래도 그 동네에서 9남매까지는 못 들었거든. “구남매야 엄마, 내가 가면 열이야. 그러면서 열에다가, 내가 그걸(중부 역할) 어떻게 하나구.” 그랬는데, 그 선을 보고 그것도 약혼사진을 찍으러 가자고 서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콩 볶듯이 결혼을 한 거예요. 나는 (맞선보러) 갔더라도 안 할러구 물어 보구 안 갈라 그랬는데, 그렇게 여러 남매 있는 집에를 가서 어떻게 일할 걱정... 종갓집인데 가서 제사하고 어떻게 뭐 시제사도 있고 엄청나게 일이 많은 거죠. 그래 결혼을 안 할라고 별 수단을 다 부렸어요. 근데 해지는 거예요. 신랑이 (웃음) 사진 찍으러 가지는 거예요. 그전에도 (남편은) 선을 봐도 안 한다고 펄펄 뛰고 그랬대요. 근데 이 양반이 사진 찍으러 가지는 거예요. 나중에 간다고 싫다고 생각해보고 한데도... 근데 그 길로 가서 사진을 찍고 왔어요.<sup>18)</sup>

음내로 한참 걸어나가서 시어머니, 시누이랑 쫓아갔지. 우리는 어머니가 쫓아나가시고, 떨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학교도 안 다니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어느 정도 맞게끔 결혼을 해야지. 난 안 한다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보자 금방 칠월에 봐가지고 팔월 보름날 사주보따리를 가지고 왔어요. 사주단자를 가지고 이 양반이 또 온 거예요. 아버지가 보시고 괜찮다고 그러시니까 부모 어길 수도 없고... 안 간다고 그랬지, 처음에는 시집을. 종갓집을 가서 내가 어떻게 만며느리 노릇을 하냐고 싫다고... 그래 지금 살잖아. (웃음)

아버님 말씀이 무서워서 거역을 못하고 살았어요. 아버님 앞에서 웃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무서우셨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완고하셨어요. 아주 남자들하고 어디다 눈을 맞추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래서 해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온 거지. (시)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손자를 못 보고 돌아가신다고, 일찍 결혼을 시킨 거지. 부모님이 서두르신 거예요.

18) 남편 되는 분이 조용기 중부와 맞선을 보게 된 사연은 가족신문인 『용달말』(제4호, 2001. 7쪽)에 기록되어 있다. 맞선을 보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하게 적어 놓아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트럭 타고 온 신행

결혼 준비하는 거 뭐. 그전에는 친정에서 인제 먹고 살 저거가 있으니까... 옷감을 이고 땡기는 장사꾼 아줌마가 있었어요. 지금은 시장 가서 사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시장 가서 사지 않고 방물장사라고 보따리 이고 며칠에 한 번씩 오시면 모아놓으신 거 사주시고 사 주시고 그러드라구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그거 다 끊어서 줘서, 바느질은 내가 다 해서 갖고 온 거예요. 감 끊는 거는 엄마가 끊어주시고 쌀 몇 되 값 주시면 쌀 두 말쯤을 시켜놓고 아줌마가 못 가져가니까 아들이 와서 저가고 그렇게 장사를 하시는 양반인데. 그러니까 감만 사다가 주시드라구. 그래 가지고 잔칫날 잡아놓고 음식물을 해갖고, 마름질해 가지고 내가 다 꼬매 갖구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치마고 저고리고 적삼이고 다 집에서 만들어 갖구 왔어요. (웃음)

그 뭐 구월달에 했으니까 바쁘기는 하고 농사도 타작은 해야겠구. 그런데도 잔칫날에 그냥 뱃가마같은 것 선뵈고 잔치할려면 뱃가마... 그전에 톱<sup>19)</sup>있는 집이 혼인 안 될까봐 왕겨 빌려다가 쌓아놓는다고 그렇게들 하고 결혼들을 시켰대요. 그런데 우리는 농사가 많으니까는 봉당이고 어디고 맨 그냥 뱃가마 갖다가 해놓구 했는데, 들러리들이 오셔서 이게 뭐냐구 톱 치고 그랬단 소리가 있드라구. 그전에는 신부집이 못살으면은 뱃가마같은 거를 왕겨가마같은 거를 갖다 놓고, (없으면) 남의 집 거 꾸다가 놓고 그런 결혼식을 했거든.

(혼인식날) 잿더미 뿌려 맞구 하는 거는 눈에 선하지 뭐. 이렇게 퍼붓잖아. 신랑한테. 그래 그 재를 흠뻑 뒤집어 쓰구 들어왔지 뭐. (웃음) 근데 신랑은 크구 나는 쪼끄마하잖아. 지금으로 봐도 천지차이잖아. 기러기 갖구 오구 하님 오구 뭐. 그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사진사를 안 데려오구, 친구분이 카메라를 가지구 왔는데 사진이 나오지를 않았지. 그래서 결혼사진이 없어. (웃음) 조그맣게 몇 장 나오구 실패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결혼)했냐 그러냐며는 트럭으로 결혼하셨어요. 트럭. 택시 (대절)해자니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돈 든다고... 그때는 결혼한 신랑·신부는 택시를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트럭 타고 (신행 왔어요)... 그 택시 해서 도라쿠니<sup>20)</sup>들 옆에 돌이 타고 뒤에 함, 하님들, 그 뒤 트럭에 짐 싣게 하고 그렇게 그전에 결혼했어.

근데 (남편이) 사주단지 가져와서 “부모님이 트럭 하나 가지구 허신다구. 그러니까, 여기서(처가 쪽에서) 우겨보라고...” 하더라구. 우리두 반델 했어요. 택시로 와야지 어떻게

19) 가정형편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말한다.

20) 운전수를 가리킨다.

트럭만 와서 되느냐. 그런데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 여기서(시택) 그 거(차량을 준비해) 오는데 우리가 (간섭을) 못 하잖아요. 그래 누나한테도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트럭을 어떻게 타고 가냐고.” 근데 잔칫날 보니까 트럭 한 대가 온 거예요. 남편도 속상했지 뭐. 부모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그래 그거 타고 차멀미를 해가지고, 타도 못하는 트럭을 타고 왔어요.

재행오던 날 일찍 나오질 못했어. 차멀미를 해가지구 차를 못 타겠더라구. 폐백은 다 시누 내외분들이 맞절하구 했지. 시누 남편들이 아주 깃긋게 했지. 삼일날 재행을 왔어. 바느질을 해서 입구 가라 그래서 바느질을 삼일날 아침에 바느질을 해서 입구 왔어. 바느질은 다 했지 뭐. 바지 저고리부텀 다했어. 우리 둘째 언니도 그렇고 딸들이 바느질 다했어. 그런 거는 어머니가 잘 가르키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다하고. 저는 시집오니까, 삼일이 되면 친정엘 가는데 그 채단, 그때는 채단 치마 저고리 한 끝이 왔는데 그거를 잘라서 주시는데 바느질해서 입구 가라고. 그래서 그걸 껌매서 입고 그거 하는데, 제대로 되나 뭐. 대고모 그러니까 우리 시고모님이 바느질을 잘하셔서 그 시대 바느질쌌을 하고 그러셨어. 잘하시고 그러셔서 그 고모님 하시고, 또 하는 게 다르니까 하라고…. 가는 날 껌매 갖고 입었어. 재행 갔다 바로 그 이튿날 왔지.

## 손님같은 남편

처음에는 인물이 참 이쁘셨어요. 그때는 아휴 바지 주름만 조금 틀려도 안 입어. 뽀뽀 그냥 바지를 쪽 뽀바지처럼 그렇게 입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아프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다 귀찮고 다 방이고 이불도 안 개고 살아도 이불 안 개단 소리도 안 하고. 아휴 그때는 없이 살아도 바지 쪽쪽 펴야 해요. 조금만 틀려도 야단나요. 그 시대에 다리미나 있어, 그 숯덩어리 화로, 숯덩어리 넣고 다리는 다리미로 그렇게 했지.

그때 군인이었어요. 군인한테 시집와 갖구 결혼한 지 닷새 만에 부대 들어갔다, 제대해 갖고 바로 직장을 잡아갖고 나가서, 결혼한 지 14년 만에 들어와서 같이 살았지.<sup>21)</sup> 그렇게 해서 살은 거예요. 그러게 애들 다 학교 다니면서 들어왔어. 14년이면 우리 딸이 그때 초등학교 몇학년이야. 그때두 몰랐어요. 애를 어떻게 안는 거며 기저귀 한번 갈아채우길

21) 1963년 결혼했을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남편은 1964년에 제대하여 1965년까지 농사를 지었다. 그 후 1966년에 취직하여 평택→시흥→남양→과천→안성→과천 등에서 근무하였다가 1976년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다. 이때까지 과천에서 잠시 근무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남편과 떨어져 살았다. 그리고 1977년 1월에 막 계리가 개발지역으로 수용되었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남편은 다시 취직을 하였다.

해. 애를 한번 안아주길 해. 그 큰 딸 낳고 구월달에, 구월 초하룻날 낳는데 몸도 퉁퉁 붙어 있는데, 밭에 가서 일을 해니깐, 회사에서 땀길러 집에 온 거죠. 왔는데 애가 뻥뻥거리고 우니까, 나는 그때 가을이니까 가을건이도 하고 털어는 봐야 되겠고. 시지사가 돌아와서 시지사 다 차릴려면 보름은 걸려요. 그전에는 짚을 엮어가지고 지붕을 또 옷을 입히잖아요. 그래



응달말 개울가에서(1969년) 어느 추운 날 남편, 큰딸 경순, 아들 경락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갖고 그거 까내리고 그때서부터 한 보름 걸리는데 그런 거랑 할라구. 그때 들에 가서 일할라구 하니깐, 어머니가 “저기 애비가 참을 가지고 오나 뭘 가지고 오나 가봐라.” 그래요. 가봤는데 그 애가 뻥뻥거리고 울으니까, (웃음) 이렇게<sup>22)</sup> 애를 안고 온 거예요. 아버님이 알으시면 난리가 나거든, 애 안고 땀진다고 젊은 게. 이렇게 안고 오니까 뭘 가지고 온 줄 알고 가보니까, 애가 울어서 안고, 그 핏덩어리를 들로 안고 왔드라구….

### ‘일부잣집’ 만며느리

시집왔는데 동네사람들이 날 ‘부잣집 만며느리’, ‘부잣집 만며느리’ 라고 부르더라구. 왜 부자도 아닌데 그렇게 부르나 했어. 나중에 내가 생각해보니 딸이 많으셨던 거야. 그래 딸부잣집을 그냥 ‘부잣집’ 이라 한 거지. 근데 알고 보니 ‘일부잣집’ 이야.

땅이 없구. 다 문중 거. 그게 그전에 다 우리 거였는데. 할아버지가 재판비를 대다 잘못 돼 남에게 넘어가서, 문중에서 잡아서 주면서 종가니까 종답을 짓구 먹구 살아라 그랬대요. 그때 아버님이 그전에 중국이나 어디루 가신다구 그랬대요. 너무 없으니까. 근데 못 가게 하셔서 그냥 계셨다 그러드라구요. 집도 우리 집이 아니구 작은 댁 집이니까. 큰댁에 집이 없으니까 작은댁에서 집을 주구 그냥 나와서 살으셨다 그러드라구. 우리 어머니두 고생 많이 하셨지. 그냥 집두 없는데 농사지면 다 실어가구. 시집오니까 논 열다섯 마지기 하구. 먼데 좀 있는 거는 우리 어무니가 이젠 문중에서 농사진 거를 장리를 뵈다구. 쌀 한

22) 겨드랑이 옆으로 갓난아기를 끼고 오는 모양을 흉내내셨다.

가마를 주면 한 가마씩 늘려 온다구 했죠. 그렇게 장리를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데, 아마 둘째 따님일 거예요. 둘째 따님을 어머니가 얻어주신 건데 둘째 딸이 못 값은 거야. 못 값으니까 땅이 그냥 넘어간 거야. 땅으로 그냥 해결을 한 거야. 근데 얘기를 안 하시지. 내가 아는데두. 또 마당 앞에서 마지기는 절에 땡기시다가 절이 흥년이니까, 가짜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한테 빠져갖구 우리 엄니가 그냥 돈 준 게 안 되갖구, 쌀 얻어준 게 안 되갖구. 그것도 그냥 넘어간 거야. 우리 엄니가 남 보증을 잘 스셔. 옛날서부터 보를 잘 스셨어. 근데 뭐 땅이 있어 밭 이백 평하고 논 열 마지기밖에 없는 거야.

저 양반 모르게, 내가 저 양반이 집에 같이 안 살으니까. 돈이 쪼달리니까 내가 별짓 다 했지 뭐. 별짓 다 했어요 정말. 이거 책 낼 수도 없어요. 우리 남편 체면이 안 서요. 저 양반 몰르셔요. 이거 얘기하면 거짓말 같은 거야. 모르셔요.

나 시집오니까 시동생이 중학생이더라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도 돈이 없어 찢찢 매시고 남편은 직장 땡겨서 그 시대에 돈 팔천 원씩 부쳤어. 만이천 원씩 타갖고 사천 원 가지고 생활비 쓰고 팔천 원씩 부쳐주는데 팔천 원 가지고, 그때 시동생 대학교 등록금이 칠만 원이었나 팔만 원이었나 기억도 안 나네. 그랬는데 등록금이 그게 1년에 두 번씩 고등학교 때는 세 달에 한 번씩 내고 대학교는 6개월에 한 번씩 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랬간드루 겨울 되면 장사 땡기구 그랬어요. 저 양반 몰르셔요. 그래서 첫 월급이 팔천 원. 그때 누구 인편으로 보냈어. 같이 동창끼리 가셨는데 그분이 오시니까 보냈더라구. 받아야 부모님이 쓰셨지 내가 썼나. 월급돈이구 받아 써보질 못했어.

## 출산

큰딸 때 통증이 오면서 (한숨) 절구질을 밤새도록 12시까지 쪼어주고, 낮에는 밤 까고 통증이 오면 비비 꼬고 통증이 가라앉으면 까고 까고 해다가 밤에 나와서 일하라고 그러시더라구. 일을 해야 빨리 낳는다고. 불러내서 밤새도록 절구질을 시키시드라고. 이제 이런 항아리에다가 불 켜서 양쪽에 놓고 밤새도록 앞마당에서 맛절구질을 시키시드라고. 12시까지. 그러구설랑 새벽에 낳았지.

그리고 우리 아들 낳 적에는 친정 가서 낳고. 그때 잠깐 (남편은) 집으로 왔다가 직장 잡아서 또 나갔지. 그래 고거 낳 적에 친정 가서 낳는데 애 낳는 걸 (남편은) 못 봤어요. 낳아도 산부인과를 가보기를 해요 뭐. 지금은 다달이도 간다는데, 나는 산부인과도 못 가고 집에서 낳는데. 기냥 낳아놓고 불르는 거야. (둘째 아이는) 아이 낳기 열흘 앞두고 발인<sup>23)</sup>을 갔지. 그때 (남편이) 집에 계셨었어. 전보를 받고도 처갓집에 못 온 거야. 어머니가 오셨더

라구 보려. 엄격하신 거예요. (남편이) “나 아들 낳았으니까 가요.”라는 소리도 못 하고….

중손을 낳아가지고, 아버님이 더 좋아하셨어요, 아버님이. 어머님은 좋아하셔도 표현을 안 했어요. 외손자 외손녀에게는 그러시는데<sup>24)</sup> 친손자한테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마음에 안 드신대요. 항상 그러셨어. 아들 앞에 앉혀 놓고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간다고 그랬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나가겠다고… 그걸 적에 왜 붙잡아 앉혀 놓고 여태껏 시집살이 시켰는지… 아버지가 “시집가면 그 집 울타리 귀신이 돼야 한다.” 그러시고, “절대로 구박을 해도 쫓겨오는 거 안 된다.” 그러시고. 그 말씀을 하셔서 여직까지 살은 거예요. 가문에 대해서 끄찍이 따지시는 양반이었어. 아버지가.

### 부녀회 활동

한 달에 한두 번씩 면사무실로 갔지. 면으로 회의 나갔지. 회(의) 나가서 그때는 뭐 갖다가 팔라 그래서 그거 갖다 많이 팔았지. 거기에서 얼마에 사다가 얼마씩 붙여서 팔라 그러구. 절미 운동, 밥할 적에 한 스푼씩 떼어냈다가 그걸루 기금하구 그렇게 했지. 그때 뭐 별로 쓴 거는 없는 거 같애.

총부녀회 때 모여서 뭐 사다가들 자시구. 기금이란 거는 면회비 갖다내구 그러니까 수입이 없었어요. 그때 부녀회 때 할 만한 분들이 없으니까, 노인들이 “해라. 해라.” 그러니까 노인들이 “아무개 엄마가 ‘해라.’ ‘해라.’ 하나까 했지.” 그때 재밌었어요. 그때 한 8년 했어요. 일단은 집에 있다가 맨날 친구들두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런 게 재밌더라구. 나름대로 보람두 되고. 농사짓는 사람들 일손이 딸리니까 가서 이젠 고구마두 캐고 그랬어요. 돈 받구 가는 게 아니구 봉사. 봉사조 뭐 봉사. 노인들 뭐 청소두 하고. 먼저는<sup>25)</sup> 그렇게 못 하구 먼저 맡겨질 때는 시키는 일만 했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갖구 도로변 청소시키구 면단위에서. 담당 부녀과에서 과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주관해 가지구 교육두 받으러 갔지. 새마을 교육. 수원연수원에서 1975년 10월 5일날 1주일 새마을 교육. 4박 5일 지도자 교육을 안성으로 갔구. 그때는 그래두 면 단위에서는 부녀회를 신경을 많이 썼어. 내 나이보다도 노인들이 많이 기셨어요. 노인들이 주로 허셨어요. 그릇도 관리하구, 동네그릇. 잔치 때 같은 때 초상 같은 때 빌려가구. 부녀회장이니까, 그걸 가지구 있다가 부녀회장 안 하구 노인정에 그 그릇이 있어요. 양은. 그거 좋은 건데. 이거 회관이 생겨갖구 노인들이 그저

23) 친정집을 말한다.

24) 시어머니가 외손주들에게는 귀여워하는 내색을 하셨으나 친손주들에게는 표현을 잘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25) 막계리에 살면서 처음 부녀회 활동을 하던 때를 말한다.

쓰셔요. 아까지 씨를 많이 따러 다녔지. 면에서 따라 그래 갖구 그걸 그렇게 했어. 한 달에 한두 번씩 나가니까 허락을 받고 한 거지. 어머님도 예전에 그걸 하셨다 그래서 허락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어. 그땐 그래두 산아제한 약들을 많이 부녀회 회장들에게 시켜 갖구, 회의에 소집시켜 갖구 그 약 갖다가 돌리구 그랬어요.

### 3. 시부모 봉양

#### 시아버지 병수발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음식을 갖다주셔서 잡숫고 나셨는데, 혼자 주무시고 아침에 나오셔서 그냥 “옛저녁에 그것두 잘 먹구 잘 잤는데, 자꾸 나니까 다리 한쪽에 힘이 없다.” 그러시드라구. 그래서 아마 기운이 없으셔서 그런가 보다가 했지. 그래서 이틀 밤 자고는 우리 엄니 언니의 아들네미, 이질이 한의사셨어요. 거기 가 가지구 인제 시아주머니께 그런 말 씀을 꼭 드렸더니 “그러면 어휴 풍기가 오신 거네요.” 그 시대는 풍도 몰랐어. 풍 맞으신 분을 못 봤으니까.

그래 그때부터 누워 계신 거지. 그래서 3년을 소대변을 받아냈어요. 남편은 진천에 가 계셨는데, 뭐 어이가 없지.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싸시면 3~4번을 옷을 갈아 입혀 드려야 되는데, 지금 나이롱 옷이야 빨아서 탈수해서 널으면 금방 입으실 수가 있는데. 이진 광목이니까. 광목 바지저고리에다가 솜을 넣구 그런 옷에다가 싸시니까. 뭐 말르기를 해. 어떻게 해달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그래갖구 소쿠리를 갖다가 얹어놓구 말릴까 보다 해서, 남편이 어느 날 왔길래 이불·옷이 안 말르니 어떻게 하나구. 기저귀도 그때는 광목 이불 떨어지구 옷 떨어진 거 누덕누덕 기워서 그걸 대드리구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거야. 원래 응달말이라 우리 일어나면은 해가 저기서<sup>26)</sup> 떠. 그리구나 서는 열두 시만 넘으면 지붕에 와서 가는 거야. 네 시 다섯 시 되면 벌써 어둡거든. 그러니 해 구경을 잠깐만 하는 거야. 아침에 빨래두 아직 안했을 적에 벌써 해는 지나가. 그래 소쿠리를 해야 겠다구. 이렇게 해서 둥글게 만들어서 군데군데 때매갖구 해갖구 화롯불에다 얹혀놓구 하니까 금방 말리지 뭐. 한 10~20분마다 자꾸 뒤집구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 일이 없는 거야. 옷이 그렇게 잘 말르니까.

26) 친장 꼭대기를 가리키셨다.



응달말 행랑채 사랑마루에서(1971년) 조용기 종부 앞에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큰딸 경순, 아들 경락, 막내딸 경춘의 모습이 보이고, 왼쪽엔 남편이, 그 뒤로 시동생이 자리하였다

약국 시아주버니가 그러시드라구 좋아하시는 거 해드리라구. 그래서 동태하구 고기를 좋아하시는데 고기는 사정이 어려워서 잘 못해드렸지. 시아주버님이 그래서 양즙을 해드리라구. 그전에는 한우지 뭐. 삶으면 구수해 그냥. 그걸 칼로 난도질을 해갓구 드리니, 쪼그만 솔이나 있어. 물 두바께쓰 드는 솔에다 볶다가 물을 한 바께쓰씩이나 부어갓구 한 서너 사발 맹글게 만들래면 밤새도록 끓여서 해는 거. 조금씩 데워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두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드리구 아버님만 해서 드렸지. 그러니까 “어머니두 드시세요.” 그랬더니 나는 밥 잘 먹는데 저기 밥 잘 먹는 놈이 그거는 뭐 먹냐. 그때 무서우셨어. 말두. 그래서 아버님만 이렇게 해드리구. 끼니 때마다 보통 때 새우젓에 고춧가루 넣어서 이렇게 드리면 “참 맛있다.” 하고 잡수셔.

우리 아덜을 보면 손자 80이 넘어서 손자 보셨다구 그렇게 좋아해서갓구 재를 그렇게 뵈주시구 그러시더니, 이제 씨러지시구 1년이 넘구 그러니까 우리 아들두 뵈기 싫어하시드라구. 세상에 손주라면 뭐 누가 뵈 가지고 오면 잡숫고 나가실 적에 갖다 드리면은 “나는 먹었는데 경락이 모이할라구 그냥 놔둬라.” 꼭 그러셨거든. 그렇게 오강 쏟으려 가면은 성하셔두 오강을 많이 쏟았어. 소변 보는 건 우리 아들이 더러운 것도 몰라서 그랬는지 그냥 오강을 노상 들고 가서 쏟고. 개울에다. 우리 여기서 한참 내려가. 그런 텔 뛰어갓구 내려가서 부시구 들어오구 부시구 들어오구 그랬어.

근데 이제 남편이 오강에다 앉혀드리면 힘들어 하셔. 아프다구 아야야 하시면서. 이런 데가 죄 아프신 거야. 그니까 남편이 안 되겠다 하시구 변기통을 맹글었어. 가서 사면 되는데 (한숨) 그래 따님들은 서울 사니까 파는 것도 알잖아. 근데 우리는 시골 동네, 시골 장에서 그런 거. 여기는 시골장도 없어요 여가. 그런 걸 어디 가서 사는 건지두 몰랐는데 그때 따님들이 네다섯씩 다 시내에서 사는데 그걸 몰라. 나는 알 것 같은데. 그래서 남편이 함석을 갖다가 맹글어 갖구 와꾸를 짜갖구 이렇게 짜서 속에다 넣구, 보시면 빼구 이렇게 맹글었어. 그랬는데 바지를 내리니까 혼자 들 수가 없어. 무겁잖어. 나는 쪼끄망구 아버님은…. 생각해서 안 되겠어. 옛날 여자 고쟁이 바지처럼 만들었어요. 바지를 죄 뚫어갖구 여기 뒤를 탁 튼 거야. 여기 뒤에서 끌어 안구 들으면 여기가 꼭 벌어지게. 꼭 벌어지면 그냥 앉혀드리면 누시게 그렇게 해드렸더니 너무 편하구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다 보시구 씻겨드리구 이렇게 빼서는 그거 함석만 빼서 가서 쏙고 닦으면 되니까. 나중에는 혼자 들지두 못 허구 일어나시지를 못 하시니까, 몸져 누워 계시니까. 기저귀를 채워 드렸지. 그전에는 기저귀 안 차더니 그렇게 해서 인제 금방 힘이 없으시니까 금방 싸시는 거야. 사나흘은 된 변 보시구 사흘 나흘은 설사를 하시구 그러신 거야. 계속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래 설사하시는 날은 기저귀 채워 드려두 이불이구 뭐 다 지금은 종이 기저귀 채우면 빠져 나오지도 않지만 옛날에 현 이불, 광목 이불 누덕누덕 기운 거 가지구 하니까 불편하시구. 불편한 기저귀를 차다가 돌아가신 거여. 그런 기저귀 보면 아휴 아버님 생전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은 본인두 좋으시구 나도 좋구 얼마나 좋았을까. 누덕누덕 기운 데가 울퉁불퉁한 걸 깔고 주무시구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런 생각이 가끔 나요. 그때는 그렇게 어려워가지구.

근데 간식이라구 (아버님한테) 이렇게 갖다 드렸어. 그냥 대접에다 갖다가 소금 조금 넣구 후추 넣어서 갖다 드리면 훌쩍 마시시구. 내가 들구 나올라 그랬더니 그냥 두라셔서 먼저 나왔어. 내가 나오니까 다섯째 따님이 오셔서 들어가시드라구. 들어가시더니, 금방 나오시드라구. 밥을 하는데 “올케가 아버지한테 엄한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맘이 변하셨나봐.” 그래 “왜요.” 했더니 아니 올케가 이거 양즙해다 드린 거 아니냐구. 내가 했단 소리도 안 했는데 양즙 해다 드린 거 아니냐구 그래. “새참 잡수라구 드리구 나온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욕을 해서 그래. 맘 변하신 거 같으니까 섭섭하게 들지 말어.” 하시드라구. “섭섭하기는 뭐 내가 잘못하니까 그런데요. 뭘 섭섭해요.” 그랬더니, “해다준 거 뭔지는 몰려두 이런 거를 가끔 해다주는데 나 먹구 살라구 해다 주는 게 아니라 나 먹구 죽으라구 해다 주는 거다.” 하셨대.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소금을 내가 갖다주면 내가 넣어서 먹을 소금을 넣어서 갖다 주는데 원 도대체 짜서 맛을 모르구 먹었다.” 그러셨드래요. 그래 지식으로서는 아버지 말 듣구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진짜 며느리가 아버지를 그렇게 해다 드렸다 허구… 솔직히 “올케가 진짜 그러면은 올케 나무래고 잘못된 거면은 올케 누명 벗겨줄라 그랬어.” 그러시드라구요. “뭐라 그러시는데요.” 했더니. “올케가 해다주면 짜서 못 먹겠다구 나 죽으라구 한 거라.” 그래. 오래두 못 살겠다구 하며 언짢어 하시길래, 사실 비워둔 걸 내가 나와서 마셔봤어. 바닥에 조금 남는 게 있으니까 갖구 나와서 훌쩍 마시는데 맛있구 간두 짜지두 않은데 그러시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라나 보다 그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돌아가시긴 왜 돌아가세요. 얼른 안 돌아가세요.” 인제 “며느리가 잘못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간을 안 넣구 소금째 갖다 드리면 되죠.” 그랬더니 “아니야. 간 맞아, 내 입에는 싱거워. 근데 아버지가 마음이 변하셨어.” 그러시드라구.

### 시어머니 환갑잔치

회갑잔치 때 그때는 이 잔치 참 잘해드린 거루 했어요. 사모관대에 족두리 쓰고, 그때는 상을 차려도 이렇게 똑같은게, 부부니까 똑같은 상 두 집시씩 끼운 거예요. 사람을 사서 닳샌가를 췌어요. 껀임상을. 이걸 일일이 다 풀을 췌서 풀에다 붙여서 이거 붙인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시간 오래 걸려가면서.

껀임상은 셋째딸이 차렸지. 준비는 뭐 고기 사고 그 준비가 많이 드니까. 그거는 결혼할 때 패물 반지 서 돈 받은 걸 그것 팔아가지고 늘려가지고… 어머니로 말하면 큰따님한테 내가 늘려달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러시드라구. 왜 당신도 사정이 있어서 못 할 이유가 있으셨어. 그래서 못 하구 들췌 언니네한테 얘기했더니 형부랑 언니가 늘려준다고 그러셨어. 근데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떼먹구 도망을 갔잖아. 그래서 언니가 물어줬잖아. 그것도 몰라서 반지 한 돈을 해주러 갔다가 잔치를 치르고 나서 나중에 들으니까 그 사람이 전날 밤에 도망을 가서 형부가 다 물어준 거지 뭐. 언니하구 형부가.

그때 그계(패물 반지) 쌀 세 가만가 그랬어요. 팔은 게. 그러니까 한 가마 가면 반 가마씩 느니까 두 가마면 세 가마예요. 1년에 열두 달 채운 게 아니라 지금 7~8월 가져가두 가을에 가져오면 반 말씩 늘었어요. 다 어디던지. 그때 해가지구 쌀을 일곱 가만가 값을 받아왔어요. 그것도 어른들은 모르시지 뭐. 몰르게 한 거지. 집이 영성하구 한테<sup>27)</sup>서 잔을 받으

27) 추운 곳을 말한다. 당시 환갑잔치상을 집 마당에 차렸다고 한다.



시어머니 박일채 여사의 환갑잔치 때 응달말 행랑채 바깥마당에서 친척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다

시니까. 그때 추우시니까. 정월달이니까 정월 이십사일이니까 그땐 무척 추웠어. 그래 갖구 소창<sup>28)</sup>을 몇 필을 바꿔다가 이렇게 다 쳤어. 그리고 잔을 받으신 거야. 마당 축대를 이런 소창을 세워놔다가 다 돌려 갖구 해서 잔을 받으시게 한 거야. 그때 세 필인가 좌우간 몇 필을 바꿔다가 그걸 해드린 거야. 그때 회갑잔치는 잘 해드렸는데, 돼지 한 마리를 잡아 갖구 3일을 했어. 돼지, 큰 돼지를 잡아다가. 그래 갖구 이젠 과방<sup>29)</sup> 볼 데가 없어 배갈에 내다보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을 열고 배갈에 움막을 지었어요. 수수단으로. 그래 갖구 거기서 받았던 거예요. 3일을 잔치를 치른 거지. 밤이면 쥐가 있구 그러니까 거기서 자구, 거기서 3일을 잤어요. 나 혼자 잔 게 아니라 남편하구두 같이 자구 그러면서 3일을 자가면서 잔치를 했어.

손님이 참 많으셨어. 한꺼번에 다 치를 수가 없잖아. 일일이 국수 삶아서 해대니까 연락을 몇일 날은 어디서 오시고 어디서 오시고 저거가 있잖아. 3일째는 좀 수월했지. 회사 손

28) 소면사로 줄무늬나 바둑무늬를 나타낸 성글게 평직으로 짠 직물이다. 당시 찬바람을 막기 위해 환갑잔치상을 차린 마당 주위를 소창으로 둘러싸고 있었다고 한다.

29) 잔치 때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임시로 마련한 장소를 이른다.



님들하구 먼 친척하구 해서 3일 잔치를 했어요. 근데 손님들이 나중에 그런 소문이 나드라구. 잔치는 잘했는데, 돼지 한 마리 잡았는데 딸 사위가 반은 먹었을 거라구. 따님들이 많으니까. 그런 농담들두 나오구. 글구 마당 끝에 짚가리를 쌓아놔는데, 거기서 떡보따리랄지 고기 보따리가 몇 개가 나온 거야. 참참이 드리는 거 갖다가 거기다 끼워 놓구 못 찾아들 가신 거야. (웃음) 그런 적도 있었어요. (웃음) 그렇게 가지구 갈라구 것들을 짚간에다 끼워놓구 들어와서 노시다가 갈 적에 가지구 갈라 그랬는데, 그걸 잊어버리셨다가 차마 못가질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두 치렀죠.

### 시아버지 사망과 상 치르기

엄니 생신날 이젠 더하시니까 넋이 생신인데 오늘 난 두부 해야 되는데 집안엔가 행사가 있어서 어머니가 가지구 나는 그걸 가는 거야. 두부를. 근데 그전에 (시아버님이) 사약을 많이 잡수셨대. 노루피, 돼지피 그런 걸... 그전에는 운명하실 때 꼭 안방으로 모시구 이부자리 장롱 죄다 내놔잖아. 그래 두부 하다 말고 인제 안방으로 모신 거야. 안방으로 모시구 그날서부터 밤샌 거야. 24일날부터 밤샌 게 이월 초여드렛날 돌아가신 거야. 그래 보

름을 밤을 샌 거야. 식구가 다 안방에서, 금방 돌아가실 것처럼 숨을 멈추셨다가 얼굴도  
하야셨다가 또 그냥 시켜머셨다가. 나는 내 생전에 처음 운명하시는 걸 봤거든.

근데 사약을 잡수셔서 돌아가시기가 힘드신 거야. 돌아가셨다가는 다시 깨어나시구, 화  
장하신 것처럼 하얗게 되셨다가 수시로 변해서 시켜머지셨다가 그냥. 근데 따님을 못 보  
신 거야. 둘째 따님. 지금도 생존해 계셔. 켈 큰누님은 돌아가시구 둘째 누님. 뒤에 빠지셨  
는지 안 오시는 거야. 연락을 해두 안 오시구. 그래 내버려뒀지 뭐. 전화가 있나. 뭐 왕래  
하는 분덜이 있어서 이제 연락해두 안 오시구. 이젠 밤새면서 어머니, 나, 우리 고모는 노상  
와서 사시다시피 하셨어. 그래 아버지님 누이동생은 많이 우리 집에 와서 계셨어. 그러니 얼  
마나 어려워. 노인네가 와계시니, 노인네가 하나 더. 큰시누이는 겨울을 나시구. 근데 그  
때 우리 농사 지시는 내외분은 보름 동안으루 밤낮으루 와계신 거야. 그거 지켜 앉아서 보  
시구. 허구한 날 아침 점심 해대기두 바빻지 뭐. 동네 분들 뻥질허니 오시구 내리 세 집 사  
는데 당숙네 내외분, 작은집 당숙모, 또 팔촌 동생 시아주버니까지. 열몇 명이 밤낮 교대루  
자구 했더니 초여드렛날 따님이 왔어. 초이렛날 돌아가셨는데. 그랬더니 “아버지 저 왔어  
요. 불효 자식이 왔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안 왔다가 죄송스럽다구 그러면서 사연을  
늘어 놓으시더라구. 그래 밤샘하구 났는데 아침에 남편은 회사엘 갔다가 오신다구 “아부  
지 저 갔다가 회사에 갔다가 또 오께요.” 그랬더니 고개를, 그때는 좀 나오서 갓구 꼬떡꼬  
떡 하시드라구. 그 길에 사촌 시아주버니두 그때 와서 밤새워 가시구 형님 분두 오시구 그  
랬는데 사촌 시아주버니 내외분은 시누님 내외분하구 아침에 일찍 밝기 전에 아침들을 해  
잡숫구 가셨지. 보냈는데 과천읍내, 읍에 버스에서 내리는데 거기쯤 가는데 운명을 하신  
거야. 그러니 전화가 있어? 어떻게 연락을 할 길이 없는 거지 뭐. 근데 운명하시기 직전에  
보셨으니까 운명하신 거야. 사람이 그냥 여기 내리내리 세 집이 사는데 두 맥두 다 가시구  
동네에서 맨날 밤샘 농사짓던 내외분두 가시구. 시동생이 그때 토요일에 왔는데 어머니하구  
셋이 있는데 운명하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랫집 당숙을 불렀지요. 이렇게 울타리가  
돌담인데 여기서 불르면 요기서 들으셔서. “아저씨. 아저씨. 아버님이 이상하니까 빨리  
오세요.” 그러니 금방 뛰어오셨드라구. 그예 오시더니 금방 운명하시는데 남편도 못 보셨  
어. 어머니, 나, 시동생, 팔촌 당숙 이렇게 네 분만 그래 운명하시는 거 봤지. 딸꼭질 한번  
‘꼭’ 하니깐 그만이지스는데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셨어.

팔촌 시아주버니가 이젠 그때는 우체국에 갔지. 가서 전보를 쳤지. 남편 직장이 평택이  
니까. 여기서 안양 가서 직행 타구 평택 가는 거 타면은 가거든요. 가면서 돌아갔으니까 1  
시간두 못 가서 돌아가셨지. 어떻게 연락이 안 돼서 회사루다 전보를 치니까, 가니 돌아가

셨다구 전보가 들어왔다구 그래서 되돌아왔지. 손님이 엄청나게 많으셨지. 온통 동기간이 많으셔 갖구 동기간만 해두 많이 해야 돼. 그러기 전에 식구가 많으니까 그때는 이 배옷 같은 걸 못 입게 단속했었어. 한참들 해입지 말라구 그래서 낭비라구 그래서 못해 입구 했는데, 우리는 근데 수의는 큰일을 치를 수밖에 없었으니까, 배를 꿰어다가 수의를 직접 만들었어. 그러구 낫는데 운명하시자 시장에 가서 옷을 꿰어다가 그냥 손으로 꼬매구 박구 난리를 치는데 그때 미싱이 있었어. 우리 영등포 시누님이 미싱을 잘했어. 미싱을 허구 해도 삼일날, 그 장례 내어 모시는 날 아침까지 꼬매서 입은 거야. 어떻게 복인<sup>30)</sup>들이 많아가지구, 그 광목 치마저고리 죄다 꿰매 낫지. 그전에는 다 꼬매서 했어. 집에서. 그 광목을 몇 필을 꿰어다가 배하구 복인들 상주들이 열여덟 명이야 상주만. 근데 시동생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열일곱 명이지. 거기에 사촌, 외사촌, 칠촌, 팔촌까지 죄 입혔으니 후루마기<sup>31)</sup>덜을 그니까 그거 꼬매구. 지금 그 옷이 그저 있어요. 그냥 뒀어. 어머니 돌아가시면 입을라구. 몇십 년 된 게 그냥 있어. 그게 1년이면 한 번씩 내서 바람 쐬서 그니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으면 아버님이 여자 거는 못 입으신대. 남편은 하늘이구 여자는 땅이니까.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입으셔두 된다 그래서 그 박스두 삼십몇 년 된 박스가 있어요. 1년이면 그거 다 내다 널었다가 다시 개서 좁약 사다 넣어서 두구두구. 박스로 하나야. 옷 갈지두 얇아두 거기서 골라서 해서 금방 입구 버리니까 해서 두구. 우리 어머니 수의는 내가 해 논지가 20년이 넘었어. 우리 어머니 모르셔. 그렇게 해서 치렀는데 그전엔 양조장에 막걸리가 있었어. 양조장에 술이 떨어졌으니 말 다했지 뭐. 그렇게 손님이 많았어. 그래 막계 1·2·3리 사람들이 다덜 오신 거야. 무척 손님이 많았어 좌우간.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두 번인가 세 번 쓰러졌대요. 나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 옷을 꼬매구 그랬는데, 그 내가 쓰러지구 하니까 염식하는 데 못 들어오게 하시드라구. 들어오지 말라구. 아유 내가 3년을 병간호를 했는데 내가 마지막 옷 입으시는데 안 들어가고 싶었어. 생각을 해봐. 그래 내가 기어 들어가다가 쓰러진 거야. 그냥. 염식 다 하다가 또 쌍초상이 났다구 난리가 난 거야. 내가 죽어 자빠지니까. “큰일났다.” 그러는데 이종 시아주버니가 내 몸을 다 주무른 거예요. 쓰러졌으니까. 기냥 염식하다가 난리가 난 거래요. 쌍초상이 났다구. 이종 시아주버니가 막 손끝, 발끝 다 침 놓구 그래가지구 몇 시간 만에 깨어났다고 그러시드라구. 나는 모르거든 몇 번을 그랬는데 나는 몰러. 근데 그때 허두 그러니까 그 시대는 돌아가시면 꼭 ‘자리걸이’ 라는 게 있어요. 만신 불러

30) 성복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31) 두루마기를 말한다.

다 뒷거리했어. 그러는데 엄니 다니시던 당고개 만신인가 누군가를 데려다가 했어. 했는데 대를 잡으라 그러는데 내가 대를 잡았다 그러시드라구. 내가 그 푸념을 다 하드래요. 아버님 혼이 올라 가지구 그 푸념을 하드래. 있었던 얘기를. 그래 깜짝 놀랐다고 그러셔요. 그래가지구 내가 얼마 동안 놀았다고 그래요. 나는 그거 안 되는 걸루 아는데 진짠지가 짠지 그랬다고 그러시드라구. “나는 몰르겠다.” 그랬더니. 그리구 고모부는 나 시집오기 전에 먼저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그 고모부 성함까지 대면서 내가 그 푸념을 했대요. 근데 나는 몰르거든. 그렇게 해서 장례는 잘 치렀지 뭐. 사우님들이 많으니까 그때나 이 때나 돈 뜯는 거 있잖아. 자리마다 비탈마다 다 돈을 뜯구. 사우님들이 돈을 안 내놔 갖구 소문들이 났어요. 사위가 일곱씩이나 되두 돈덜을 안 쓴다구. 그걸루 해갖구 동네 돈으루다 쓰구 그러니까 이렇게 뜯는데, 그거를 그렇게 안 내놔다구 얼마 동안 그 소문이 났드라구. 돈이 없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언제는 돈이 있어서 그거 해내냐구. 부모 마지막 돌아가시는 길에 돈을 좀 쓰지 그렇게 안 썼다구 그 소리가 그렇게 나왔어요. (웃음)

술이 떨어져서 난리가 났구. 근데 한꺼번에 못 다했어요. 삼오날까지 때가 안 살으니까 밑에 발이 있는데 흙을 여자들이 우리 형님들두 그때 했을 거야. 여다 저다 놓구 그 분장을 벗구 때를 심었어요. 그래서 때가 산소가 그렇게 이쁘게 자랐는데 발에 있는 흙을 퍼다 노니까 발에 나는 풀이 다 산소에가 짝 깔린 거야. 이 머리털 같이 나온 거야. 그래서 노인네(시아머니)두 가서 좀 뽑으시면 되는데 안 가요. 안 뽑으시더라구. 그래서 내가 사흘을 뽑다 뽑다 다 못 뽑아서 나중에 사람 둘 데리구 가서 뽑았어. 그래서 다 뽑구 그냥 물 저다가 주구. 그냥 그렇게 해가지구 때를 그렇게 이쁘게 가꿔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직장으로) 가면서 “삼촌은 학교 때문에 서울 들어가시구 아버지는 회사에 들어가서 돈 벌어와야 하니까 산소에는 너희가 댕겨라.” 했어. “돈 벌어다가 너덜 확보 대구 그래야 되니까 나는 못 오니까 너덜이 산소를 아침 점심에 댕겨라.” 애덜 얹혀놓구. 그래서 “애덜이 뭘 댕겨요. 내가 댕길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식전에 일찍 갔다 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구.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구.” 그러구 보내냈는데 며칠은 내가 꼭 데리구 다녔지. 초하루 보름은 당연히 가지만 평일날 아침 저녁으로 내가 데리구 갔더니, 이젠 “엄마는 바쁘니까 오시지 마세요. 우리덜끼리 갈게요.” 하더니 지들끼리 1년을 댕겼어요. 1년을 댕겼는데 겨울에는 눈이 와도 가구. 여름에는 논두렁이랑 논두렁을 거쳐 가니까 풀 속으로 다니면서 미끄러지면서 가구. 우리 딸은 조금 크니까 갔다 와서 핵교를 가야 하니까, 그래 (동생들) 깨우다가 얼른 안 일어나면 우리 딸은 발딱 일어나서 “나 혼자 갔다 오께.” 그래. “혼자 갔다 와라. 동생은 애기니까 두구 가라.” 그러

면 한 30분 뒤에 (아들이) 일어나서 후루매기를 입으면서 울면서 가는 거여. “누나, 나는 안 데러가구 혼자서 갔다구. 할아버지가 화내실 텐데. 왜 혼자 갔냐구.” 그러면서 울면서 막 뛰어요. 좌우간 1년을 아침 저녁으로 안 걸렸어요. 비가 와두 갔어. 좌우간 나는 그걸 상상두 못해. 근데 딸은 광목 치마저고리를 입었으니까 괜찮은데, (아들은) 후루매기를 하니까 (웃음) 이게 맨날 붙잡아 매고 풀르니까 후루매기가 다 찢어졌어. 1년을 입구 땡기니까. 그냥 입구 휘적휘적 돌리면서 오구 그러니까 이게 다 찢어졌어.

그렇게 해서 하도록 했는데 1년 동안 상창을 맹글었는데 인제 안 돌아가신 거 같았어요. 그냥 아버님만 안 계시지 돌아가셨다고는 느껴지지두 않는 거야. 그리고 끼니 때마다 상식을 올리니까. 나두 미련하게 살은 거 같애. 지금 사람이라면 그거 미련하다구 그러지 그거. 힘들은 줄두 모르구. 꼭 진지 먼저 해서 엄니가 상식은 개밥 주기 전에 올리는 거라구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꼭 허구. 저녁에두 일하다 말구 일찍 와서 허다가는 또 상식 올리구 와서 일허구 밥을 먹구 이렇게요. 그렇게 했는데 간장을 먹던 거를 다시 못 올리는 거라. 그래서 간장을 조금씩 따라냈어. 간장두 먹을 때가 없잖어. 그냥 다 묻허구 하기 힘들드니까 국 끓일 때 또 넣으면 상식을 못 올리니까. 그거를 술병에다 담아 보니까 병으로 하나가 됐드라구. 1년을 모으니까. 그때는 두 홉들이가 아니구 소주가 네 홉들이가 있었어요. 네 홉들이루 하나예요. 그러니까 또 그거 놓구 제사를 탕국을 끓이거나 찌개다 넣으면 아버님 상식을 못 올리니까 그냥 안 넣은 거예요. 그냥 올린 거는 무조건 간장을 여기다 갖다 부은 거예요. 붓구 나중에 먹게 되면 먹어두 그렇지 않으면 그걸 다 김치는 다 반찬은 다 먹구. 그냥. 그 상식 올리면 그 진지두 안 잡수셔. 내가 꼭 먹었지. 애들허구.

(시어머니에게) 사랑에 가서 좀 주무시라 그러니까 안 주무셔. 사랑채여서 안 주무셔두 되는데 살으신 거 같으니까, 그전에 노상 편찮으실 적에 내가 가서 자던 생각을 허구 비워둘 수가 없드라구. 그래서 아주 몸져 누우셨을 때는 내가 1년을 더 아버님 방에서 지구, 돌아가셔두 상창 내올 때까지 1년을 고향 거기서 잤어요. 나두 참 지독해. 문두 허수룩한데 뭐가 들어오면... 그때는 그런 게 없어서 그렇게 잔 거여. 배갈 사랑채니까 배갈. 안방은 엄니가 애들 데러구 주무시구 난 사랑방에서 자. 그런데두 무섭지두 않았어. 난 지금 상상을 하면은 내가 그때 뭐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생각을 허구. 그런데 하나도 안 무서우시구 안 돌아가신 거 같애. 그래서 상창 내모시구 나니까, 썰렁한 거여. 그래갓구설랑 아버님 거기서 자자 그랬더니 아버님 상창에서는 이제 곱게 자는 거루만. 이제 제사 지내면 친정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 제삿날 저녁에는 부부관계두 안하는 거라구. 그걸 딸들을 알려 주시드라구. 그런 때는 상창에서 자면은 애들 욱두 안 하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두 안 했구.

1년이 어떻게 금방 지났는데 1년 동안은 그냥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도 그냥 주물러 뺀 거. 광목으로두. 광목으로 한 벌 옷을 했는데 그전에는 돌아가시면 고상 옷을 친정에서 해왔어요. 친정에서 해서 꼬매갓구 인제 보내셨드라구. 그래 그걸 가지구 입구 외출복으로 그걸 했는데 우리 친정에서는 외출복으로 그냥 실크로 아주 꼬매서 해서 갓구 왔어요. 그걸 외출복을 한 거야. 시집을 적에 광목 행기치마<sup>32)</sup> 해온 거. 광목 행기치마 2개만 하면은 치마가 되구 몸빼가 되잖아요. 그래 몸빼루 해입었어. 그래서 혼수루다 우리 아버님 고상 옷을 그 치마저고리 한 벌 가지구 안 되니까, 그 행기치마를 그전에는 치마저고리를 40개 썩 주길래 해왔어요. 그니까 많으니까 그걸 넣어다가 몸빼를 해서 입고 들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몸빼를 해 입은 거야. 집에서는 치마 저고리를 입구, 들에 갈 적엔 몸빼를 해입구.

지금은 저기루<sup>33)</sup> 모셨지만, 초하루 보름이면 시누님들이 이렇게 교대루 오시드라구. 교대루 오시고, 초하루 첫 상망에는 큰따님이 차리는 거라서 송편. 집에 와서 송편을 했구. 그래서 이게 상식 올릴 적에 그냥 그 김치 장아찌 새로 맵근 것만 올렸지. 한두 가지라두 먹지 않은 것만 해서 올리구. 초하루 보름에는 떡하구 부침개 부치구 이렇게 해서 올리구. 산소에 갈 적에 또 해가지구 가구. 산소가 가까우니까.

#### 4. 종부로서의 삶

##### 손님 대접

찾아오시는 분이 왜 그렇게 많은 거야. (웃음) 그래 오시는 분은 친척이건 아니건 우리들 못 먹어도 오시는 분은 다 대접해 드려야 된다고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오시는 분은 그냥 그때는 막걸리를 대접했지. 소주가 없었어요. 있어두 막걸리지. 주전자 가지고 가서 한 대박씩 사다가 대접을 하는 건데 술을 먹으면 술 주사가 나오니까, 또 아버님 어머니가 꼭 끼니 때마다 식사상에도 꼭 (술을) 올려드리고 간식에서도 제상에서도 드시고 그러는데. 술두 나는 처녀 적에 우리 아버님이 술 좋아하시니까 술두 많이 해봐서 와서 담그는 건 우습지 뭐. (한숨) 못 먹어. 술은. 그런데도 술은 (담그는 거는) 잘했어

32) 행주치마를 말한다.

33) 묘역을 이장한 용인시 남사면 완장리를 말한다.

요. 1년이면 보통 여서일곱 가마씩 했어요. 그렇게 해다 놓구 몰래 드리는 거지. 워낙 좋아 하시니까….

인제 사다가 그 돈 타다가 사러 나가면 한참 나가야 해요. 그러니까 겨울이면 마루가 여기 있어요. 마루에 넣어놓구 밀주를 담귀서 그렇게 해서 겨우 오시는 분들… 그러다 한번은 들켰어요. 들켰는데 그때만 해도 2만 원 벌금이면 아주 큰돈이었어요. 그 나중에는 약으니까 걸리는 게 아니고 약주 술을 땡글어서 드리고, 참 술 좋아하셨어.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님도 반주 꼭 하셨어요. 식사상마다 드리구 고새 또 드리구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나서 술은 안 해요. 힘들거든 그게 고도리밥 찌고 뭐하구 거르기가 더 힘들어.

당신은 안 잡수셔두 남을 맥여 보내구 꼭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건데 힘들 때가 많지. 없을 적에 동네 분이 오시면 그냥 점심 새로 해드리구. 지금이나 전기밥통이 있지. 그전엔 해서 술에다가 넣어놨다가 금방 밥 먹고, 조금 있으면 점심 때 되면은 그걸 가마솥에다 물을 붓고 그 밥그릇을 넣고 불을 때 한창 끓여서 진지를 드릴라 그러면 손님이 오시면 밥을 다시 해야 돼.

그렇게 꼭 식사 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남의 식구 안 잡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어찌면 오셔서 잡숫는 분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한숨) 지금 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소꿉장난도 이런 소꿉장난이 없어요. 그때는 물 두 바께쓰씩 드는 술에다가 밥을 하니까, 쌀 안쳐갖고 밥이 얼른 되거나 해. 그렇게 밥 끓여 놓고는 구멍가게로, 저수지 앞에 가. 지금도 그대 공원 안에 저수지 가자면은 다리 건너 오른쪽에 무슨 동물이든가 있구, 원숭이집도 짓고 있는데 거기가 술집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내려와야 하는 거야. 내려와도 돈이나 많이씩 주시나. 꼭 막걸리 한 되 값을 주시는데 가지고 한 되를 점심에 드리면 두 분 세 분이 한꺼번에 다 잡숫고 가시면 되는데, 안 가시면 문 열으시구 “애 애미야 저기 술상 좀 차려와라.” 그러시면 또 “엄니 돈 좀 주세요. 술 사오게.” 또 거기 가서 사오구 사오구 그렇게 했지. (한숨) 지금이 정말 호강하는 거예요. 술을 뭐 박스로 사다 놓구 맥주 먹을까 소주 먹을까 양주 먹을까 뭐 포도주 먹을까. 그런 때에 술 있어 점심 차려 드리구 그러니까 노냥 살다시피 했어요. 사계절을.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잡숫는 날이 많았어요. 점심 때. (한숨)

## 시제사 치르기

집은 컸어요. 집은 컸는데 다 낡은 집이라. 다 낡았어요. 안채도 크고 사랑채도 둥그렇게 둥그렇게 집이 있었으니까요. 집이 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제사 지내면 손님이 한 50분

오셔서 주무시니까. 우리 집 오서 갖고. 시집오니까 생전 그런 걸 못 보다가 그러니까. 구월 열하룻날 결혼했는데 시월 십칠일날 시제산데 추웠어요. 그때는 눈도 썩썩 많이 오고 시월달도 그렇게 추웠어요. 털어버리구 그 베끼리 이영 워어서 지붕 한쪽데기 해입히구 김치 담가 익어야 또 먹구. 그때는 떡도 다 집에서 할 때여. 떡도 다 하구, 편도 니 말 다섯 말씩 헨 거 집에서 맛절구질로 빠니까. (한숨) 일이 뭐….

이게 시제사뿐만 아니고, 세 덕<sup>34)</sup>에서 (제사) 지내는 분들이 다 우리 집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 지내실라고 시제사. 아버님이 내놓으실라고 딴 사람한테 넘길라고 그래도 “시제사 내놔도 자는 건 아무개<sup>35)</sup>네 가서 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 시제사 때마다 어머니가 안 지내신다고.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땅이 다 우리 땅이었는디 그전에 할아버님이 재판 그 보증을 스셔갖고 그게 다 넘어가게 된 거를 문중에서 잡아줘 갖고 해갖고 지내셨대요. 우리 시어머니가 시집 오실 적에 그런 일이 터져갖고 농사진 거 다 실어갔다고. 빗쟁이가 와서 다 실어갔다고.

그때서부터 안 하실려 했는데, 그래도 누가 할 사람이 있어. 딴 덕에서 차례를 지내도 자는 건 종손네서 자야 한다고 시어른들이 하시니깐. 한 50분씩 오시는데 차가 막혀 가지고 사당동에서 여기 넘어 오는데 9시였다고. 그랬고 하루에 세 번인가 다섯 번밖에 안 댕겼어요. 버스가. 그러니까 거기서<sup>36)</sup> 놓치면 걸어 들어오시고, 밤 12시가 넘도록 손님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숨) 밤새도록 잡숫는 거 대접, 오시는 대로 저녁을 해서 대접. 불 때가 지고 하는데 춤기는 하고… 그러고는 밤참 밤새도록 잡숫게 되고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시제사) 준비 못다 해서 떡 퍼놔, 밤 썰 사람이 없으니깐 내가 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해봤어야지 뭐. 한 해는 시집오던 해는 오셔서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되더라구. 밤을 꼴딱 새고 아침을 준비만 해서 드리면 좋은데, 조반상 들어가기 전에 술상이 또 들어가요. 그런데 할 사람은 없잖아. 또 시어머니랑 우리 막내 시누이랑 거기 당숙모가 내리 내림으로 세 집이 팔촌 당숙모 내외분, 또 팔촌 당숙모가 혼자 되신 양반이 거기 형님이 있는데 세 집에서 다했어. (한숨) 춤기는 말도 못하게 춤고 난로가 있기를 해. 순전히 불 때가면서 부침개도 하루종일 부쳐야 해요.

시월 초순이면 벌써 시작을 했어요. 지붕부터. 사람 사서 지붕 잇고 나서 김장하고 김장도 시제사 김치만 미리 해야지. 그냥 며칠씩 하는 거라 헐 새가 없어 갖구. 시제사 때 먹음

34) 막계리 응달말에는 조용기 종부 덕을 포함해 전주 최씨 세 가구가 살았다고 한다.

35) 종손인 남편의 이름을 부르셨다.

36) 막계리로 들어오는 버스가 있던 '사당' 을 말한다.

것만 미리하고 시월 초순서부터 지붕해 잇구 김장하구. 그리구나 설랑 그때는 또 이불이 없시니까, 덮던 이불들을 다 빨아요. 그니까 얼마나 죽겠어. 지금은 음력 10월 달이면 별로 안 추운데 그때는 개 울물이 이 두께로 얼어서 도끼 가지구 가서 깨갓구 물을 썼어.



선영에서 시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

그 물로 김장도 씻구 다.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손가락이 빠져나 가는 거지 뭐. 찬물로 하니까 장

갑도 없이. 그러면 손이 멍멍 부어요. 얼어가지구 손이 움직여지질 않지. 들어와갓구 뜨스 한 물 퍼갓구설랑 손을 담그면은 가려워가지구 그래서 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진짜 시제사 때는 그냥 일할 사람은 없구. 또 남편도 그때는 안 계셨구. 어머님 아버님은 노인 이시고, 그래서 만날 병석에 누워계신 날이 더 많으셨어. 시어머니는 속병을 앓으셨어. 그 래가지구 울기를 밥먹듯이 해가면서 허구.

저녁 해먹으면은 (한숨) 가을에 뒤늦게 저녁해서 먹으면 8~9시 돼요. 인제 인부들 저녁 해 멕이구 보내구 식구들 해서 먹구. 짬을 그걸 지어서 나르면은 밤새도록 하면은 좌우간 100번을 더 날랐어요. 그때 대문이 앞마당에서 화장실 가는 대문이 있었어요. 대문이 내려가면은 턱이 있어갓구 잘못하면 넘어지는 거야. 거기서 (웃음) 닿는 게 많아갓구... 한 해 해보니까 도대체 몇 번이나 쳐날랐나 하구설랑 그 다음해는 콩을 가져다가 한번 갔다 오면 한 개씩 옮겨놓구 그렇게 했더니 백 알이 더 지나가드라구. 지게나 뭐 잔뜩이나 지 어. 턱이 많아갓구, 골짜구니가 있어갓구 골짜구로는 들어가면 이만치 빠지는 고풍으로 가니까, 글루 지고 나올래니까 자꾸 미여붙이구. 그래서 조금씩 해서 키는 쪼끄마니까 이 령게<sup>37)</sup> 잡아당겨서 지구. 그러면서 등잔불이 없으니까 항아리에다 심지 해서 군데군데 걸 어놓구. 어두우니까. 다해갓구 밝을 무렵에 들고 땡기면서 다 씨는 거야.<sup>38)</sup> 눈 오면 얼어붙 으니까. 지저분해 보이니까, 다 쓸어서 날르구. 그렇게 하구 나서 밥해 먹기가 꼭 알맞게

37) 지게를 바짝 잡아당기는 흉내를 내셨다.

38) 바닥에 지저분하게 떨어진 지푸라기들을 쓸어내는 것을 말한다.

되드라구. 시간이.

그렇게 했더니 얼마만에 아버님이 그러시드래. 그걸 우리 어머님이 팔촌 당숙모님한테 얘길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당숙모가 이제 나한테 귀땀을 해주신 거야. 팔촌 당숙모가 손위 형님이라두 나보다 시집을 나중에 오셨어. 거기가 내리 세 집인데 내가 제일 어린 신랑한테루 시집왔구. 그런 거를 얘기하기가 쟁피스러운 거야. 손위 동서님한테 지게질한다고 하면, 그거 좋다 그러겠어. 그래서 안 하구 혼저 그렇게 했는데 그러시드라구. “야 애미야 너 밤에 뭐 저내간 거 있냐.” 물어보시드라구. 그래 “뭘 저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글썄.” 그래서 “우리가 저내갈 게 뭐 있어요.” 했지. “자다가 뭐 팔은 게 있냐구” 그러서. “팔은 게 뭐 있냐구. 없다구.” 그랬더니, (한숨)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에미가 밤에 자다가 뭐 팔은 거 있다든데.” 그러시는 거여. 그래 나는 황당한 거지. 내다 팔을 게 뭐가 있어. 근데 그 말쑈를 허시길래 막 울면서 그랬더니 말하시는 거야.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드래요. 아버님이 어머님보고 며느리두 뒷조사 좀 해봐야겠다고. 밤새도록 뭐 몇 번을 볼 때마다 지고 나가더라. 그래서 울면서 팔촌 당숙모한테 그 얘기를 해드린 거야.

### 조상 묘역 이전

그게 문중 공동명의로 돼 있었나봐. 근데 보상을 받으려면 인감이 필요하데. 작은아버지가 되는 사람하고 같이 갈어. 그 인감해줄 양반이 술고래야. 그래 술이 취했는데 방에다가 두고 문을 잠귀 놔드라구. 술에 젖어 갖구. 알콜 중독자야 말하자면. 그래 배갈으로 못 나오게 나무루 문을 못질을 해놔지. 그래 사람을 봐야지. 근데 아들 며느리가 푹 떨어져. 며느리 보구 얘기를 했더니 얼른 안 해주잖아. 인감을 안 떼어 주잖아. 인감을 자기 신랑이 가졌다구. 그러니 신랑이 오도록 기다린 거지. 아침나절에 가서 온종일 기다린 거지. 미리 전화를 해놔는데 인감 떼놓으면 가질러 간다구 해서 갔는데, 피하구 안 나오더라구. 그런데 아들이 퇴근해서 오니까, 순순히 인감하구 인감 도장을 주더라구. 그래 갖구 왔는데. 작은아버지라는 이두 오다오다 술을 먹어서 (한숨) 술이 취해갖구 술주정꾼을 끌구 오느라구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과천읍내에서 여길 1시간을 걸어와야 하는데 밤중이잖아. 거기서 늦게 왔는데. 그래서 인제 그래두 그것만 해갖구 온 것도 좋다구 오는데 술이 취해갖구 여기 가 빠지구 저기 가 빠지구. 끌구서 집에 오니까 12시간 넘은 거야. 집에선 난리가 났지.

그래서 와서 봤더니 인감 도장이 아니라는 거야. 가짜 인감 도장을 준 거야. 그래 며느리

가. 내가 봐도 내가 한문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찍어봐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그거라는 거야. 그래 이장 집에서 가지구 있다구 그래 거기 가서 찾아갔구 왔는데 아닌 거야. “난 글자는 몰려두 찍어 보니까 아니다.” 그랬는데 그거라는 거예요. “이장에게 빌려줘 갖구 이장한테 받아갔구 왔다.” 그래. 그래 가져와 봤더니 아니라고 해서 도로 빼꾸 맞았어 그때는 갈 적에는 내가 안 갔



묘지 이장작업 선영을 모셔놓은 막계리 일대가 공원 부지로 들어가면서, 선대의 묘지들을 용인시 완장리에 새로 조성된 묘역으로 옮기는 대대적인 이장작업을 하였다

어. 이장이 인감 도장을 달라 그래서 줬대요. 인감 도장을 이장이 갖고 있고 이장이

또 똑같이 새긴 거야. 그래 가지구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 인감이 안 맞으니까, 시기가 지나면 또 다시 떼야 하니까. 그래 가지구 그렇게 한참 실갱이를 했어. 그래 또 그거 바람에 이 집에서 인감 도장을 찾은 거야. 이젠 도장 가지고는 이 집 땅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 인감 도장이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가서 조근조근 따져 보라구. 이거 인감 도장하구 인감을 뺐는데 도장이 딴 도장이야. 근데 도장을 달라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똑같이 새긴 거야. 이장이 딴 도장을 해서 들구. 그냥 안 있는다구 고소한다고 인제 소송전다 했더니 할 수 없이 내놔서 찾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 아무개 댁(조용기 종부) 때문에 인감 도장까지 찾았다고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

우리 것도 공동명의로 있는 거야. 우리두 따님들(시누이들) 거 다 인감받으러 댕겼어요. 내가. 근데 그때 뭐 돈은 없어도 종중에서 쓰는 돈이라도,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가면 고기도 두 근, 서 근씩 사갖구 댕기느라구 했더니, 그때는 저기 뭐에 쓸 거냐구 묻잖어. 그러면은 “보상받을라구 그러다.” 그러면, 아 “친정 보상 많이 받는다구 그러는데.” 그 소리 들었지 뭐. 대공원 들어선다니까, 다 부자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구. 그 큰시누님이 몇 번 그러서. 그래 부산으로 어디루(인감)떼러 댕기구, 임기가 지나서 또 떼러 댕기구 그렇게 했어. 그 종중, 소·중·대종중이 그 공동명의로 돼있는데, 아버님 돌아가셨으면 자식들 인감이 있어야 하잖아. 근데 식구들 시누들 거 떼러 댕겼지. 갔더니 개빨도 없어갖구 문중 건테, 안 주나들 허셨겠지. 당신들두 알아. 얼마 있는 것까지. 그래 그렇게 해갖구 얼마 동안은

고생했지.

산소 그 하나에 보상이 3만 원씩 나온 걸루 알고 있어. 그때 사람 하나에 인건비두 3만 원 줘야 돼. 힘이 들으니까. 오래된 산소는 너무 다그져서 안 깨져. 그냥 셋덩어리야. 어떻게 아냐면 내가 밥해서 이고 땀기면서 봐서 알아. 비석 옮겨가는 분은 또 우리 집에서 주무시구. 세 분인가 네 분이 그냥. 요거만한 방에서 주무시고, 여기 동네 분은 다 집에 가자구 오시면 아침참 해다 드려. 점심·저녁참에 그렇게 해가지구 광우리에다 이구 땀기면서 해가지구. 근데 비석 운반하는 분들 책임자 그분은 문중 분이예요. 문중 분이구 인부 덜을 데리구 땀기시는데 우리 집에서 그냥 밥을 드시니까 그것두 준비하랴, 산소 이장두 하랴 같이 범벅할 때가 많았지. 그때는 동태 두 짝씩 사다가 맨날 찌개 해서, 두부 해구. 그때는 두부두 꼭 집에서 해먹는 걸루 알았지 사먹는 건 몰랐어. 두부 해서 그것만 지글지글 지저도 맛있잖아. 용산 거기 가서 두 짝씩 샀어. 찐지가 아주 맛있었어. 그 일하던 사람들두 그 찐지 생각난다구 그랬는데. 반찬이 이것저것 많지 않으니까. 김치·장아찌에 된장·고추장 이렇게 해두 맛있게들 잘 잡수니까 좋구. 그래 이제 여기서 모시구 갔어. 나중에 그 일하던 분을 만났는데 무척 반가워해. 우리 집에서 밥 먹던 생각이 난다는 거야. 찐지 생각 이런 거. 그래서 그 책임자 양반을 나중까지 봤어요. 생존해 계시다 요즘에 돌아가셨는데. 요즘엔 내가 시제에 안 가서 모르는데. 시제에 오셔서 당신이 너무 그때는 젊으셨는데 지금 가서는 돈을 가마루 쥐두 못 하겠어 그러시드라구. “저도 그러네요.” 했지.

그렇게두 우리는 문중에서 보상받은 거 돈 한 푼 안 받구 한 거예요. 무료 봉사한 거지. 돈 한푼두 안 받고 그렇게 오래 했어요. 하나두 안 주고 그때 설탕 3킬로짜리 두 개인가, 아니 그건 내가 사다 드렸구나. 거기 당숙모 팔촌 동서 분이 같이 했으니까. 그거는 내가 사다주고. 그때 뭐를 하나씩 사다줬더라... 잊어버렸네. 그리고 시제사 잘 지낸다고, 지금 우리 시제사 지내는 분이 나 그렇게 했어두 누가 고무신 한 켤레 사다준 거밖에 없는데 그 분이 사다준 거드라구. 근데 집도 없으니까 문중에 와서 살고 그러시는데 당신이 사다 준 거라 그래. 그때 꽃신발 사다 시제사 때 올 적마다 보니까 너무 지게질하고 다니니까 애쓰니까 그것 사서 줬더라구. 그리고 여서 할 적에는 돈 안 받았어요. 그냥 다 무료봉사지. 그 분들두 다 무료봉사한 거야. 하두 애써서 내가 설탕 한 부대씩 사다 드린 거 같어요. 내가 받아 맛이 아니라 그 성의 표시두 좀 하고 그러면 그 분덜한테 해드리면 나보다두 그 분덜에게 팔촌 동생님들, 당숙모님 두 분, 그 분들에게. 남자들은 일단 가면 일당을 받고 했는데 여자들은 안 주더라구 한 푼두.

결혼할 때 갖고 온 이불을 마당에도 깔구들 쉬구. 산소 유골 모셔 놓은데 밤도 새시니까

포대기같은 거여서 덮어두 따스해지지 않구 딱딱해요. 추우니까, 그때 혼행이불을 내왔더니 당숙 어른이 근데 “이 이불은 새 이불 같다. 이런 이불, 못 본 이불이 나왔다.” 그러세요. 엄니가 그러셨나 당숙모가 그러셨나. “이 사람 혼행 이불이라고.” 거기서 새다가 비가 오니까 한 귀퉁이가 젖었지 뭐.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하루 없는 한 달을 거기서 모시구 있다가 모시구 나왔으니까. 그래 그거 모시구 나오니까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 그냥. 마당에다 모시구 그때는 전깃불이 들어왔어. 이사오기 직전에 몇 년 전에 전기가 들어와서 전깃불 켜놓고 그냥 그래가지구 큰 천막, 포장 쳐놓구 그리고 밤샘을 했는데 같이 마당에서 잤어. 우리네들두 안채는 어머니가 주무시구 나도 같이 나와서 그냥 해구. 시원섭섭하구 아주 아쉽드라구. 다 모시구 가니까 이상해. 마음이 허전해져. 저 양반은 만날 토요일, 일요일에 저기가. 토요일날도 오후에 용인 가서 자구 이리다 밤에 들어오구.

### 부모님 잘 모시고 살라는 효부상

그땐 효부상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지. 애 아빠한테 얘기도 안 했어. 여기에다 갖다두면 와서 그거 볼 새가 어디에 있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일해야 하는데, 부끄러운 상이라 생각해요. 아마 부모님 잘 모시고 살라는 저거로 생각해 갖고 얘기도 못하고, 그때도 시민대상을 댔을 때도 얘기도 안 했는데, 남편이 “왜 얘기도 없어.” 이러시는 걸 “나만 타는 상도 아닌데...” 상타는 날 애들이 왔어. 나만 타는 상인가. 부끄러운 상이라 생각했어. 부모님을 잘 못 모셨으니까. 남편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 5. 문원동 생활

### 문원동의 새집 마련

보상금 받아 갖구 빚 갚구 집 지었지 뭐. 집은 지어야 되겠구, 이것두 기가 막혀요. 보상 받았더니, 전부 다 해서 얼마 못 받았어. 눈 열 마지기에서 좋은 거 너 마지기는 어머니 명의로 해놓구, 세 마지기는 아버지 명의로 해놓으시구, 전답 쟈 안 좋구 비가 와서 모내구 물은 안 닿는 논은 아들, 남편한테 해놓구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작은 아들 장가 들으니까 (시어머니가) 그 세 마지기를 작은아들한테 해주라고 서두르시드라구. 또 그거 해주면 명의 이전하려면 돈이 있어야 허잖아. 돈이 없으니까 못 허구. 아들은 결혼해갖구 곧잘 시는데 해주라구 성화시드라구. 나 죽기 전에 해줘야지, 나 죽으면 해주

는지 안 해주는지 아냐구.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시동생한테 내가 그랬지. 어차피 세 마지기는 삼촌 명의로 된 거니까, 엄니가 저렇게 서두르시니까 삼촌은 돈이 있으니까 삼촌 돈으로 명의를 이전해가라. 세금 내구 다 명의 이전해라. 난 돈이 없으니까. 명의 이전을 하면 주겠다 했더니, 봐야 큰집이 먹을 것도 변변치 않구 맨날 보리 끼꾸리 밥만 먹구 있구 그러니까, “큰집이 잘 살아야지.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농사지어 잡수세요.” 그리구 안 한 거야.

그때 손수 진 거예요. 사위님이 진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 집<sup>39)</sup> 진 거를 3년 만에 철거해 갔구. 벽돌 다 까가지구 와서 이 울타리, 이거 우리는 가새 집이라 울타리가 담장이 많이 들어갔어. 여기서부터 원을 다 지었으니까 넓게 했다고. 그래 엄니하구 까가지구 와서 그걸루 짓구 또 다섯째 매형, 여섯째 매형이 철저하게 잘해 주셨어.

작은집에서두 집 산다구 돈을 해달라고... 저기서 오기 전에 벌써 집 짓기를 시작했는데, “통장을 빌려 달라.” 그래서 내가 통장을 못 빌려 준다 그랬어. 자기가 집 사고 다 쓰고 팔아서 갖다 준다는 거야. 통장 못 준다고 그랬더니 결국은 어머니가 줬어요. 그래고 여기 왔는데 보니까 통장째로 빌려 주신 거야. 엄니가. 작은아들이 빼다 쓰고 나중에 해갔구 왔드라구.

보상받은 거 가지구 집(짓기를) 시작했는데, 600만 원이나 모자른 거 아니예요. 그래서 집 지면서 세를 났어. 근데 사위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갓집에서 손님은 뻥질한데, 이거 방을 세를 놓으면 어떡하냐구. 도루 뻥 거야. 당신 통장에서 갖다 쓰시구. 너무 고마운데 세 놓구 쓰는 게 낫지, 시누 남편 돈 쓰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집 다 짓구 방 다 세 놓구 살구. 방 하나 가지구 여섯이서 살은 거여. 애들 조그니까. 그렇게 하구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집 짓고 나머지를 깨끗하게 해줬어요. 돈이 모자랐는데 여기저기서 얻어다가. 그랬더니 업자가 그 자재 대주는 사장이 여기같이 깨끗이 계산해준 맥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해준 게 아니라 일단 집 짓구 나면은 해줘야 그 사람들두 먹구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두 손 하나를 못 써요. 이 사람들 잘 대해주구 그랬는데 딱 갚아버렸어요. 빚 얻어다가.

내가 그때 살림을 허니까 근데 이사를 하는데 짐이 좀 많아. 남편은 안 계시지 시동생도 안 계시지 아무도 없는데, 우리 막내동서하구 우리 이질하구 둘이서 다 해서 차에다 실었어. 지금은 이삿짐 센터가 하는데 그때는 차를 딱 갖다 대면은 주인이 갖다가 싣고 주인이

39) 막계리 웅당말에 새로 지었던 벽돌집을 말한다.

들어왔어요. 몇 번을 한 거야. 저 양반은 회사에 출근을 하구 애들은 학교 가구. 집에서 팔 죽 얼마치 쭈구, 여기 군데군데 집 지니까 그 사람들 다 맥이구서 그렇게 해서 이사했는데 그때 이불보가 있어요?. 이불은 많구 그러니까 푸대루다 자루를 만들어서 가지구 왔어요. 보자기가 없어갔구. (웃음)

그래서 와서 살아보니까 사는 게 난감해 그냥. 오줌 똥두 돈을 내고 쳐야지, 물 사먹고, 파 뿌리 하나두 죄 사먹어야 하니까. 뭐 못 살겠는 거야. 남편두 월급이 30만 원이셨는데 너무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조금 세월이 흐르니까 또 재밌어. 일 안 하니까 우선 좋고, 몸 똥이가 너무 아팠어요. 그때서부터, 다리가 아파 가지구 신발을 신으면 무거워 가지구 맨 발루 다녔어. 여기 와서 사니까 이쉬운 것두 많고 뭐든지 그냥 다 이쉬운 거야. 하나에서 부터 열까지...

### 연탄가스 사고

여기(문원동) 와서 하루에 두 번 가면 열두 장이 들어가잖아요. 흐린 날 어디 일하고 와서 연탄을 가는데, 그때 지하실에 들어가서 하니까. 하다못해 물 사먹고 그러는 것도 아깝고 그랬잖아요. 농사짓다가... 그래 식구들 애들 다 자고 영감님 주무시고 근데 그때는 한 방에서 다 잤어요. 한방에서 애들하고 다 자는데 연탄 갈러 간다고 갔는데. 이 방에서 TV 보다가 갔는데 연탄을 갈러 가니깐, (남편은 내가) 연탄 갈고 들어와서 자는 줄 알고 주무신 거예요. 들어가니까 그 안이 캄캄해졌고, 안개 끼고 흐린 날에는 가스가 안 빠지잖아요. 다라에다 물을 하나 받아왔는데 어지러우니까 나오다가 쓰러진 거예요. 입구에서 폭 쓰러졌는데 물 다라에다 (얼굴을) 파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식구들은) 몰랐지. 우리 영감은 이 방에서 업니하고 애들하고 자니깐 내가 여기 와서 자는 줄 알고, 이 방에선 저 방에서 자는 줄 알고. 어떻게 한참 자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4시였다고. 4~5시간을 몰독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었지. 다라에다 머리를 담그고 있다가 물이 차니까 오래 있다가 깨보니까 추워서 떨리드라고. 그래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래도 몰르지 뭐. 어떻게 기어서 문을 열고 우리 딸이 경순인데 "경순아 엄마 죽는다. 죽는다." 내가 그랬더니 뛰어나왔는데 새벽 4시드라구. 한 4~5시간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구 그러니까 막 떨리면서 이제 시금치국을 갖다가 퍼먹이시드라구. 애들 보고도 엄마 시금치국물 떠다 주라구. 배갈에다 갔다 놓고도 추워하니까 거기 있다가 들어왔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정신이 없대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르고 지금도 그 통증이 남아 있어.

## 가산 일구기

여기 아파트 설 적에 거길 몇 년을 댕겼어요. 두 번만 가면은 쌀 한 말을 값을 받는 거니까. 애들 학교 댕기구 해다 밥해 먹구 남편 출근하면 가서 일하구 (남편이) 오기 전에 오니까. 5시면 끝나니까 오구. 그래 갖구 거기 직원들 빨래두 하구. 작업복 잠바두 빨아주구 돈 받구. 그때 가르치는 애들이 있었잖아. 그때 그거 안 했으면 애들 학교 끝을 못 마쳤지. 그래 가지구 우리 이질이 지금도 그래. 그때는 이질들이 시골이라구 여길 왔어요. 그래 이질들두 중학교·초등학교 댕길 때 오면은 밥해 놓구 상봐 놓구 갔다가 저녁 때면 오구. 근데 그때두 야간일을 하면은 저녁 먹구 거기서 저녁 주면 먹구 6~9시 네 시간을 일하면 하루 품값을 주니까 이틀 품값을 받는 거야. 남편이 늦게 오는 날은 그렇게 했구. 그때 돈 버는 게 재밌게 벌었어요. 그 때 힘든 줄도 모르구. 그래 가지구 해다가 잡부일을 한 거야. 각목 들구 댕기구 허다 보니까 나를 잘 보셨어. 매주 여자들이 수십 명에 남자들이 수십 명이구. 근데 나를 불러들이드라구. 불러들이더니 사무실 청소를 하래. 사무실 청소만 해두 하루 품값 주니까, 사무실 청소를 하래. 그래 사무실 청소를 하구 나면 할 게 없단 말이야. 그래 할 게 없으면 사무실 직원들 잠바가 드럽구 그러니까 그거 빨아주고는 그때 돈을 500원씩 받았어. 잠바 몇 개 빨아주면 세 개 빨으면 품값 하나씩 줬나, 좌우간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두 좋구. 집에 가져갔다가 또 빨아가지구 오니까 빨아줘서 좋구. 이불을 빨아와 이방에 갖다 널으면 모르게... 그냥 군인 이불 같은 걸 죄 밤에 갖다 빨아주구 그렇게 해서 하루에 돈 만 원 벌기는 우스웠어. 그때 보니까 커피를 과천에서 전화루다 시켜 먹는 거야. 그게 천 원씩이었어. 천 원씩이면 하루에 몇 수십 잔씩 오니까, 그러는 거야. 아줌마 그러지 말구 커피두 대놓구 팔으라구. 그때두 1회용 커피가 있었어. 1회용 컵두 있었구. 그게 이천 원인가 그랬어. 20개에 이천 원이면 얼마나 싸. 어머 그렇게 했더니 하루에 세상에 그렇게 재밌게 벌릴 수가 없는 거여. 거기 안에 이천 원짜리 사구 커피하구 하면 그거 하나에 200원씩 쳐주드라구. 한 잔 해서 200원이면 20개면 4,000원이잖아. 하루에 100잔두 더 팔았어. 자기가 곧로 사다주구, 주전자 사다주구, 다 끊여주구. 그러니까 나를 잘본 거여. (만나보고 싶은) 몇 사람이 있는데, 제주도 사람인데, 그 사람두 봤으면 좋겠어. 어디가 있는 거는 모르지.

근데 회사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나가지구 딴 회사서 와서 했는데, 부도가 나니까 월급을 석 달을 못 받았지 뭐. 근데두 이제 받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구. 그때 딴 회사가 들어오더니 거기 감독하는 사람이 발안, 화성사람이야. 그래 내가 친정이 화성이라니까. 고향분이라구 그러며 무척 잘해주구 그렇게 해서. 사무실 직원들이 함바에 가서 밥을 먹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깡패들 불러다하니까 건들지두 못하구 먹구 그런 거잖아. 쌀 사주구 다해줄 테니 직원들 밥을 해주라 그러드라구. 직원들이 30명인데 그래서 거기서 그때 밥 한 그릇에 3,500원씩 했어. 3,500원이면 하루 10만 원씩 더 돼. 하루에 10만 원씩 줄 테니까 그걸 가지구 해라. 쌀 사주구 그릇도 사주구. 지금 그 그릇을 그저 쓰는데 내가. 다 끝나구 갖다 쓰라구 그래서 가져왔는데. 곧로 사주고 다 사주고 또 이쭈마 하나 붙여주구. 내가 시장 봐다 주구 건사만 허구. 그래 하루에 10만 원씩 식대비를 주구 하라는 거여. 10만 원이 안 되는 거야. 하루에 점심 한 번 해주는 거. 저녁 허구 아침은 숙직자만 먹구 그러니까. 그때 10만 원씩 주면은 하루는 쇠고기국을 하루는 돼지고기 사다가 찌개 하고, 또 하루는 닭 해다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맨날 김치 하구만 먹다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 한 끼에 10만 원이면 5만 원두 안 들었어. 쌀 사다주구 다 사다주니까. 그때 돈 많이 벌었어. 그렇게 3년두 더 했어. 이 아파트 시작서부터 다 질 때까지 했었으니까. 가서 커피 해서 팔지, 옷 해서 빨아서 주지, 식당 해서 식사두 하루에 아침저녁 해주구 그러면 10만 5,000원 주는데 3만 원씩 떨어졌어. 그땐 큰돈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돈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서 도루 쫓더니, 이거는 3,500원씩 먹는 걸루 본사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잘 먹는데 이걸 왜 내놓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안 받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하두 돈을 많이 버니까 “이쭈마 빌딩 사요.” 그래. “그래, 빌딩 살게.” (웃음) 그래 밥두 많이 해먹었어. 우리 집에 불려서 밥 해 맥이구. 그러니까 그렇게 돈 벌러 다니는 거 몰리지. 그래 방도 빼주구 그때 몇 년 만에 3~4년 만에 참 돈 잘 벌었어. (웃음) 그때 소장이 날더러 당신이 다니는 현장으로 쫓아가서 허라구. 밥값은 사무실에서 나가니까 떼일 일은 없으니까. 그릇 있으니까 쌀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자기들두 밥 좋구 하니까. 근데 나중에 들켜서 얘기했더니 못하게 하드라. 그때 했으면 부자 됐는데. 지금 그 생각 번뜩 나. 그때 했으면 돈 벌었지. (웃음)

### 의류점 운영

그땐 배깅 구경을 못하구 살으니깐, 언니·형부랑 집안에 갇혀서 시집살이 살지 말구 세상 좀 돌아가는 것도 알게 사업하면서 이렇게 나오라구. 언니가 끌어내 갖구설랑 언니가 오래 전부터 가게를 하니까. 거기 새로 생기니까 분양을 하나 받으라구 그래. 난 분양받는 것도 모른다구 그랬더니, 언니가 해줄 테니 오라구. 그래갖구 3년 하다가 교통사고 나구 또 사장이 부도가 나서 그만뒀지. 사장이 일본 여잔데 이젠 부도가 나서 데모하러 쫓아댕기다 퇴근하구 오다 집 앞에서 내리다가 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구 달 반을 (병원) 가서 있

다가 달 반인가 두 달인가 있다가...

그때 400만 원인가 들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언니가 일삿돈을 얻어 주드라구. 매일 얼마씩 갚아가는 거. 그때 가게 잘됐어요. 동대문시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종로 5가에 있는 상가에서 팔았어. 거긴 가게가 다 네 평이야. 큰 게 팔 평이고, 알뜰게 안 굴으니까... 어느 날은 바바리를 열두 벌이나 팔았는데 뭐. (웃음) 열두 장 팔았어. 어떤 사람은 가게를 20년을 넘게 했는데 그렇게 못 팔아봤는데, 근데 나는 팔았어. 그때두 그래두 돈은 내가 많이 벌었다 그래요. 요즘이야 못 벌구 병신이지만 그땐 잘 벌었어요. 잘 벌었어. 그때는 나보고 장사하래요. 장사하면 돈 잘 번다구.

근데 도난당한 수표를 받았어. 도난당한 수표였는지도 몰랐어. 그땐 부도당한 수표도 모르고 그랬지. 경찰서에서 경찰이 쫓아온 거야. 그 당시에 물어봤어. 내가. “도난당한 수표가 뭐냐고.” “도난당한 수표가 처음이다. 내가 이고 다니는 장사를 해도 이런 장사는 처음이다.”

수표를 내고 물건을 사간 사장이 친조카를 데리고 사업을 했는데 조카가 수표를 어디서 몰래 훔쳐다가 사장한테 주고 돈을 받아 쓴 거야. 가게수표두 그때 처음 보구. 그때만 해두 예금두 안 하구 살은 거야. 근데 오픈하구 3일 만에 두 부부가 와서 콤비를 한 벌을 사가지구 갔는데 그게 그렇게 된 거여. 내가 바로 썼으면 되는데 하두 신기하니까 수표를 안 돌리구 가지구 있다가 얼마만에 평화시장에 가서 갖다 주구 물건을 해다가 파는데 한 20일 되니까 경찰이 왔드라구. 왜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가게수표 쓰셨죠.” 하더라구. 그래서 내 가게수표는 없는데, “오픈하구 3일 있다가 손님이 갖구와서 받았는데요. 도매하는 사람한테 엇그저께 가서 물건 사왔는데요.” 했더니, 그 수표를 가지고 온 거야. 이게 뭐냐구 그랬더니 이게 어떤 사람이 훔쳐다가 쓴 돈이다 그러면서 이거 받은 사람 아냐구. 그 사람이 경찰에서 오기 전에 그 전날두 와서 또 옷감을 사갖구 갔어요. 봉천 사람인데. 근데 남자는 조그맣고 여자는 키도 크고 그런데. 어떻게 다른 데도 있는데 그 조그만 가게 오면은 사가구 사가구 그랬어. 직원들 것도 사다주구. 근데두 그때까지두 모른 거지. 그게 도난당한 가게수표라는 걸. 그래서 “어저께도 왔다갔는데요.” 그랬더니. “연락처가 있어요.” 그러드라구. “연락처는 있는데 어제 아줌마가 왔는데 아저씨는 일본으로 출장 가셨다구 두 달이나 있어야 오신다구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전화번호 가진 거 있으면 좀 쭤보세요. 그러더니 자기가 통화를 하드라구요. 맞다 그러드라구. 내가 얘기한 대로 얘기했지.

수표를 가져가니까 도매하는 사람이 돈을 달라 그러드라구. 그래 내가 돈이 어디 있었어

요. 그래 언니한테 돈을 꾸서 썼지. 그 사람을 쥐야 허잖아요. 그래서 썼더니 그게 삼촌네 돈을 훔친 게 아니라 딴 데서 훔쳐서 작은아버지를 주구 돈을 바꿔다 쓴 거래요. 딴 데서 훔쳐다가 작은아버지 주구 계속 작은아버지랑 일을 하는 거여. 그러니 조카 돈이니까 그 걸 써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산 거지.

그래서 장사를 하면서 서산에다 땅을 샀어요. 그땐 돈이 다 벌리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사업하시는 친구분이 거기에서 했는데 그걸 사라 그래서 돈 없다 그러니까, 일단 계약은 내가 할 테니까 버는 대로 갚아라. 팔레스 호텔 있죠. 여기 터미널 뒤에 거기서 우리가 계약을 했죠. 그냥 버는 대로 갚아라 그래서 중도금 치를 적에도 갔구. 그때는 목돈이 안 되니까 언니한테 꾸달라 그래갖구 갚을 테니 꾸달라 그래갖구. 그때두 두 달에 한 번씩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했던 거 같애. 계약은 그 양반이 했구. 그래 벌어서 갚구, 또 언니한테 돈을 얻어서. 언니 도움을 많이 본 거예요. “애는 돈만 없으면 내가 돈 주냐.” “봐줄 때 봐 줘야지 어떻게 하냐구.” 그러니까. 그걸 사가지구 소나무가 많은 걸 벌목을 해갖구 다 밀었어. 그때 3,000평이면 꽤 컸어. 산 땅을 벌목을 해가지고, 야산이라 소나무를 벌목해서 어머니 조카가 농사 짓구. 도지는 시원치 않았지. 그래 팔라구 그러드라구. 동업하신 친구분한테 신세를 많이 졌어. 그분이 잔금 치르고 다 치렀잖아. 그래 버는 대루 갚았잖아.

## 6. 근 황

### 자녀들의 출가

남편의 국민학교 40회 동창회가 있는데 다덜 장가를 잘 가셨지. 총동창회는 남자들끼리 하고 열네 분이 부부동창회를 묶었어. 남자들 만날 적마다 우리두 우리끼리 모임을 갖자 그래갖구 조금씩 걷고 그래서 만 원씩 걷어서 남편들 모임에서 사만 원씩 걷어갖구 우리를 썼지. 자녀들이 다 컸잖아. 잔치를 치르구 그래야 되니까 우리두 부부모임을 묶어 서루 댕기자고. 그때만 해두 (내가) 일을 덜해 갖구 나갈 수 있었지. 우리 딸이 제일 먼저 차려가지구 갓잖아. 우리 집에서부터 음식을 차려갖구 잔치를 치르게 했어요. 우리 한복을 해입자 해갖구 한복을 꼭 해입었어요. 잔치를 치르러 가면 다 한복들을 입구가구 다덜 좋아 들 하셨어요. 남들이 부러워하구. 우리는 잔치 두 번 때 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식당에서 음식이 다 나와갖구, 그래서 그게 이젠 안 하지. 우리 큰딸은 안양에 있는 예식장에서 했어. 아들은 과천의 대강당에서 했고. 막내딸은 그것두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애덜은



친손자 동준의 첫돌기념 가족모임 조용기 중부 앞에 자리한 시어머니와 동준을 안은 남편을 중심으로, 왼쪽엔 큰딸 내외와 손녀들이, 오른쪽엔 아들 내외와 손녀, 그 옆으로 막내딸 내외와 손주들이 함께 하였다

다 중신으로 결혼했어. 그래도 저들이 좋다고 그래갖구. 그렇잖아 서로 좋아서 해야지.

### 시어머니 병환과 간호

한번은 문을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신 거야. 현관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마당에서 기어댕기고 계신 거야. 눈이 온 데를 맨발로 돌아다니셔 갖구. 그냥 나가시는 치매에 걸려갖구. 그래갖구설랑은 그냥 붙잡고 울었어. 도대체 어머님이 왜 이려고 댕기시느냐구. 왜 인생을 이렇게 사시냐구. 그래 따뜻한 방을 놔두구 왜 배깁에 나가서 고생하냐고…. 돌아댕기다 집을 못 찾으신 거야.

지금은 (시어머니 병환이) 다 나신 거예요. 지금은 다 났어. 그니까 2년을 배깁에는 안 나가다가 2년 지나갖구 결혼식장예를 갔더니 40회 동창회 아저씨데 인사를 했더니 인사를 어정쩡하게 받으시더라구. 나를 못 알아보신 거야. 그냥 집안에서 2년을 꼭 백혀 있으니, 얼굴도 누렁구. 그냥 도대체가 목소리는 경락이 엄마 목소린데 얼굴은 아니더라는 거야. 그때가 육십이 됐거나 말거나 그런데, 얼굴은 칠십은 된 사람처럼 얼굴이 뵈더라는 거야. 2년을 집에서 배깁에는 나가지를 앓았었으니까. 좀 나아지셔서 복지회관을 댕겼어. 근데 아침에 (복지회관) 모시구 갈려면 30분에서 1시간 걸려. 거기 가지자구 일어나자 그



열다섯 식구와 함께 한 회갑여행

러면 또 드러누시구, 옷 갈아 입힐려 그러면 또 드러누시구 이렇게 실랭이를 하구 그때서 일어나서 가시는 거야. 거기서 오시는데 같이 거기 모셔다 드리구 인제 오실 때쯤 4시쯤 퇴근이니까 여기서 3시 40분이면 거기 가서 기다렸다가 모시구 오구 그랬어. 요즘에는 거기도 못 다니는데, 더 나빠지시지 않기만 바래요.

### 열다섯 식구가 함께 한 등갑내기 부부의 회갑여행

그전에 나갈라구 보따리까지 싸놔는데 못 나가게 하시드라구. 남편이. “참을 수 있을 때 참아야지. 나는 어떻게 하나구.” 못 나가게 하시드라구. 그때 나갔으면 어땠을까? 더 나왔을까? 그런 생각해요. 나가두 친정에는 못 들어가거든. (친정아버지가) 아주 항상 여자들 출가하면 그 집 귀신이 되는 거라구 항상 강조를 하여서 머리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친정에는 못 가구 어디라도 자리잡구 살면 여기만 못할까? 이런 생각, 별 생각을 다해봤어요. 그래도 다시 결혼하래두 남편하고 할 거 같애. 평생 내 속안 썩이고 큰소리 한 번 내본 적 없고. 내가 투덜투덜하는데두 저 양반이 당신 맘에 안 들으면 말이 없어. 그래 싸움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험 게 있는데. 같이 산 게 있는데.

남편하구 내 회갑 때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 식구 열다섯이다. 어머니가 저러시니까, 잔치는 못 하구. 제주도를 갔다가 민속촌에 갔는데, 신랑·신부옷을 입혀 사진을 찍게 하더

라구. 그냥 끌고 가선. 그것도 그렇게 한 건 줄 알면 분장이라도 하고 그렇게 할 건데, 무조건 끌고 가선 쪽두릴 씌우고 찍어주는 거야. 그걸 알면 내가 미리 여기다(얼굴) 그림이라도 그리잖아. 그래 립스틱을 바르니까 “입술이 왜 그래요.” 그래. “예쁘게 할려고 그런다.” 내가 그랬더니 그냥 갖다가 머리 이렇게 붙잡아서 그냥 갖다 달고서 찍어 주더라구. 치장할 새도 없이. 사람은 많고 그래서 찍고 와서 신라호텔 부페에다 예약을 해갖고 저녁을 먹었지. 외국인들까지 축하노래를 불러주고. 그런 적이 드물대요. 부페식해서 케익도 잘라주고 먹고 굉장했어요. 그래 좋았어요. 이때도 애들이 다 준비해 줬어요.



## 여주의 마지막 마님

- 여주군 황주 번씨 이무숙 종부의 구술생애사

여 백

# 여주의 마지막 마님

- 여주군 황주 변씨 이무숙 종부의 구술생애사

## I. 개 관

이무숙 할머니는 황주 변씨 황창부위공(黃昌副尉公) 집안의 종부이시다. 황창부위공은 소현세자의 사위로 경순군주와 결혼하면서 이곳 여주의 장흥리를 사패지로 하사받으며 이곳에 정착하게 된다. 이곳은 여주군 금사리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더 들어간 조금은 외진 곳인데, 옛날에는 어찌 보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듯도 하다. 소현세자의 부마인 황창부위공은 인조 때 군수를 지낸 변명익(邊命益)의 차남으로 이름은 광보(光輔)이다. 이 기문의 9대손 황태섭(黃泰燮)이 바로 이무숙 할머니의 남편 되시고 분이시며, 할머니의 큰아드님이신 황재덕(黃在惠)이 10대 종손이고, 손자인 황영석(黃泳錫)이 11대 종손이다.

이무숙 할머니는 연세가 높으셔서 귀가 조금 어두우시고 기억이 뚜렷하지 않아 며느님께서 옆에서 그동안 듣고 경험한 이야기를 곁들이며 기억을 되살려주셨다. 그리고 나중에는 셋째 아드님께서 어렸을 적 이야기 등을 재미있게 들려주셨다. 할머니는 처음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여러 일들을 기억하시기 어려우신 듯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것들을 기억해내셔서 며느리 되시는 분도 약간은 놀라시는 눈치셨다. 특히 친정에서의 어릴 적 지낸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조금은 상기되시기도 하셨다. 그러나 친정 마을에는 가본 지도 너무 오래되고 풍경과 사람이 모두 바뀌었을 것이라면서 가고 싶지는 않으시다고

\* 조사자 : 온현정(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하셨다. 또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실 때에는 살짝 살짝 미소 짓는 것 같기도 하시고 그리워하시는 것도 같았다.

이무숙 할머니는 온화하고 단아한 모습을 하고 계셨다. 그러나 노환으로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종부로서의 기억, 제사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이 더 이상 할머니께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느낌으로 남아 있어, 좀더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하신 할머니는, 왜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느냐, 요즘 사람들은 새것에 관심이 있을 텐데 나 같은 늙은이 얘기를 들어서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고 하셨다. 할머니의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 답해야 할까?

## II. 이무숙 종부의 생애사 연표

1918년	8월 23일(음) 충청도 목천의 전주이씨 가문에서 7남매 중 셋째로 태어남
1939년	황주 변씨(黃州邊氏) 황창부위공파 9대손 황태섭(黃泰燮)과 혼인함
1943년	장녀가 태어남
1946년	장남 황재덕(黃在惠) 태어남
1948년	남편을 따라 서울에서 생활함
1950년	전쟁으로 여주로 피난. 차남 태어남
1951년	3남 태어남
1954년	4남 태어남
1965년	차녀 태어남
1967년	12월 남편 황태섭 돌아가심
1998년	팔순 잔치

### Ⅲ. 이무숙 종부의 구술생애사

#### 나는 정말 양반집에서 자랐어

나는 충청도 목천에서 태어났어. 요즘에 그곳에 가본 적은 없지만, 아이들 말로는 지금 독립기념관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모두들 알고 있다고 해. 그곳의 검은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 마을이 고향이야. 그곳에 안 가본 지 너무 오래 돼서 고향 마을은 기억나지 않아.

우리 친정집은 아주 잘 사는 집이었어. 그러니까 아주 큰 집에서 살았지. 아버지가 계시는 사랑채, 안채, 하인들이 있었던 바깥채 등 여러 건물이 있었어. 조상님들 중에 평양감사와 정승을 하신 분도 계시다는 것은 어른들께 들어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런지 큰집에서 아주 번듯하게 잘 살았어. 별 어려움이 없었고 생활은 매우 풍족한 편이었어. 좋은 음식에 좋은 옷 입고, 어찌 생각하면 우리 친정이 지금의 시댁보다 여러 가지 물건이나 건물 등이 많았던 것도 같아. 그러나 오라버니가 일찍 크게 개명하신 분이라, 이런 것 저런 것을 많이 없애버린 것 같아. 그래서 시댁보다 나중까지 남아 있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 아무튼 내가 시집오기 전까지는 우리 친정에는 하인들도 많았고, 부엌이나 그런 곳에서 내가 직접 일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참 편하고 좋았어. 우리 집안이 번족한데다가, 전주 이씨야. 유명한 이범석 장군이 집안의 먼 친척이라고 해.

시집오기 전에 친정에서 살 때 할머니 모시고, 어머니, 아버지, 오빠, 언니, 동생들이 같이 살았어. 우리 친정 할머니는 무척 무서운 분이셨어. 할머니는 여자가 다른 것은 못해도 바느질은 잘 해야 된다고 매일 바느질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 그래도 나는 바느질 솜씨가 매우 좋아, 아주 잘 했지. 내가 입는 옷 등은 직접 바느질해서 입었는데, 모두들 솜씨가 좋다고 칭찬했지. 그리고 부엌일이나 다른 살림살이는 직접 하는 일은 없었고 아랫사람들 부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어서 대충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기는 했지. 제사나 잔치 등 큰일을 할 때도 어머니 옆에 서서 하인들을 부리며 일을 배웠어.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그렇게 어렵고 두려웠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대단히 무서우셨지, 친정 어머니는 조용조용 지내시는 분이시고, 이제는 정말 기억이 가물가물거리. 친정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아. 이 나이에 옛날 어른들 생각해 보는 것도 참으로 오랜만이야, 너무 오래된 일들이지...

친정 형제들은 여러 남매야. 7남매였지. 언니, 오빠, 나 그리고 여동생들, 남동생. 나는 두렵게 자랐어, 무엇이든지 조심조심 어려워하며, 특히 어른들을 어려워하며 자랐다는 얘기가. 옛날 법도대로 자라서,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도 거칠게 못했어. 집안이 아주 엄



이무숙 할머니의 친정 식구들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친정 부모님이시고 뒷줄 오른쪽이 경성방직의 사장까지 하셨다는 오라버니다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함부로 하지 못했어. 지금 아이들이 지내는 걸 보면, 우리 시절에는 참 양반 같이 지내며 살았어. 그런데 답답하거나 그렇지 않았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건지 알았으니 집 밖으로 나간다가나 다른 일을 궁금해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

난 집밖에도 거의 나가지 못했어. 집안에 무슨 큰일이나 행사 때, 가까운 집안 일가 집에서 모이면 갔지만, 그 외의 먼 친척집이라도 다른 곳에는 가본 적이 없어. 난 완전히 양반 집에서만 살았어. 그리고 아랫사람들과는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달라진다고 어울리지도 못하게 해서 어느 정도 사이를 두고 지냈지. 집에는 하인들이 많았는데, 나를 아씨라고 부르며 우대했어. 위로 언니가 있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시집간

후 내가 거의 제일 위쪽이라 참 대우도 잘 받았지.

우리 집안의 오빠와 남동생들은 모두 신식 공부를 했지만 나머지 여자 형제들은 공부 안했어. 아마 내가 시집을 때 막 돌이 지났던 막내 여동생은 신식 공부했을지도 몰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아이가 컸을 때는 아마 공부시켰을 거야.

우리들은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있는 언문 책을 읽으며 지냈어. 우리 형제들은 모두 언문은 읽고 쓸 수 있어. 남자 형제들한테 배운 것 같아. 또 우리 집에는 책들이 많았는데, '옥리몽' (옥루몽인 듯), '유씨삼대록' 같은 이야기 책을 읽었어. 옥리몽은 세 권으로 된 책이었고, 유씨삼대록이라는 것은 한 20권 넘는 책인데,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해서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이며 충신이나 효자 이야기가 많았어. 그 책을 읽으면서 할머니님이나 어머니님이 너도 이렇게 살아라, 시집 가서는 이래야 한다 그런 소리를 하셨어. 그리고 다른 책들도 있었는데, 제목은 생각나지 않고 여자들이 사는 이야기, 행실에 관한 것, 집안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책을 읽는 것을 그다지 재미있

어 하지는 않았지만 심심하면 읽었던 것 같아.

그 당시로 치면 나는 나이가 많은 처녀였어. 왜 그리 됐는지 모르지. 나중에는 집안 어른들이 걱정도 많이 했을 거야. 결혼이야 집안 어른들이 알아서 보내주는 것이니 이것에 대해 무어라 말할 수도 없었어. 우리 오라버니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경성방직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아마 사장도 했을 거야, 오라버니와 당숙뻘 집안 어른이 시가 쪽의 집안 어른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 그들이 중매를 서서 정혼한 것으로 알고 있어.

### 황주 변씨 집안에 시집와서

그러다가 스물두 살이 되는 해에 시집갔어. 옛날치고 정말 많이 늦었지. 정혼을 하고 몇 년 있다 갔어. 결혼을 하니 시집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이 나이 많은 색시라고 말들을 했던 기억이 나. 그 당시는 결혼을 내리시는 사람과는 안 했어. 낮은 집안 사람과는 안 했다는 말이야. 남편은 그 당시 휘문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나보다 세 살이 적었어. 결혼은 오라버니가 있는 서울에서 옛날식으로 올리고 다시 여주에 내려와서 잔치를 하며 다시 올렸어. 여주와 내 고향 목천은 무척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 어른들이 오고가니 어려워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 같아.

친정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여자는 바느질을 잘 해야 시집가서 잘 산다고 바느질을 많이 시켰어. 참 바느질 잘 했어. 시집가기 전에 치마, 저고리, 바지, 두루마기까지 모두 해 놓았지. 수도 놓았는데, 배개 마구리에 수를 놓았어. 잉꼬 새를 수놓았어. 이불에도 같이. 잉꼬는 품이 높은 새라 그것을 수놓은 것 같아. 그리고 병풍도 해서 시집 갔는데 수를 놓은 것은 아니고 먹으로 그림과 글씨를 써서 만들 것이었어. 우리 집안은 무척 검소하게 혼인을 했어.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듣기로는 친정과 집이 모두 소론이라 그랬다고 해. 시주단자에는 청홍 옷감과 편지(납폐)만 넣어서 받은 것 같아. 소론 양반의 법도는 패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해.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아. 사치하게 하는 것은 노론의 풍속이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 나중에 내가 며느리를 볼 때도 그렇게 했지. 며느리를 맞을 때는 세월이 많이 지났었지만, 아주 간소하게 했어. 집안이 잘 살았는데도 패물을 거의 해주지 않았어.

서울에서 결혼하고 첫날밤 상우례(상견례)를 시킬 때 처음으로 남편의 얼굴을 봤어. 참 인물이 좋더군. 난 참 좋았지. 남자는 사모관대, 나는 칠보족두리하고 머리를 이렇게 크게 땀은 남자를 했어. 이것을 지금 며느리도 물려서 결혼식 때 썼어. 우리 집에서는 결혼 전



이무숙 할머니의 결혼식 사진. 아마 여주에서 잔치하고 찍으신 것 같다고 하신다. 신부도 곱지만 신랑도 옛된 청년이었다

에 신부인 나에게 혼인을 준비시켜주는 사람을 붙여주었어. 부모 잘 모시고 자식 잘 낳고 내외 해로하고, 어떤 특점이 있는 복이 많은 사람을 택해서 혼인 날까지 이것저것 나에게 알려주며 준비하게 했어. 그 사람이 혼인날 머리 빗겨주고 옆에서 도와줬어. 아마 집안의 여자 어른 중 한 사람이었던 같아. 지금 처럼 된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이나 그저 신부 옆에서 시중들게 하지는 않았어. 요즘에 혼인하는 것 보면 번잡스러워. 옛날식이 난 좋다고 생각해.

결혼식을 치른 후 여주의 시택에서 처음 몇 달간을 지냈는데, 이 주일이고 삼 주일이고 아침저녁으로 시부모에게 문안을 건네가서 큰절을 했어. 무거운 남자까지 하고, 며칠 후에는 남자는 안

했지. 그러다가 남편이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서울에서 따로 살림을 했어. 결혼하고 1년쯤 지나 후 남편은 학교를 마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어. 그렇게 남편은 동경 중앙대로 유학 갔고 나는 시집인 여주로 들어갔어, 그때까지 여주군에서 유학 간 사람은 남편이 처음이어서, 나는 마음으로 무척 좋았지. 남편이 자랑스러웠으니까 나까지 우쭐한 마음이 들었어.

여주의 시집으로 들어간 후 시집살이가 무척 심했어. 내 생각에는 시집도 역사가 깊은 집이라 된둥만둥한 새댁을 얻지 않았을 테고 나도 어느 정도는 되니까 그리로 시집 갔는데 왜 그리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키셨는지 몰라. 시누이와 시동생이 많았고 시어머니는 동네에서도 무섭다고 소문이 난 어른이셨어. 목소리도 쩡쩡하고 화가 나시면 마루창을 발을 구르고 호통을 쳐 모두 벌벌 떨었지. 그리고 왜 화를 내시는지 나는 잘 몰랐어. 이것저것 시키시고 아무튼, 어유 정말 무서웠어. 사람들이 그분 앞에 서서 '마님' 소리를 저절로 할 정도로 위엄도 있었어. 나는 바느질을 잘 했는데도 여간 마음이 힘든 게 아니었어. 옷감을 꿰을 때 쓰는 한 자, 한 치, 한 푼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것을 잘 몰라서 애먹었어. 그

당시에는 그냥 나를 죽이고 가만히 지내야 했지. 시어머님이 꾸중하셔도 시누이들과 시동생이 투정하여도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쪽 지냈어.

시집에는 시누이가 다섯 명에 시동생까지 많아 시집살이가 더 심했어. 시누이들은 인물이 좋은데 모두들 시집가지 전까지는 나이도 나보다 어렸는데도 그렇게 잔일을 시켰어. 시누이의 나이가 어려도 그때는 고개도 못 들었어. 괜히 저 잘났다고 고개 들면 하루도 못 지내고 쫓겨나. 아무 소리 없이 잘 따라주어야 했어. 시집 와서도 문 밖으로는 거의 나가 지 않았어. 집안에서 널뛰기도 했어. 그리고 친정은 결혼한 후 딱 한 번 가 봤어. 친정아버님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그 후로는 한 번도 못 갔어. 남편이 일본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방학 때가 되어야만 집에 왔어. 방학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고. 남편도 없고 시어머님은 무섭고, 참 힘들었어. 정말 무척이나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켰던 것 같아. 그러다가 4년이 지나고 남편은 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왔지. 남편은 법대 나왔어. 그때로 치면 최고로 공부를 한 거지.

해방이 되고 나서 남편은 복지부장관 비서를 했는데, 그때는 신나고 좋았어. 모두 남편을 우러러보고 나도 우러러보고... 남편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난 서울에서 살았어. 남편은 참 나에게 잘 해줬어, 내외도 없어. 남편의 인물이 좋았지, 난 그게 참 좋았어. 그래도 속으로만 그랬지 내색하지는 않았어. 그리고 옛날 양반이니 그대로 법도도 따르지만, 안으로는 별도로 꼼찍이 나를 알아주시고 이빠해 주셨어. 그렇지만 나한테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잔소리도 조금 하셔서 가끔은 속상하기도 했었지. 내가 이렇게 하자고 해도 안 따라 주신 적도 있고 토를 단 적도 많아.

그렇게 서울에서 살고 있다가 전쟁이 났어. 그때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리고 임신 중이었지. 전쟁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님이 사람을 보내 종손을 데리고 여주로 빨리 내려오라는 전갈을 보내셨어. 우리들은 서울의 효자동, 해화동인가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걸어서 덕소를 지나 양평으로 해서 시택으로 갔어.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 내내 지냈어. 우리가 집에 도착하고 연이어 서울에 살고 있는 시누이와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여들었지. 서른 다섯 명 정도 되었을까 아마 못 하지는 않았었지. 아무튼 여러 식구들이 모두 여주의 시택에서 전쟁을 겪었지. 그런데 그곳이 너무나 외진 곳이어서 그런지 직접 군인이나 인민군들도 거의 보지 못했어. 다만 그동안 밍게 보인 여러 지주들이 아랫사람들에게 해꼬지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는 했다고 해. 우리 시택은 조상들이 대대로 복을 쌓고 너그럽게 대해서 그런지 그런 일은 당하지 않았어. 다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라는 말이 들리면 남편과 젊은 남자들은 뒷산에 있는 자연 동굴로 몸을 피하고, 시집을 안 간 시누이들



중학교 다닐 무렵의 큰아들과 함께



사람 앞에 쌓여 있는 쌀가마니들 2천여 석을 추수하였다는 친석꾼의 집안임에도 손자들이 맛난 음식 실컷 먹어봤으면 할 정도로 시어머님은 검소하게 생활하셨다

이나 젊은 여자들은 장롱 뒤에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 숨었다 나왔다. 그럭저럭 지내다가 잠깐은 미군이 와서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인 우리 집 사랑에 있기도 했어. 그들은 사랑에 있는 제사상으로 쓰이는 큰 상 등을 자신들이 내와서 쓰다가 별일도 없었는데, 가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태워버리고 갔어. 그 바람에 제사상과 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그릇이나 물건들 없어져 버렸지. 참, 아까운 일이야.

전쟁이 끝난 후 어느 때인가부터 다시 서울에서 살았어. 참, 시아버님 얘기는 안 했지? 시아버님은 나를 참 예뻐하셨지.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부마대왕 때부터 참 손이 귀한 집안이었다고 해. 10대를 내려오면서 6대는 양자를 들일 정도였다고 해. 그런데 나는 시집 가서 시아버님 살아계실 동안에만 3형제를 낳았지. 그러니 너무나 나를 예뻐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시아버님은 서울에 집도 사주셨어. 이렇게 시아버님이 나를 너무 많이 예뻐해 주셔서 시어머님이나 시누이가 무섭게 시집살이를 시켰는지도 몰라. 시아버님은 큰아이가 열 살쯤 됐을 때 돌아가셨어. 일제시대에는 토지개혁으로 잃어버린 땅을 다시 사들이기 위해 무척 노력하셨다고 해. 그래서 집안이 흔들리지 않고 지내왔다고 집안 어른들이 말씀들 하시지.

서울에서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시골에서 보내준 일하는 사람 두어 명이 살았어. 아이들은 모두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지. 국민학교에서 대학까지 모두 말이야. 아이들이 시골



시어머님과 남편



시어머님과 함께

에서 학교를 다니면 집에서는 ‘도련님’ 이라고 부르던 또래 친구들과 같이 학교를 가야 하는데 이런 것도 싫었다고 해. 그리고 남편도 서울에서 생활하고 그래서 모두 어렸을 때는 시어머님 밑에 있지만, 나이가 되어 학교 갈 무렵이면 모두 서울에서 살았어.

아이들은 방학이면 언제나 시골에 내려가서 지냈지. 그런데 아들들 말이, “할머니가 너무 절약하셔서 맛있는 것도 안 해 주신다”고 많이들 투덜거렸지. 그 당시 그래도 2천 석 정도는 하는 집안이었는데, 시어머님은 너무너무 검소하셨어. 돌아가실 때까지도 여러 가지 천으로 누덕누덕 기운 앞치마를 입고 계셨으니까. 어느 땐가는 다락에 있는 사탕이 녹아서 서로 영킬 정도가 되었는데도 아이들한테는 하나씩 조금씩 주는 거야. 그래서 보통 때는 맛있는 음식을 전혀 해먹을 수가 없었어, 여주에서는. 오죽하면 아이들이 여름 방학 때 집에 갔을 때 동네의 이 밭 저 밭에서 과일들을 따먹었겠어? 물론 밭주인들은 ‘도련님’들이 하는 짓이라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렇게 지내다가 남편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여주로 내려갔어. 난 아이들과 지내다가 여주로 갔다 이렇게 지냈지.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서울 집을 비울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남편이 마흔 아홉 되는 해에 돌아가신 후 나는 완전히 여주로 내려갔어.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살게 하고, 물론 일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은 돌봐주도록 하고 말이야.

남편을 생각하면 가끔 속상한 것도 생각해. 다른 것은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모두 그랬잖아, 조금은 다 한량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속을 썩인 적도 있었어. 한참 동안은 정말로 원망스러웠지만,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이제는 참 좋았다, 참 잘해줬다, 이런 생각



남편의 장례 모습 전통적인 장례 절차와 형식을 따라 치러졌다. 망자를 태운 꽃 상여 뒤를 샷갓을 씌운 작은 가마가 따르고 있다. 이것에는 종손인 큰아들이 타고 있다. 부모가 돌아가심에 불효한 마음에 부끄러워 샷갓을 쓰는 것과 샷갓 가마가 연관이 있는 듯하다



상여가 장지에 도착한 후 땅을 파기 전에 차려놓은 제사상



물문 밖의 개울에서 부엌 뒷편 장독대 앞을 가로질러 나가면 문(물문이라 부름)이 있는데, 이 문 밖에는 물을 길어다 쓰기도 하고 더울 때는 피서도 하였다는 개울이 있다



셋째 아들과 함께 제주도에서(1970년 경)

만 남아 있지. 남편이 돌아가시고 3~4년 후에 시어머님도 돌아가셨어. 참 무서운 분이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오래 모시고 살았는데... 이렇게 어른들이 모두 돌아가셨어.

나는 여주에 내려온 후에는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거의 없었지. 그저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개울에서 더위도 식히고 마음도 식히고 그렇게 지냈어. 아직 어린 막내를 키우면서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고 집안 일 건사하고 그렇게 말이야. 방학이나 휴가 때, 또는 제사나 명절 때 식구들이 오면 그렇게 반갑고 좋았지. 생전 처음으로 여행을 하기도 했지. 셋째 아들과 제주도에서 일주일 동안 구경 잘 했어. 맛난 것도 먹고 굴밭도 가보고 좋은 구경 많이 했어.

### 종가의 제사

우리 집안의 제사는 참 많았어. 4대 봉사 제사를 지냈고 설과 추석에 차례를, 단오에도 제사를 모셨어. 그리고 시제와 불천지위(不遷之位) 제사라고 대대로 꼭 지내야 되는 제사야. 우리집은 부마집이야. 소현세자의 따님이 우리 집안으로 시집왔어. 옛날에는 대종가 집이라 하면 높이 여겨주었어. 그래서 부마대왕 제사를 크게 지냈지. 황창부위공과 경순

군주를 모시는 제사야. 4대 기제사는 대청마루에서 지냈고 시제는 사당에서, 부마대왕 제사는 대청에서 지냈어.

시집에 와서 보니 제사가 친절하고 달랐어. 우선 괴임새가 무척 높았어. 높이가 너무 높아 조마조마했어. 나는 시집와서 처음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고였는데, 잘못 고이거나 무너지면 사람들 보기도 창피스럽고 해서 한 걱정했어. 그리고 친정에서는 여자들만 음식 괴임새를 했는데, 시집 와서 보니 남자들이 괴임새를 했어. 제사 때 남자들이 사랑방에 앉아 일을 해서 조금 거슬렸어. 편, 떡 말이야 그것을 한 말 반 정도 했는데, 편틀에서 마름질을 해서 그 많은 것을 모두 올렸어. 특히나 편은 너무 무거워서 남자들이 했지. 그게 올라가면 높이가 무척 높아. 그리고 밤은 우선 접시만하게 창호지를 오리고 풀을 쑤어서 바르면서 한 단 한 단 밤을 놓고 가운데는 비우고 붙이면서 고이면서 올렸어. 열세 단 정도 올렸어. 대추는 김을 올려 찢 다음 다시 대추 모양을 각이 지게 만들어 창호지에 붙이고 둥글게 한 단씩 올렸어. 그것도 열세 단 정도 올라간 것 같아. 여자들은 다른 음식 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마른 음식과 과일은 남자들이 만졌어.

제사 때에는 온갖 음식을 만들었지. 편, 탕, 산적, 부침개, 나물, 생선 등을 모두 다듬고 찌고 음식을 장만했어. 그리고 약과, 조청, 다식, 송화다식, 감자가루 다식, 콩가루 다식도 만들었어.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여자들이 했지만 장보고 물건을 사는 일은 집안 제사를 맡아서 하는 사람인 유사가 있어서 그 분이 했어. 먼 친척 분이었던 것 같아. 우리 집 제사에는 고기를 많이 썼지만 생선은 민어로 전을 부치고, 송어로 어적을 만들었어. 자반도 올렸어. 음식은 보통 열흘 정도 전부터 준비할 정도로 많았어. 그래서 우리 집 제사는 동네잔치 같았어. 우리 집에 제사가 있는 날에는 친척이 아니라도 모두 와서 제사 지낸 후에 음식을 먹고 가져가고 그랬어. 나는 음식을 몰래 가져가는 사람을 막는 것도 큰일이었지.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이라 모두 우리 집 제사를 기다리기도 했다고 해. 음식뿐 아니라 그릇이 많이 없어져서, 내가 그릇에 페인트로 ‘궁’이라고 써놓기도 했었어. 우리 집 택호가 ‘즉청궁’(卽淸宮)이었거든, 아마 부마집이어서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

남편이 죽고 시어머님도 돌아가신 후에는 양대 기제사, 설과 추석 차례, 시제, 불천지위 제사 이렇게 했어. 제사가 조금 줄었지. 음식 장만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대도 많이 변했잖아. 그리고 나와 동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시동생이 일본에서 근무해서 거의 제사일은 안 했어. 나 혼자 많이 고생했지.

우리 집은 다른 집과는 다르게 아직까지도 초를 만들어 써. 옛날에는 유사를 맡은 집안 먼 친척인 대부라고 불리는 어른이 주도해서 남자들이 만들었어. 밀랍을 사서 이전에 쓰

던 작은 초들과 함께 뜨거울 때 녹여서 모양을 만들면서 창호지로 심지를 만들어 심고 그렇게 만들어. 몇 해 전에 며느리들이 모여서 초를 만들었어. 우리 집에서는 제사 때 쓰는 초를 아직까지 한 번도 사서 쓰지 않았어. 그리고 때도 만들어 썼어. 모사그릇, 술을 올린 후 퇴주하기 전에 서너 방울 떨어뜨리는 흙이 담긴 그릇이 모사그릇이야. 거기다가 때를 세워. 아마 흙하고 풀에도 제사를 하는 뜻 같아. 뜻은 잘 몰라. 뒷동산에서 굶은 모래를 담아 와서 깨끗하게 씻은 후 그릇에 담아놓았지. 제사 후에는 흙은 버려.

우리 집 제사 중에서 불천지위 제사를 가장 크게 했어. 옛날에는 제사 지낼 때 궁에서 물 건들을 보내주기도 해서 그랬는지 참 크게 지냈지. 먼저 제사 지낼 때 마당에 햇불을 잡았어. 작은 나뭇가지를 엮어 가운데 술가지를 끼우고 짚으로 다시 엮은 것을 마당에 길게 늘어뜨리고 불을 놓아 햇불을 밝혔지. 그 길이가 엄청 길었어. 아마 옛날에 높은 어른들이 제사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지내는 제사를 밝히느냐고 햇불을 잡은 것 같아. 그런데 추운 12월에 지내는 제사이기 때문에 사방을 훈훈하게도 만들어주었어. 이런저런 이유로 마당에 불을 놓았던 것 같아. 이렇게 마당에 불을 놓고 돛자리처럼 만든 행보석을 사당 뜰에서 마루까지 안마당에 깔고 종손이 사당에서 위패를 모시고 그 위로 걸어서 대청까지 가지. 조상을 모시는 동안 더러운 곳을 밟지 않고 깨끗하게 하라고 그렇게 했어. 이렇게 햇불을 만들고 행보석을 만드는 것은 산지기(대개는 궁에서 공주와 함께 온 하인들의 자손들)의 몫이었어. 여자들은 음식 장만만하고 나르고 상을 차리는 것은 모두 남자 자손들이 하지. 그리고 하인제도 함께 지냈어. 시어머님 말씀으로는 공주를 따라 궁에서 나온 하인들의 귀신이 조상님 꿈에 나타난 후 집안에서 부마제를 지낼 때 하인상도 함께 봤다고 해. 마을에 그 하인들의 자손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 집 제사 때 함께 지냈어. 정식으로는 아니고 밥, 탕, 나물 등등 마련한 음식을 조금씩 놓아서 간단하게 차렸어.

며느리가 시집와서도 몇 년 동안은 부마제를 지낼 때 우리 마을에 살지 않고 있는 집안 어른들도 모두 참석했어. 파가 1파, 2파, 3파 있는데, 우리는 2파지만 다른 파의 어른들도 모두 부마제에는 참석했어. 파주나 다른 곳에 사시는 어른들은 미리 오셔서 주무시면서 제사를 모시고 가셨어. 그 분들이 돌아가신 후에는 요즘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아. 그저 동네에 있는 친척들만 참석하지. 그때에는 시제를 지낼 때에도 한 닷새 정도 집안에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어. 부마제를 지낼 때도 마을 사람들 잔치야. 모두 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어떤 사람들은 가마솔 한 가득 꿇고 있는 탕을 양동이째로 퍼가기도 하고 염치없게 소머리를 들고 가기도 한 적이 있어. 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그래도….

며느리를 본 후 4, 5년 뒤부터는 내가 뒤에서 일러주고 며느리를 앞세워 제사를 지내. 큰



1960년 경의 할머니 덕 예전에는 왼쪽에 보이는 사랑채 외에는 모두 초가였다고 한다. 오른쪽은 그때 당시 바깥에서 바라 본 할머니덕 전경이다.

며느리는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게 찬찬히 물어가면서 참 내 말을 잘 따라주지. 손자들이 어려서 학교를 가야 하니까 잠시 동안은 서울에서 제사를 모셨지. 아파트에서 제사 지낼 때는 불편했지.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는 곡을 하는데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이웃 눈치 보이는 일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손자들이 다 커서 이제는 다시 여주에 있는 집에서 모든 제사를 모셔.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참 잘 해. 우리 집에서는 며느리들이 시집 올 때 모두 제사 때 입는 한복을 해오지. 제사 때에는 남자, 여자 모두 제사 한복으로 입고, 남자는 대청에서, 여자들은 안방에서, 다른 친척들은 마당에서 이렇게 제사를 모셔. 옛날보다야 많이 적게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집들보다는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참, 그리고 우리 집에는 제사용 그릇이 남았는데, 일본 사람들의 시대에는 공출이라고 많이 빼앗아갔어. 안 빼앗기려고 항아리에 넣어 뒷산에 묻어 숨기기도 했지만, 이리저리 거의 다 없어졌어. 그리고 엄청 큰 신선로도 있었는데, 이것도 어느 해인가 도둑맞았어. 나는 우리 집에서 쓰는 제기가 궁중에서 쓰는 것과 같은 줄로 알았는데, 언젠가 남편과 아들들이 처음으로 종묘라는 데를 다녀와서는 많이 다르다고 했어. 그러나 어떻게 다른지는 나는 잘 모르지.

우리 집에는 장김치라는 음식이 있어. 며느리도 우리 집에서 처음 봤대. 나박김치인데 간장 국물에 김치를 담그는 거야. 예전에는 제사 음식도 다하고 생신음식도 다하고 그랬는데, 김장, 고추장, 된장 담을 때는 소작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와서 도와주고 나는 감독만 했어.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 며느리가 나한테 그동안 배운 이것저것 잘 하지.



대문 앞에서(1979년 경)



해외여행 외국에 가실 때 처음으로 한복이 아닌 옷을 입어보셨다고 한다. 그러나 양장도, 모자도 모두 잘 어울리신다



이무숙 할머니의 팔순 잔치

## 나는 옛날식이 좋아

나는 젊은 사람이 하나도 안 부러워. 옛날 풍대로 사는 게 좋아. 몇 해 전, 아니 벌써 십년은 되었네, 그때 아들·며느리가 해외 여행시켜줄 때 처음 한복을 벗고 다른 옷 양장을 입어봤어. 바지도 입어보고. 그전에는 항상 한복만 입었어. 처음에는 이상했어. 젊은 사람들 보기에다 괜히 민망하고…. 그래도 몇 번 입으니까 그런 대로 입을 만하긴 해. 그래도 난 한복이 훨씬 편하고 좋아.

우리 집은 사랑채, 행랑채, 사당도 남아 있어. 예전에는 아주 넓었지. 그리고 지금은 기와집이지만 한참 전에는 초가였어. 사랑만 기와였고. 그런데 우리 집은 처음에 궁에서 재물을 내어서 지어주었다고 해. 경순군주님이 시집오면서 우리 마을을 사패지로 받고 집도 그때 지었다고 해. 그래서 우리 집 큰대문의 위쪽에는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어. 그리고 몇 해 전에 사랑채를 보수하려고 할 때 숙종 때 사랑을 보수하였다고 써 있는 상량문이 나왔다고 아들이 말해줬어. 참 오래된 집이지. 그곳으로 시집와서 60년도 넘게 살고 있지. 나는 그곳에서 너에서 지내다가 늙고 몸이 안 좋으니까 며느리가 걱정을 하여 지금은 서울의 아들 집에서 살지. 병원에도 가야 하고…. 여름 두 달간 시골에 내려가 지내는데, 난 그곳이 좋아. 그곳에서 살고 싶어. 지금 이렇게 서울에 있어도 그곳이 그림고 소식이 궁금해. 그곳에는 작은 며느리가 살고 있는데, 내려가야지…. 그곳에 가면 아직도 사람들이 나를 마나님이라고 큰마님이라고 불러.

지금 젊은 사람들 정말 막 살어! 옛날에는 법도로 살아왔어. 난 그렇게 사는 게 좋아. 참,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의 가훈은 “십년지계 막여종수, 백년지계 막여종덕(十年之計 莫如種樹, 百年之計 莫如種德), 그러니까 십년의 대책은 나무를 심는 일이며, 백년을 내다보는 대책은 덕을 쌓는 일이다 이런 말이지.” 우리 집안은 이렇게 살았어. 남에게 싫은 소리,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래서 조상님들 덕에 이만큼 살아온 것인지도 모르지.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그래도 옛날 법도를 알아. 다른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덜 알지. 그래서 큰며느리와 있는 것이 좋은데, 그래도 시골에 가고 싶어.

다른 소망은 없어. 벌써 팔순도 넘었고 지손들이 모두 바르게 살고 있으니 뭘 더 바라겠어? 봄이 오고 날이 따뜻해지면 여주에 있는 집으로 갈 거야. 그곳에서 가을까지는 지낼 수 있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소원이야….



남은 시간은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 평택시 봉화 정씨 차정숙 종부의 구술생애사

여 백

# 남은 시간은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 평택시 봉화 정씨 차정숙 종부의 구술생애사

## I. 차정숙 종부의 생애

차정숙 종부는 1941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졸업한 뒤 서울에서 인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기독교(장로교) 신자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결혼을 하였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남편을 따라서 서울에서 살면서 시동생을 건사하며, 2남 1녀를 낳아 가르치면서 봉제사와 초상 및 행사(명절, 혼사, 생신, 회갑)때가 되면 시골에 내려가 큰일을 도맡아 하였다.

남편과 연애를 할 때 어머니는 종가로 시집보내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부친은 '좋은 집안' 과 혼인을 해야 한다며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고, 차정숙 종부는 자신의 의지와 부친의 응원에 힘입어 28살에 봉화 정씨 소종가의 종



차정숙 종부

\* 조사자: 정광순(중랑향토문화연구소 소장)

부가 되었다. 그렇다고 결혼하기 전부터 종부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동과 자세를 익히려고 노력한 적은 없다. 친정에서 보고 배운 것이 결혼해서 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지 않고, 사당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지 않은 친정에서 자란 덕분에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새롭고 특별하게 생각되어 두렵거나 어렵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았다.

항상 다가올 행사(제사, 명절)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로 머리가 아팠을 뿐, “내가 선택했고 내 팔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한 적은 없었다.”고 말하는 차 종부는 결혼 이후 종부노릇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고자 노력했음을 담담하게 말한다.

지금은 만며느리를 보아 큰일(봉제사, 접빈객, 행사)이 있으면 으레이 대동하고 일처리를 하여 자연스럽게 대물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 평범한 집안에서 소종가의 종부로

평택에 입향한 봉화 정씨가 소종가의 종부의 이름은 차정숙(64세)이다. 그는 군산시에서 연안 차씨의 평범한 가정에서 육남매 중의 3녀로 태어났다. 군산에서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나와 서울에서 여학교를 다니면서 세상 살아가는 공부를 터득했으며, 특히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무지를 깨우치고, 남자의 세계에 예속되지 않고 가문을 이끌어 나갈 능력을 갖추려면 ‘적당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여학교에 보내 주었다고 한다.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어머니는 종가로 시집가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부친은 ‘좋은 집안’과 혼인을 해야 한다며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고, 차 종부는 부친의 도움으로 28살에 봉화 정씨 소종가의 종부가 되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지 않고, 사당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지 않은 친정에서 자란 덕분에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새롭고 특별하게 생각되어 두렵거나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차 종부는 결혼 이후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종부노릇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고자 했음을 담담하게 말한다.

신혼살림은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던 터라 서울에서 차렸다. 그리고 결혼한지 10년만에 시아버님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시자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었다고 종부는 담담하게 말한다. 아마도 시아버지로부터 많은 아낌을 받았던 때문인 모양이다. 이후 시골 종택에는 혼자 된 시어머니가 계시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주관하였고, 종부는 서울과 평택을 왕래하면서 살림을 했다.



큰 손주 백일잔치 때 큰아들 내외와 함께(1998년)

### 삶 전체를 평가받는 자녀교육

종부는 어린 아이 셋을 데리고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해내면서 지난 세월을 살았을까 자신을 돌아볼 때가 많다고 한다. 살다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이 대장부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어찌면 항상 당당하게 살고자 했던 종부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차정숙 종부는 실제로 마음이 여린 여자이다.

종부는 서울과 평택의 종택을 오가며 생활했다. 일년에 명절과 제사, 생신으로 정신없는 나날이었다. 이때 시어머니로부터 당과 적을 만드는 법과 부침개, 각종 찌개, 시루떡 찌는 것 등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법 등을 전수 받았다. 도시에서 자라나 현대 감각을 가진 종부로서는 쭈그리고 앉아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배우는 이때가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이 맡여느리라는 책임감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걸 보면, 환경(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한다.

“나는 다행히 자식들이 속 썩이지 않고 잘 커 주었어요. 특별나게 과외공부다 치맛바람이다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평범하고 자유스럽게 자신들이 원하는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도 두 아들과 딸은 모두 일류대학은 아니더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제 역할을 너무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젠 남은 남매만 제 짝들을 채워주는 것만이 남아있는데, 모두다 효성이 지극해요.”

종부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특히 차중손을 어떻게 키웠느냐가 그녀의 삶 전체를 평가받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봉화 정씨 차정숙 종부는 차중손을 모나지 않고 범절을 잘 지켜나가려는 마음을 가진 인격체로 잘 키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앞으로 집안에서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 딸만큼은 제사없는 집안으로 보내고 싶어

차 종부는 외동딸(영선)이 의상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직장을 다니는데 시집보낼 걱정이 남아있다. 되도록이면 “제사 때마다 나를 도와주느라 고생한 딸이 안쓰러워서 제사를 모시지 않는 집으로 혼인을 시켰으면 한다.”고 말한다. 딸아이는 큰며느리가 아니고 개방적인 집안이라도 좋다. 자라면서 ‘보고 큰 것이 있는 집안’에서 자랐으므로 잘 하리라 믿고 있다. 그러면서도 딸을 시집보낼 때 그다지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종부는 작은아들을 하루 빨리 장가보내야겠다고 생각한다.

차정숙 종부는 자신이 종부임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게 규정되는 그녀의 역할은 역시 종부이다. 어차피 해내야 할 ‘종부노릇’을 그녀는 당연한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 그녀의 삶의 가치를 평가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다시 그녀의 딸에게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한다. 물론 며느리에게도 그대로 강요하거나 물려주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 며느리는 ‘보고 배운 바’ 있는 사람으로

차 종부는 며느리는 살면서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이 없는 천방지축, 근본이 없는 가문에서 보고 배운 것이 없는 처녀는 며느리로 맞을 수 없다는 생각을 말한다. 종부로서 그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다음 세대까지 종택과 종가의 문화를 되도록이면 잘 이어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솔직한 심정이란다.

“우리 집안(집성촌) 일가들이 보통사람들이 아니에요. 시부모님과 남편 형제들은 항상 나를 이해하였으나, 여타 문중일가들은 두렵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출장 가고 없어 혼자 제사를 준비할 때는 중손 역할까지 해야했기 때문에 항상 문중 사람들이 조심스러웠어요.”

종부의 행동은 모든 일가친척들의 본보기가 되기도 하고, 분란을 일으킬 소지를 낳기도 한다. 종부는 지난 날 자신의 어떤 경험 때문에 보고 배운 것이 없는 처녀는 며느리로 맞

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 본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 종부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따를 것을 요구할 수도, 요구해서도 안된다고 한다. 시대가 너무 바뀌었기 때문이란단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였고 연애결혼을 하였기 때문일까? 연애가 아니고서는 괜찮은 처자가 예전처럼 종가로 시집오지 않으리라는 불안감이 항상 남편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한다.

자신과 자신의 여형제들은 기독교를 믿고 있는 집안이지만 종가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은 종교가 아니고 문화라고 하면서 종가에서의 생활이 별로 힘들지 않다고 종부는 말한다.

차 종부는 새로 맞이한 며느리가 자신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종가의 전통은 이어주길 기대한다고 한다. 그래서 종부는 종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의례인 제사 받들기를 축소하고 간소화시키려고 한다고 한다.

### 전통의례의 간소화에 대한 생각

차 종부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종가문화를 슬기롭게 전승시키기 위한 첩경은 제사의 간소화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종가의 전통을 그대로 지켜오던 시어머니가 3년 전 치매로 늙게 되자, 곰곰이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한다.

자신의 생전에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모시겠지만 자신이 죽을 무렵에는 과감하게 종택의 사당에는 2대 봉사만을 모시고, 그 윗대 조상 분들의 제사는 내모실 것을 남편과 형제들에게 제안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4월 5일 청명 한식날을 '조상의 날'로 정해 선조를 제향하고 네 반상을 차리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좀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각기 선대의 배위(配位) 제사가 각기 모셔지고 있는 것을 하루로 모을(두분 중에 먼저 오는 날로) 것을 남편과 형제들에게 건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물론 이러한 계획은 아직 실행에 옮긴 것은 아니다. 그 계획이 실현되면 일년에 절반으로 제사가 줄고, 설과 한식, 추석차례만을 제대로 지내면 될 것이다.

차 종부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종가운영 방식을 시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며느리를 위한 그녀의 배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혀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로 없다. 그녀가 며느리를 처음 만나던 날, 그녀에게 제사는 이 집안에 내려오는 하나의 문화라고 설명했다는 얘기는 종부의 역할에서 봉제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봉화 정씨 종택

### 종택 보존을 위한 준비와 계획

오늘날 종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종택지키기’이다. 종손·종부가 종가를 지키면서 ‘종가의 도리’인 봉제사·접빈객의 생활원리를 성실히 실천하는 것을 ‘바람직한 종손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중성원들이나 유림사회에 있어서, 봉제사·접빈객을 수행하기 위한 장(場)으로서의 종택 수호문제는 오늘날 종손과 종부들이 당면한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이다. 어쩌면 이것은 ‘종손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sup>1)</sup>

봉화 정씨 차정숙 종부의 고민도 남아가고 있는 종택에 있다. 종택은 집안행사에 다녀가는 공간이었을 뿐, 그녀의 일상적인 삶을 영위했던 생활공간은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시게 되어 서울에 올라와 함께 계시면서는 간혹 제사를 모시기 위해 내려가는 일 외에는 별로 가시는 일이 없다. 홀로 고택에 있게 되면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느냐는 물음에, “어쩌다 내가 종택에 혼자 누워있어도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한다. 종가가 내 집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었다. 머잖아 차 종부는 종가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를 직감하고 있는 듯하다. 언젠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흔이 넘으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종부는 집안의 행사와 제사 등을 모시기 위해서는 청소와 정

1) 조강희, 「사회변화와 종손의 역할」, 『민족문화논총』 제22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0년, 194쪽.

리정돈을 위해 종가를 오가야 될 것이다.

한옥이 너무 낡고 헐어서 이제는 손을 대야 하는데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 금년부터는 아무리 바쁘고 힘이 들더라도 형제들하고 상의하여 새로 짓든지 고치든지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종가는 자기 혼자만 지켜서는 안 되고 친척들이 함께 지켜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는다.

차 종부는 종택을 지키기 위해 돌아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시기는 차 종부의 말에 의하면, 5~6년 후인 70세가 될 무렵에야 가능할 것 같다. 그전에 개인적인 일과 집을 손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종가로 돌아오고자 하는 데는 큰 장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몇 년에 걸쳐서 집을 잘 가꾸어 놓고

종가로 돌아오겠다는 계획이 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종부 자신이 종가로 돌아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는 듯하다. 간간이 문화활동을 하면서 남편의 의사에 존중하여 가족박물관을 꾸며볼 생각을 하는 등 종부의 근황이 그 같은 노력을 보여준다. 종부는 종택이 문화인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하고, 종가를 찾는 청소년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고, 가법과 옛 생활문화를 가르치겠다는 등의 여러 가지 구상을 부부가 함께 나누며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사당에 모셔져 있는 4대 신위

### 종부로서의 위상 정립에 노력하는 종부

차 종부는 종손을 잘 키우고, 예의범절과 의례를 지키고, 집안 살림을 일으키는 것이 그의 중요한 역할임을 잊거나 거부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요즘 자신이 봉화 정씨 소문중의 종부임을 실감하며 산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음을 느낀다. 몇 년 전부터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각종 잡지와 방송에서 종택을 찾는 발길이 잦아졌다. 거기다가 남편이 선대의 문집을 국역하여 간행하게 되고, 경기도청에서는 고택을 전통가옥으로 지정하고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찾아오고 하다보니까 문중 내의 위상을 높이고 확고히 다지는데 단단히 한몫을 해주었다.

문중 성원들도 차 종부를 드러내놓고 칭찬한다. 일찍 혼자되신 시어머님을 극진하게 모

시고 종부 노릇을 잘 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종손이 될 자식들을 당당한 사회인으로 잘 길러낸 일을 드러내놓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은 그녀에 대한 문중어른의 평가이다.

“우리 큰 올케는 인물도 좋을 뿐 아니라 인품으로 자녀들을 잘 키운 것만으로도 그의 소임을 훌륭히 한 셈입니다. 새댁시절부터 혼자서 애들 업고 걸리고 머리에 이고 서울과 평택을 오가면서 그 많은 일들을 혼자 해야 했으니, 몸과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내가 도와준다고 해봤자 남편이 해외출장을 나가게 되면 혼자서 제사를 모셔야 하는데, 그 많은 일들을 혼자 해내면서도 내색 한번 하지 않았어요.”<sup>2)</sup>

요즘 차 종부는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도 있다고 한다. 간혹 남편을 찾는 성공한 친우들이나 정치인이나 종친이 주선하는 모임에 참석하면 반갑게 맞이하고 잘 대해주어서 그동안 내조한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며느리를 맞이할 때는 며느리의 부모님(사돈어른)을 만났을 때 만며느리 자리가 요즘은 힘들다고들 하는데, 나는 그렇게 힘든지 모르고 살았다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귀히 받들 테니까 걱정 마시고 크게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키운 따님을 우리 집안에 보내주셔서 고맙다는 생각과 그런 뜻으로 인사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달리 할 말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종부는 경제력이 뒷받침되고 종가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만 문중에 더 당당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제든 경제력과 사회적 위치가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큰 아들 부부가 함께 종택을 지키며 살아주기를 희망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큰 집안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

앞으로 그녀는 종부로서의 삶과 더불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종부의 역할을 통해 문중의 인정, 사회적 인정을 얻었다면, 이제 자신의 능력을 통한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 그러나 사회적 인정보다도 차 종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노후에 돌이 남겨질 시간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두 자녀들이 가족을 꾸려 떠나면 달랑 둘만이 남

---

2) 손윗시누이의 얘기이다.

겨진다. 그러한 노후의 시간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시간을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만듦으로써 자기 인생이 외롭지 않고 아름답게 마무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세월은 빠르고 허망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애들이 정말 잘 커주고 잘 해주어서 너무 고마워요. 살아온 세월은 자식을 위해 살았지만, 남은 시간은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노닥거리거나 사우나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산행<sup>3)</sup>을 통해 자기성찰을 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내 남은 시간들을 종가를 잘 가꾸어 놓고 싶어요. 노후에는 시간되는 대로 고택 주변을 잘 단장하고 꾸며서 선조들의 손때 묻은 물건이나 생활도구들을 정리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싶어요. 둘째아들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결혼하면 분가를 하게 될 것이고, 딸도 시집가고 나면 더 많은 시간을 나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게 될 테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물을 잘 정리 정돈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 II. 차정숙 종부의 생애사 연표

- 1941년 전북 군산시 죽성동 22번지에서 1남 5녀 중 3녀로 출생
- 1948년 중앙국민학교 입학
- 1950년 옥구 염전으로 피난
- 1951년 피난을 나섰으나 배를 못 타 가지 못했는데 그때 출발한 배가 침몰하여 모두 사망함
- 1954년 중학교 입학
- 1957년 서울에서 고등학교 입학. 오빠 동생과 자취 생활함
- 1960년 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직을 하였다. 밀가루 배급과 쌀을 배급받음
- 1962년 한양대학교 근무시절 남편을 처음 만남

3) 사찰에 다니는 것을 말한다.

- 1968년 남편 정호신과 약혼 및 결혼
- 1969년 행당동에서 첫 아들 용욱 출생
- 1970년 미아리로 집을 사 가지고 이사
- 1971년 미아동에서 둘째 아들 용호 출생
- 1973년 미아동에서 외동딸 영선 출생
- 1976년 상장사 및 이불장사를 시작
- 1978년 시아버지 돌아가심
- 1985년 강북구 수유동으로 이사
- 1990년 시어머님 미수 잔치
- 1992년 큰아들 결혼
- 1993년 시어머님 팔순 잔치
- 1999년 첫손주 출생
- 2000년 시어머님 치매 시작
- 2001년 가족동반 회갑여행
- 2003년 보문동에 주택 신축

### Ⅲ. 차정숙 종부의 구술생애사

#### 군산에서의 유년시절(1941~1953년)

차정숙 종부는 1941년 1월 27일에 전북 군산시 죽성동 22번지에서 연안 차씨의 4남 3녀 중 두 번째 아들인 육남(六南)과 진주 강씨 강옥례(姜玉禮) 여사 사이에서 1남 5녀 중 셋째딸로 태어났다.

“첫째가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아들 하나를 더 낳기 위해서 계속해서 낳다 보니까 딸이 다섯이나 되었던 것이지요. 나는 셋째딸로 태어나 군산에서 별 탈 없이 자라다가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다섯 살 때에 8·15해방을 맞이하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던 해인 1948년에 중앙국민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년 후인 1950년에 6·25가 발발하여 집안 식구들이 모두 피난을 떠나서 옥구에 있는 염전마을로 가서 피난살이를 하다가 서울이 수복된 후에야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뒤 1·4후퇴 때에는 피난을 가기 위해서 다시 짐들을 꾸려가지고 부딪가로 나갔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남은 배 한 척에 모두 다 타려고 아우성이었다. 그러다보니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내고 먼저 배에 오르려고 하다 보니,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다 보니 어느 샌가 만선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을 배에 태울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식구가 모두 함께 배를 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인민군이 더 이상 안 내려온다는 소문도 있고 해서 피난을 단념하고 그냥 집에 눌러앉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큰 다행이었어요. 우리 식구가 타려고 했던 그 배는 얼마쯤 바다로 나갔다가 암초에 부딪치는 바람에 그만 배가 침몰해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다고 해요. 그러고는 북한 인민군도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서 집에 남아있던 우리 식구들은 모두 무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식구가 모두 그 배에 탔더라면 지금이 세상에 없는 거죠.”

### 꿈 많던 중·고등학교 시절(1954~1960년)

1954년에 봄에 다니던 중앙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군산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중학교를 다니면서 보다 나은 글쓰기와 한문을 터득했으며, 특히 예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다. 아버지는 무지를 깨우치고, 남자의 세계에 예속되지 않고 집안을 이끌어 나갈 능력을 갖추려면 여자도 ‘적당한’ 교육이 필요한 시대라는 인식을 하시고 계셨던지 아무런 말쑥없이 상급학교에 보내주셨다.

“당시에는 아주 어렵던 시절이라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국민학교를 마치면 살림을 배우던지 돈벌이에 나서던 시절이었지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시다 보니, 우리 집에서는 제사도 없고, 엄연히 큰댁이 있었으나 아버지가 무신론자로 자처하셨던 터라서인지 제사에는 그다지 관심과 정성을 드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시면 조반을 드시기 전에 꼭 동서남북에 차례로 기도를 드리시는데, 자식들의 이름을 차례로 거명하시면서 그 날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저녁에 무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시는 등의

여러 가지 염원을 담은 기원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해요. 아버지는 이러한 기원을 평생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셨어요. 참 보기 좋았어요. 하지만 난 한때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었어요. 아마도 그때가 내 사춘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내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가족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을 담아 기원하시는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기르다 보니, 오히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으나, 지금은 그러한 아버지의 다정한 음성과 따뜻한 웃음을 뵈올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때로는 그리울 때가 있어요.

어디 그리운 것이 그뿐이겠습니까마는 고향 군산에서 중학교에 다니면서 애들하고 시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본 기억이 조금 남아있는데, 해망동에는 일제시대 조선 최대의 일본인 농장인 구마모토 농장<sup>4)</sup>이라든가 일본놈들이 세운 동국사라는 절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아서인지 지금도 일본사람들의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 어릴 적에는 여러 번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 자라서는 별로 가본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엔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곳이 그냥 남아있더라구요. 하지만 어린 시절에 봤던 시내 모습이 거의 다 사라지고 마치 딴 동네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반 애들하고 무슨 할 이야기가 그리 많았던지 은적사라는 고찰을 비롯해서 시내를 돌면서 재잘거리던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네요.

중학교에 다니면서 이따금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하면서 조금씩 부엌살림을 배워 나가게 되었지요. 우리 어머님의 음식솜씨는 유난히 좋아서 모두들 칭찬하였던 터라서 그런지 나는 별로 특별하게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지는 않았어도 모두들 내가 만든 음식이 그다지 맛이 없다고는 하지 않더라구요. 물론 어깨너머로 어머니께서 음식 마련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가사시간에 요리에 대한 수업을 몇 번인가 받기는 했던 것 같으나, 정식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법을 배운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 왕십리에 정착하여 연애와 결혼까지(1962~1968년)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오빠와 여동생하고 셋이서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어요. 처음 서울에 와서 자리를 잡은 곳이 성동구 왕십리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아래쪽에는 한옥들이 조금 있었고, 그 뒤쪽에는 달동네였는데, 그쪽에서 자취방을 얻어서 세 남매가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때 밥이며 빨래는 내 몫이었어요. 이따금 어머니가 군산에서 올라와 밀

4) 간척지. 일명 간사지(干瀉地)를 말한다.

반찬 등을 해주시기는 했어도 나머지는 모두 내가 해야 했어요. 덕분에 잘못하던 음식도 많이 늘었지만….”

어느덧 자취생활이 이골 날 정도가 되었다 싶었는데, 여고 졸업반이 되었다. 학급분위기는 인문계라서인지 그 분위기가 조금씩 삭막해져 갔다. 동급생들 중에서 많은 애들이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개중에 몇몇은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종부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다가 이내 동생들과 부모님 생각을 하면 언제 그런 생각을 했느냐할 정도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종부는 여고를 졸업하고 나서 한양대학교에 교직원으로 취직이 되어서 직장인으로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대학교에 직장인이 되어 나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지금의 남편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때 내 나이가 스물두 살이었는데, 남편 나이도 나와 동갑이었어요. 남편이 나를 자꾸 꼬드겨 가지고 우리는 이후 자주 만났어요. 그렇게 설레고 즐겁던 꿈같은 시간이 2년쯤 흘러간 뒤에 군산에 계시는 친정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남편은 군대에 가게 되었으며, 3년이 지나서 제대하고 다시 학교에 복학한 뒤에야 평택에 사시는 시댁의 부모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좋다 나쁘다 하는 등의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가서 남편이 학업을 마치고 졸업을 하는 시점이 되었는데도 결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게 되자 나는 조금씩 불안한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어머님은 괜찮아하셨는데, 시아버님은 그때 당시엔 내가 맘에 안들어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년여가 지나도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던 것을 늦게서야 알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반대하고 계셨던 거죠. 반대하신 이유를 말하자면



한양대학교에 근무하던 시절



서울 세운상가에 있는 예식장에서의 결혼식(1968년)



폐백 드리기 전 모습

내가 신랑하고 동갑내기니까 그때는 혼기가 지난 때니까 나이도 많고, 키도 작고 체격이 약해서 아이나 제대로 생산할지 모르겠다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더구나 시아버님은 종부가 될 만며느리상을 그 어른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계셨던 분이어서 더욱 내가 마음에 차지 않으셨던 모양이여요. 그러니 시골에서는 맞선을 보라고 수없이 내려오라고 해도 안 내려가고 하니까 밥상이 얹어지는 불상사도 있었을 정도였대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막내 작은아버님께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시 작은 아버님께서 한번 와보신 다음에는 어떤 일로 자연스럽게 형님을 만나게 된 자리에서 우리 시아버님께 '내가 보니까 괜찮은 아가씨' 라고 하시면서 비록 키는 작지만 속이 깊고 마음 씩씩이가 만며느리감으로서는 그만하면 되었다고 설득하시는 바람에 시아버님의 강경한 반대가 조금 누그러지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내가 당시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가 보니까 학교 관계일로 시댁의 시작은 아버님의 자제 그러니깐 남편의 사촌 시동생의 학교 문제로 도움을 드리게 된 것이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큰 힘이 되어 주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모두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하여 어찌어찌 일이 잘 풀려서 스물여덟 살도 다 저물어가는 11월 17일 날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이 당시에 최고 길일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최고로 많은 결혼식이 벌어졌대요, 우리는 서울 세운상가

에 있던 예식장에서 신식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폐백은 시골에 내려와서 구석예복을 입고하게 되었어요. 그때 생각을 하게 되면 절로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해에 평택 본택 동네<sup>5)</sup>에서 일가 되시는 여덟 명에서 며느리를 맞게 되었는데 글썽 그 여덟 명의 신부 중에서 내가 기도 제일 작고 몸집도 작았대나 봐요. 시골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뉘집이던 간에 새 식구가 들어오면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게 마련인데, 한 해에 여덟 명이나 새 며느리들이 들어왔으니, 비교되는 이야기가 좀 많았겠어요. 나는 더구나 서울에서 10년을 넘게 살다가 시집왔으니, 동네 일가친척 분들이 여기저기서 수군수군대는 이야기들이 있었던가 봐요. 가



신혼여행지인 온양 온천에서

뜩이나 시댁 시아버님은 저를 마땅찮게 여기시고 계셨는데 말예요. 한 동네 사시니깐 그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수군대는 얘기들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이후에는 아무런 내색을 하시지 않아서 별로 수군거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수년이 지난 나중에서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시누이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시골집에서 시댁어른들께 폐백을 올리는데, 일가친척이 왜 그렇게 많은지 생전에 그렇게 많은 큰절을 해봤어야지 더구나 긴장은 되고 치마는 치렁치렁하고 폐백이 끝난 후에 긴장이 풀리니까 온몸이 파김치가 된 것 같지 뭐예요, 다음날인가 온양 온천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때서야 좀 살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처음 평택 시골 동네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거기는 아주 깡촌이었죠. 전기가 안 들어와서 밤이 되니까 초롱불을 밝혀놓았는데, 어두침침한 게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제일 큰 곤욕(고역)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시절을 보냈는지 싶어요. 처음에는 참 황당했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보다는 이 큰 살림살이를 맞게 된 나로서는 어떻게 하면 시아버님이 이 다음에 며느리 잘 들었다는 인정을 하시게 될까라는 생각이 더 크게 다

5) 평택의 은산리를 가리킨다.

가왔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주변 환경에는 별로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다만 정말로 힘이 들지는 몰라도 굶은 일이건 마른 일이건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보면 시대식구들과 친척들에게도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다지며, 초심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해나갔어요.”

### 행당동에서 시작해 미아리로 이주하기까지(1968~1971년)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 6년 가까이 왕십리 주변에서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도 그 동네가 정이 들어서인지 거기를 못 떠나고 행당동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그 때 처음 신혼살림을 시작한 집은 30만 원짜리 전셋집이었는데, 이 집이 한달도 못 되어서 경매로 처분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가서 애걸복걸해서 겨우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다시 집을 구했는데, 그 집은 이층집이었어요, 방 2칸짜리 전셋방을 얻어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차 종부는 결혼한 신혼 초의 서울생활을 단 둘이서 오붓하게 지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큰 아쉬움은 남아 있으나 원망하지 않고, 만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대신으로 받아들이고, 시골에 가서 봉제사를 받들고 어르신들 생신상을 차리고 집안의 큰일 등의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순응하며, 아이 낳고 키우면서 열심히 살고자 노력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혼살림을 시작하자마자 시동생 두 명(남편의 친동생과 사촌동생)을 건사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던 거예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특하면 수돗물도 잘 안 나와서 길어 올려야 되고, 냉장고가 있나 세탁기가 있던 시절인가? 세 장정이 벗어는 그 많은 빨래를 모두 손으로 해야 했으며, 그때는 또 연탄불을 땀으니까 연탄불까지 갈아야 하는 등 하루가 어떻게 돌아치는지 몰랐어요. 더구나 정월 명절이 지나자마자 평택 본가의 집 뒤에 있는 치성을 올리는 곳에다 정성을 올리는 일이 있어요. 1년에 두 번씩<sup>6)</sup> 좋은 날을 가려서 안주인들이 치성을 드리는 일이지요. 처음 시집은 새택이 무엇을 알겠어요. 그냥 시어른들이 시키는대로 시루떡을 해놓고 촛불을 밝히고는 절을 하시는 시어머님과 함께 정성을

6) 정월과 10월을 말한다.

올리는 일이었지요.

이렇게 집안에서 안식구들이 정성을 올리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오래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조할아버지의 아버님이신 소리당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어르신이 굉장한 학자분이셨대요. 이 어른의 함자가 보낼 치(致)자에다가 능할 능(能)자를 쓰시는 어른이신인데, 이 어른께서 우리 시골 본택의 집터를 손수 잡으시고는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이사를 하여 사셨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래도록 자녀가 생기질 않았대요. 그러니 집안에서 큰 근심거리가 생긴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아니 되겠다 싶어서였는지 그 할머님께서 정안수를 떠놓고는 열심히 정성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곳에서 치성을 올린 지 얼마쯤 지났는데 그렇게 확수고대하던 태기가 있어서 낳고 보니까 아드님이셨대나 봐요. 집안에 대가 끊기는 게 아닌가 모두들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곳에 정성을 올리게 되었고, 그러면 어려운 일이 곧잘 풀리곤 하였다고 전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대대로 큰며느리에게 이어져오면서 지금까지 그 맥이 이어오게 되었지요. 물론 지금도 변함없이 좋은 날을 가려서 나와 내 며늘아기와 같이 시골 본택에 가서 거기 사시는 시누님과 함께 정성껏 만든 떡과 촛불을 밝히고는 집안의 모든 식구들과 동기간에 무병하고 하는 일이 모두 잘되고, 온 집안이 화목하게 되기를 빌면서 소지를 올리는 등 마음속으로부터 정성을 올리지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렇게 정성을 올리고 나면 웬지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나와 내 며늘아기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러한 정성을 올리는 일이 지속할 거예요. 이러한 연례행사가 끝나고 나면 며칠 있다가 남편 생일(1월 8일)에다가 보름 명절이 돌아오지요. 예전에는 보름 명절이 되면 오곡밥에다 여러 가지 나물반찬을 만들고 떡을 해서 이웃집들과 나눠먹기도 하고, 동네에서는 남자들이 대동계를 하기도 하고 척사(웃놀이)대회를 열기도 한다든가 하고는 애들은 연날리기, 지불놀이 등을 하면서 동네가 시끌벅적대면서 집집마다 술과 음식들을 해가지고 이리 오라 저리 가자 하면서 크게들 세었잖아요. 그리고는 말일경이 되면 시할아버님의 제사를 모시는 일을 필두로 해서 음력 5월까지 무려 다섯 반상을 지내야 하며, 한식 때는 네 반상을 준비해야 하는 등 정초서부터 집안에 큰일이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제사 때가 되면 평택에 내려가 장보는 일에서부터 제기를 닦고 음식을 장만하는 일 등 그야말로 종부의 역할이 주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혼 한 지 꼭 두 달이 지난 후부터 이런 큰일들이 내 앞에 닥친 거예요. 그 첫해는 그래도 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어떻게 그 일들을 해냈는지 모르고 지났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니까 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애가 나를 떨어지질 않아서 업고 그 많은 일들을 할래니까 그 때는 좀 힘들더라고

요. 그래도 결혼해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곧바로 서울살림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는커녕 그런 표정도 내보이지 못하고 그 많은 일들을 모두 다 해내야 했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수준비는 평택장에 나가서서 모두 봐다주셨지만 나머지는 시어머님과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사날이 되면 직계자손과 동네 사시는 일가 분들 수십 명이 찾아 오셨잖아요. 동네가 커서 250여 호가 되는 큰 동네잖아요. 거의 모두가 봉화 정씨들이 사는 집성촌이다 보니까, 가깝고 먼 족 할 것 없이 찾아 오시는 거예요. 용케도 제사날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들에게는 제사가 끝나면 모두 음식을 대접해야 하고, 일이 있어서 제사에 참석치 못한 문장 댁에는 다음날 아침에 음식을 갖다드려야 했으니, 어디 일이 좀 많아요? 그런데다가 몇 어른들께는 음식을 싸서드려야지요. 뒷걸이이며 집안 청소 등의 일들이 당시에는 몸에 배지 않은 것 시집은 새댁으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 종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연애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종부가 된 것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종부노릇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고자 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늦게 결혼한 것이라서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첫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때에는 첫째라 그런지 입덧이 시작되니 왜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많았던지? 그런데 뭐 남편의 박봉으로는 살림살이에도 빠듯하여 맛있는 것을 마음대로 사먹는다는 것은 지금 세상하고는 달라서 그때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시동생이 둘씩이나 같이 살다가 보니까 더욱 그렇지요. 아무리 참는다고 해도 먹고 싶은 것은 여전히 생각나게 마련이다시피 왜 그렇게 그때는 짜장면이 먹고 싶었던지?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그 때 시동생 둘 중에서 누구라도 용돈이나 월급 타면 한 그릇 정도는 사주겠지 하는 기대도 솔직히 했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순간의 차 종부의 얼굴빛을 살피니, 지금도 그때의 일들을 생각하면 어딘지 모르게 그 안타깝던 심정이 되살아나는지 얼핏 어두운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다.

“당시에는 남편이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기계에 취직해서 다니면서 그 때 한달에 2,000원 정도인가를 집에다가 내놓아서 그걸 가지고 한달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정말로 살림만 하기에 버거운 형편이었지요. 그래서 뭘 먹고 싶은 것을 내가 맘대로 못 사먹게



참덕궁 나들이 때의 모습(1970년, 왼쪽은 남편·여동생, 오른쪽은 시어머니)

되더라구요. 더구나 친절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쪼르륵 달려가서 엄마더러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그냥 참아야지 별 수 있나요.

“1969년 11월에 첫아이를 낳았는데 난산이었어요. 당시 29살에 첫 출산을 하는 것은 그때로서는 정말 작은 나이가 아니었잖아요. 나는 산통이 시작되어서 동네 산부인과 병원을 갔더니 겁을 잔뜩 주면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잖겠어요. 그냥 겁이 덜컥 나서 집주인 전화로 신참내기 직장 생활하는 남편에게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 없이 연락해서 빨리 달려오게 만들었지요. 그리고는 남편하고 큰 병원인 동대문에 있는 이대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깐 괜찮다고 그냥 분만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고개 날땀이라서 밤에 다시 가기 무서워서 다시 국립의료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 자연분만을 해도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임신 초기부터 이 병원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입원이 안된다고 하길래 내가 웃으면서 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깐 의사가 하는 말이 웃는 걸 보니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아직 출산하려면 시간이 멀었으니, 숨이 턱 맥힐 정도로 진통이 와야 된다면서 집에 갔다가 다시 오라고 해요. 하는 수없이 버스를 타고 왕십리 집예를 왔다가 자정이 다 되어서 다시 병원에 가서 한참을 고생하던 끝에 첫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아들을 낳았어요.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남편이 시골에 연락을 하니 누구보다도 시아버님께서 제일 좋아라 하시었다고 하면서 시골 본가에서 온 집안

친인척들에게 알렸다고 해요.

첫째 아들인 용욱이가 자라면서 2층집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불편하고 위험해서였는지 시아버님을 비롯한 어른들이 집을 옮겼으면 하시는 눈치였고, 둘째도 가지게 되고 해서 미아리 133번지에 있는 집을 당시 130만원짜리 작은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과 보증금을 합해도 20여 만원이 부족하여 남편이 어떻게 은행에서 빌려서 겨우 겨우 돈을 맞출 수가 있었어요.”

### 미아리에서 수유4동으로 이주하기까지(1971~1986년)

“미아리 집으로 이사를 가서 얼마 안된 때인데, 그 때가 둘째 아이를 가진지 7개월째가? 8월말쯤인가 봐요. 시작은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서울대학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오셨는데, 우리 집에서 일주일 정도 병원을 다니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는 큰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나는 태어나서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겁도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시골에 급히 연락을 하니까 시아버님이 상경하셔서 모든 일들을 수습해서 무사히 큰일을 치루게 되었지요. 아마도 우리가 큰집이 아니었으면 저희 집으로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달 후에 둘째 용호를 낳았는데, 또 아들이었지 뭐여요. 그래서 인지 시아버지께서 날 대하시는 것이 확 달라지신 거여요. 평소에도 별로 말씀이 없으시지만 목소리도 워낙 조용조용하시기 때문에, 시아버님의 큰 목소리를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었어요. 천상 양반이셨죠. 그래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반대하신지를 몰랐던 거여요. 한번은 둘째를 낳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느라고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대문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가 나서 방문을 열고 ‘누구세요?’ 하니까 ‘나다’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아서 문을 열고 또 ‘누구세요?’ 해도 무슨 소린가가 들리기는 했는데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서 쫓아나가서 문을 확 열어제치면서 ‘누구냐구요’ 했는데, 글썽 시아버님이 떡서 계신 게 아네요? 얼마나 무안하고 죄스러운지….

손자들이 얼마나 보고 싶으셨든지 평택에서 아침 일찍 아무 연락도 없이 올라오셨던 거예요 우리 시아버님이 그러신 분이예요.

나는 비록 서울에 살았지만 작은 체구에 아들 둘을 낳고, 또 딸을 낳았잖아요. 딸아이는 등에 업고 아들은 손을 잡고 머리에는 제레용품을 이고, 서울에서 미리 내려가 봉제사를 모두 받들면서 힘들다는 내색 한번 하지 않으니까 동네 사시는 일가사람들이 처음 시집을



공주 마곡사에서 친정어머니와 함께(1975년)

때 본 첫 인상과는 달리 당신 며느리가 최고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하니까, 더욱 내가 최고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걱정해주시는 등의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만 이곳 미아리집으로 이사하여 아들 낳고 돌쯤 되니까 남편이 승진하게 되어 형편이 조금 나아지게 되었으며, 그리고 또 딸아이를 바랬는데, 다음에 낳은 세번째 아이가 영선인데 딸을 낳게 되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애를 낳고는 또 돌쯤 되니까 남편이 다시 또 승진을 하게 되었다구요. 아무튼 그 집으로 이사 온 뒤로는 좋은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이 복있는 집이라고 해서 현재 사는 수유동 집으로 이사 오면서도 그 집을 팔지 못하고 남에게 세를 주고 왔어요. 최근까지도 세를 주다가 보문동에 새로 집을 지으면서 그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우리 큰 아들 용욱이가 국민학교에 입학하던 해인 1월 25일날에 나를 처음과 달리 많이 아껴주시던 시아버님이 너무도 일찍이 별안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내가 시아버지 사랑을 받을 복이 별로 없나보다는 생각을 다했을 정도로 나를 참 많이 사랑해주셨어요.

서울에서 종사일(종친회)을 보시고 내려가시다가 갑자기 변을 당하셨기 때문에, 아버님이나 저희나 뭐 대비한 것이 전혀 없었던지라 그저 황망한 지경이었지요. 시집 온지 4년째 되던 해에 시작은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워낙 크게 놀랐는데, 그 이후 5년이 지난 뒤라서인지? 죽음에 대한 공포는 좀 덜했을지 모르나, 역시 두렵고 당황하게 되더

라구요. 그렇게 황망하게 시아버님을 고향에 있는 선산에 유택을 마련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이제는 제사 때 제수 장만하는 일까지 온전히 제몫이 되고 말았어요. 서울에서 시장을 봐 가지고 머리에 이고,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평택가는 버스를 타고서 수원 오산을 지나 송탄이나 하북리에 내려서 은산리까지 들어가려면 때로는 걸어가기도 하고 용케 차시간이 맞으면 타고 들어갔는데, 서울에서부터 장장 몇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데, 그때는 시골에 차가 그리 흔하지 않던 시절이라서 뭐 말도 못하게 힘들었지요.

그렇게 제수장만에서부터 음식 만드는 일을 온전히 하다보니까 그때부터는 제사지내는 일이 그다지 어려운 게 없었어요. 지금은 뭐 눈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아버님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자 남편은 시어머니께 예전보다 더 극진하게 봉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죽으려면 죽은 시늉까지 할 정도로 뭐든지 해라시거나 해오라시면 무조건 '네네' 였어요. 세상에 없는 효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집안에 때거리가 있는지 없는 지에는 통 관심이 없이 해다 드리고자 했어요. 그러니 견딜 수가 있어야죠. 애들은 점점 커가지 집안에 대소사는 많지 남편이 가져다주는 봉급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팔을 걷어 부치고 상(床) 장사를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주어서 그럭저럭 해나가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업종을 바꾸어서 이불을 파는 이불가게도 했어요. 그렇게 한 십여 년 이상을 장사를 해서 부족한 가게를 메꾸어 가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때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날 도와주신 분들에게 인사를 변변히 못한 것 같아요.”

#### 수유4동에서 오늘날까지(1986~현재)

남편이 벌어다 주시는 돈이 있으니까 굳이 장사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살림을 할 수 있었을텐데 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느냐는 물음에 종부는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복이 없어서 그런 건지 처음에는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시부모님께 경제적인 부분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야 했는데, 거기다가 두 시동생을 건사하게 된 데다 시아버님의 마음이 바뀌어 나를 인정해 주시게 되었는데, 그래서 도움을 주실만하니까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다보니, 의지할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지 뭐예요. 그래서 나 자신도 직접 생업현장에 뛰어들어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가르치고 집안을 운영하는데 필



남편과의 회갑여행 중 백두산에서(2001년)

요한 경제력을 확보해야만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다행히 장사도 잘되고, 남편도 세월이 지나면서 직장<sup>7)</sup>에서 경영진에까지 승진하여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비, 종가 운영에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 그냥 버텨올 수가 있었던 거죠. 제대로 격식을 차리고 큰 집의 위상을 잃지 않으려면 좀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늘 절약해서 미래를 더욱 풍요로운 삶으로 가꾸어 가기를 바란다고 잔소리를 한 적도 있어요. 남편이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온 사람이라서 자식들도 그러한 본을 보고 자라길 바랐어요.”

“내가 그때 열심히 산 덕에 보문동에 조그마한 땅을 마련해 둔 게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거기<sup>8)</sup>에 다가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여 거기서 얻어지는 세 수입으로 남편이 정년으로 인하여 수입은 없는데 품위 유지는 해야지, 남은 아들딸 여우살이<sup>9)</sup> 하는데 드는 비용도 충당하려고 해서 건축을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중부에게 바람이 있다면 요즈음은 시어머니의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서<sup>10)</sup> 늘 신경이 쓰

7) 남편은 대우중공업에 다녔다.

8) 보문동을 가리킨다.

9) 결혼을 말한다.

10) 시어머니는 현재 치매를 앓고 계신다.

인다고 말하면서 구술작업 중에도 시어머님이 계신 방쪽으로 시선을 자주 보내셨다. 시어머님의 연세는 올해 91살 되시는데,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그래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20~3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미리 보는 듯하다고 하면서 “자신 역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라고 하면서 말끝을 흐린다.

“작은아들과 딸을 결혼시켜야 하는데, 얼른 혼처가 나서지 않아서 걱정이예요. 개내들만 아니면 뭐가 걱정이 있어요.”

## 일곱 종부들이 전하는 생생한 삶의 기록

지난 2000년부터 경기도는 경기지역의 여성사 연구작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빛낸 역사적 여성인물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 작업을 비롯하여 여성인물에 대한 집중적인 재조명 심포지엄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성과가 그리 크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여성사 연구작업에 대한 경기도의 이같은 지원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이 구술자료집은 현재 경기도에 존재하는 전통종가의 종부 일곱 분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 분들이 살아온 삶의 역정을 당사자 본인의 직접적인 구술을 녹취하여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통종가가 부여하는 가치규범 속에서 일생을 살아온 종부들의 가슴속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구술작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 자료집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꿋꿋하게 살아온 일곱 종부들의 삶과 만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모쪼록 이같은 구술작업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욱 폭넓게 이루어져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같은 의미있는 작업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경기도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작업의 매단계를 꼼꼼하게 챙기고 갈무리 해주신 정숙영 과장님을 비롯한 여성정책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작업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본 협의회의 작업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04년 3월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회장 허 일 강

- 기 획 : 박명자(경기도 여성정책국장)  
정숙영(경기도 여성정책과장)  
이순희(경기도 여성활동담당)  
류덕규(경기도 여성정책과)
- 조사자 : 정해은(한국방송통신대 강사)  
소현숙(한양대 강사)  
장선미(전 순천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김지옥(경기도 문화재전문위원)  
홍현영(전 남양주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온현정(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정광순(중랑향토문화연구소 소장)
- 진 행 : 이기만(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사무국장)
- 편 집 : 박경미·이현주

## 경기도 전통종가 여성생활사

발행일 2004년 3월  
 발행인 경기도지사 손학규  
 발행처 경기도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  
 전화 : (031)249-4383  
 편 찬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편 집 (주)역사만들기